

KOREAN ARCHITECT

月刊 建築士 1992년 8월호
통권 280호(매월 15일 발행)
발행·대한건축사협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등록·1967년 3월 23일
등록번호·(서)라-28
1965년(12월31일) 제3종우편물
(나)급인가

建築士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ugust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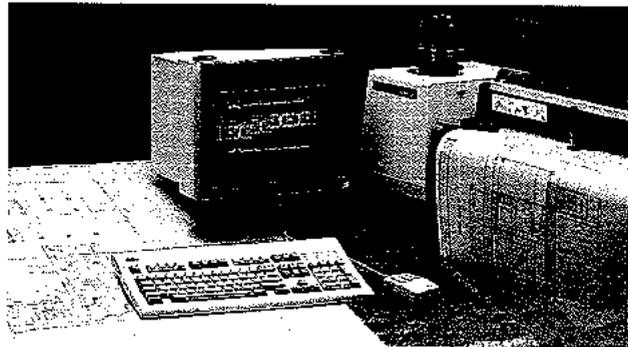


8

AUGUST

건축과 컴퓨터의 이상적인 만남과 조화를 추구합니다.

건축의 전문지식과 컴퓨터 활용기술을 갖춘 전문회사만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건축 CAD 전문회사로 출발한 (주)건캐드는 건축을 아끼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경제적인 CAD시스템과 효율적인 활용기술을 제공하여 실질적 이익과 만족을 드립니다.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건축 CAD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에 적합한 기종에서 활용까지 제반사항을 자세하고 친절히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입비용이 걱정인데...

저가격, 고성능의 신뢰성이 있는 다양한 제품을 구비하여 귀사의 실정에 맞는 CAD장비를 경제적,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합니다.

●아프터서비스가 중요하다던데...

반약 시스템이 이상이 있으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드리며 신속하고 완벽하게 A/S해 드립니다.

●CAD교육은 제대로 해주는지...

건축 CAD실무자 출신으로 구성된 CAD교육팀이 기초부터 고급활용까지 실무적이고 체계적으로 성실히 가르쳐 드립니다.

●재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최신 CAD활용기술과 CAD메이타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수시로 활용사항을 검토하여 성공적인 건축 CAD 활용을 추구합니다.

●운영요원이 필요한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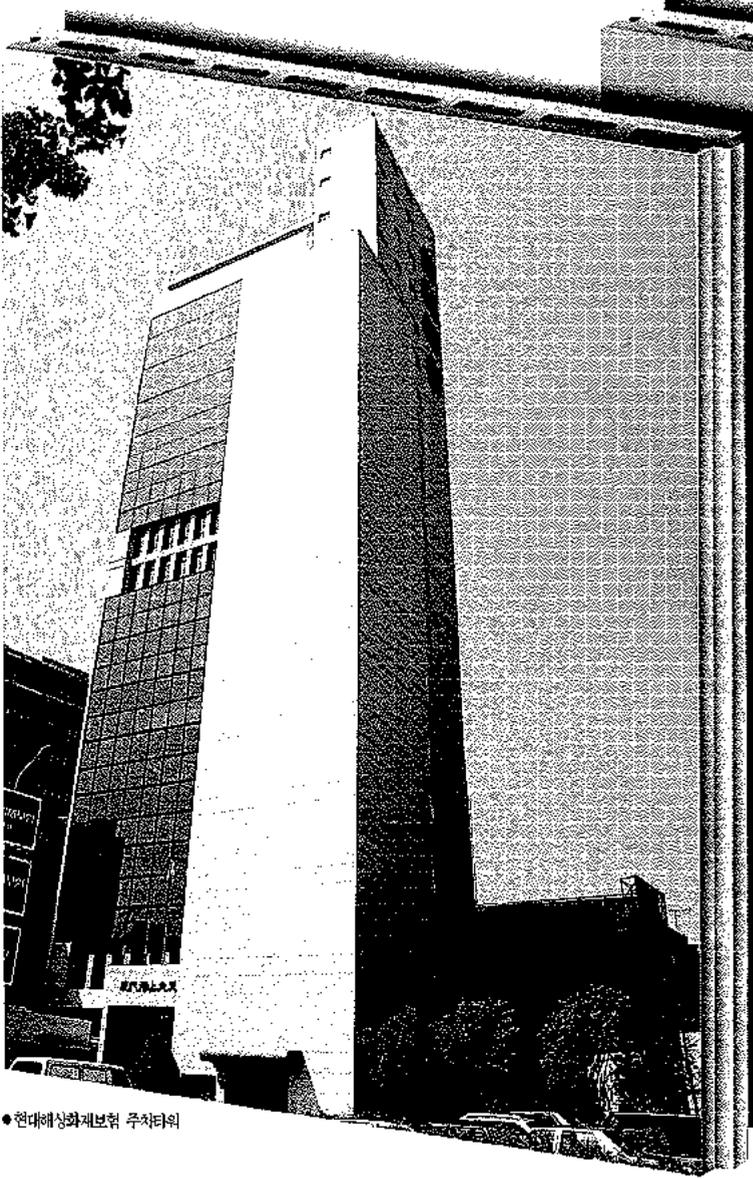
건축 CAD활용을 위한 우수한 운영요원을 추천해 드립니다.

건축 CAD 전문회사

주식회사 건캐드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42-1외동위빌딩 5층

대표전화 : 524-4400 FAX : 524-1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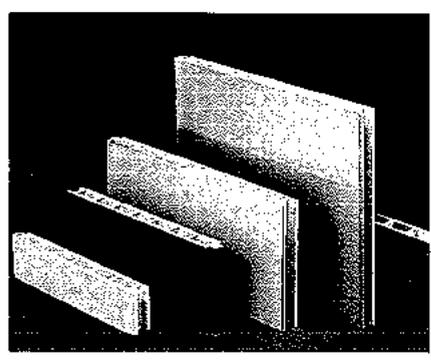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차타워



●부산백화점 주차타워

가장 이상적인 외장재 베이스판넬 - 주차타워에도 잘 어울립니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 경량성** / M² 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내구성** / 내동결 용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마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중도 / 건축물의 외벽·칸막이·계단·도포반의 차음벽

치밀한 고강도 압출판넬

벽산 베이스

평생을 책임집니다!

MUTOH 플로터를 최초 구매시,
USER등록에서 마지막 보상 판매까지,
평생을 책임집니다.



MUTOH 플로터

1,000대 판매기념 특별기획

첫째 USER등록

서동AI사업부에서 90년 3월이후 2년간 1,000대의 MUTOH PLOTTER를 판매하게된 92년 6월 부터 USER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 더욱 알찬 SERVICE를 수행하기위해 USER 등록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USER등록방법

서동AI사업부 및 대리점에서MUTOH PLOTTER, Panasonic MONITOR를 구입하신 고객이면 누구나 전화 한통화로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USER 등록 후 특전

1. 브로드 캐스터 정기발송
서동AI사업부에서 매월 제작, 발송하고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정보지인 브로드 캐스터를 발송 해 드립니다.
2. 기술정보의 정기적인 제공
국내외의 컴퓨터 주변기기 및 CAD/CAM 관련 최신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 하여 드립니다.

- BBS를 통한 ON-LINE 정보 SERVICE
- 브로드 캐스터 발송시에 우편물로 발송

3. 지역별 기능 설명회 개최(PLOTTER만 해당)
MUTOH PLOTTER의 다양한 기능을 OPERATING 미숙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기적인 기능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세부 일정은 브로드캐스터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4. iP-530 SERIES를
XP-500 SERIES로 보상판매
(PLOTTER만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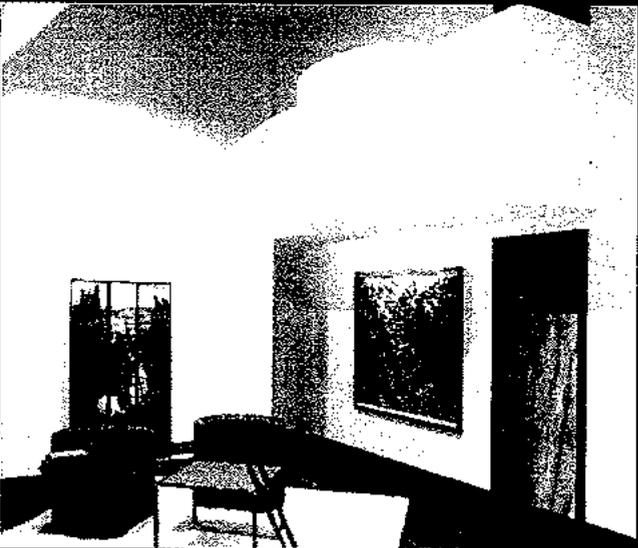
MUTOH社 iP-530 SERIES PLOTTER를
신제품 XP-500 SERIES로 교체하고자 하는USER에게는
높은가격으로 iP-530 SERIES를 구입하여드립니다.

둘째 시연장

행사기간동안 MUTOH플로터 및 Panasonic 모니터를 구입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기간: 8월15일~9월15일

ARRIS

ARRIS가 실현 합니다.



■ 작업 시간 단축

증산지구 아파트(1960세대,780세대,980세대)
설계작업시 수작업으로 3개월 걸리던
설계작업을 불과 20일 만에 끝냄.

■ 다양한 3rd PARTY 기능

상세도처리
일한상세, 실내마감상세, 바닥상세, 천정상세,
단위실가구상세, 외부시설상세등 총450개
한글 단/복선체
크기조절기능, 평장기능,
칸배우기 기능, 공간 채우기 기능등
구조일람표
철근(보, 슬라브,기둥)과 철결집함상세등

◎ 해인슈퍼하우징◎

인공 지능3S를 채택!
(Simple, Speed, Smart)

- 해인슈퍼하우징의특징
ARRIS CAD의 한국형 건축지원 프로그램
2차원 도면에서부터 완벽한 3차원 모델구현
사용자의 단순한 반복 작업을 최대한 배제
- 해인슈퍼하우징의 주요기능
중심선 작도에 의한 다양한 벽체 작도기능
창호도 자동작도기능
벽체 마감자동 작도기능
벽체 해칭 자동 작도 기능
물량 산출기능
KS 규격의 다양한 심볼 제공
다양한 계단 작도 기능
각 실체사무실에 맞는 SHEET 저장기능
다양한 모양의 창호제공 입면도 자동 작도기능
MULTI-WINDOW 기능
벽체의 각각 LINE 성문화기능
완성된 한글(약3,000자) 및
복선체 한글, 한자(약7,500자)제공
DATABASE 관리기능
작업시 필요한 각종 UTILITY 기능 제공

● ARRIS의 특징 ●

건축디자인을 위한 건축전용 CAD S/W
과거 MAIN FRAME 급 CAD의 성능을 PC에서 실현
건축 SCHEMATIC DESIGN 단계에서 실시 설계까지 일체 SEQUENCE로 지원
XENIX O/S 사용으로 MULTITASKING 가능
화면 MENU 방식으로 손쉬운 조작
ISOMETRIC, 조감도, 내외부, 투시도등 완벽한 3-D 기능과
시간별 광원지원등으로 완벽한 음영 CHECK 기능 보유(일조권)
건축 자료의 DATA BASE화로 입력에 의한 기술누수방지
2D, 3D 도면에 입,단면기호, 방위표시, 가구, 자동차, 나무등 SYMBOL 지원
16만 칼라제공 및 신속한 칼라변화
컴퓨터에 의한 대고객 프리젠테이션으로 효과의 극대화 및 신뢰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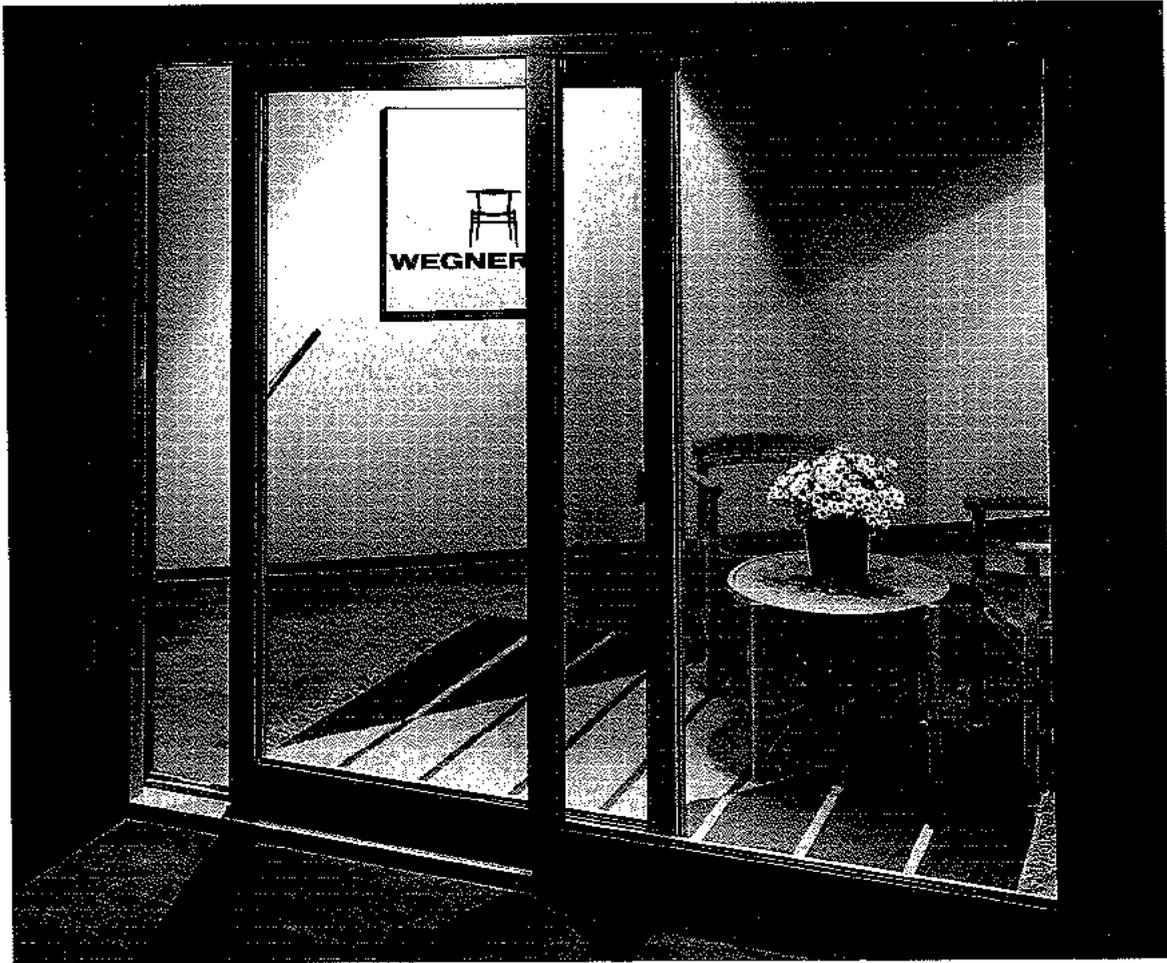
서통 시사업부 514-0386

• 대구전시장 :421-2656 • (주)빌리언시스템:325-1023 •

가
인
공
지
능
3
S
를
채
택
!

차세대 아파트 창문 - 이건 EW150

이번에 선보이는 이건 EW150은 기존 이중창이 안고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완벽히 해결한 단창으로서 품질및 기능면에서 단연 뛰어납니다.



최근 아파트나 주택의 건설현장에서는?

ALC, PC판넬, 경량판넬등 새로운 건자재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시공시의 경비절감, 공기단축, 벽체의 성능향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문의 경우에는 아직도 단열, 차음, 방범 등의 성능이 고려되지 않은 기존의 이중창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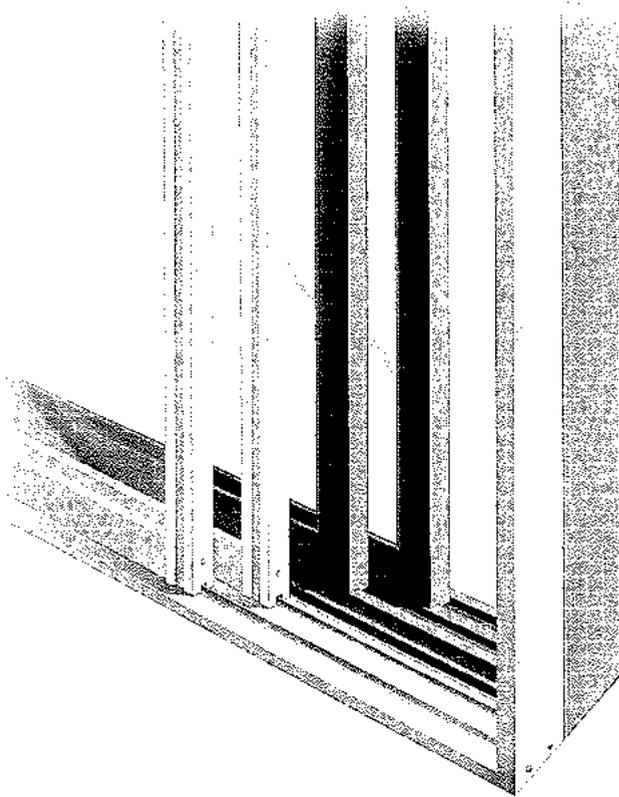
알루미늄과 목재가 분리된 기존의 이중창은?

두께가 얇아진 새로운 건자재의 규격에 전혀 맞지않는 불합리성이 발견되고 창외의 기본적인 밀폐성도 전혀 고려되지 않아 단열, 차음, 기밀, 방범효과면에서 기능적 단점들이 고질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화(563-2071, 기술영업부) 한통이면 제품안내, 자료발송 요청, 기술부직원 방문요청등 원하시는 부분을 즉시 서비스해 드리는 것은 물론, 전시장에 오시면 창호에 관한 모든 기술적인 상담과 시스템 선정, 설계서비스 그리고 견적서비스를 자세히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대리점 운영을 원하시는 분은 본사영업부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규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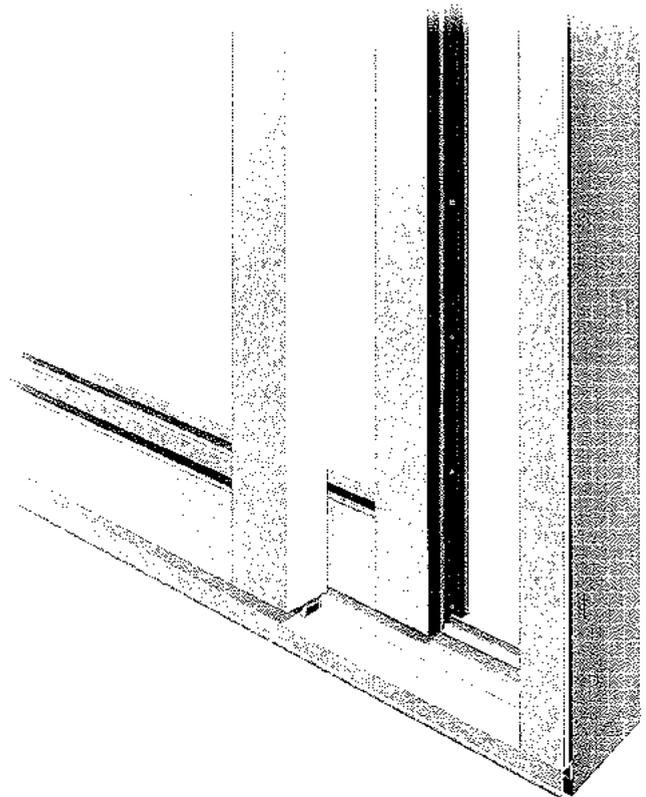
기존 창문은 ALC벽체의 175mm-200mm 규격보다 40mm-70mm정도 두껍기 때문에 공간활용에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 EW150은 두께를 132mm 규격으로 최소화하여 26mm의 방충망을 설치해도 ALC벽체의 두께보다 17mm-42mm 여유있게 설계되었습니다.



기존의 이중창

시공법이 다릅니다.

기존의 이중창은 조적공사시 목재창틀이 병행 설치되어 보양이 어려운 습식공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진 EW150은 따로 목재창틀을 설치할 필요가 없이 간편하게 설치될 수 있으며, 건식공법으로 시공되기 때문에 시공비절감은 물론 공기단축의 부수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진 EW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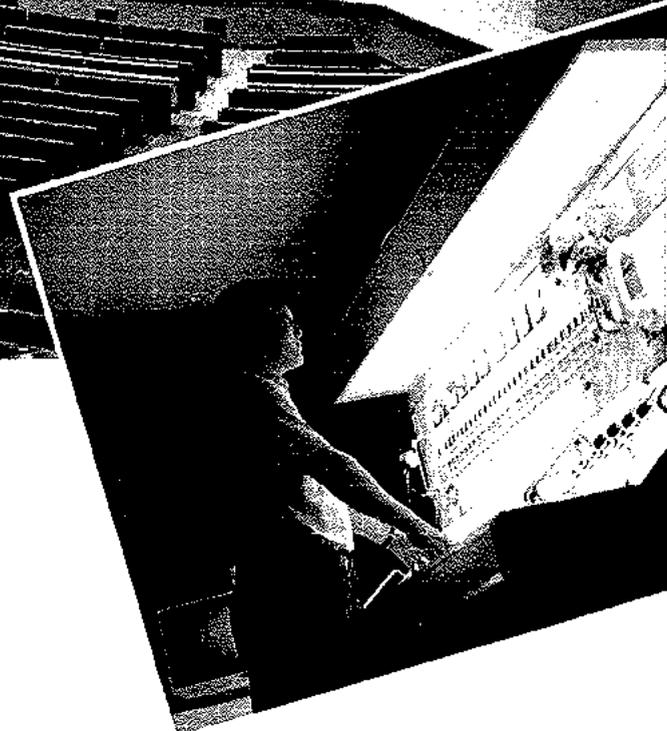
구조가 다릅니다.

이진 EW150은 실외는 기존 샷시의 자재보다 2배 두껍게 압출된 알루미늄과 실내는 15% 이하의 함수율을 지닌 목재가 하나로 결합된 단창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열성능이 우수하고 실내·외의 환경과도 잘 어울립니다.

기능이 다릅니다.

수공업적인 조립에 의해 제작된 기존창은 시공후에 목재가 변형되거나 틈새바람이 들어오고 방범면에서도 허술한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 EW150은 단열성, 기밀성, 차음성, 방범성등의 철저한 실험을 바탕으로 완벽한 밀폐성을 지녔습니다.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실적

- ◉ 세종문화회관
- ◉ 국립극장
- ◉ 웨라몬위커편
- ◉ 롯데호텔
- ◉ 부산문화예술회관
- ◉ 이화여대강당
- ◉ 유관순기념관
- ◉ 충현교회본당
- ◉ 문화예술진흥원(문예회관)
- ◉ 리틀엔젤스 전용공연장
- ◉ 서울·제주 신라호텔
- ◉ 수안보와이키키관광호텔
- ◉ 안양문화예술회관
-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 계동신타 예술극장
- ◉ 육군박물관
- ◉ 대전시민회관
- ◉ 부곡하와이 등

주요생산품목

- STAGE & STUDIO
- BASIC EQUIPMENT SYSTEMS
- THEATRE STAGE
- TELEVISION STUDIO
- OPERA HOUSE
- CONFERENCE ROOM
- SCHOOL STAGE
- DESIGN & ENGINEERING
- MANUFACTURE
- TURN-KEY PROJECTS



大雅互電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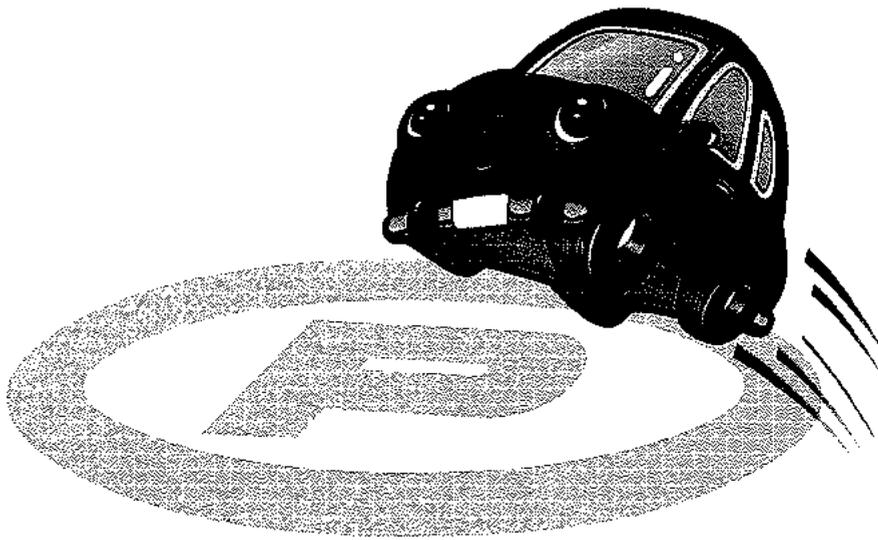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서울特別市 麻浦區 城山洞 108-1
TEL. (02) 332-4500(代表), (02) 335-4642(代表)
FAX. (02) 392-2751

工場：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車面 山209-1 松麻里 山209-1
TEL. (0341) 987-4184, (02) 632-0216

쾌속입출고

어느 회사에서 만든 주차설비인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설계의 차이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듯, 주차시스템에 따라 효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0여년전 국내에 처음 기계식 입체주차 설비를 소개한 삼성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로 고객여러분의 보다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기계식 입체주차설비 — 좁은 면적에 고수익을 생각하신다면 단연 삼성타워파킹입니다.

신속한 입출고
기존제품의 속도보다 25% 향상된 초고속형과 어느 방향에서나 출고가 가능한 턴테이블 내장형의 삼성타워파킹은 신속한 입출고를 통해 단축된 시간만큼의 이익을 고객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첨단 COMPUTER 제어시스템
삼성타워파킹전용의 Computer 제어시스템과 기계의 작동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삼성만의 특허 Panel은 자동 입출고를 통한 간편한 조작과 탁월한 운전관리를 보장합니다.

저소음, 저진동 특수감속기의 사용 및 특수방진설계의 채택으로 저소음, 저진동을 실현하였습니다.

수동출고기능 삼성만의 브레이크제 장치와 핸드제인의 장착으로 경진 및 기계적 고장시에도 인력에 의한 차량출고가 가능합니다.

완벽 A/S 실현 최고기술진의 완벽 A/S는 언제 어디서나 고객 여러분의 긴급한 요구를 만족시켜 드립니다.

다기종 축적된 기술의 크기만큼 선택의 폭도 다양한 삼성타워파킹은 구매자의 예산과 입지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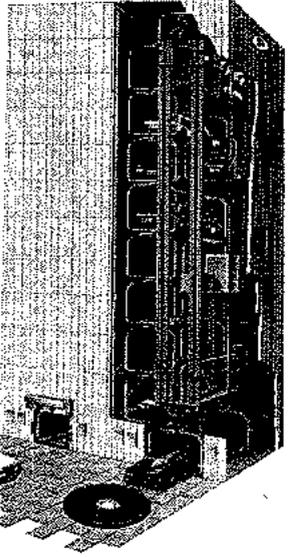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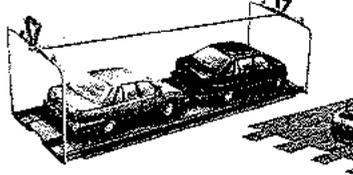
대형차에 차량 실을 수 있는 케이지(Cage)를 매달아 순환이동시키면서 입출고하는 방식.

- 초고속형 : 출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턴테이블 내장형 : 케이지 자체가 회전하여 전후좌우로 입출고 가능
- 이중탑재형 : 퍼렛트 하나에 두대 주차

엘리베이터에 차량 실고 오르내리면서 좌우 주차구역으로 차량 입출고하는 시스템 (횡식, 종식)

지하 다층 순환방식 : 다층으로된 지하주차 공간에 상하수평으로 순환이동시키며 주차시키는 방식

조립식 입체평면주차방식 : 경량 철골 조립식 주차장



TOWER PARKING
삼성중공업
기계사업본부



INSU GLASS WOOL PANEL

**인슈그라스울패널 —
더욱 우수한 1급불연패널입니다!**

■ 인슈그라스울패널이란?

INSU GLASS WOOL PANEL은 내부단열재를 1급 불연재인 유리섬유를 사용함으로써 단열효과가 우수한 물론 화재시 불에 타지않는 불연성이고 유독기스가 발생하지 않아 화재의 위험을 극소화하며, 특히 유리섬유의 입자들이 음의 진동을 완충시켜주므로, 차음 및 방음, 흡음성능이 더욱 우수한 획기적인 소재입니다.

■ 인슈그라스울패널의 3대 우수성

1. 우수한 불연성

인슈그라스울패널은 내부단열재가 KSF2271, BS476 Part4의 관련 규격에 의하여 1급 불연재료 인정받은 무기질 단열재인 유리섬유를 사용하므로 화재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불연패널이며 내화 구조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우수한 견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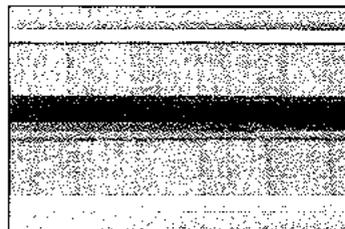
인슈그라스울패널은 내부단열재인 유리섬유의 겹을 수직으로 세워 성형한 제품이므로 기존의 섬유 겹을 수평으로 성형한 제품보다 압축강도가 10배나 뛰어나 매우 견고하고 균일한 두께유지가 가능하며 박리현상을 완전방지합니다.

3. 우수한 단열성

인슈그라스울패널은 내부단열재가 1급 불연재인 유리섬유로 되어 섬유질이 가늘고 균일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다 안전함은 물론 열전도율이 낮아 단열효과가 우수하여 건물의 유지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재료명	최고사용온도
스티로폼	85℃
P.U.R	110℃
P.I.R	180℃
페놀폼	200℃
그라스울	350℃

(단열재의 화재안전도)



(인슈그라스울패널의 단면구성)

단열재명	열 전 도 율
그라스울	0.029
스티로폼	0.0285
암 면	0.053
발포 CONC.	0.15

(단열재의 열전도율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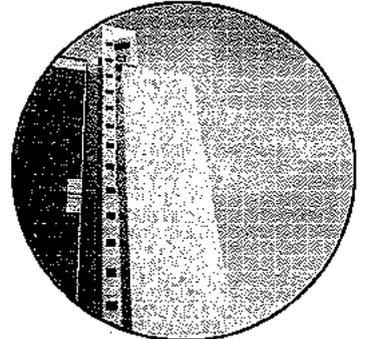


본사및공장: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도원리 39-2
TEL: (02) 745-0687, (0336) 34-8880 FAX: (0336) 32-4243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3-6 연합인슈빌딩
TEL: (02) 555-6891, FAX: (02) 553-1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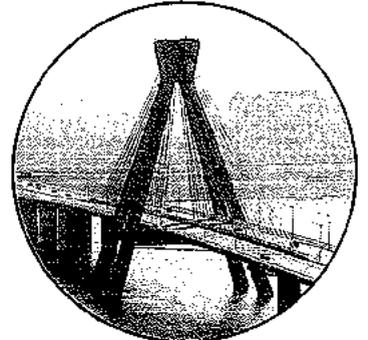
유원의 첨단기술이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 한국일보사신문 주차타워
컴퓨터 콘트롤 룸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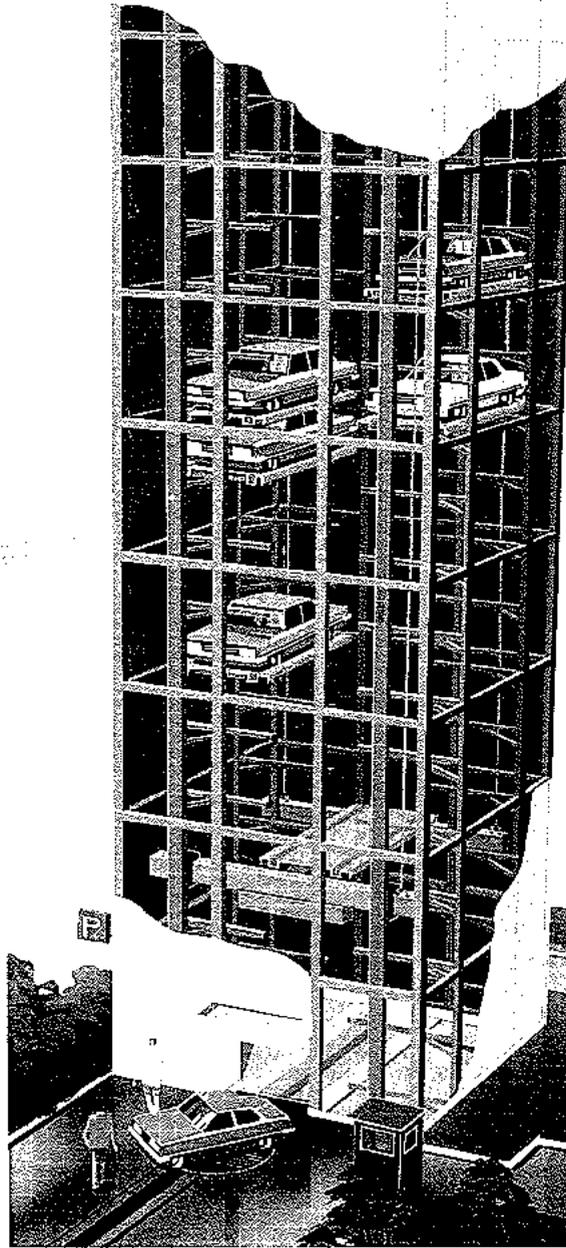


● 서울·올림픽대교

13평의 땅에 50대 주차 설비를 세운다.

올림픽대교를 건설한 유원건설이 첨단 기술로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유원은 한국일보사 신문 주차타워와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등을 완공,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지금도 서울 부산 등지에서 크고 작은 주차타워 설치공사를 수행,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원은 국내외에서 쌓은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주차설비 분야의 기획업무부터 설계, 시공, A/S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설의 특징

- 13평에 50臺 주차설비 시설가능
- 지상, 지하에 동시 운행가능
- 트윈타입으로 설치원가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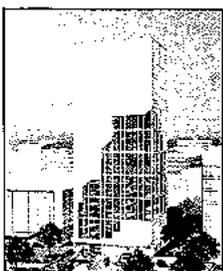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시설의 7대 장점

1. 경제성 - 저렴한 시공비, 최소의 운영관리비
2. 안전성 - 16가지 이상의 COMPUTER 안전장치
3. 신속성 - 상승속도 60m/min 이상, 1분내 입출고 처리
4. 간편성 - 차량번호만 입력, 자동으로 입출고
5. 정숙성 - 승객용 승강기에 버금가는 무소음 무진동
6. 다양성 - 대지형태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기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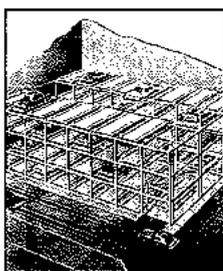
7. 독창성 -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 100% 국산화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공 및 착공사례

- 한국일보 신문 : 2기 48대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 1기 40대
- 부산 고속터미널 : 3기 120대
- 사당 쇼핑센터 : 3기 150대
- 잠실 뉴스타관광호텔 : 1기 50대
- 평창산업주차타운 : 4기 20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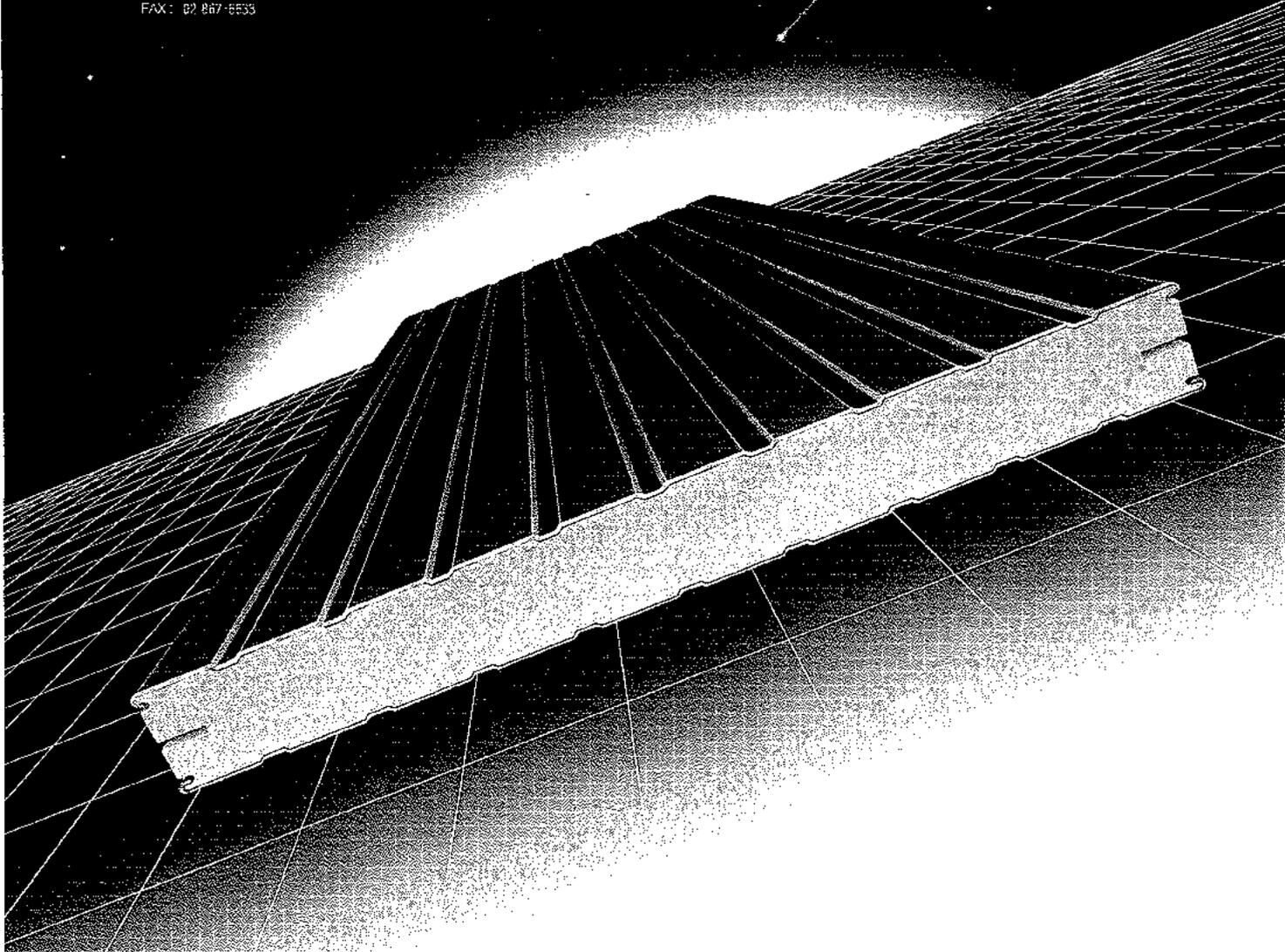
YOP-A 연립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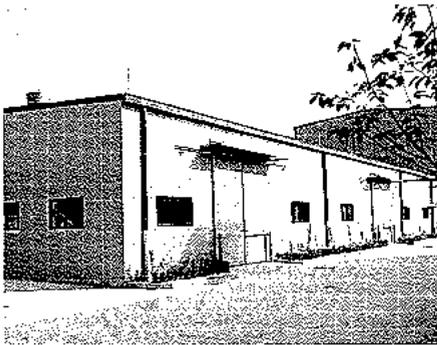
YOP-M형



상담전화 : (02) 756-9821, 9841 (02) 777-9821, 9841
FAX : (02) 754-8521
주차 플랫폼부



조립식패널의 품질은 중간단열재가 결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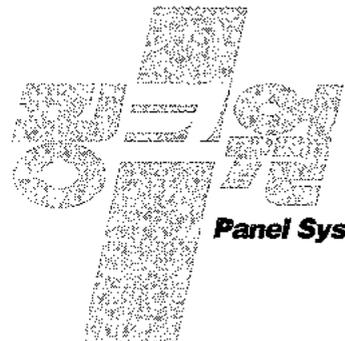


최고급 난연·방수단열재 아이소핑크가 중간단열재로 사용되는 핑크월-그 명성에 걸맞는 품질로 조립식패널의 새로운 시대를 리드합니다.

핑크월은 세계 최고의 단열재 메이커인 미국 유씨 인터스트라(UCI)사의 진공 압출발포공법으로 생산하는 최고급 단열재인 아이소핑크를 중간 단열재로 사용하여 세계적 명성의 조립식패널 메이커인 네덜란드 아이소월 인터내셔널 (ISOWALL INTERNATIONAL B.V.)사의 샌드위치 라미네이트 기술로 생산하는 고품질 조립식패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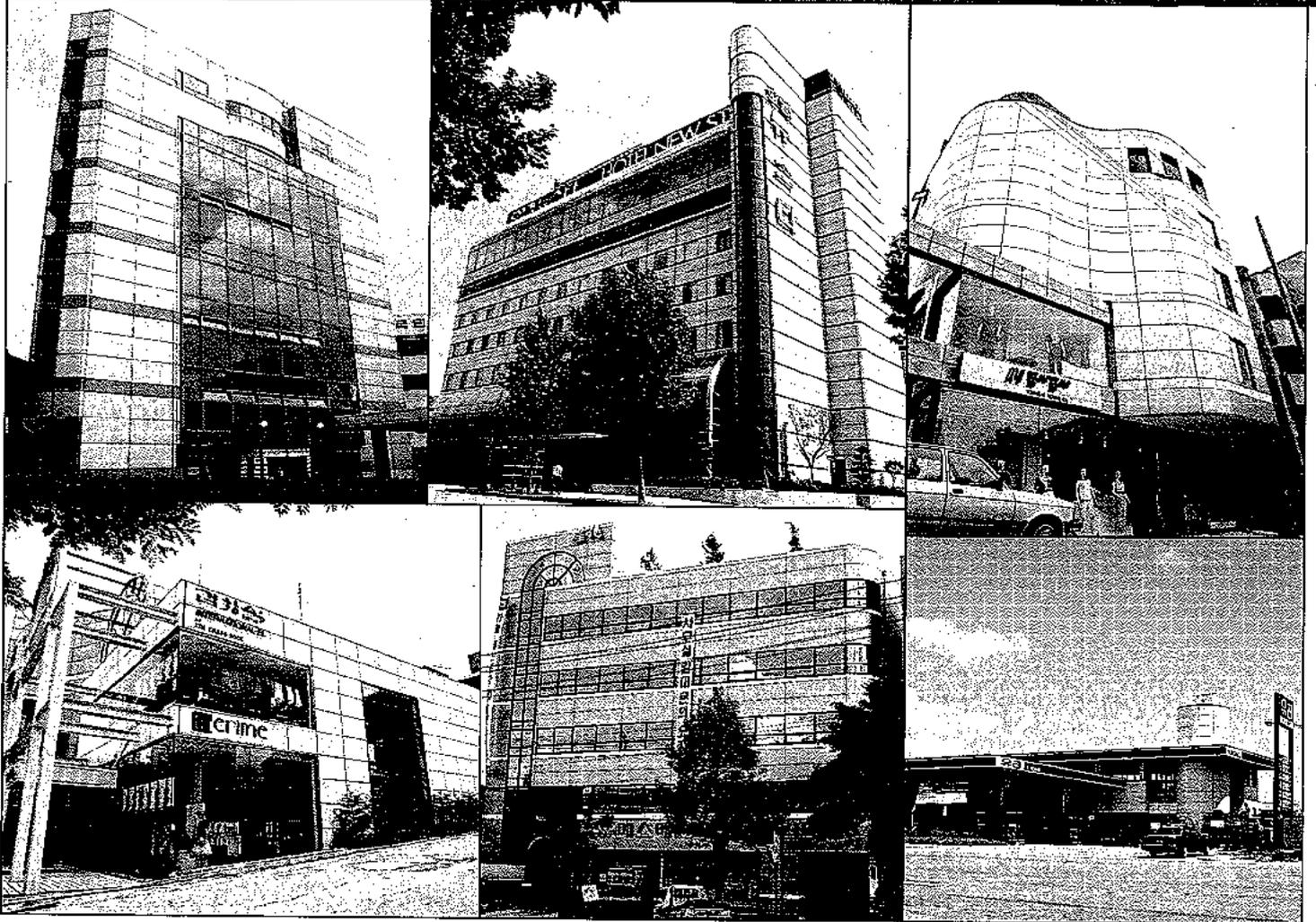
핑크월의 특성

- 핑크월은 냉·난방비용을 대폭 절감해 줍니다.
- 핑크월은 견고한 구조강도에 비해 가볍습니다.
- 핑크월은 공사기간이 짧습니다.
- 핑크월은 방수·방습·방음효과가 있습니다.
- 핑크월은 모든 면에서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Panel System

그것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흥성의 꿈입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의 창조

우리 기술로, 우리가 만든 건축 내·외장재의 혁신

아키텍스

— ARCHITECTS(아키텍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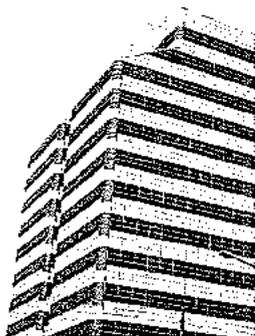
아키텍스란?

알루미늄, 아연도철판, 동철판 등 각종 금속판(0.1mm~0.5mm)을 양면으로 하고 코어부의 일정 두께를 강력한 접착력과 보강력이 있는 가열경화성 합성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혼합물로 형성하여 줌으로써 금속합판 전체의 보강은 물론 단열, 방진, 방음 및 차음의 효과를 낼 수 있고 변질이 되지 않는 특수 금속합판의 건축재입니다.



홍성판공주식회사

- 서울사무소 : 서울·강남구 대치동 1007-3 총회회관 1층 TEL. (02) 562-1264, 568-3474~6, FAX. (02) 566-0856
- 본사및 공장 :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사동리 산 78-2 TEL. (0336) 34-5119, 32-1903~4, FAX. (0336) 34-9316



국내최초, 21세기형 신건축 자재
焼結石

BIO HAPPY STONE

삼화화학은 풍요로운 건축운화를 창조하는
포항제철계열 국내최고의 요업전문회사입니다.



三華化成株式會社
SAMHWA CHEMICAL CO., LTD.

아직도 건축의 내외장 및 바닥재로 고민하십니까
건축사가 감탄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국내최초 세라믹 공법으로 생산된
소결석 "BIO-HAPPY STONE"으로 시공하십시오.

BIO-HAPPY STONE의 3가지 자부심

- 1. 다양한 색상 및 디자인**
다양한 색상 및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선택의 폭이 넓고
자연스러운 건축물의 고급화를 주도합니다.
- 2. 뛰어난 가공성**
1,200°C 이상에서 소결(燒結)한 불연제품으로 수축, 팽창이 적고 가벼우며
변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절단, 구멍 뚫기 등 가공이 편리합니다.
- 3. 대형고급 도판**
건축 내·외장 및 바닥에 시공되는 BIO-HAPPY STONE은 600×900mm×25,
600×600mm×25로 공공건물, 오피스, 호텔, 레스토랑, 갤러리, 박물관 등
어디서나 건물의 웅장함과 품격을 한층 더 세련되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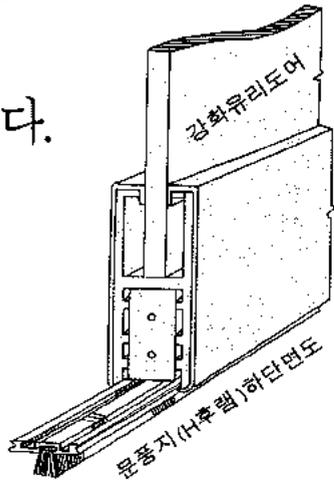
귀사께서는 어떤 건축자재를 선택할 것인가? 지금도 망설이고 있습니까?

품질보증
 품질보증 품질시험기관은
 기판인양감사소에서보유함
 한국화학시험연구소
 TEL. 634-0034

여기 강화유리도아 H후램이 선택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강화유리 도아상·하부에 후램에 틈이
없어 방풍·방음효과와 열손실을 막아줍니다.

후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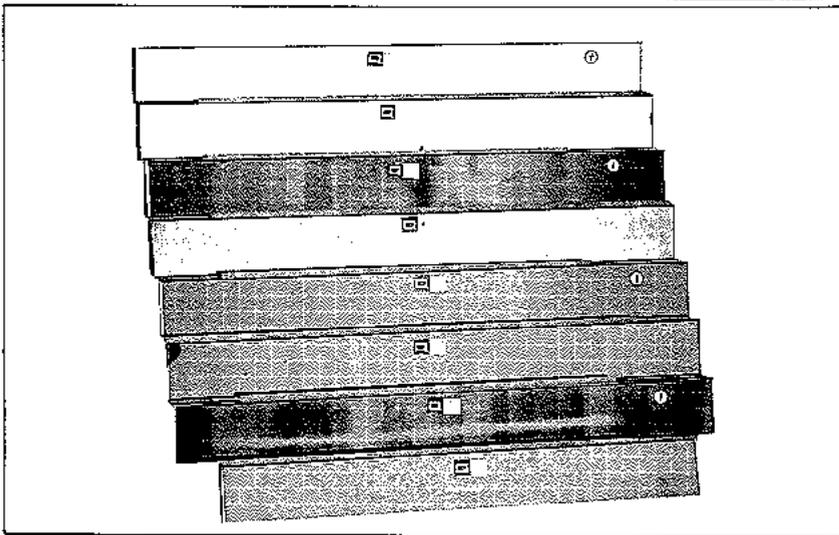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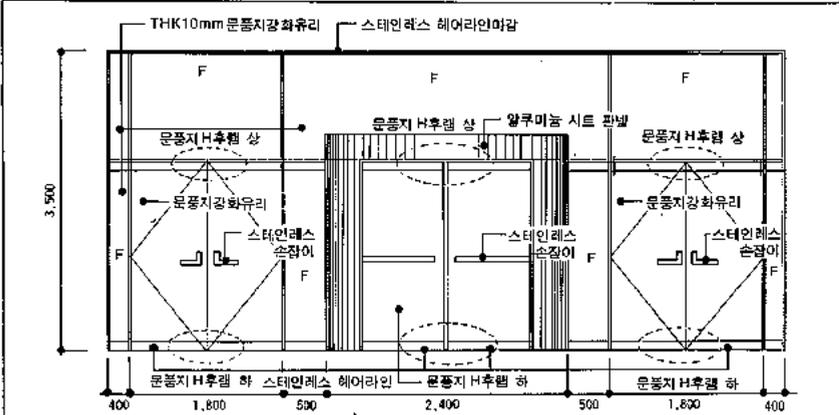


방풍설치

- 냉·온방 날차단
- 방진음
- 방수명반영구적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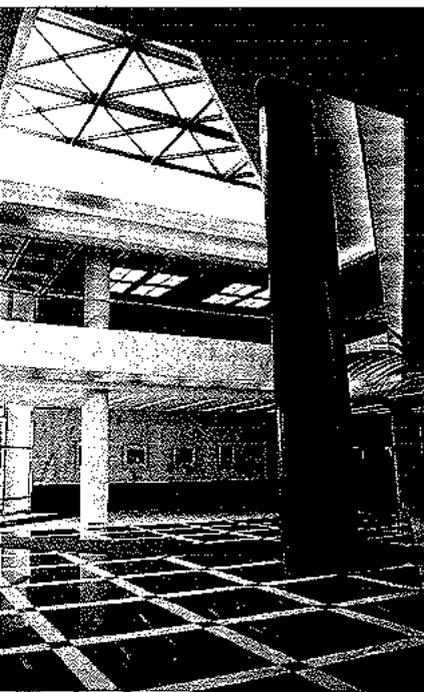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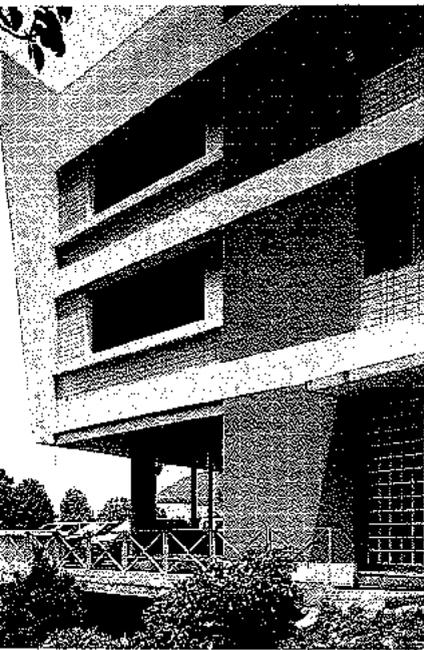
스테인레스 스틸 여닫이문 Fix



성 광 산업

본사 : 부산시 북구 삼락동 342-16
 TEL : (051) 302-1100 ~ 2
 FAX : (051) 301-4 5 7 5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5-3
 TEL : (02) 576-0 0 8 3
 (02) 577-0 0 4 1
 FAX : (02) 574-9 3 5 5



차례/1992년 8월호 통권 제280호

회원작품	영풍빌딩 / (주)간·삼중합건축사사무소 + 유영근	18
	한병원 / 金瑛燮	22
	마산 시청사 / 金昌壽 + 朴 昇 + 韓相默	26
	두산 기술원 / 李揆昌	30
	경남은행 본점 / 李相守	34
	방배동 한우리 빌라 / 宋光燮	37
	하림 그레이스 콘도미니엄 / 朴贊政	40
	새안·예·사랑 갤러리 / 安文孝	44
	YWCA 봉천동 복지관 / 趙顯君	46
스 제 치	아원빌딩 계획안 / 梁辰錫	48
계획작품	부산 해운대 빌리지 / 趙成龍	50
일하며 생각하며	건축가인가, 건축사인가 / 李光萬	52
간담회	귀순 건축인 金永成 초청 간담회	54
건축기행	「틀레도, 세비아, 바르셀로나」- ① / 崔英集	64
트 프	'92바르셀로나 올림픽의 고장을 가다	72
설계경기	현상설계 2제 - 한국토지개발공사본사사옥, 부천시청사	80
자 료	1992년 6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94
협회소식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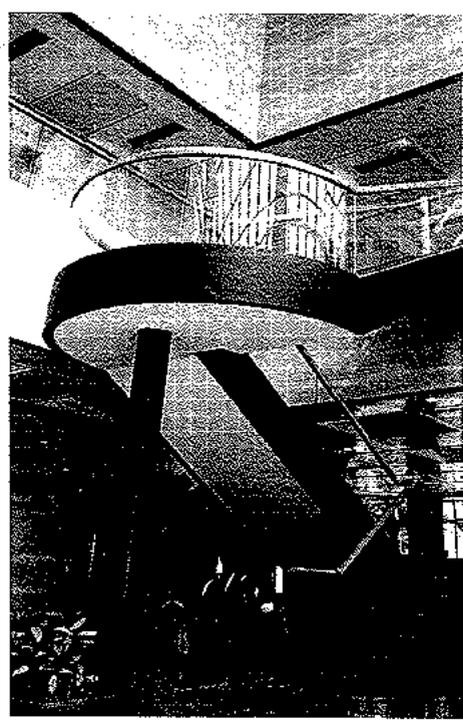


표지사진 : 두산 기술원
(설계/이규창)

發行人 : 吳雲東
 編輯企劃 : 編纂委員會
 委員長 : 李義求
 委員 : 徐千植, 李贊榮, 金文圭, 崔英集, 宋洙九
 編輯 : 出版事業部
 發行處 :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 서울 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 137-170
 電話 : 代表 (02)581-5711, 581-5712~14
 팩시밀리 : (02)586-8823
 登錄番號 : 서울 라-26(月刊)
 登錄 : 1967年 3月 23日
 U. D. C. : 69/72(054-2) : 0612(519)
 印刷人 : 李鳳秀 / 正文社

Publisher : Oh, Woon-Dong
Editor :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 Lee, Eui-Koo
Member : Suh, Chun-Sik/Rhee, Chan-Young
Kim, Moon-Kyu/Choi, Young-Jeep/Song, Soo-Koo
Assistant Editor :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 581-5712~4
FAX : (02)586-8823
Registered Number : Seoul Ra-26
Registered Date : March 1967
U. D. C. : 69172(0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WORKS	<i>Young Pung Building /</i> <i>Group - 3 Architects & Yoo, Young - Keun</i>	18
	<i>Han Psychiatric Hospital / Kim, Young - Sub</i>	22
	<i>Masan City Hall /</i> <i>Kim, Chang - Soo · Park, Seung & Han, Sang - Mook</i>	26
	<i>Doosan Technical Center / Lee, Kyu - Chang</i>	30
	<i>Kyung Nam Bank / Lee, Sang - Soo</i>	34
	<i>Pangbae - dong Hanuri Villa / Song, Kwang - Sub</i>	37
	<i>Harim Grace Condominium / Park, Chan - Jung</i>	40
	<i>Saiahn Gallery / Ahn, Moon - Hyo</i>	44
	<i>Pongchón - Dong YWCA / Cho, Hyun - Koon</i>	46
DRAWINGS	<i>A - Won Building Project / Yang, Jin - Hwang</i>	48
PROJECT	<i>Pusan Haewoondae Village / Joh, Sung - Yong</i>	50
ESSAY	<i>Who do you think we are? / Lee, Kwang - Man</i>	52
FOCUS	<i>Clatch : KIRA Invited a Submission Architect of Kim, Young - Sung</i>	54
TRAVEL		
SKETCHES	<i>Travelogue of The Spain / Choi, Young - Jip</i>	64
REPORTAGE	<i>On the Spot Coverage of the Barcelona - '92 The Olympic Locality</i>	72
COMPETITION		80
STATISTICS		94
KIRA NEWS		96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603-55, 581-5115~8 · 서대문분회 / 서대문구연희동169-25, 333-6411 · 관악분회 / 관악구신림동1422-17, 882-6744 · 도봉분회 / 도봉구수유동191-13, 903-3425 · 영등포분회 / 영등포구당산3가81, 634-2143 · 강동분회 / 강동구성내동317-4, 484-6840 · 강서분회 / 강서구화곡동1105-05, 604-7168 · 상동분회 / 상동구의동252-16, 446-5244 · 동대문분회 / 동대문구신설동101-7, 923-6313 · 용로분회 / 용로구수성동46-18, 735-0905 · 마포분회 / 마포구성산동275-1, 336-5057 · 송파분회 / 송파구송파50-12, 423-9158 · 중구분회 / 중구로2가49-11, 279-1415 · 용산분회 / 용산구인효로1가129-22, 712-7647 · 서초분회 / 서초구서초1동1623-1, 586-7707 · 은평분회 / 은평구북면동79-32, 352-6720 · 동작분회 / 동작구사당동206-6, 815-3026 · 강남분회 / 강남구논현동242-30, 511-8515 · 노원분회 / 노원구상계1동1049-79, 992-8076 · 양천분회 / 양천구신정동1027-9, 646-7172 · 중랑분회 / 중랑구연희동166-46, 923-6123 · 성북분회 / 성북구삼선5가410, 923-4401 · 구로분회 / 구로구모동86-4, 853-4084 ■ 부산직할시건축사회 / 부산시 진구 방천동 847-18, 28(051)634-4973~9 ■ 대구직할시건축사회 / 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3711-8, (053)753-8980~5 ■ 인천직할시건축사회 / 인천직할시남동구간석1동558-1, (032)437-3381~4(FAX)437-3385(한국종합빌딩204호) ■ 광주직할시건축사회 / 광주직할시북구중흥동694-10, (062)521-0025~6(FAX)528-0026 ■ 대전직할시건축사회 / 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487-1, (042)255-9350~4 ■ 경기도건축사회 / 경기도수원시매산로371124-5, (0331)47-6129~30 · 직할분회 / 경기도수원시매산로371124-5, (0331)43-6662, 7072 · 안양분회 / 안양시안양동523-5, (0343)49-2698 · 부천분회 / 부천시중구원미동88-1, (032)664-1554 · 성남분회 / 성남시수정구대평동3407, (0342)755-5445 · 과천분회 / 과천시우원읍삼양리222-206, (0175)33-3502 ■ 충청북도건축사회 / 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37187-3, (0431)56-2752, 53-7342 · 충주분회 / 충주시영동동673-1, (0441)847-3082 · 제천분회 / 제천시외림동8-8, (0443)43-6253 · 옥천분회 / 옥천군옥천읍삼양리222-206, (0175)33-3502 ■ 충청남도건축사회 / 충청남도계룡시계룡로37187-3, (0431)56-2752, 53-7342 · 홍성분회 / 홍성시중앙동536-1, (0345)80-9130 ■ 강원도건축사회 / 강원도춘천시옥천동39-5, (0661)54-2442 · 원주분회 / 원주시중앙동60-54, (0371)42-4287 · 강릉분회 / 강릉시성내동6-14, (0391)2-2262 · 속초분회 / 속초시동명동466-63, (0392)33-5081 · 삼척분회 / 삼척시남양동55-43, (0397)2-3106 · 영월분회 / 영월군영월읍영월1리960-12, (0362)44-6029, 46-1664 · 경주분회 / 경주시동천동771-4, (0561)3-3638 · 구미분회 / 구미시인평동964-264, (0540)32-6351 52-7547 · 안동분회 / 안동시서부동157-4, (0571)54-5703 · 김천분회 / 김천시평화동280-1, (0547)2-2541 · 영주분회 / 영주시유천2동642-52, (0572)33-7504 · 김천분회 / 김천시중앙동280-3, (0581)2-2706, 52-2286 · 상주분회 / 상주시남성동36-23, (0682)2-4306, 32-3232 ■ 경상남도건축사회 / 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713-47, (0551)46-4530~1 · 울산분회 / 울산시남구신정동585-6, (0522)74-8836 · 진주분회 / 진주시본성동7-20, (0591)41-6403 · 창원분회 / 창원시서호동163-18, (0557)44-3232 · 김해분회 / 김해시부원동611-1, (0525)35-5692 · 밀양분회 / 밀양시내일동302-1, (0527)355-4848 · 거창분회 / 거창군거창읍중앙리274-3, (0598)43-6090 · 양산분회 / 양산군양산읍남동167-19, (0523)84-3050 · 거제분회 / 거제군신현읍고현리139-2, (0558)635-3432 · 삼천포분회 / 삼천포시공동91-6, (0593)33-9779 ■ 제주도건축사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2동1289-8, (064)22-3243, 52-3248 · 서귀포분회 / 서귀포시서귀동299-6, (064)62-2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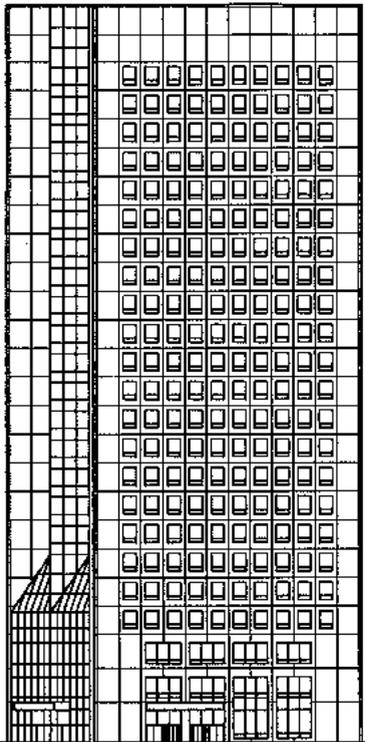
영풍빌딩

Young Pung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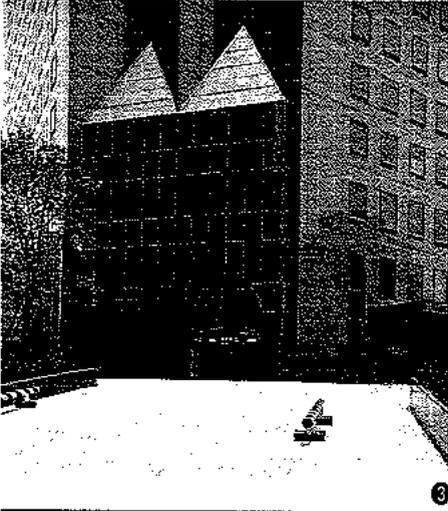
(주) 간삼종합건축+유영근
 Designed by Group - 3
 Architects &
 Yoo, Young - Keun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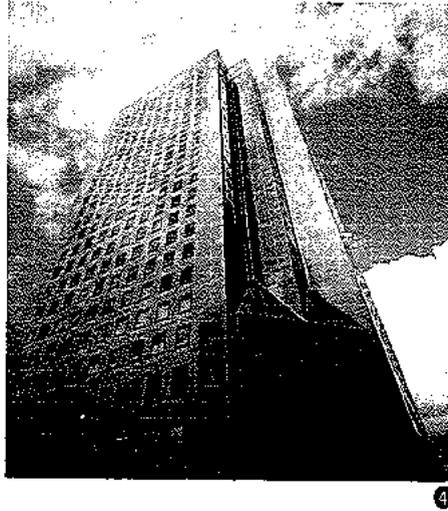
대지위치 /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번지의 40필지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제1종미관지구,
 방화,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 6,564.7m²
 건축면적 / 2,441.91m²
 연면적 / 73,677.09m²
 최고높이 / 100.05m²
 조경면적 / 1,645.0m²
 건폐율 / 37.2%
 용적률 / 699.1%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 지하 5층, 지상 2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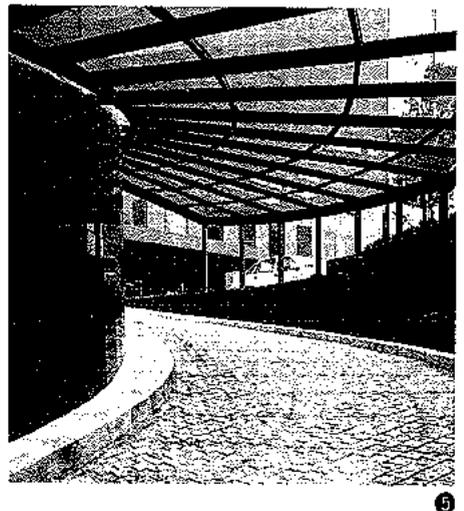
- ① 정면도
- ② 전경
- ③ 주출입구 상세
- ④ 올라다 본 외벽상세
- ⑤ 지하주차장 진입로
- ⑥ 1층로비 엘리베이터 진입구
- ⑦ 1층 엘리베이터 홀
- ⑧ 사무실 내부
- ⑨ 매장
- ⑩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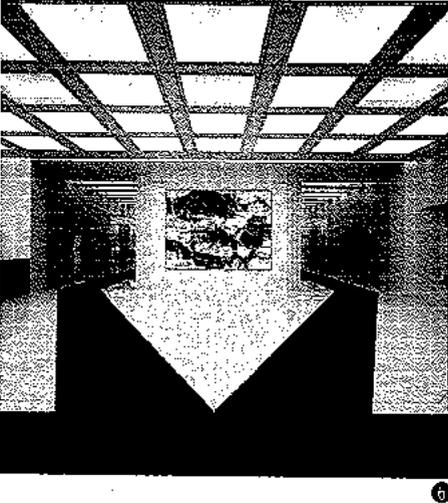
③



④



⑤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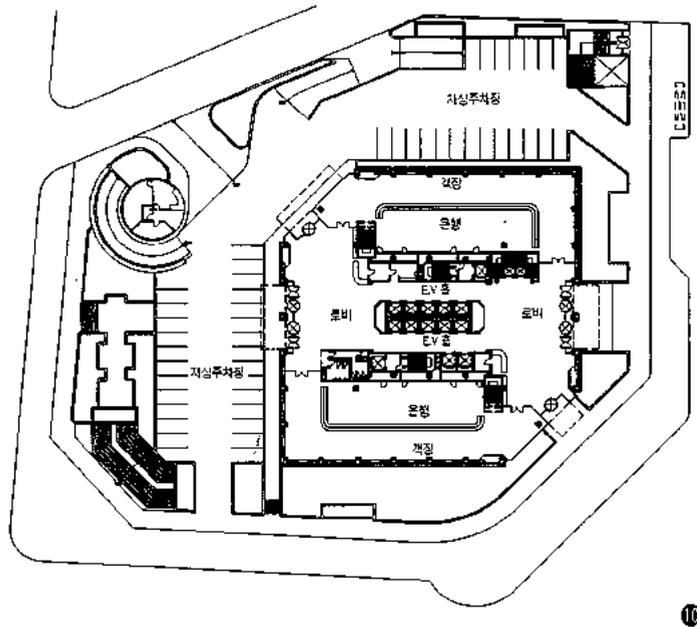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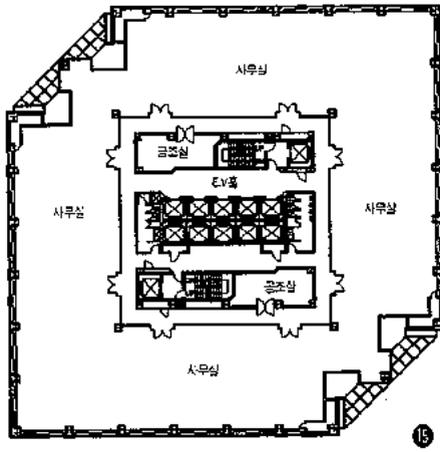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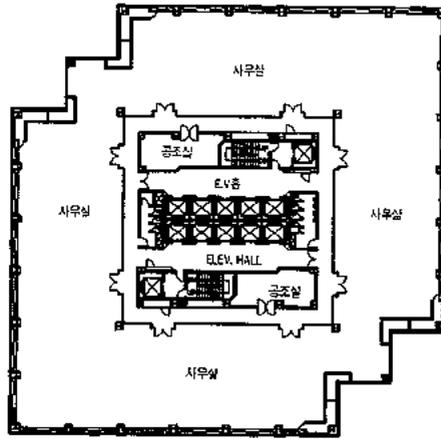
⑨



⑩



1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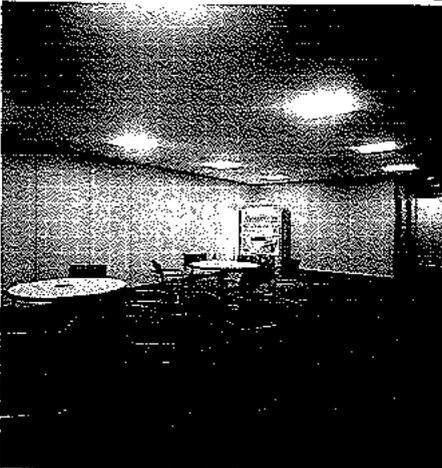
- 15 기준층 평면도(5, 6층)
- 16 기준층 평면도(7~23층)
- 17 현관 로비
- 18 주출입구 상세
- 19 휴게실 내부
- 20 지하층 연결부
- 21 은행 내부



17



18



19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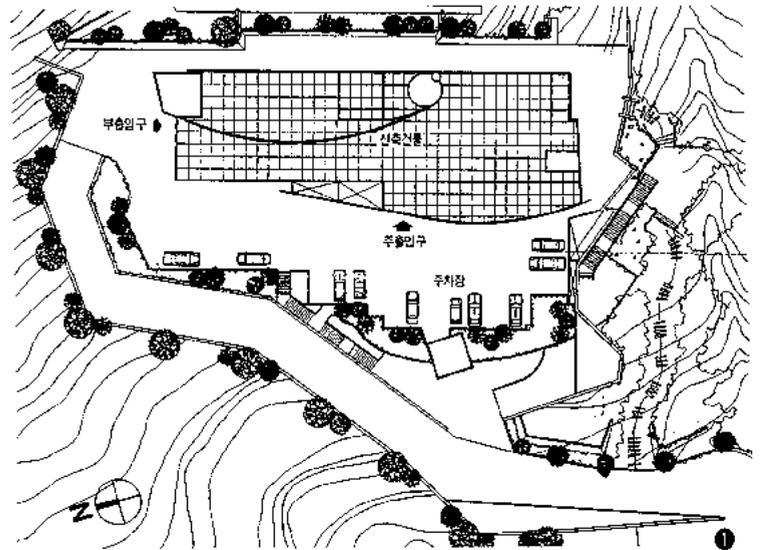


21

한병원

Han Psychiatric Hospital

金瑛燮 /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
Designed by Kim, Young - Sub



한 병원은 부산시 북구 만덕동 금정산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한 병원이 터 잡은 곳은 금강공원 입구의 해발 약 220m의 고지대로서 주변 경관이 매우 빼어나며 김해공항이나 마산 방향에서 진입하는 남해고속도로상에서 연속하여 보여지는 Visual Targer으로 인지되는 곳이다.

병원 바로 아래에는 동래와 해운대로 연결되는 도심 진입 터널이 있어 이곳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심든 좋은 Close - Up된 병원의 파사드를 보고 지나가게 된다.

정신신경과 전문시설인 한 병원은 처음에 단순히 파사드의 개설택안으로 의뢰되었으나 다음 몇가지 이유로 그 깊숙한 곳까지 끌려들어가게 되었다.

그 하나는 불확실하게 추정된 지질과는 달리

실제 지반이 경암으로 확인되어 지하층에 대한 전반적인 재설계가 요구되었는데, 이 문제는 대지가 경사지에 위치할 경우 상식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즉 지하층을 경사지 전면으로 끌어내는 계단식 처리로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많은 간난을 무릎쓰고 정신 질환자 치료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사유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바영리 의료법인으로 이 계획을 추진해온 건축주 한기수 박사의 고결한 정신에 대한 경의였는데, 재설계가 완료될 무렵 설립자의 사망으로 이 일의 성패에 관한 책임이 상당한 부담으로 안겨지게 되어 프로젝트 계속 수행 여부가 큰 관건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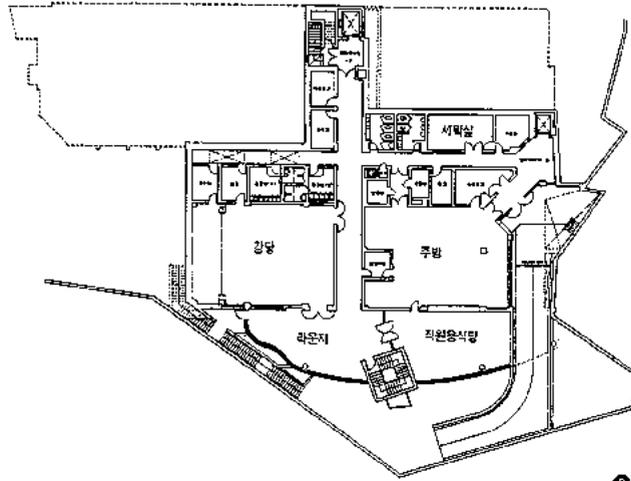
결국 설립자와 심 수년동안 뜻을 같이 해온 장녀(현 이사장)와 불리한 여타의 조건을 같이 극

복해 나가면서 고인의 유지를 계승하여 새로운 시설건립을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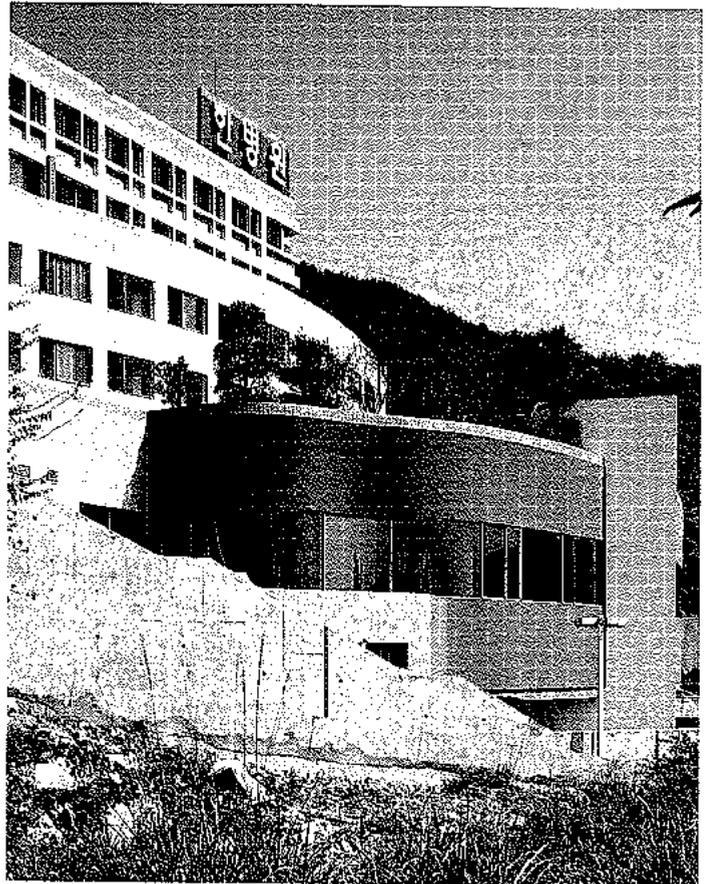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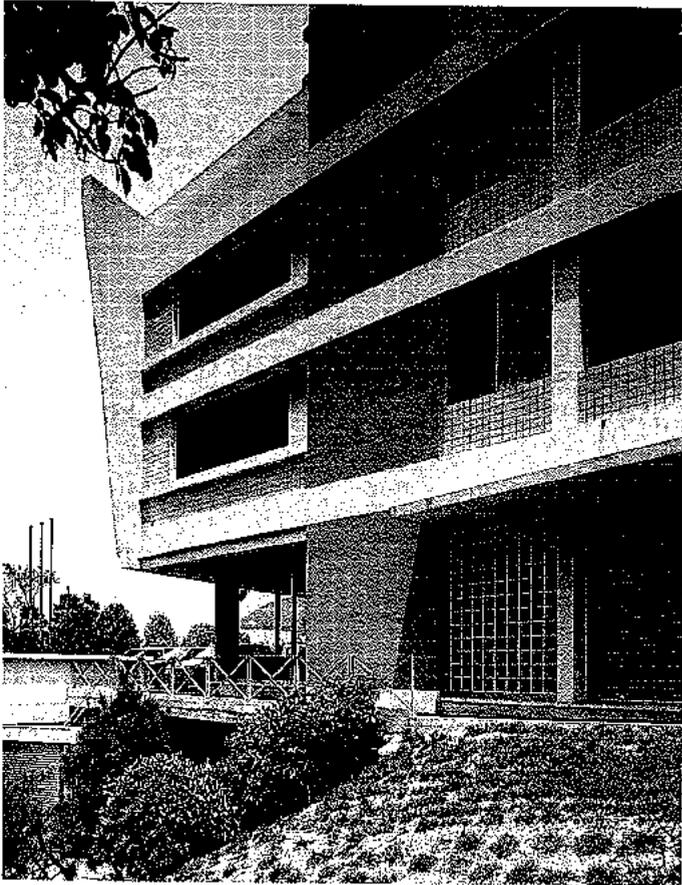
위의 두가지 이유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착오로 지출된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 해결해야할 난제였는데, 이러한 문제의 돌파구를 개척하려는 시도가 새롭게 검토되었다.

우선 검토 대상이 되는 문제점 몇가지를 열거해보면 기존의 병원들은 기능과 모듈을 중시하여 설계된다는 일종의 정설(?)에 기인한 타인지 천편일률적인 의모를 지니고 있으며 색채 또한 흰색 일변도여서 전문 병원의 성격에 걸맞는 다양성이 결여되어있다는 점과 막연히 병원은 복잡할 실비를 갖게될 것이라는 선입관에서 필요 이상으로 층고를 높이는 문제, 그리고 병원기능을

■
 대지위치 / 부산시 북구 만덕동 산 91-2, 91-4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 5,221m²
 건축면적 / 891.73m²
 연면적 / 6,471m²
 건폐율 / 17.07%
 용적률 / 97.77%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 지하 2층, 지상 7층
 외부미감 / 드라이 비트, 파스텔 타일



- ① 배치도
- ② 서측 전경
- ③ 지하 1층 평면도
- ④ 측면 외벽 상세
- ⑤ 외부 상세



단순히 외래진료부(Out Patient)와 병동(Ward) 그리고 행정 및 관리부서(Office)로만 나누게 됨에 따라 현대 병원의 중요기능으로 대두되고 있는 학술 발표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수용하는 공간이 배제된다는 점 등이다.

병원설계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모듈은 3m×6.3m 내지는 6.0m×6.0m로 알려져 있는데 대체로 이것은 Bed의 칫수와 6~8인 병실용 기준으로 책정한 단위이다. 한 병원 설계는 모든 면에서 경제성 중시로 설계되었는데 병실 기준층의 층고를 과감하게 3.0m로 낮추고 모든 설비부분은 Flatslab로 동, 서의 단위 Unit Module을 연결하고 있는 복도부분으로 지나가게 되어있다. 이것은 기존의 설계기준치가 보높이를 감안하고 보하부와 천정사이에서 설비덕트와 배관들이 지

나가는 방식보다 약 1m정도 층고 절감의 효과가 있고 건물전체의 볼륨을 축소시키어 유지관리에 따른 에너지 절약효과도 아울러 피할 수 있는 절약형 구조계획인 것이다. 그리고 1층을 제외한 모든 기둥과 보는 벽의 두께와 천정높이에 맞게 구조를 조정하여 (모든 보와 기둥들은 간막이 벽두께 + 미장바감두께 차수로 짜여져있다) 불필요한 모서리와 벽체음이 생기지 않도록되어 건물의 전체 하중과 경비 및 공기 단축에 대한 획기적인 절감을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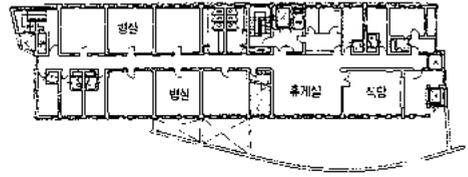
1층 복도 열의 기둥도 경사지게 하부를 벌려놓아 상부 하중 전달 효과와 아울러 1층 외래환자의 대기 복도 역할을 하도록 고안한 것이다.

건물의 경량화와 외부단열을 병행하기 위하여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외관을 결정하였는데 이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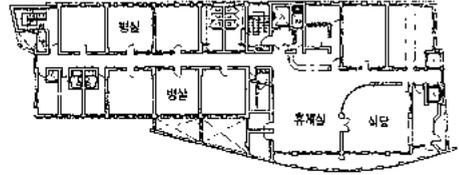
한 일련의 시도에 따라 한 병원은 일제로 철근량 하나만 비교해 볼때 일반병원의 철근투입 표준치 70% 이하로 마감되었다. 중앙 복도 열의 보를 없애므로서 해결한 층고의 낮춤은 또 다른 측면에서 더욱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수평과 수직으로 건물은 3.0m 기본 모듈에 따르고 있으나 구체와 그 괴부만으로 된 기둥과 보 그리고 창들은 2.8m 모듈에 따르고 창 사이에 삽입된 창대는 설정된 두께간의 간극을 메꿔주도록 계획 되어 구조체와 창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순수한 기능과 형태로써 거짓없이 서로 다른 체계를 가지고 건물 구축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구조체와 창대들은 아크릴 유리창면에서 0.2m 돌출되어 내부로부터 외부로 열린 각 방의 시선에 긍정적 의미에서의 격리감을 확보해 준다는 의미도 아울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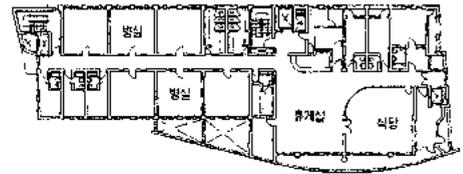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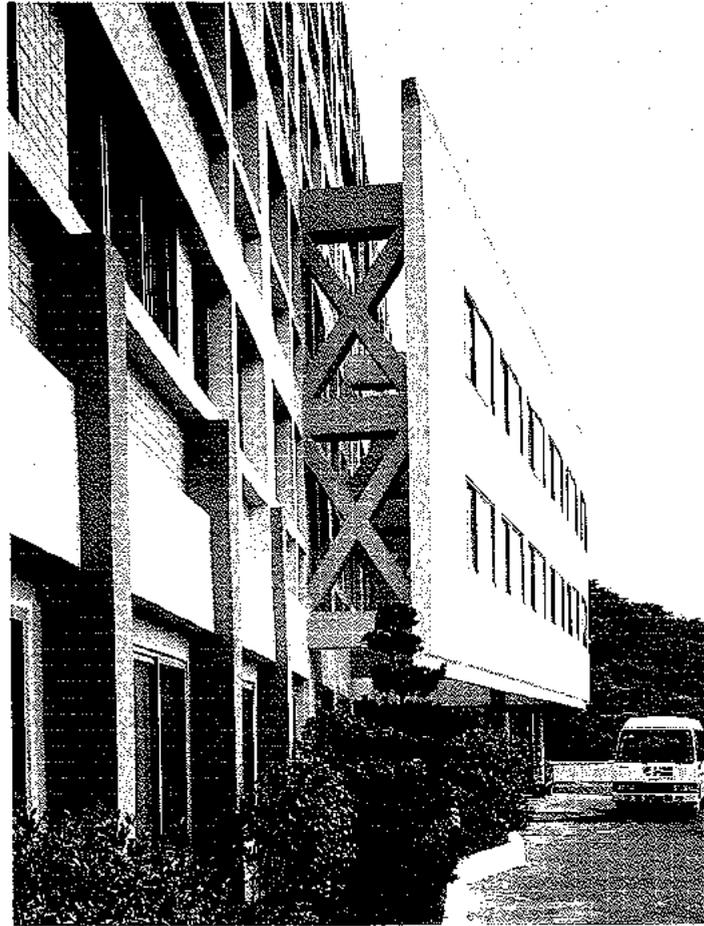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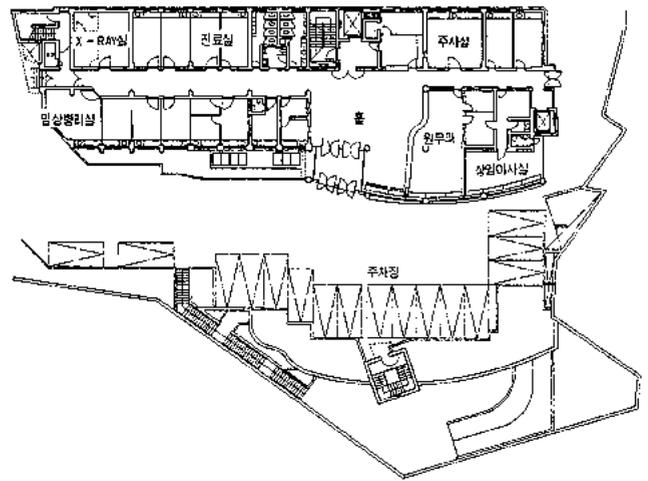
9



10



7



11

러 가지고 있다.

장기간 수용당하게 되는 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시각적 고려는 첫째로 색조화를 통하여 피하는 친화감(Amenity)과 위안이다. 내부 병실과 화장실과 통용문틀 또한 부드러운 살색과 상아 빛 구름색을 구조색으로 하고 연한 홍살문 색과 흰색의 대비를 삽입하였다. 환자와 직원 전용 출입은 당연히 색채의 차별화로 구분된다.

또 다른 시각적 고려는 2~3층 전면 곡면부를 설정한 것인데 내벽과 외벽간의 모듈 차이와 그 사이에 생겨나는 온실 등에 의한 공간적 차이를 통하여 강조되었다. 이 곡면부는 절단된 자연에 대한 보상과 순응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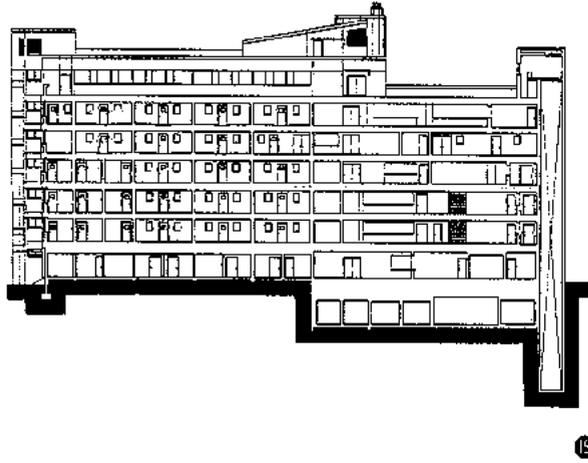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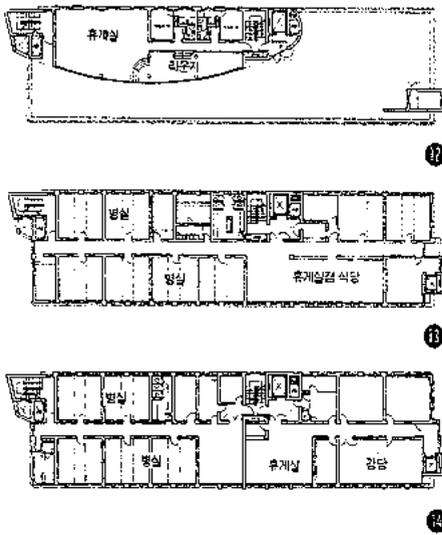
이러한 여러가지 시도는 병원 건물이 일련의

구조체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합리성에서 출발하여 합리주의의 결여된 측면 - 이성의 강조를 보완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구조체가 건물의 합리성을 담고 있다면 창대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간극(무미건조함과 그에 따른 갈등)을 메우는 부가적 역할을 하는 "이성 속에 내재해 있는" 감성 - 즉 비합리적인 요구의 결과인 것이다 (이것은 자유분방한 감성과는 또 다른 의미이다). 결국 입면에서 나타나는 구조체와 창대는 상호 보완적이면서 상반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동일한 공간과 파사드에 공존하는 "내용의 형식들"인 것이다. 하나의 쉬운 예를 든다면 스코틀랜드 직물 디자인이 보여주는 「織造의 美와 합리성의 추구」로 디자인 개념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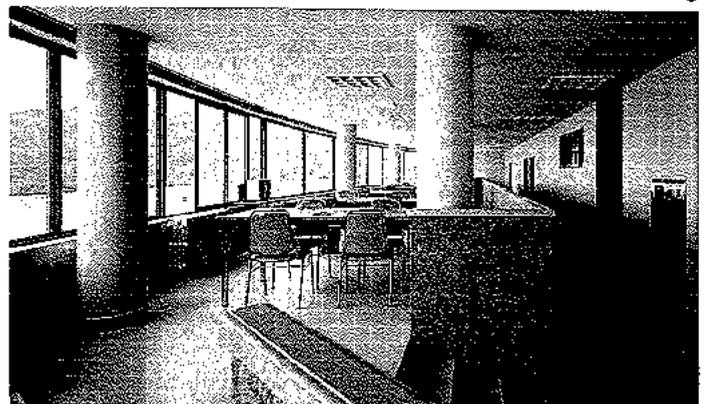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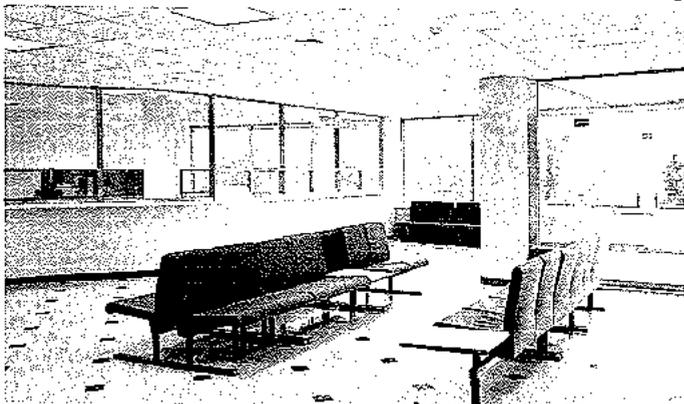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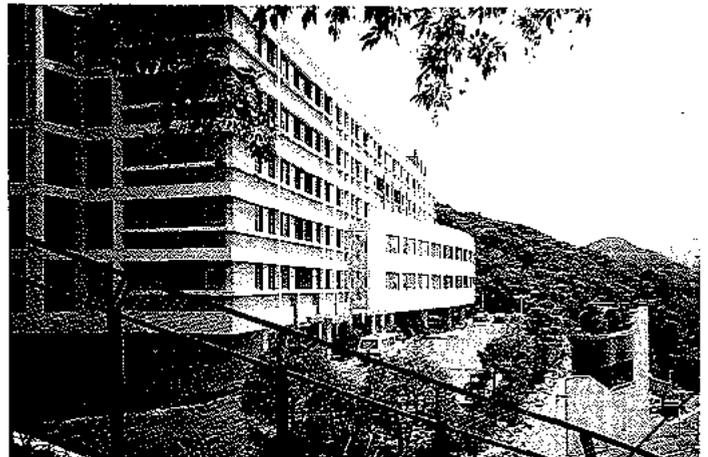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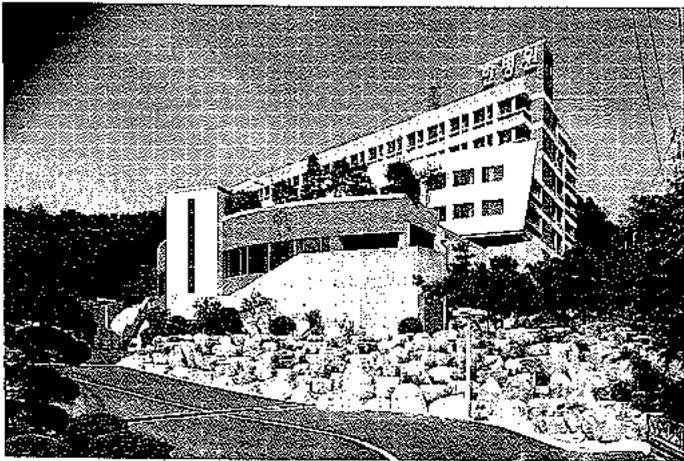
병원 지하에 위치한 세미나실과 라운지, 7층 옥

상에 마련되어 있는 직원 휴게실과 연구실은 이 병원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과 부합되는 기능을 갖춘 것이다. 즉 병원이라 할지라도 외관 뿐만 아니라 내부 기능에서도 발견하고 부딪치는 時와 眞實(Dichtung und Wahrheit)이 있어 한 병원이라는 건물 고유의 특성과 만드는 사람의 사고 관계에서 볼때 감성을 배제한 기능 내지는 이성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를 거부하고자 한 것이며 이러한 의도는 직설과 은유 그리고 축어적인 기법으로 건물의 도처에 삽입되어 독해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봄에 준공된 한 병원이 건축주에게 최소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가져다 주었는지는 아직 단언할 단계가 아닐 것이나 냉난방 시설을 포함하여 평당 135만원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으니 일반 병원 평균 건축비용에 비하면 약 100만원 / 평을



- ⑥ 내부 복도 전경
- ⑦ 벽에서 들쭉던 가벽을 지지해주는 가새
- ⑧ 4층 평면도
- ⑨ 3층 평면도
- ⑩ 2층 평면도
- ⑪ 1층 평면도
- ⑫ 7층 평면도
- ⑬ 6층 평면도
- ⑭ 5층 평면도
- ⑮ 단면도
- ⑯ 남서측 전경
- ⑰ 서측 외관
- ⑱ 현관 로비와 접수대
- ⑲ 7층 휴게실



절감시킨 셈이 된다.

한 병원은 공사도중에 진입교량의 파괴로 금정산 등산도로(해발 400m)를 개척하여 동태로부터 산을 넘어 공사차량을 통과시킨 일, 상수도의 인입(해발 220M까지)과 경암 팔파직업과 민원의 발생 등 모든 악조건을 뚫고 금강공원의 중앙에 수줍은 자태로 서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선의에 의한 열성적인 시도도 때로는 엉뚱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같은 좋은 뜻에서 출발한 한 병원 프로젝트는 이 일 자체와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구성의 취약성에 기인하여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같은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다.

이것은 우리에게 전해져오는 몇개의 속담에도 그 예감의 근원이 내재되어 있다. 열심히 씨를 뿌

리고 밭을 갈아 가을에 건우는 추수의 기쁨 뒤에 노적가리를 통채로 들고가려는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인생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일까 아니면 건축가란 재주만 넘는 꿈인가.....

오랫만에 모처럼 힘겹게 꺼낸 선의가 퇴색되는 허망함과 뜻없는 슬픔이 꼬끝을 파고든다.....

그러나 감상만으로 이 글을 끝낼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어프로치와 정을 기술해 보면, 설계 당시 시각 검토(Sequence Study)를 할때 대규모 건물이 8차선 중앙에 버티고 서 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멀리서 보임 - 사라짐 - 다시 보임 - 사라짐 - (앞산이 가리어) 반쯤 보임 - 사라짐 - 크게 다시 보임의 수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15년전 일본 건축가 우치이 쇼지가 설계한 野邊山 YMCA 高原 Center를 방문하였을

때 받았던 인상과 Georgia O' KeeFe 와 최옥경 그림의 조금 열림 - 반쯤 열림 - 완전 열림에 대한 잔상과 연상작용이 나의 내부에 있었던 것 같다.

한 병원 싸인을 부착시키기 위하여 2계층 높이의 가벽을 설계에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공원 입구에 근접하면 다시 건물이 모두 감추어지고 숲 위로 싸인만 나오게 한 것이다. 한 병원 정신 질환자의 내면에 감추어진 진실을 찾아 나서기 위하여 회미한 과거의 뒤엉킨 실마리를 찾아나서는 심리치료자와 건축가의 緣 또한 이와 같을지도 모른다는 상념에 잠겨며 두서없는 글을 마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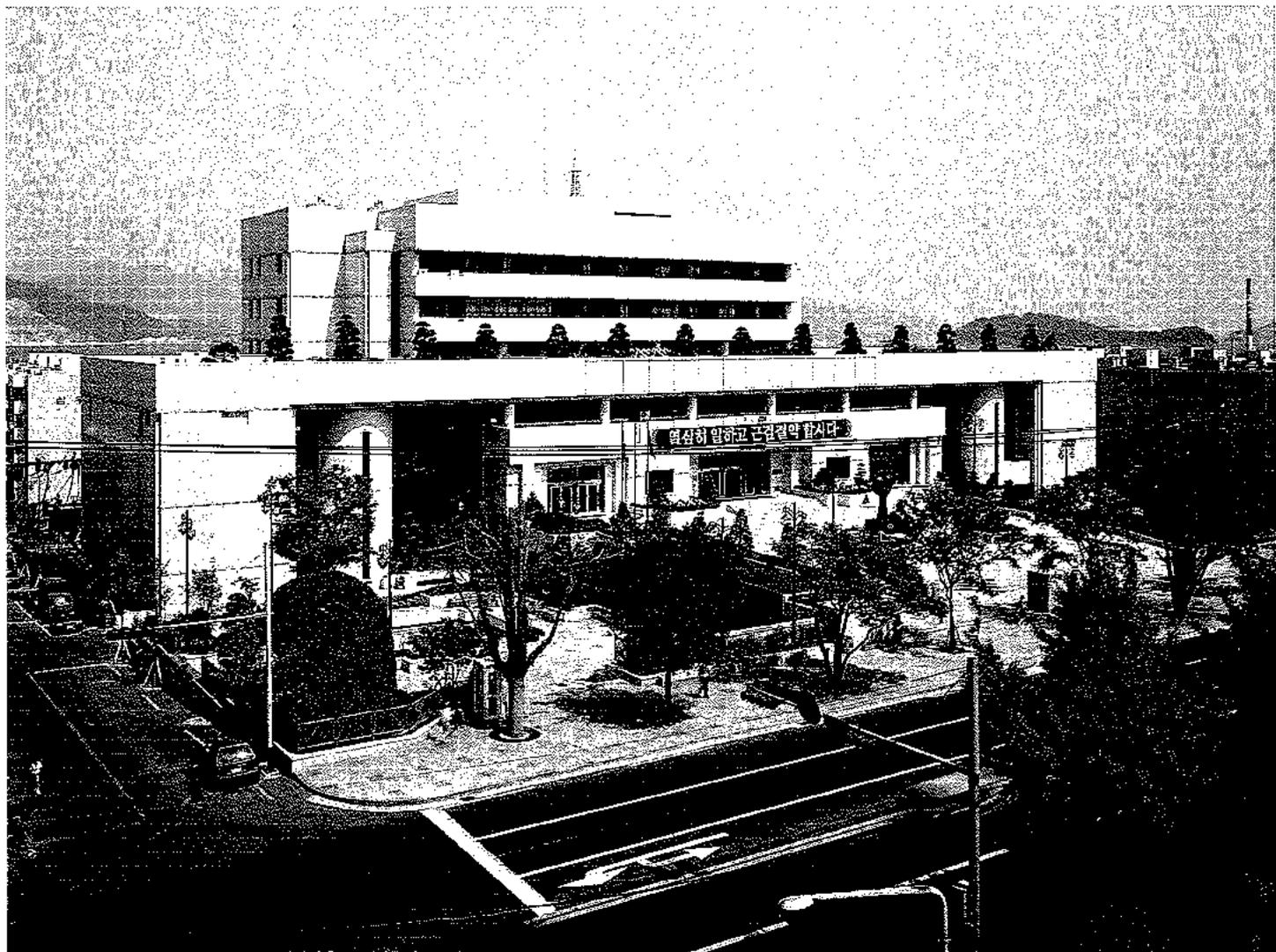
마산 시청사

Masan City Hall

金昌壽 + 朴 昇 + 韓相默 /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Chang - Soo · Park, Seung & Han, Sang - Mook

■
 대지위치 / 마산시 중앙동 4 - 11의 43필지
 지역 · 지구 / 주거 + 상업지역
 대지면적 / 11,151m²
 연면적 / 16,787m²
 건폐율 / 29%
 용적률 / 134%
 규모 / 지상 6층, 지하 1층
 주차대수 / 82대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미감 / THK24 화강석 버너구이



벌써 몇해전의 일이라 기억을 더듬는다. 현상 설계 공모안내를 보고 우선은 현지답사를 해야겠기에 「내고향 남쪽바다」- 마산으로 향했다. 내려가는 도중 내내 머리속에 떠오르는 환상의 풍경은 노산의 壽心이었다.

「내고향 남쪽바다 그 파란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오 그 잔잔한 고향바다……」

그러나 마산은 더 이상 내고향 파란물이 아니었다. 공업화에 찌들은 바다는 검푸른 빛을 띠

고 있었고, 갑자기 팽창해진 도시는 질주하는 차들을 다 수용하지 못한 채 억센 남도 사투리와 뒤섞여 혼잡 그대료였다.

郷都 시민들에게 어떤 모습의 청사를 보여 주어야 하나? 남쪽바다 마산의 상징은 무엇이고 미래는 또 무엇일까? 잊어버린 옛고향의 향수와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은 서로 어떤 끈으로 맺어져야 할까? 갑자기 내 머리속은 이 도시처럼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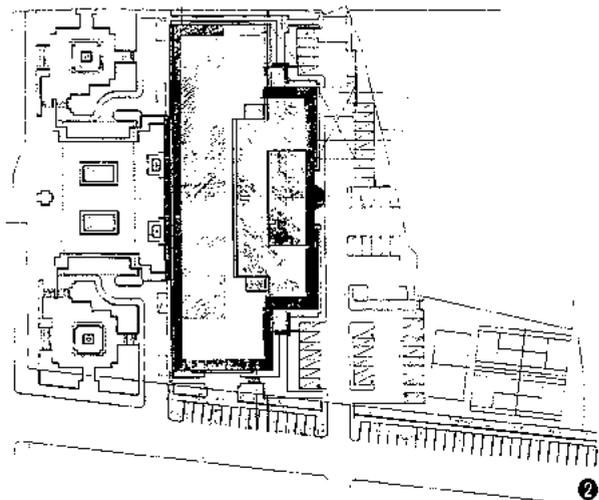
갈피를 잡을 수 없게된 나는 겨우 집어탄 어느 택시기사에게 물었다.

『아저씨, 마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게 무엇인가요?』 「마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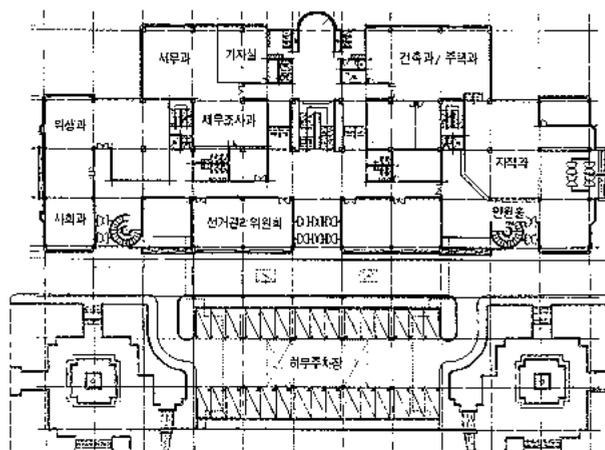
글씨……

바다? 수출자유지역? 아이모(아니면) 야구 찜인가? 모르겠네, 손님 참 별걸 다문네에.」

마산토박이라던 그 기사도 갑작스런 나의 엉뚱한 질문에 두손을 들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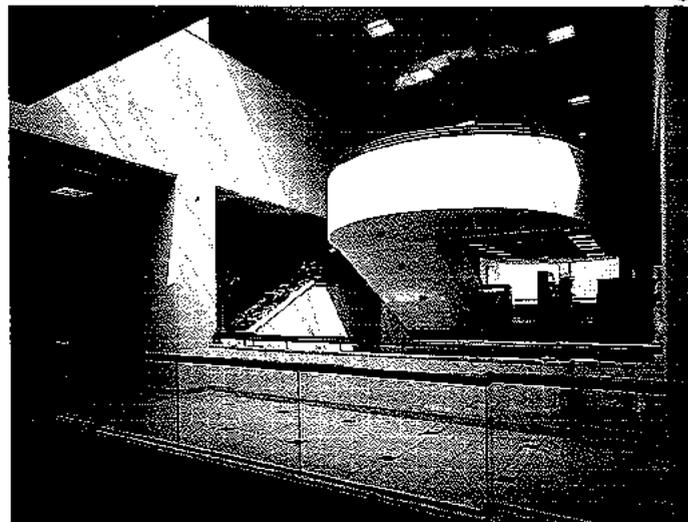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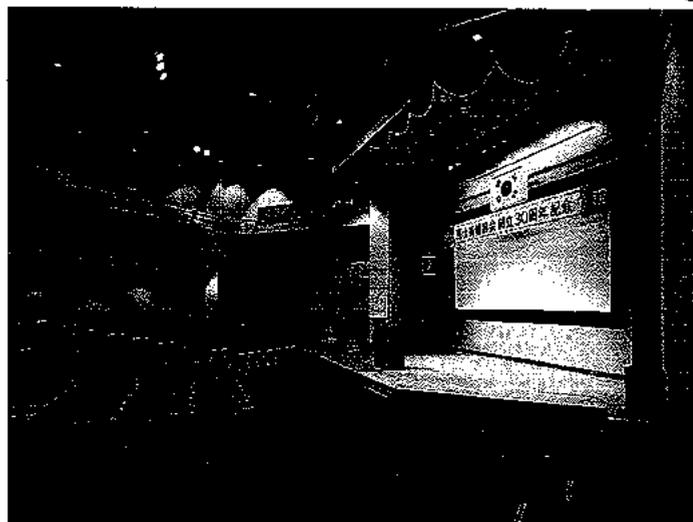
4



5



6



7

그렇다.

아무도 이 도시의 역사와 현실과 미래에 대해 잘 모른다. 아니 관심이 없다.

그저 하루하루 남보다 더 빨리 뛰어가고 생활해 가야하는 것이 급선무니까.

이 비싼 보통사람들에게 鄉都청사건축의 상징성은 어떻게 건축어휘가 어따해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객지에서 잠시 흘러온 나같은 他人의

배부는 고민인지도 모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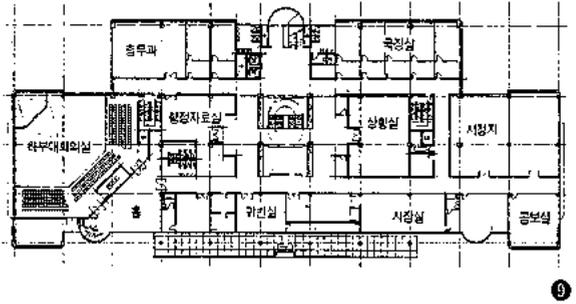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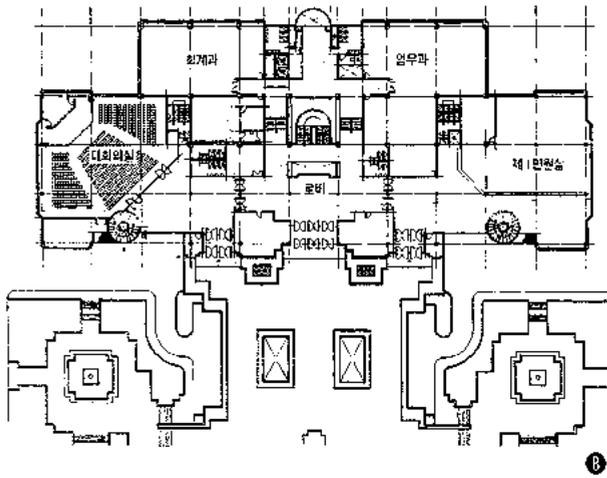
하지만 건축은 형성될 것이고 또 이자리에 영구히 남을 일이나 괜한 고민인들 하지않을 수 없는 노릇이 아닌가?

우선은 이 보통사람들에게 부담이 없는 건물이 되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 넓지 못한 전면도로에서 보기에 폐쇄감을 갖지않도록 저층부는 앞으로 배치하고 사무기능이 추가되는 고층부는 뒤

로 밀기로 하자.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대지의 형상은 어쩔수 없으나 그 고저차를 이용하면 보행자와 차량을 자연스럽게 분리시킬 수 있는 몇 점도 있다.

당연히 걷는자가 우선이니 데크(Deck)로 처리하여 차량은 그 밑으로 통행시킨다. 그러면 시장년도 점심시간에는 시민들과 자연히 데크 위에서 만나서 담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권위적 냄새가 풍기는 차량출입은 데크 밑에서 처리



하기가 가능해 질 것이다.

작막한 도시에서 시민에게 주어지는 조그마한 오아시스도 필요할 것이다.

담도 없고, 벤취 그늘에 누워 쉴 수도 있는 이 시민을 위한 청사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하루종일 市政을 맡아 일할 市의 직원들은 더욱 중요하니, 각층마다 조그마한 쉼터도 만들고, 빛이 들어오는 실내공간을 만들어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대신 사무기능은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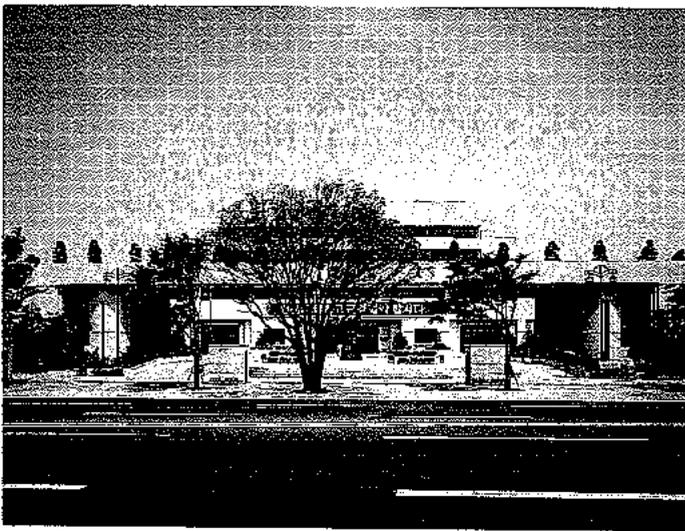
대한 집약시켜 투자의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

내고향 남쪽바다를 읊조리던 시절의 청결감을 갖도록 생각된 흰 화강석 청사는 비록 검푸를 지언정 그 바다를 배경으로 실루엣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앞산과 바다 사이의 형태적인 완충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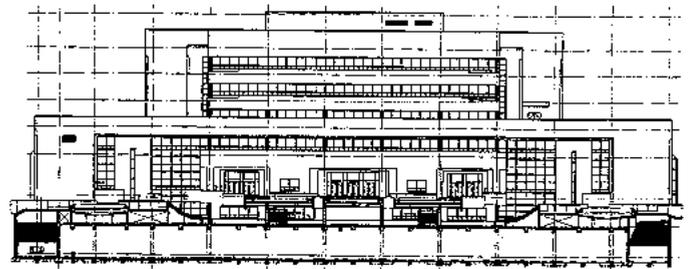
대충 이와 같은 기본틀을 잡은 후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여 본다. 너무 현란한 건축어휘는 지양하고, 시민들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다

가서게 하자. 그리고 이렇게 하여 완성된 이 건물이 내고향 남쪽바다의 향수를 일깨워 줄 수 있다면 더욱 반가운 일이 아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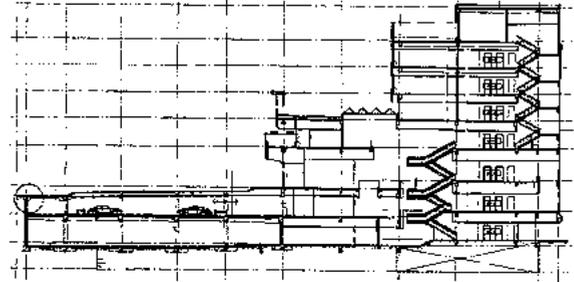
1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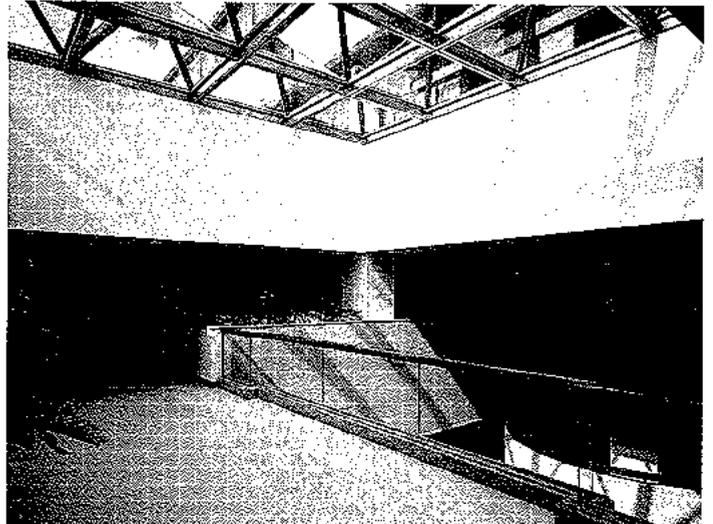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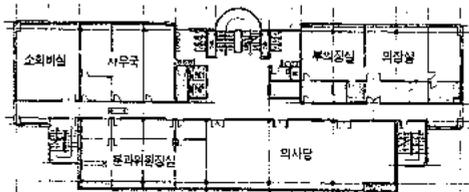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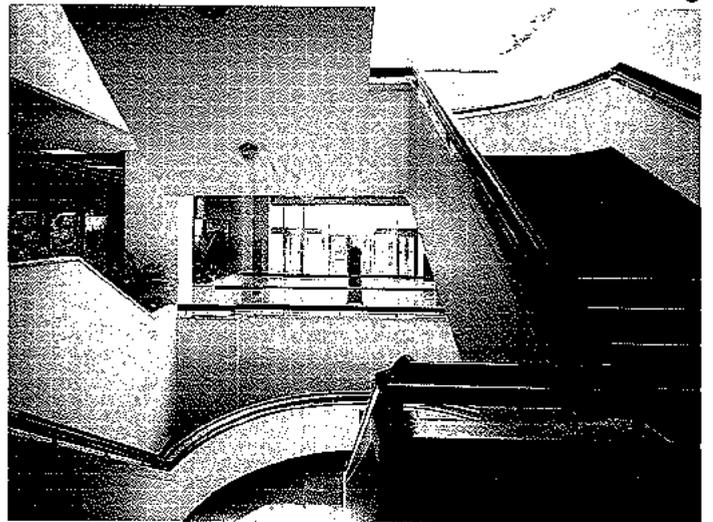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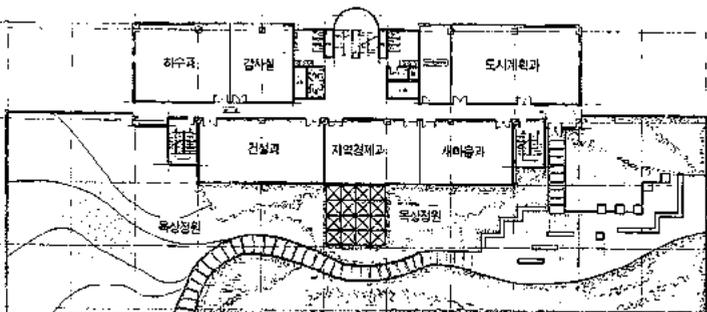
1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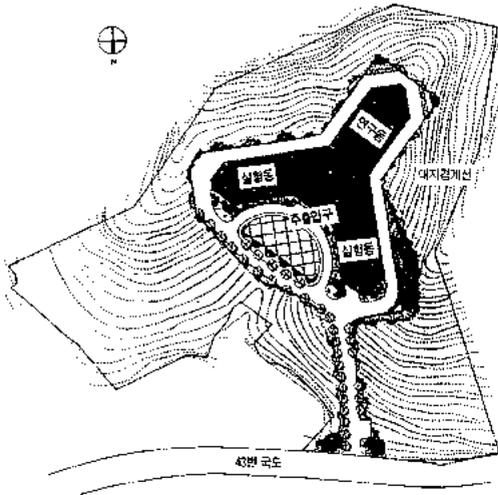
1

- 1 전경
- 2 배치도
- 3 1층 평면도
- 4 전면 파사드
- 5 배면 전경
- 6 토비에서 본 계단부
- 7 대회의장 전경
- 8 2층 평면도
- 9 3층 평면도
- 10 민원실 전경
- 11 정면 전경
- 12 선근가든 및 지하주차장
- 13 6층 평면도
- 14 5층 평면도
- 15 4층 평면도
- 16 횡단면도
- 17 종단면도
- 18 2층천장
- 19 연결 계단부

두산 기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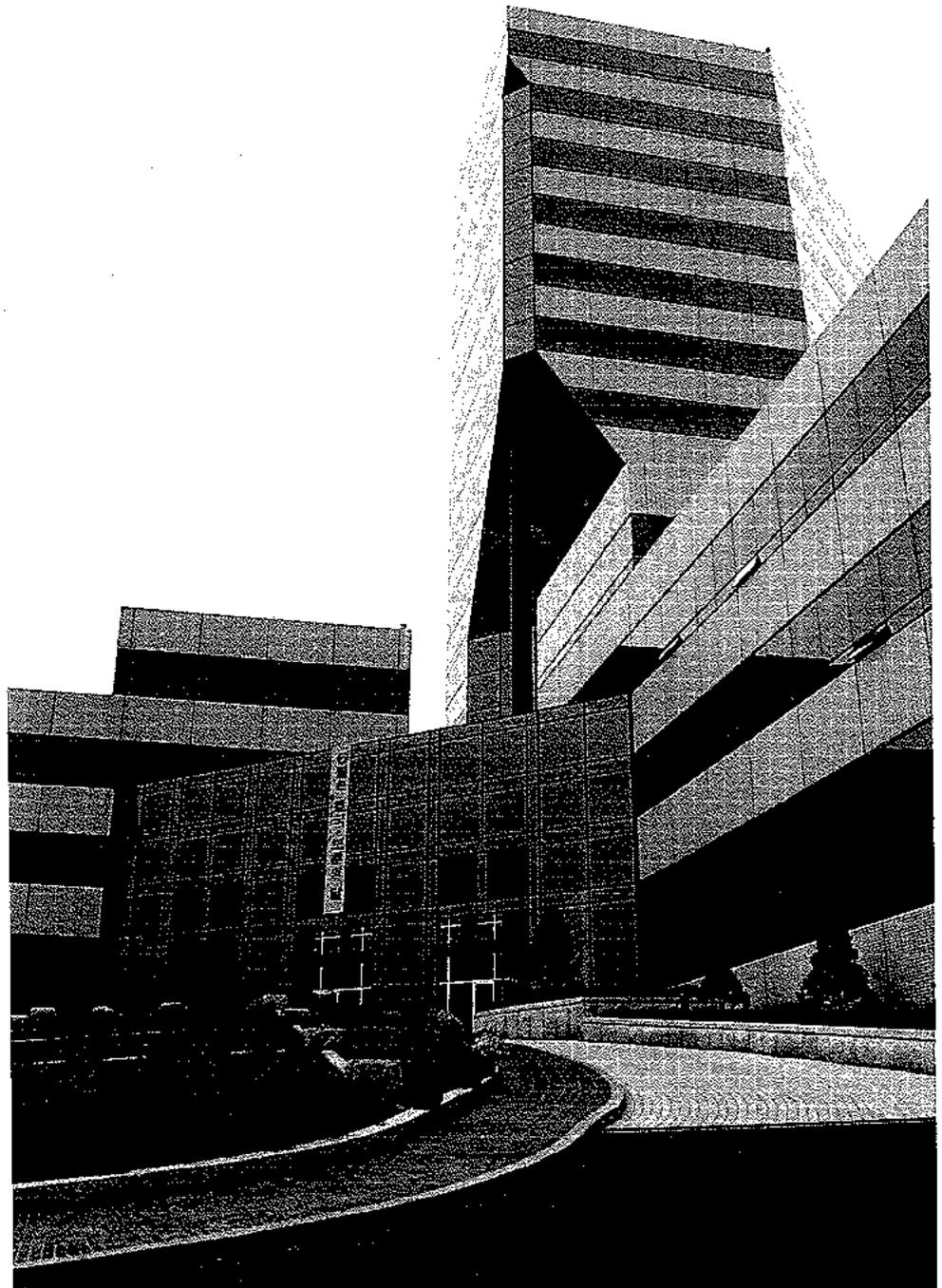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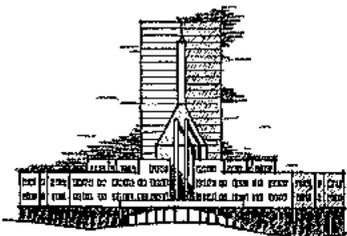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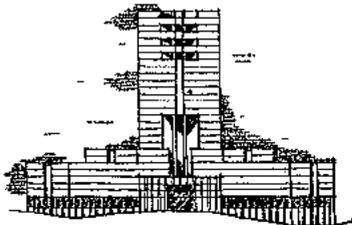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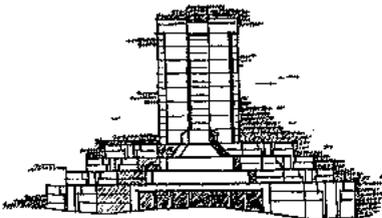
Doosan Technical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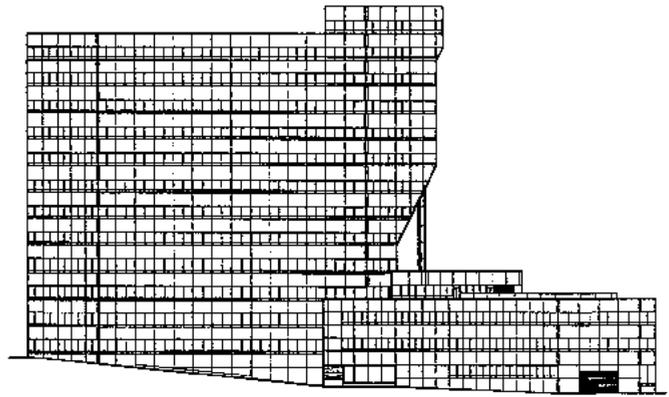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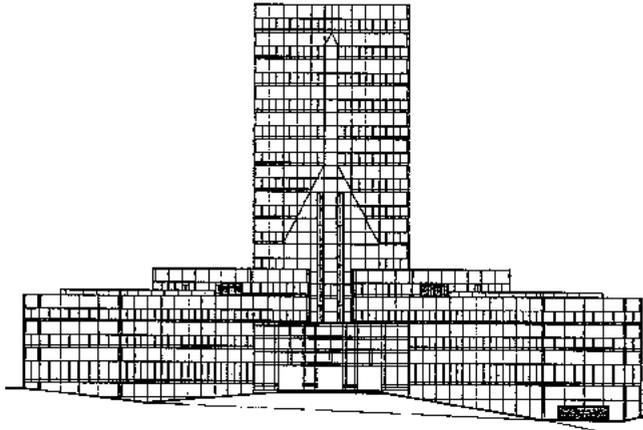
李揆昌 / (주)우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Kyu - Chang



-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성북리
임 39 - 3외 3필지 (산림보전지역)
- 대지면적 / 9,990m²
- 건축면적 / 4,690.0m²
- 연면적 / 32,987m²
- 건폐율 / 47%
- 용적률 / 232%
- 규모 / 지하 2층, 지상 12층
-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 외부마감재 / 타일 PC + 컬러복층반사유리
- 주차대수 / 140대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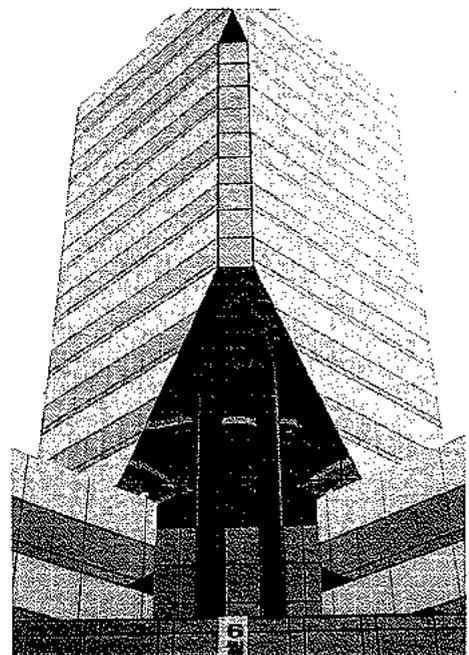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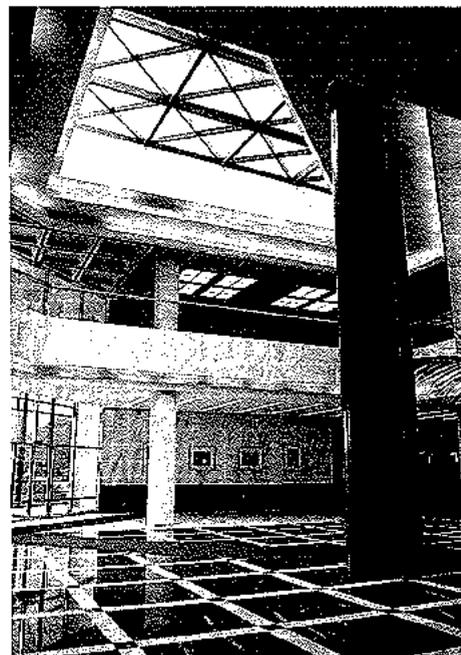
건축주인 두산의 창업 100주년을 맞으며, 그룹의 오랜 숙원사업인 각 계열사의 연구소 통합이라는 취지아래 시작된 본 Project는 기능과 특징이 다른 각 분야의 Branch를 통합한 첨단 연구소로서, 그 기능성과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건축적으로 수용하여 하이테크한 조형성을 추구하는데 기본 개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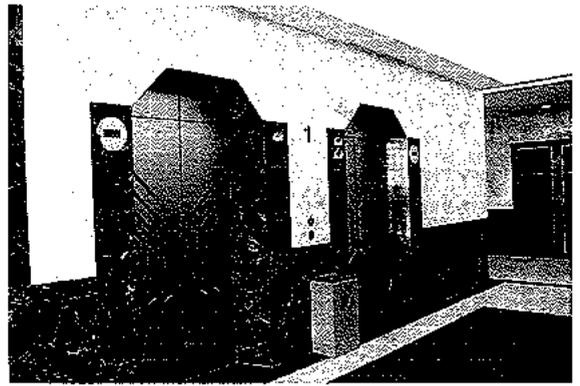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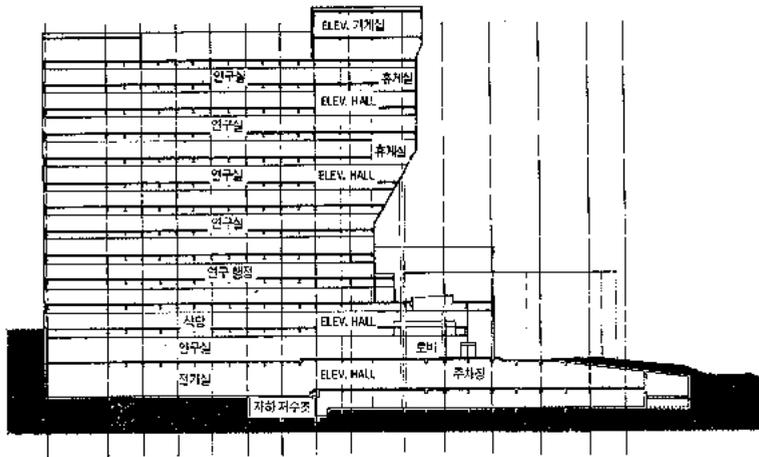
광주-수원을 잇는 43번 국도의 용인군과 동수원 분기점에 위치한 계획 부지는 입지적 조건과 환경적 요소가 연구소의 기능적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연구소 기능상, Y자모양의 건물형태는 집중된 코어를 형성하고 분산 열결하는 다익형 스타일의 변형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통일된 결합의지를 표현하고 목표를 향한 내부의 질서가 Group Mark Shape의 단위평면 형태와 함께 조형성을 나타낸다.

톱라이트를 둔 2층까지 오픈된 아트리움 성격의 로비 부분은 3개의 Wing으로 형성된 각 기능에 동선을 유도, 원활한 내부동선의 연결 및 흐름을 갖도록 하였고, 이것은 연구원의 단합과 휴식의 장으로 이루어져 연구동과 실험동, 강당, 식당 등 특징적인 독립된 기능들을 연결 통합 함으로서 연구원의 정보교환, 휴식, 만남 그리고 출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도록 유도한 것이다.

평면은 단위 모듈화 (실험실모듈 : 3×9m) 하여 가변적인 평면계획 및 설비계획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항상 쾌적하고 신선한 실내환경의 제공과 생동감있는 공간구성을 위해 과감한 색채 계획을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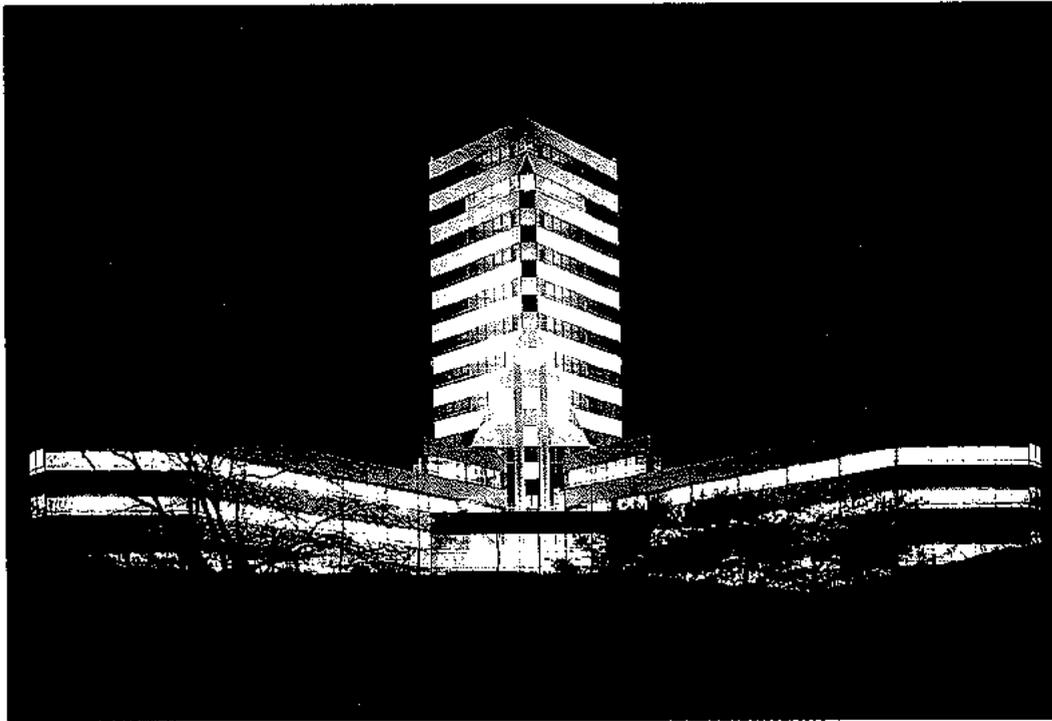
전면 커튼월 면의 조각적 처리와 하나의 모뉴멘트적 효과를 기대한 상징적 표현인 비상하는 적색 노출기둥의 강렬한 이미지와 함께 세계속의 첨단 연구소로서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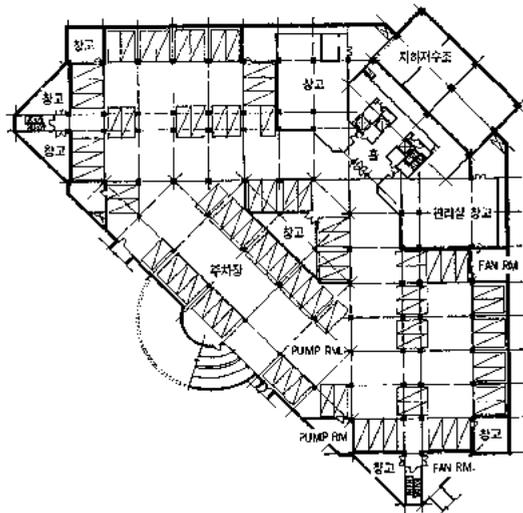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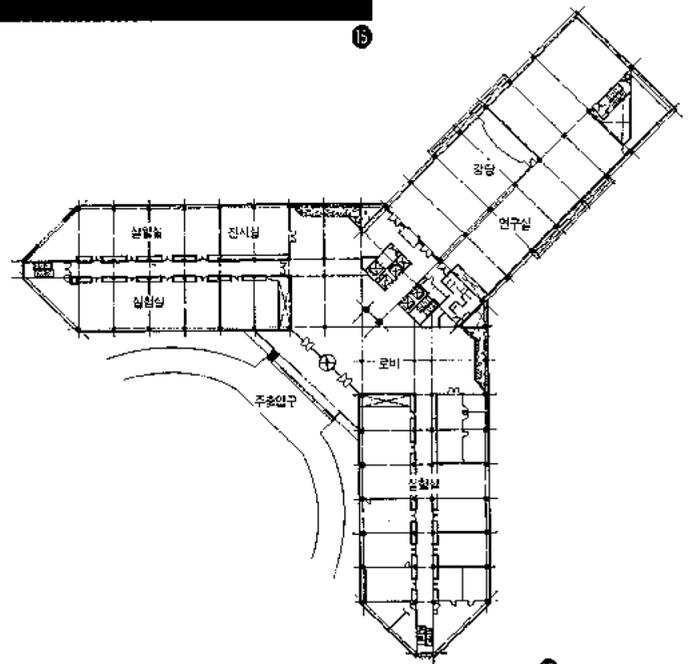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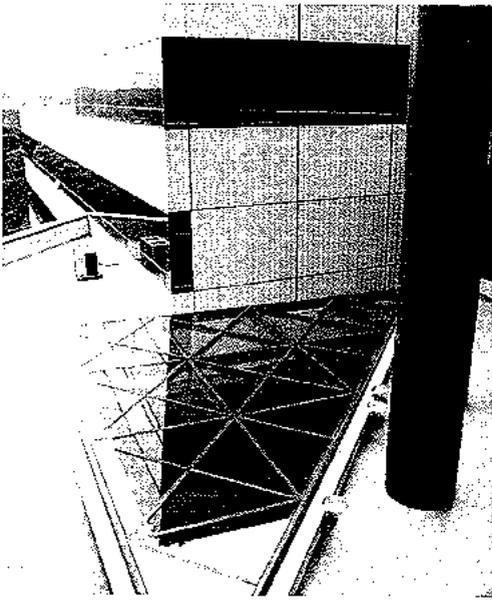
- ① 배치도
- ② 대지 분석도
- ③ 초기안 스케치 I
- ④ 초기안 스케치 II
- ⑤ 초기안 스케치 III
- ⑥ 주진입로에서 본 북측 전경
- ⑦ 장면 전경
- ⑧ 정면도
- ⑨ 좌측면도
- ⑩ 1층 로비
- ⑪ 오픈된 1, 2층 홀
- ⑫ 정면 상세
- ⑬ 중 단면도
- ⑭ 엘리베이터 홀
- ⑮ 야간에 본 전경
- ⑯ 지하 2층 평면도
- ⑰ 1층 평면도
- ⑱ 삼각 천장
- ⑲ 강당
- ⑳ 각 실로 이어지는 통로
- ㉑ 2층 홀
- ㉒ 2층 평면도
- ㉓ 4, 5, 6층 및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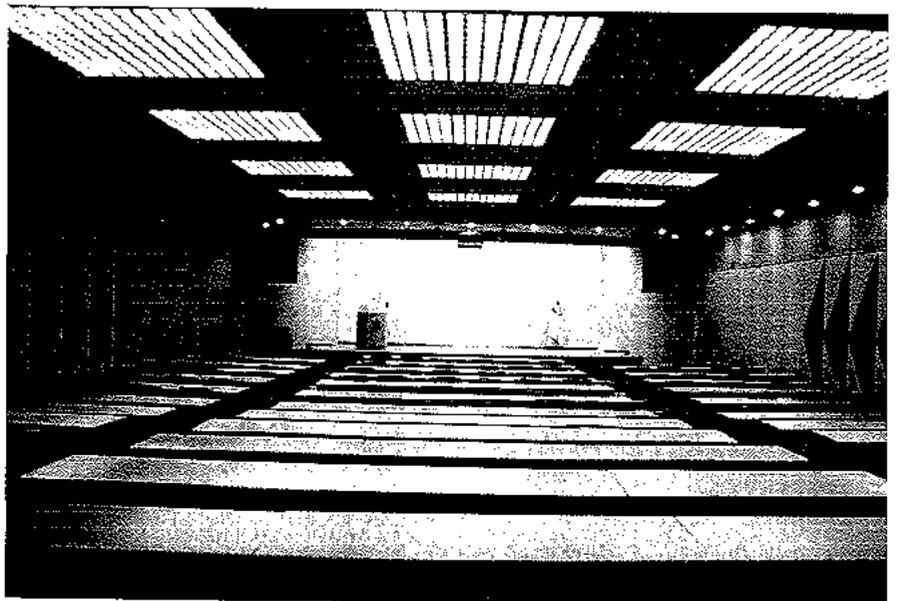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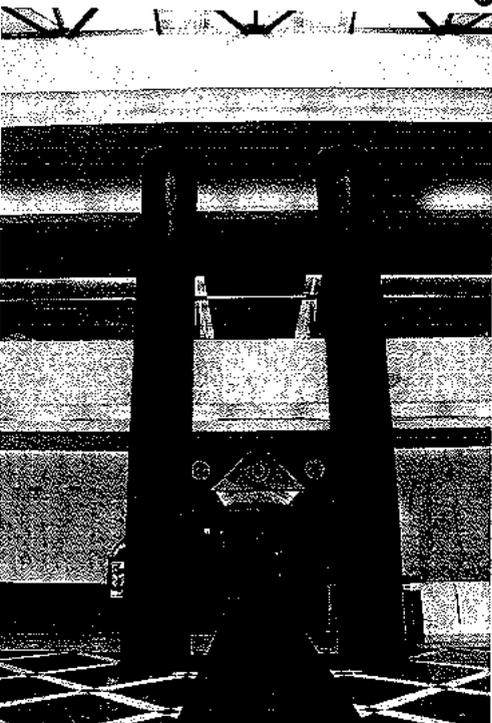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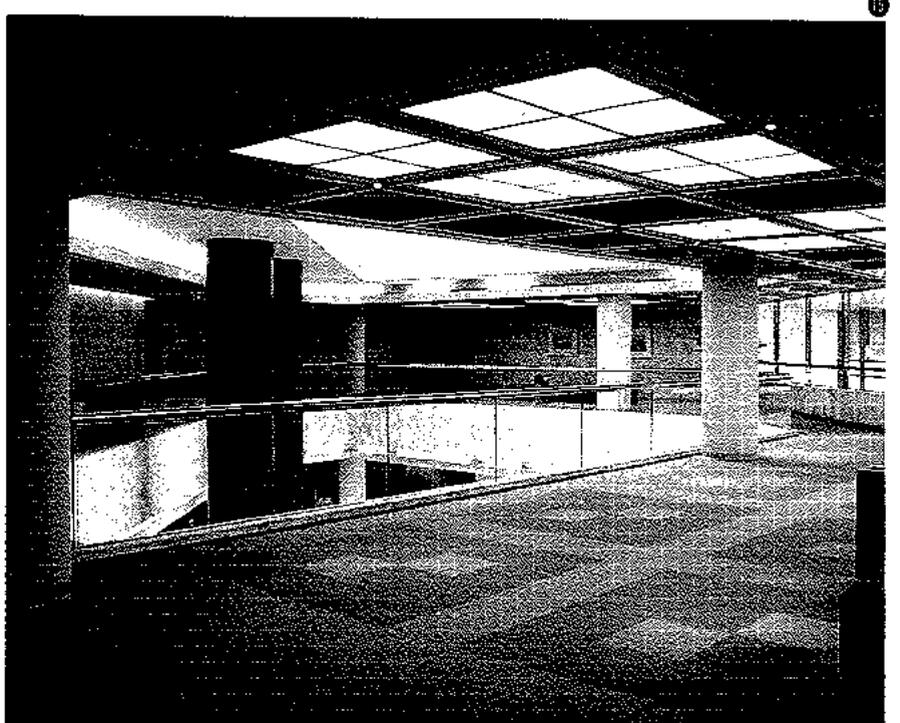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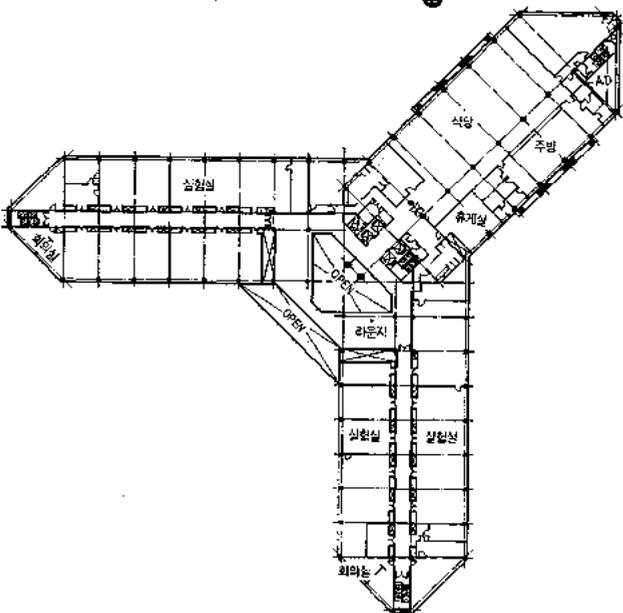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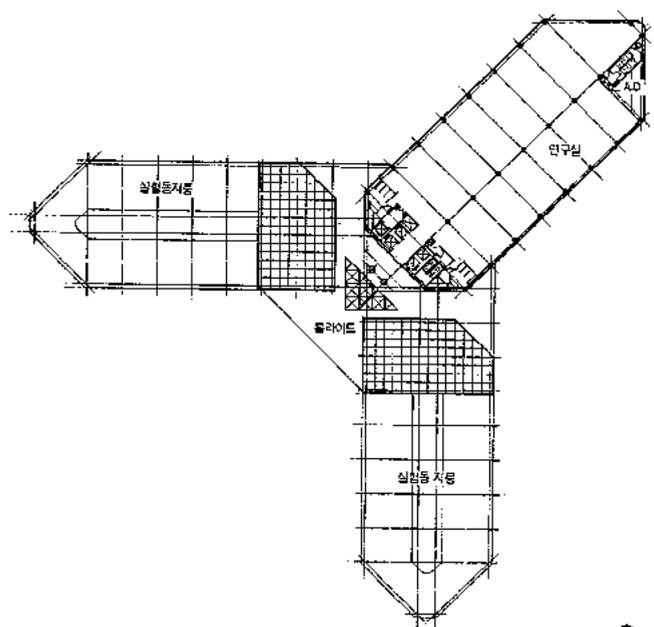
16



17



18



19

경남은행 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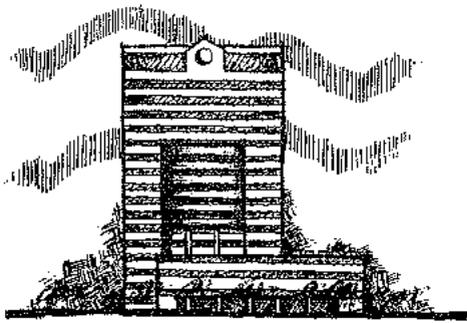
Kyung Nam Bank

李相守 /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Sang - 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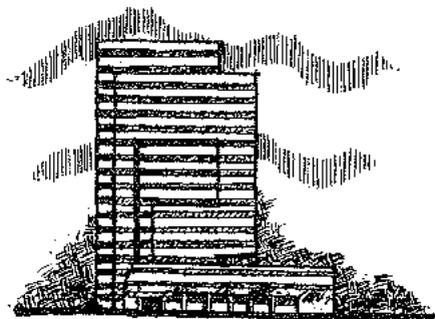
■
대지위치/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
지역·지구/ 일반상업지구, 제2종미관지구
대지면적/ 9,007.8m²
건축면적/ 3,014m²
연면적/ 29,456m²
건폐율/ 33.39%
용적률/ 221.7%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
주요내장재/ 대리석 + 화강석
주요외장재/ 화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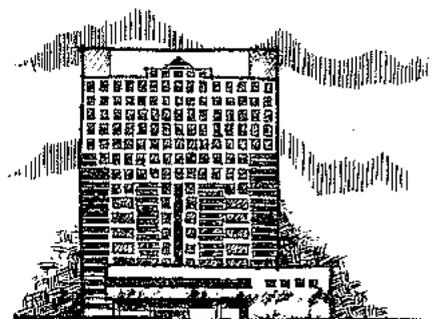
- ① 야경
- ② 1차안 스케치
- ③ 2차안 스케치
- ④ 3차안 스케치
- ⑤ 로비에서 본 계단실
- ⑥ 북동측 전경
- ⑦ 배치도
- ⑧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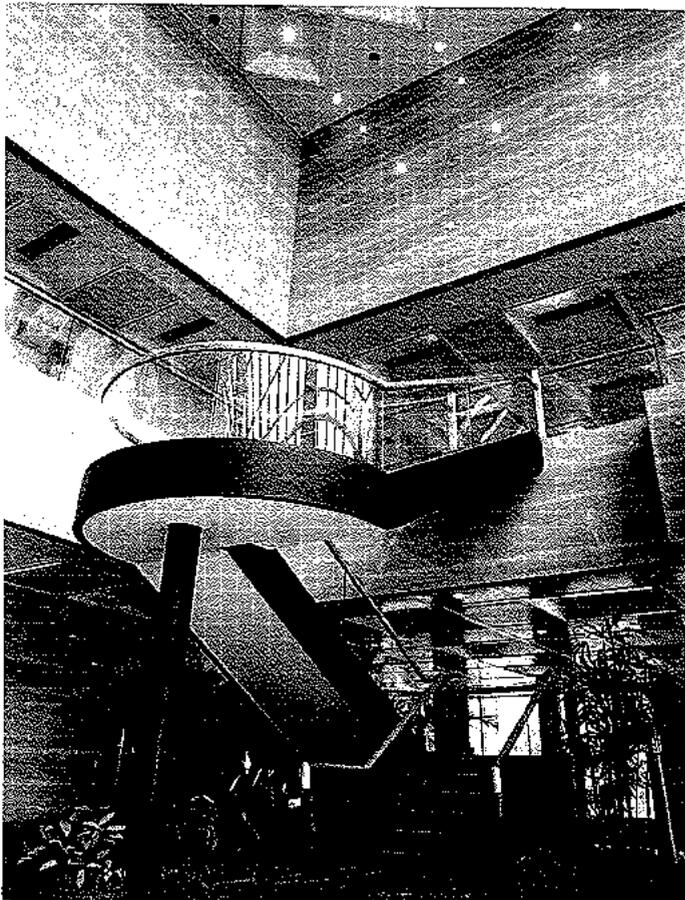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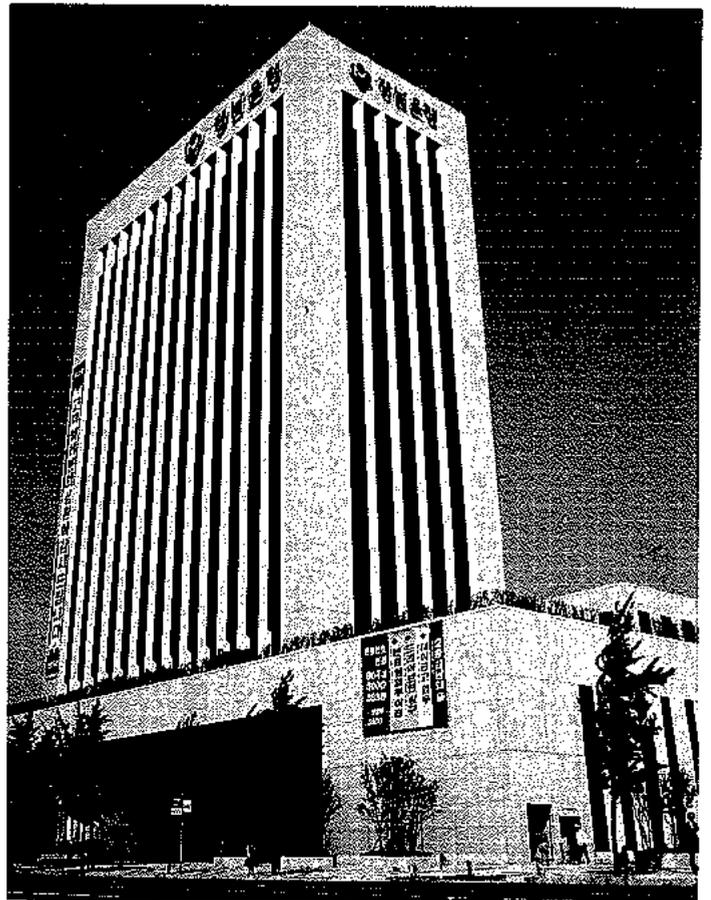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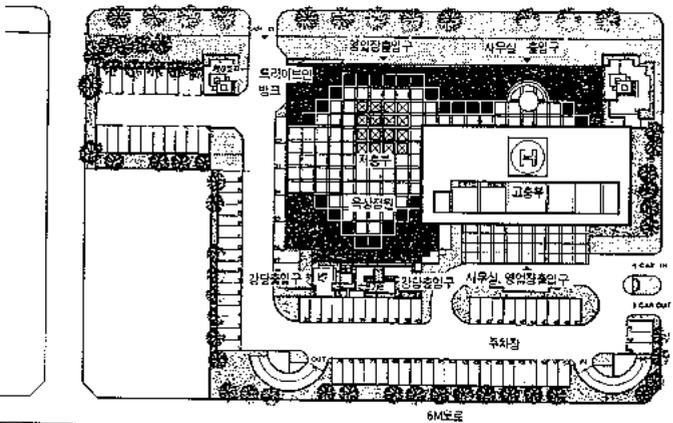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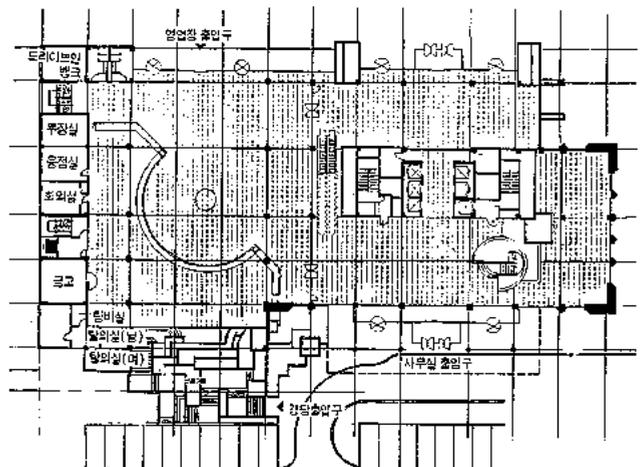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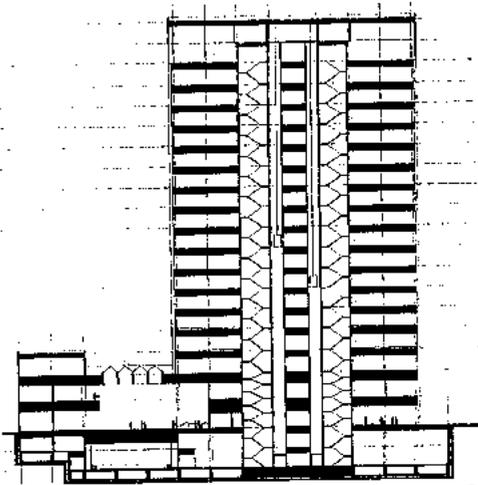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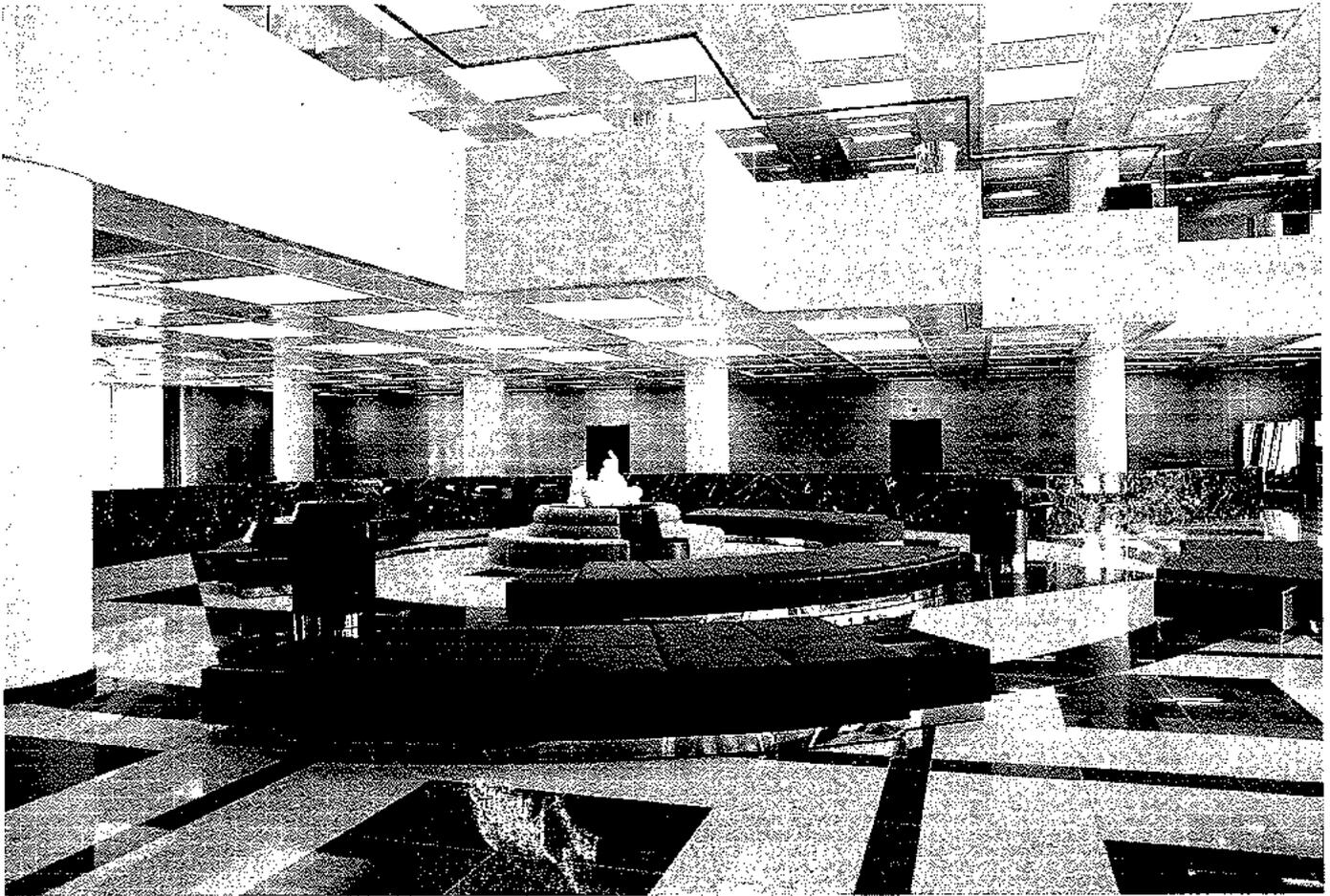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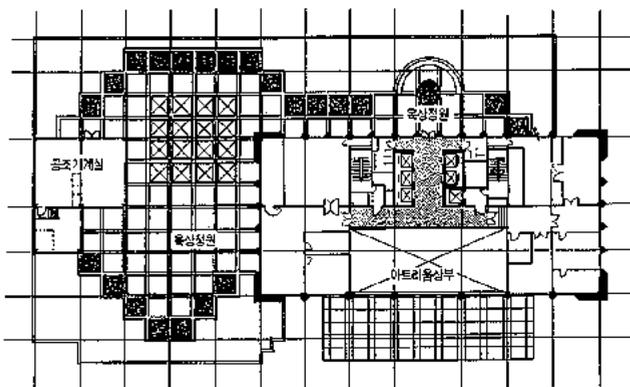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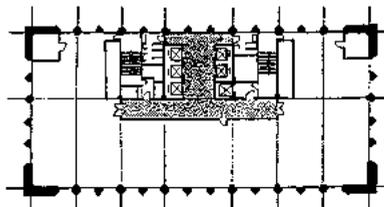
⑩



⑪



⑦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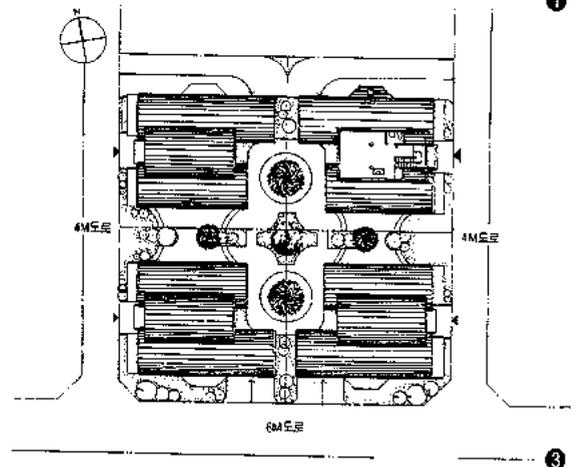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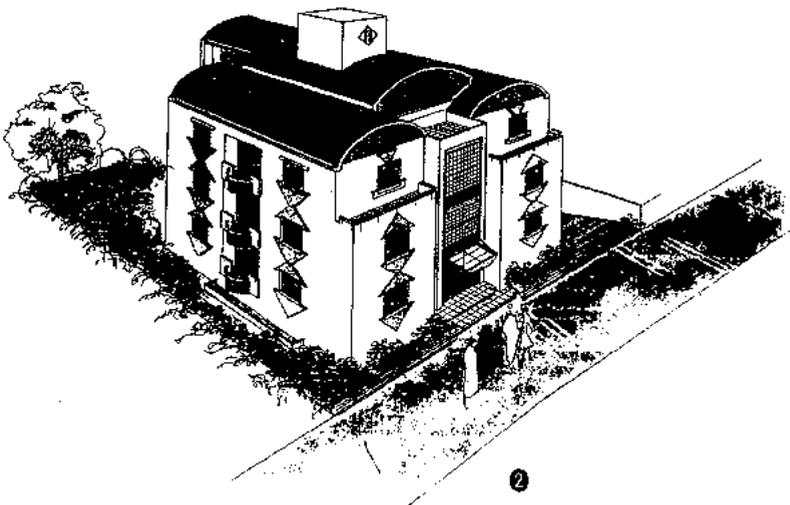
- ④ 단면도
- ⑩ 원경 (항공사진)
- ⑪ 실내 전경
- ⑦ 1층 평면도
- ⑧ 기준층 평면도

방배동 한우리 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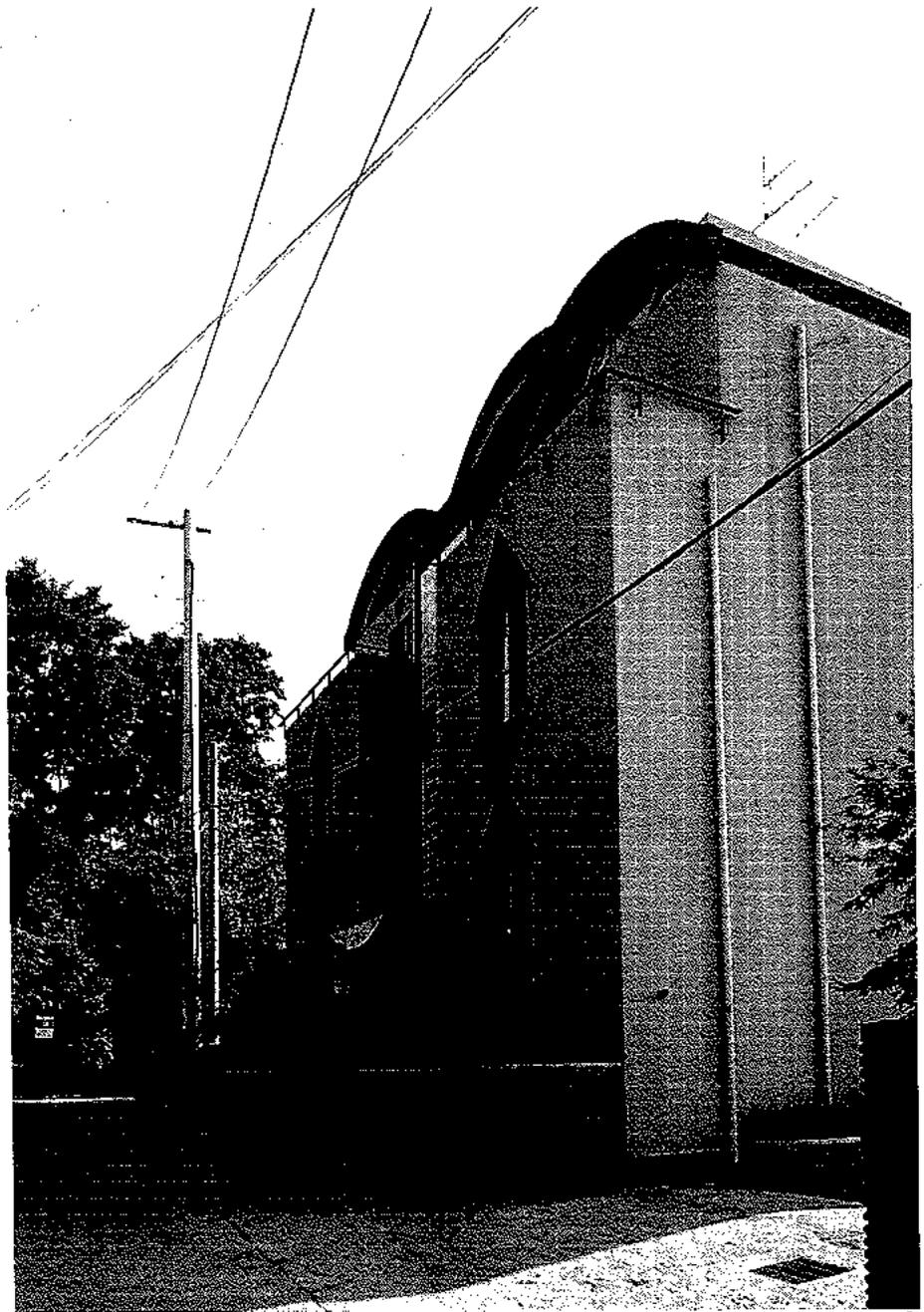
Pangbae - dong Hanuri Villa

宋光燮 / 종합건축사사무소 환
Designed by Song, Kwang - Sub

■
 단지위치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단지면적 / 328.30m²
 건축면적 / 162.36m²
 연면적 / 659.47m²
 건폐율 / 49.45%
 용적률 / 143.16%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4세대)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아트월 단열 시스템, 아스팔트 평굴



- ① 남서측 전경
- ② 루시도
- ③ 배치도
- ④ 북동측 파사드 전경
- ⑤ 투상도
- ⑥ 내부 복도



자연은 대지를 마련하고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를 조직화 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 만나는 대지들은 대부분 표정이 없다. 획일적이고 지루하다. 합리적(?)인 토지정리작업의 소산인지, 대지 그자체에서 어떤 문화적 욕구를 느끼기는 어렵다.

구획에 의해 사각의 일정한 크기로 정리된 대지를 -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대개가 비슷하듯 서로 닮은꼴의 집들이 어깨를 맞대고 작은 마을을 형성해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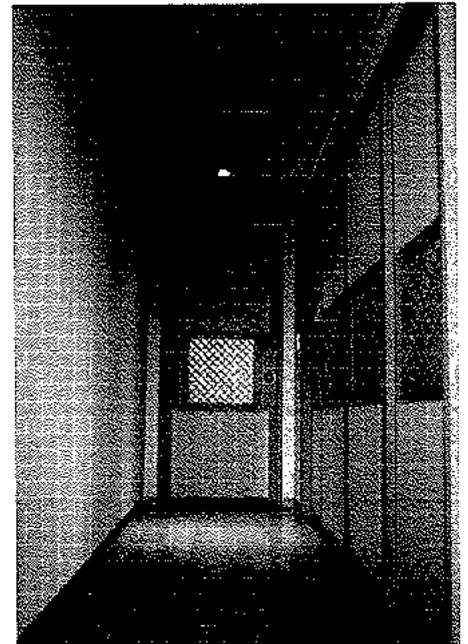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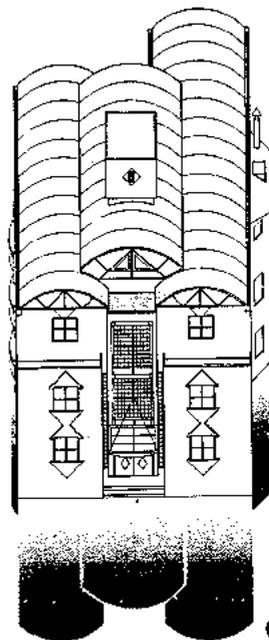
지가의 급격한 양등으로 나만의 주거공간을 소유하기는 어려운 일 - 차라리 담을 완전히 열어 내고 같이 사는 삶, 우리를 느낄 수 있는 공간, 이웃과 함께 하는 삶으로 주제를 잡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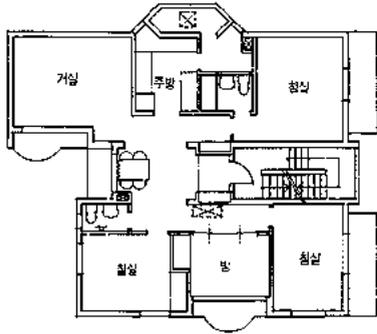
4m폭의 좁은 골목길은 단순한 통과 공간에서 벗어나 각 건물의 파사드가 이마를 맞대고 만나서, 거주자들의 사귄 공간이 될 수 있으며 법규에 의한 이격거리도 합치면 아늑한 안마당을 형성한다. 길이라는 공간이 나름대로의 장소성을 획득할 때, 길 그 자체도 일상생활에 있어 한 영역을 차지할 수 있으며, 내부적인 주거공간의 연장으로 개개의 생활공간을 도시적 맥락에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대칭으로 구성된 입면요소는 좌측의 미보다는 보다 절제된 선의 조절과 볼트의 만남으로 기존 주거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조형의미를 모색해 본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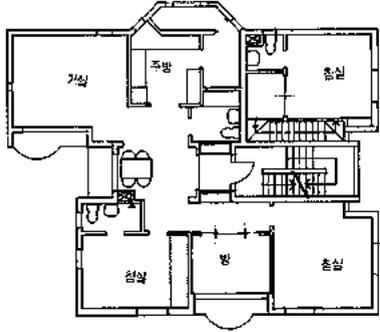
집합주거가 갖는 의미는 한 동의 건물을 완성함으로써 대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나누는 대화처럼 건물과 건물간의 대화가 가능한 그러한 공간 연출이다. 물론, 주거건축물만이 독특하게 그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적 삶의 구현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기능의 건물보다 중요시 여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접대지에 대한 제안은 배치개념도에 담겨 있다. 대지의 만남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맥락에서 함께 풀어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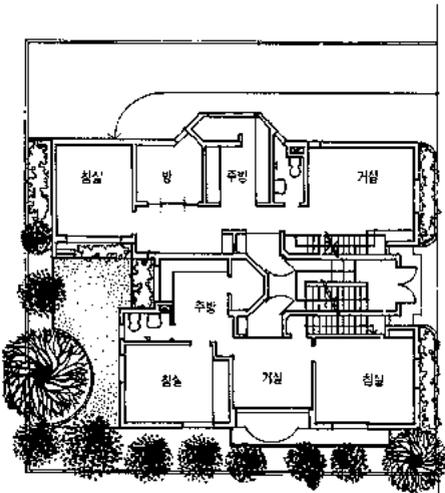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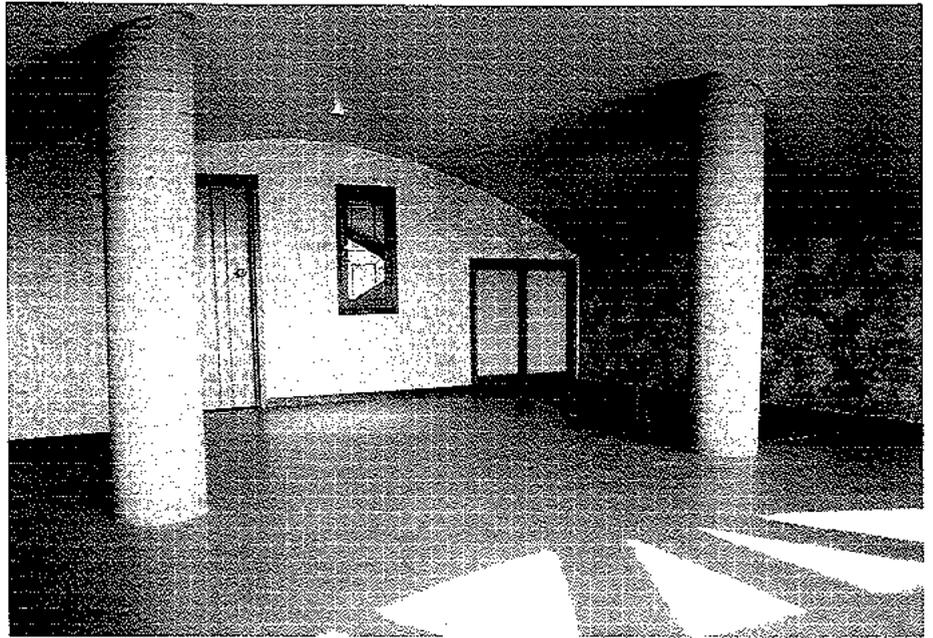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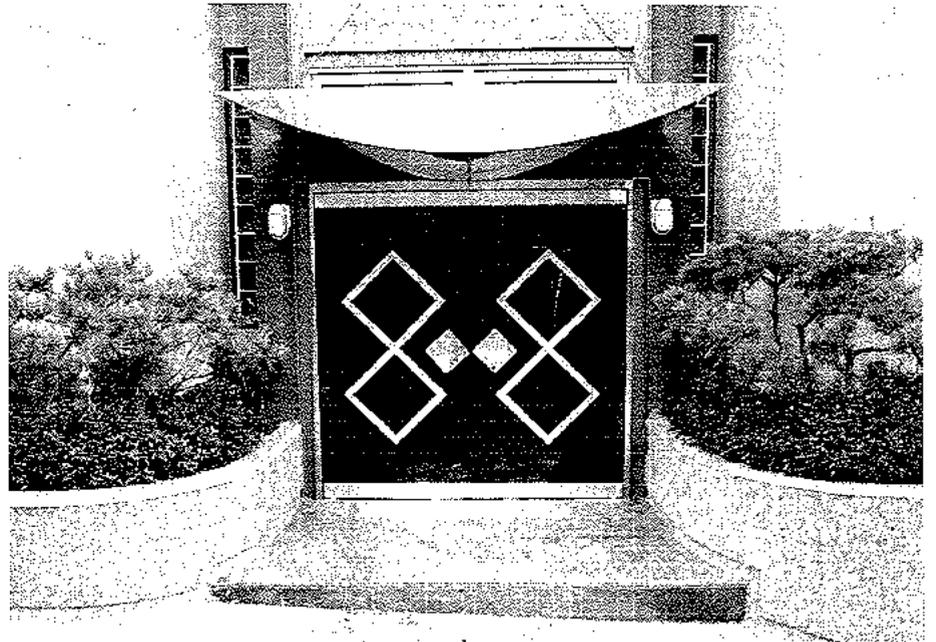
9



10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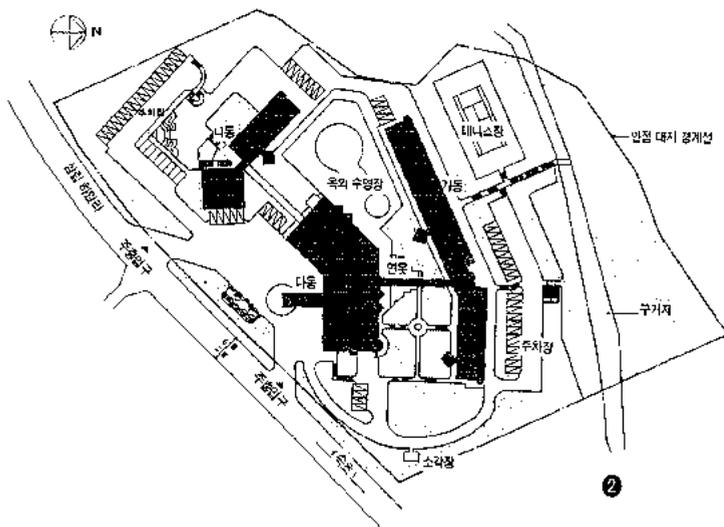
- 7 3층 평면도
- 8 2층 평면도
- 9 1층 평면도
- 10 내부 전경
- 11 1층 거실부분과 계단
- 12 동측 주출입구 상세

하림 그레이스 콘도미니엄

Harim Grace Condominium

朴贊政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원
Designed by Park, Chan - J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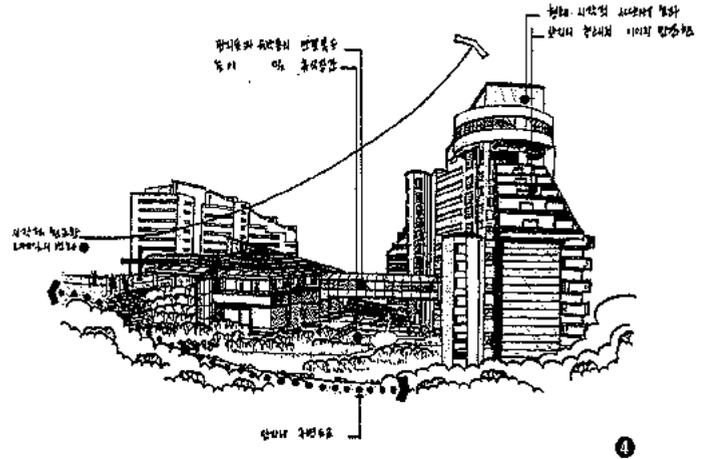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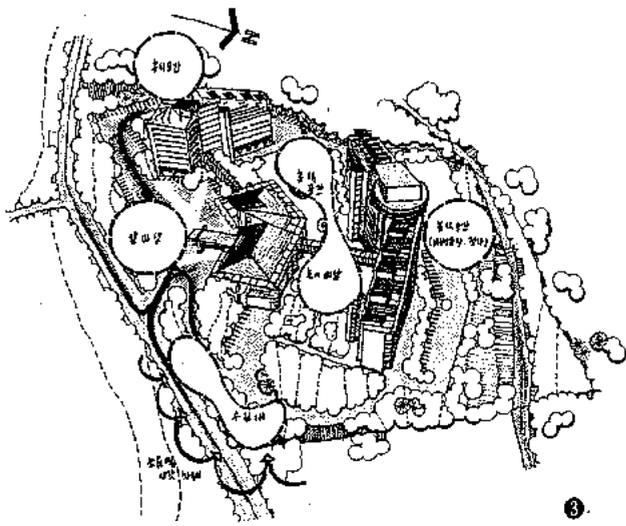
■
대지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산평리 산 59-6 (미고시 지역)
대지면적 / 25,125m²
건축면적 / 3,053.48m²
연면적 / 14,661.86m²
건폐율 / 12.17%
용적률 / 55.88%
규모 / 관리동 - 지하 1층, 지상 2층
 숙박동 I - 지상 13층
 숙박동 II - 지상 9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어느 프로젝트나 쉽게 풀린다거나 손쉽게 결과물이 얻어지는 경우란 매우 드문 일이거나 가정부터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다.

본 프로젝트가 그 성격상 계획적인 스케줄보다는 착수부터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고성군에서의 세계 챔버리 대회 일정과 맞물려 사업적 타당성 검토, 사업승인, 건축허가과정에서의 무리한 시간적 스케줄, 어려운 부지여건 등이 계획상 많은 부담을 주었다.

주어진 부지의 여건이나 자료, 요구사항 등이 충분치 못하였지만, 도로로부터 경사져 내려가는 부지를 계획적인 호조건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도로변을 따라 '숲속의 휴양 시설'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수림언덕(차폐경)을 구성하여 보았다. 또한 건축물에 의해 둘러싸여진 내부 휴게공간(수영장을 포함한 내부



휴게공간)을 본 부지의 중심공간으로 구성하여 외부동적공간(차량동선)과 자연스럽게 구분함과 동시에 각동(棟)으로의 접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고려하였다.

기타 본 계획안의 주요안점으로 건축물의 성격 및 용도상 좋은 조망의 확보, 건축공간구성에 흥미로운 시퀀스의 모색, 사업적 측면에서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주요한 계획목표로 삼았다.

수림언덕으로 처리된 부지경계를 지나면 나즈막하게 처리된 관리동과 앞마당이 나타나고, 중심관리동을 지나면 좀더 확장된 놀이, 휴게마당을 오며 브릿지(Over-bridge)와 코리더를 통해 전망하며, 각 숙박동으로 들어오게 된다. 숙박동 홀에서는 가장 넓게 펼쳐진 경치를 바라다보며, 전망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각 객실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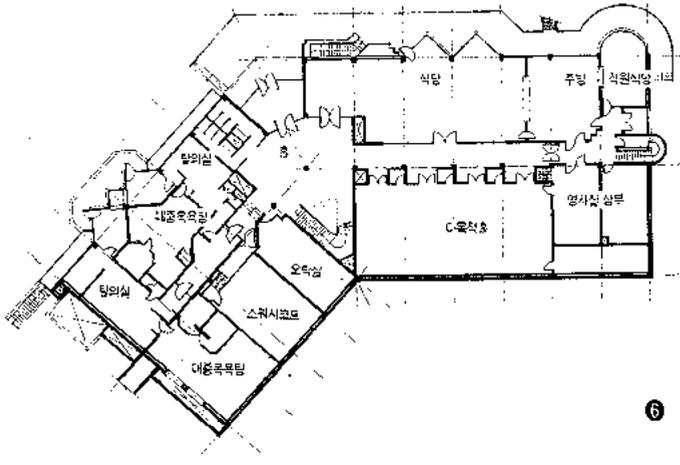
어지게 되어 다양한 시각적 시퀀스를 느끼게 될 것이다.

평형별 단위계획에서는 단층형과 복층형의 적절한 배합으로 다양한 선택과 공간구성을 모색하고 넓은 발코니를 설치하여 넓은 시계를 확보하고, 특히 지붕층을 따라 배치된 디럭스형에서는 루프데라스 설치하여 거의 모든 방향의 경치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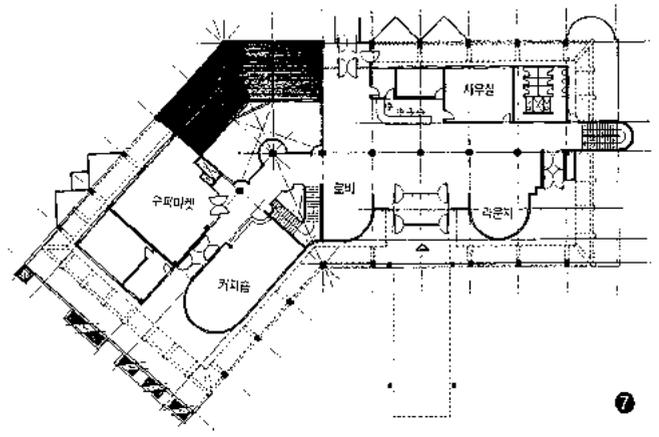
바람이 생각보다 심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중심 관리동은 가능한 지면에 밀착시키고 지붕면을 크게하여 일부 골조를 노출시킴으로써 시각적 안정감과 친근감을 모색하였고, 숙박동 하부는 피로티로 처리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지상에서의 시각적, 공간적 개방효과를 꾀하였다. 숙박동으로의 접근방향과 주조망 방향으로의 배치로 인해 건축물 배면에 생기는 통로의 수평

적 요소의 지루함을 완화하기 위하여 숙박동의 중앙 홀 및 계단실의 수직적 요소를 적절히 도입하고, 복층형의 평면에서 생기는 변화와 함께 실질적인 정면성을 부여하였다. 산지의 형태적 이미지를 조형계획에 반영하고 시각적 타겟에 스카이라운지와 기업광고를 구성하여 액센트를 주었다.

프로젝트 진행초기의 여러 어려움과 시기적으로 건축경기과열로 인해 야기된 골조공사의 섬세함 부족이 아쉬우며, 끝으로 마무리 외부공사가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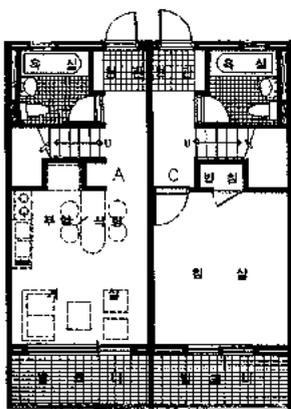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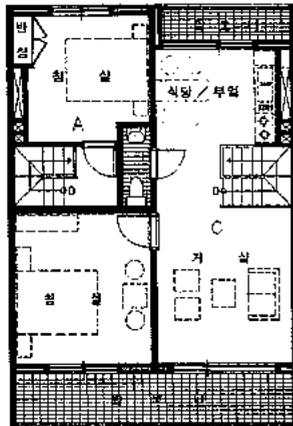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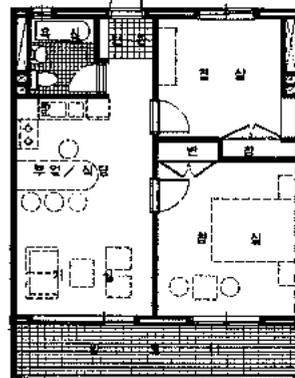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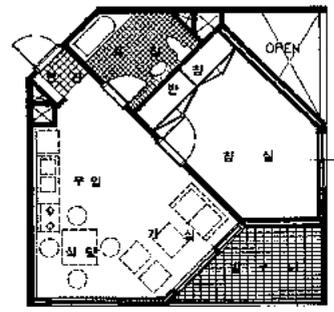
A+C 타입 1층



A+C 타입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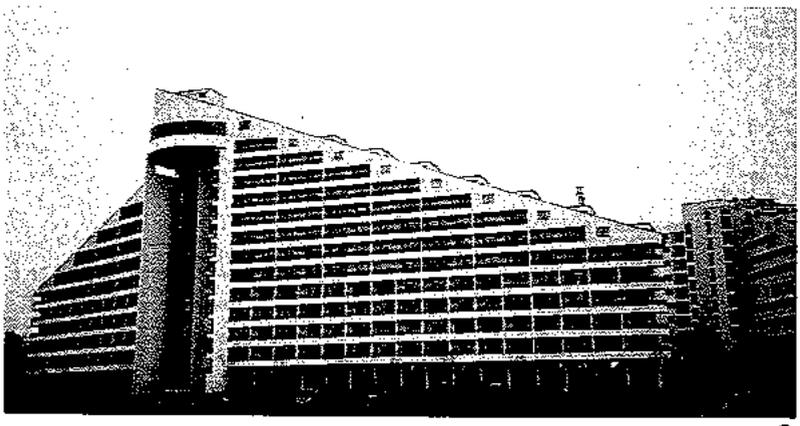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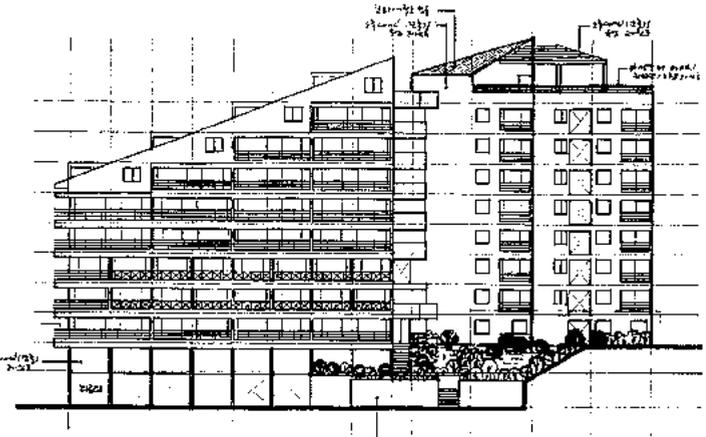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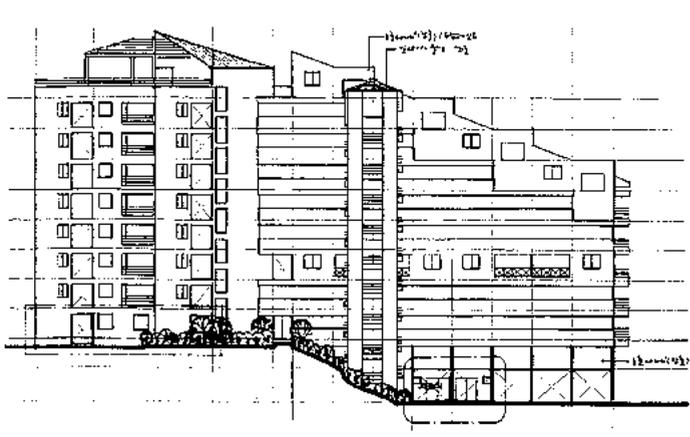


B 타입 기준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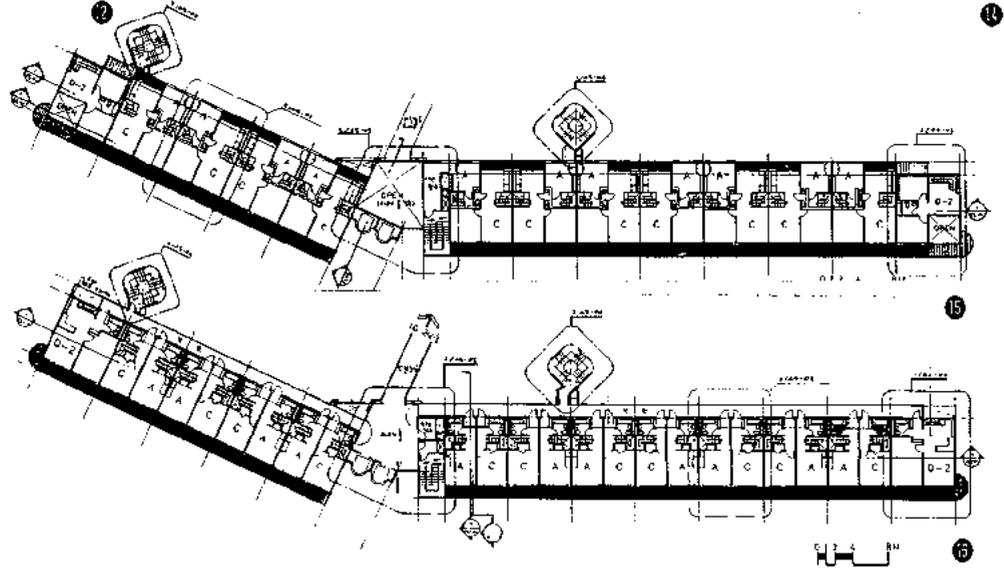


A-2 타입

9



- ① 관리동과 가동 전경
- ② 배치도
- ③ 배치 개념도
- ④ 형태 개념도
- ⑤ 로비 전경
- ⑥ 1층 평면도
- ⑦ 2층 평면도
- ⑧ 동측 전경
- ⑨ 단위 평면도
- ⑩ 나동 북측 입면도
- ⑪ 나동 남측 입면도
- ⑫ 관리동과 객실 통로
- ⑬ 북측 전경
- ⑭ 서측 전경
- ⑮ 4층 평면도
- ⑯ 가동 3층 평면도



새안 · 예 · 사랑 갤러리

Saiahn Gallery

安文孝 / 종합건축사사무소 M·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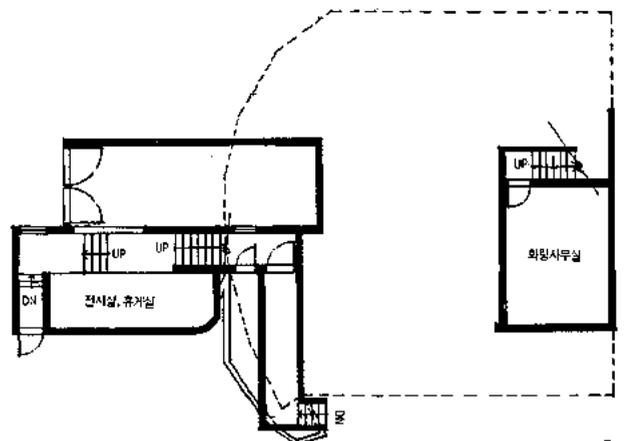
Designed by Ahn, Moon - Hyo



1



2



3

대지위치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78 - 8
 지역 · 지구 / 주거지역

대지면적 / 514.95m²

건축면적 / 179.39m²

건폐율 / 34.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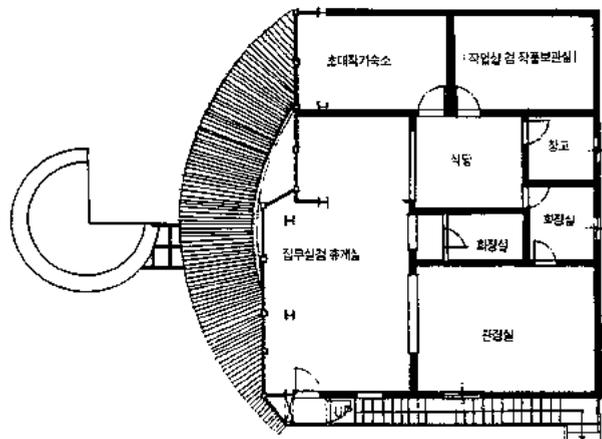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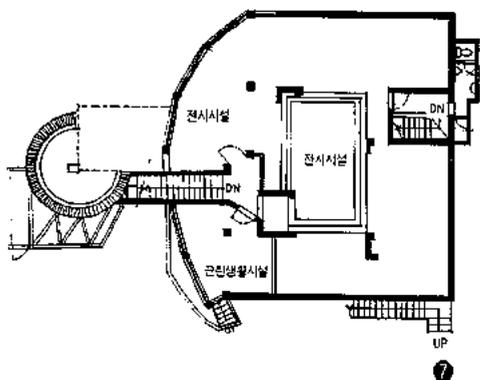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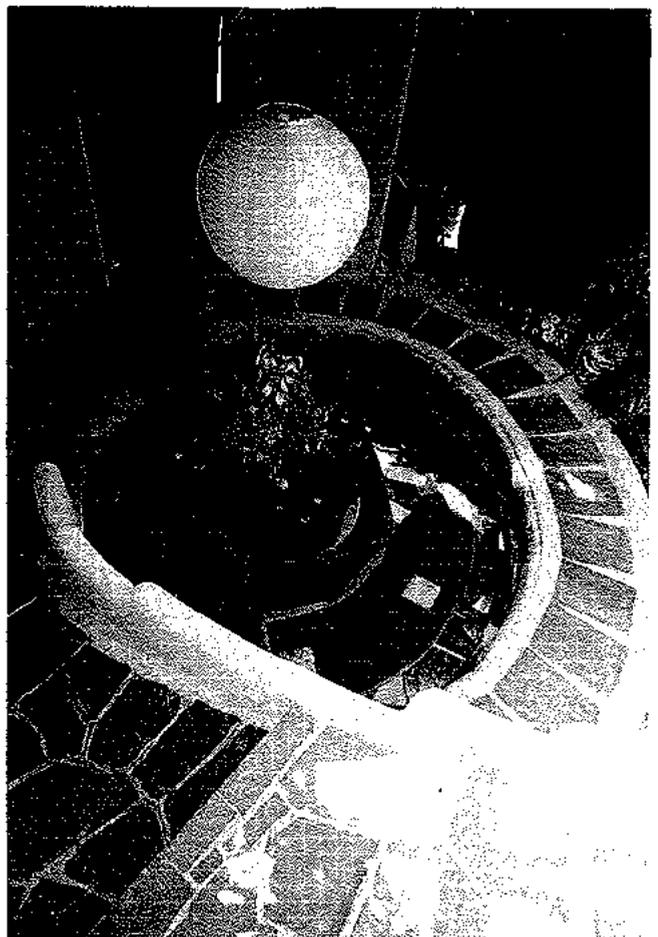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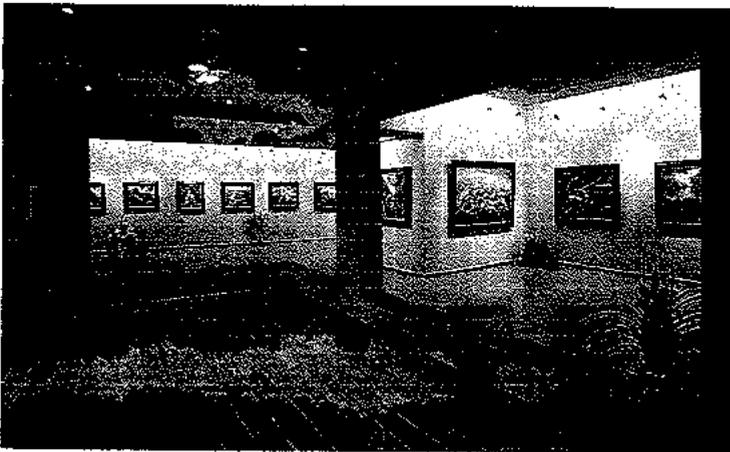
용적률 / 63.75%

구조 / 기존 조적조에 철골보강 콘크리트

주요내장재 / 백세멘트 및 고목재

주요외장재 / 유리 + 백세멘크 + (古)고토기와 + (古)목재

- ① 남측 전경
- ② 전시실 내부
- ③ 지하층 평면도
- ④ 휴게실 연결부
- ⑤ 전시실 내부
- ⑥ 원형 계단으로 이어지는 주출입구
- ⑦ 1층 평면도
- ⑧ 2층 평면도



YWCA 봉천동 복지관

Pongchón - Dong YWCA

趙顯君 / 종합건축사사무소 삼성·조
Designed by Cho, Hyun - Koon

■
대지위치 / 서울 관악구 봉천동 37번지
대지면적 / 539m² (163.04평)
건축면적 / 259m² (78.35평)
연면적 / 2,076m² (627.99평)
건폐율 / 48%
용적률 / 253%
규모 / 지하 2층, 지상 6층
외부미감 / 파스텔타일, 뿔철형도장



이 건물의 계획부지는 봉천동 달동네라고 불리는 지역에 위치하여, 경사진 언덕 끝에 면해 있고 정면도로와 대지 높이차가 5m 정도나 되는 약조건의 땅이었는데, 서울 YWCA에서 지역복지사업을 위하여 버려져 있던 땅을 구입하여 종합 사회복지관을 짓기로 한 것이다.

계획당시 주로 고려했던 점은 숨겨져 있는 대지에 위치할 건물을 어떤 얼굴로 외부에 나타낼 것인가 하는 점이었는데, 계단실, 엘리베이터 등의 코어부분을 대지형상에 맞추어서 전면도로쪽으로 빼내어 건물의 인지성을 높이고 전면을 넓은 곡면으로 처리하여 경면성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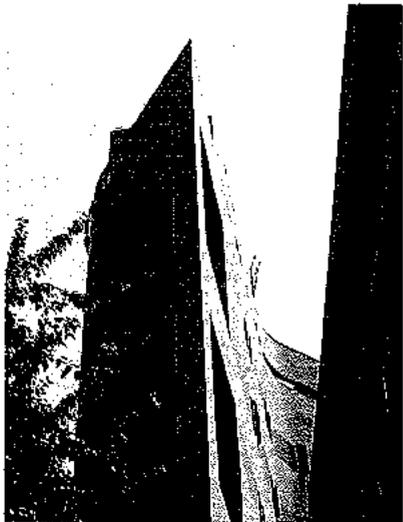
하면서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주로 여성들과 어린이, 학생들이 이용할 건물이기 때문에 전체 입면은 굳더더기가 붙지 않은 심플한 형태로 계획하였으며, 파스텔타일로써 연속적인 띠를 설정하여 수평선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건물도 법정 주차대수보다 훨씬 주차요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1층을 피로티로 처리, 옥외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였고 동시에 시각상의 개방감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준공후에 둘러보니 이 주차장은 다목적 옥외 공간으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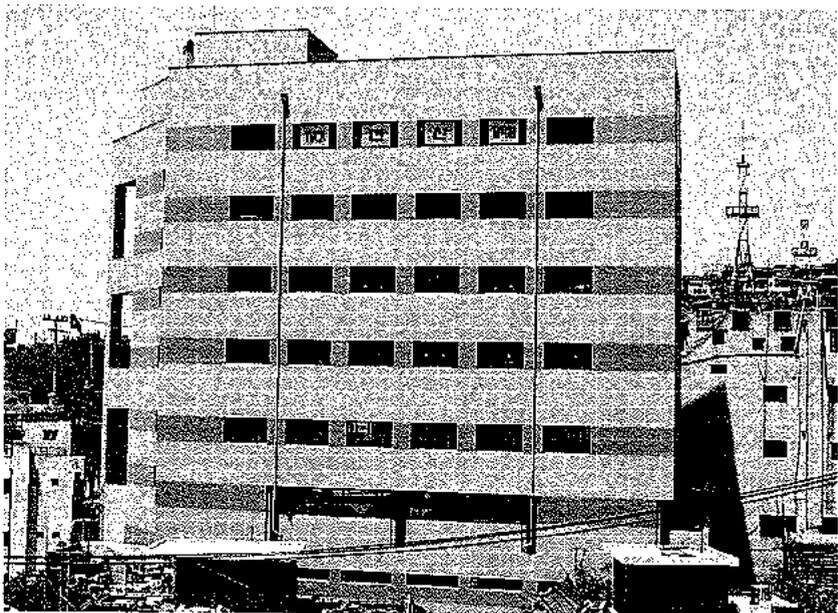
①
좁은 땅에서 수영장, 소강당, 유아원, 독서실 등의 여러 기능들을 수용하다 보니 층수가 많아 졌는데 주변의 낮은 불량주택들과 어떤 관계를 갖게 할 것인가가 설계당시의 고민거리였다. 결국 주변 건물과의 조화나, 도시의 콘텍스트니 하는 것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조형 형태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건축주측 의사결정이 협의체 형식이라서 계획안 결정에 많은 시간이 걸렸고 쟁쟁한 YWCA 여성이사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신앙심깊은 여러 아주머니들의 진지한 태도에 많은 감동을 받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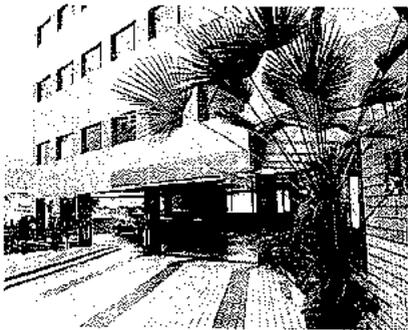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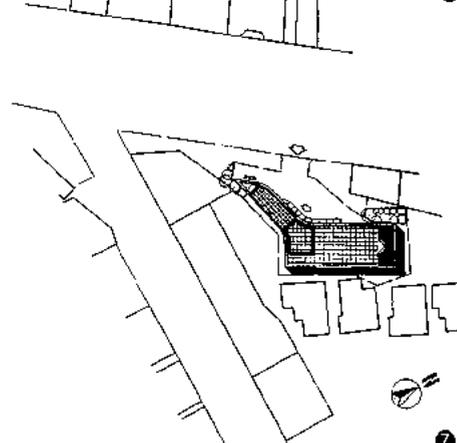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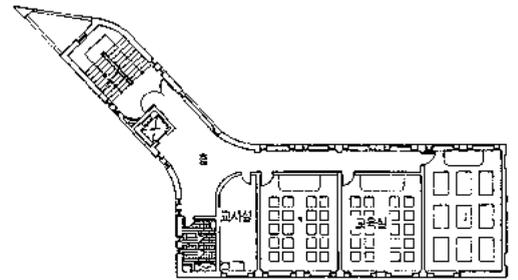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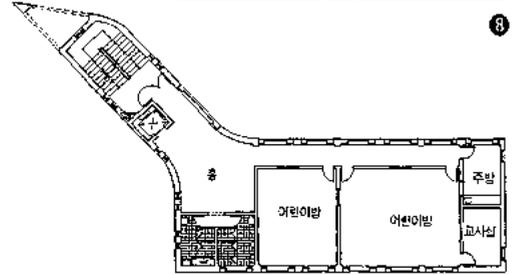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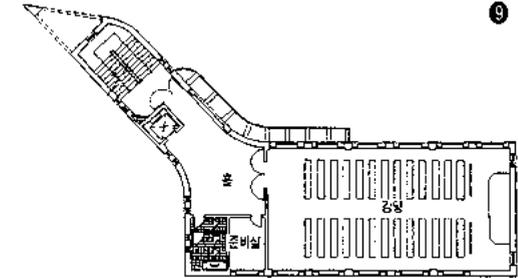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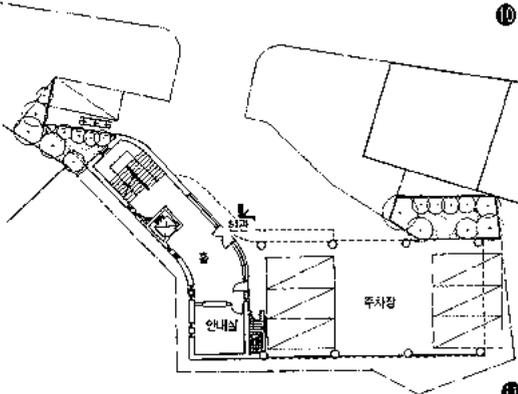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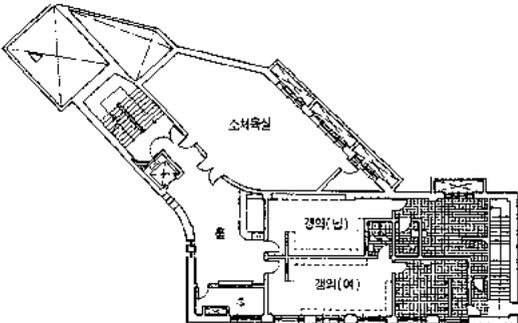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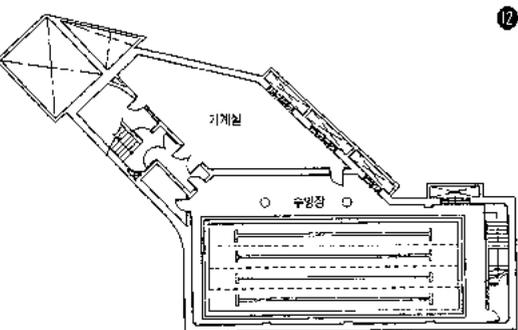
10



11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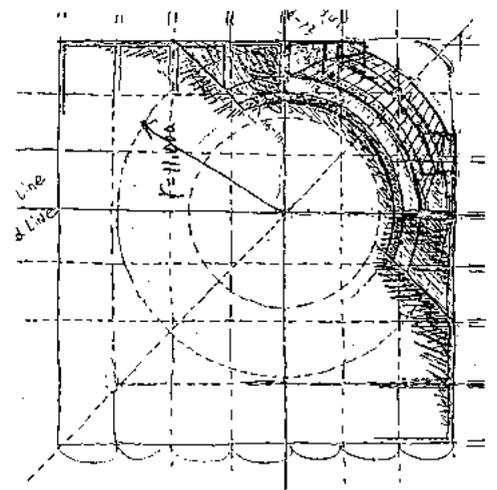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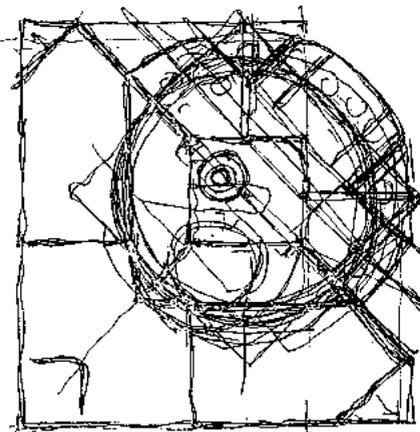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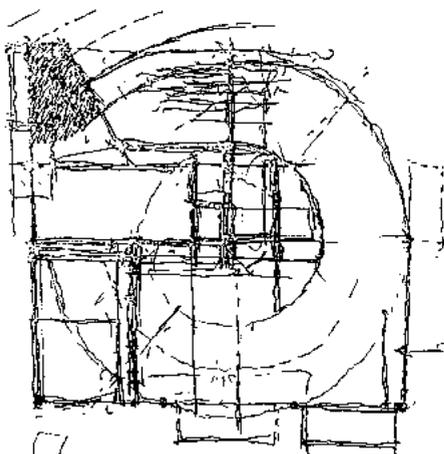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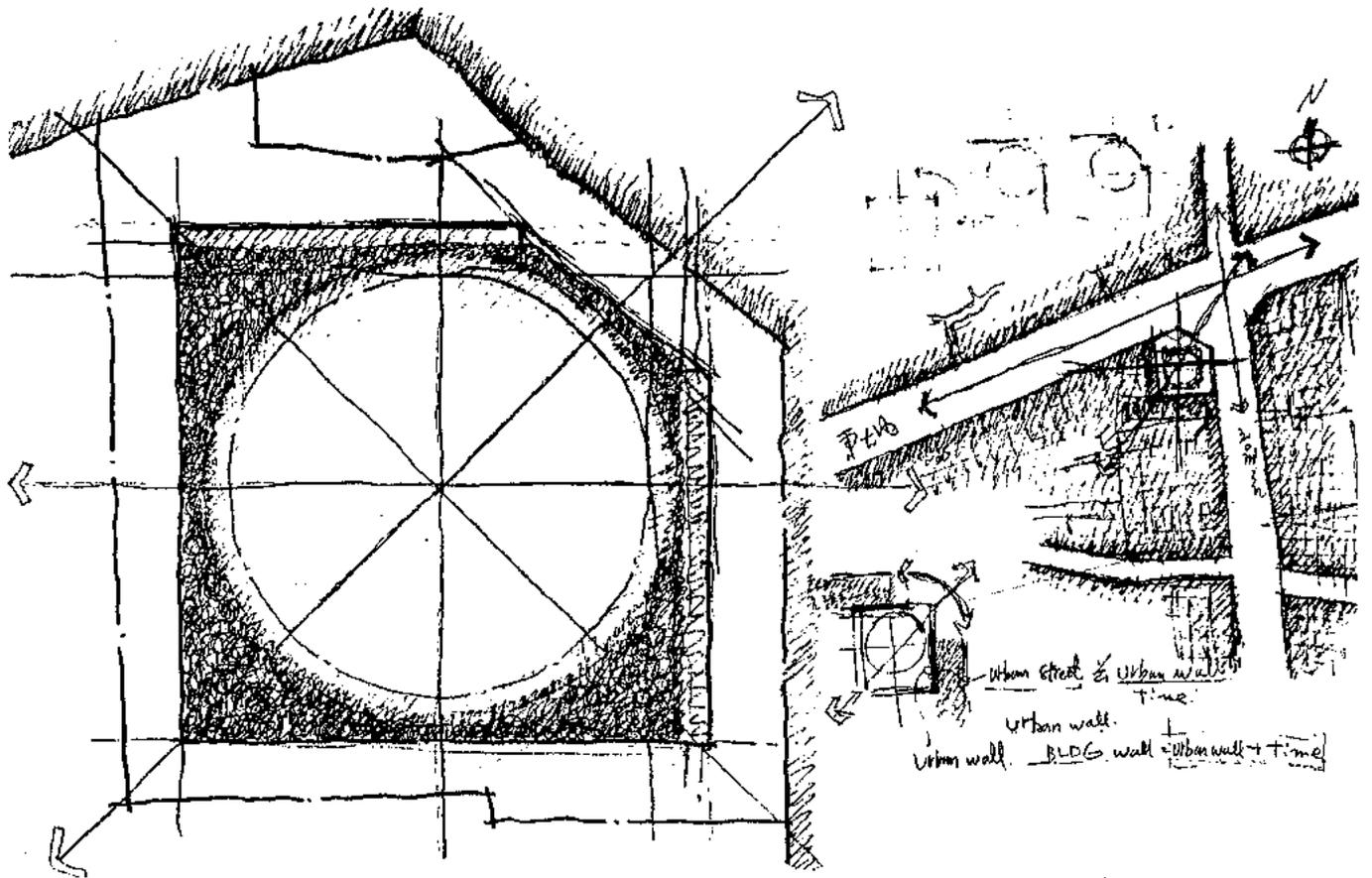
- 1 전경
- 2 옥상에서 내려다 본 외부
바닥 패턴
- 3 주계단 모서리 부분 상부
- 4 배면 전경
- 5 주출입구 및 피로티 부분
- 6 소강당 전경
- 7 배치도
- 8 5층 평면도
- 9 3층 평면도
- 10 2층 평면도
- 11 1층 평면도
- 12 지하 1층 평면도
- 13 지하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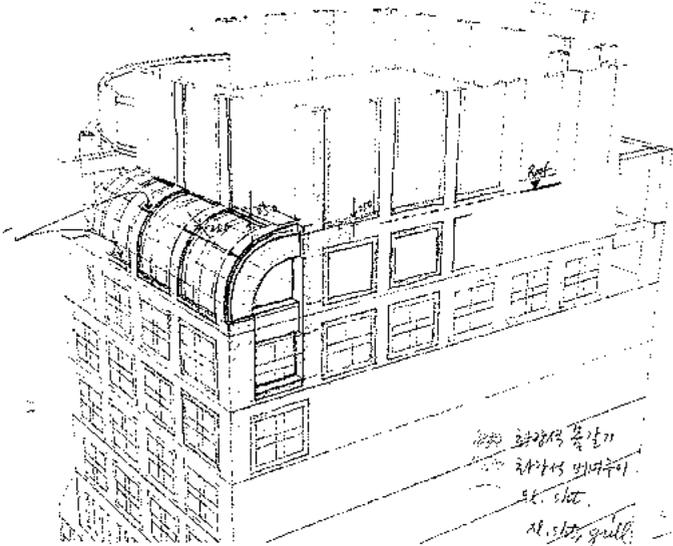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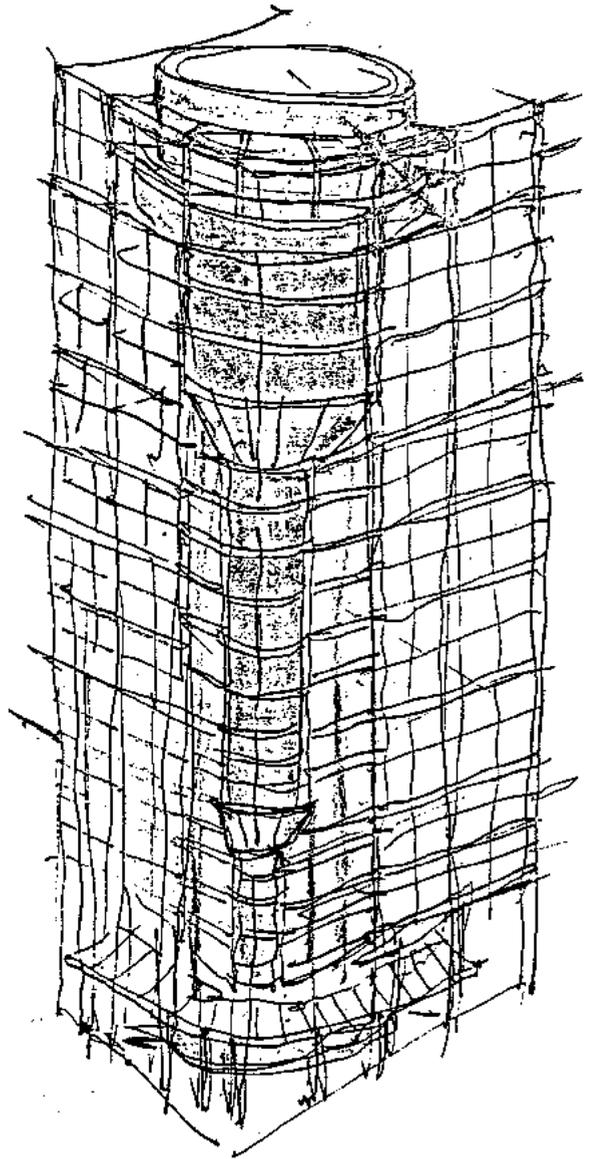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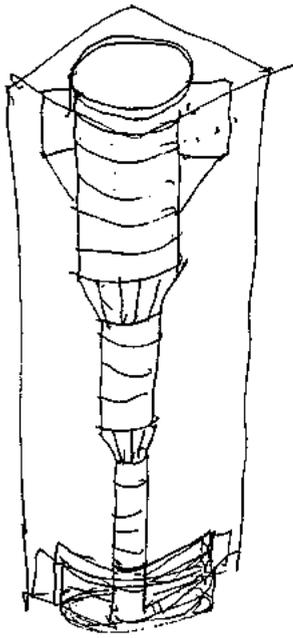
아원빌딩 계획안

A - Won Building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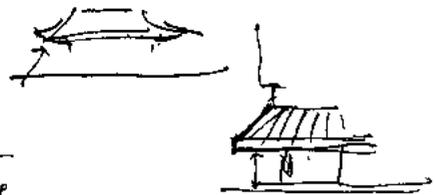
SKETCH

梁辰鏡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Designed by Yang, Jin - Hw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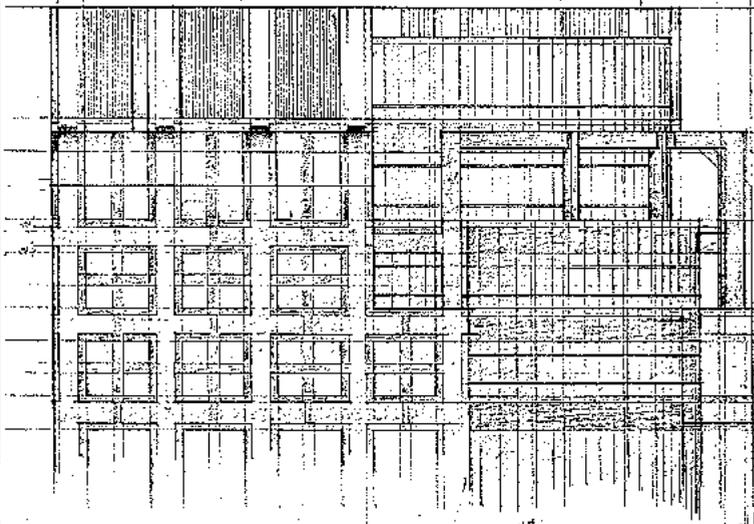




1990 2000년 동안
 2000년 이후부터
 20. 100.
 20. 100.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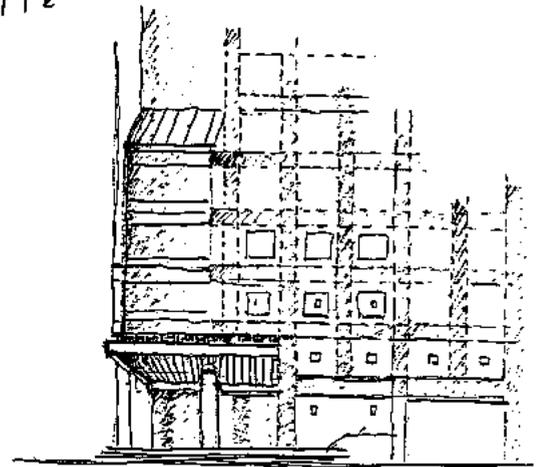


东.大.内
 场所性



2000년 이후
 2000년 이후부터
 2000년 이후부터

2000년
 2000년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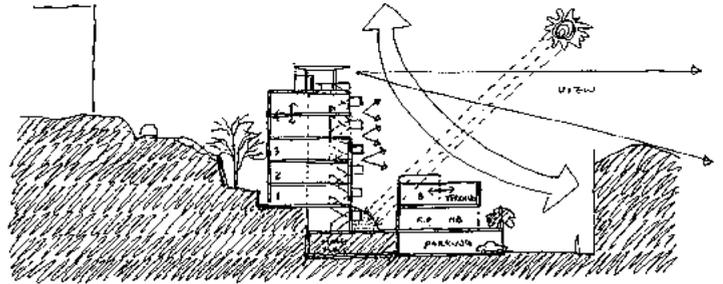


부산 해운대 빌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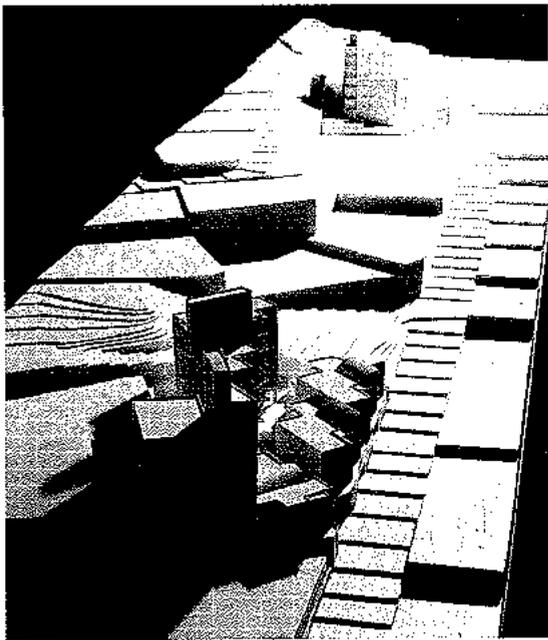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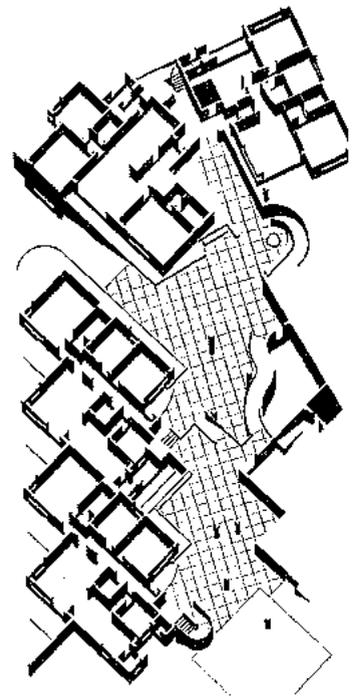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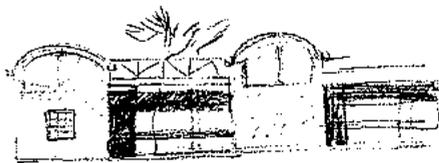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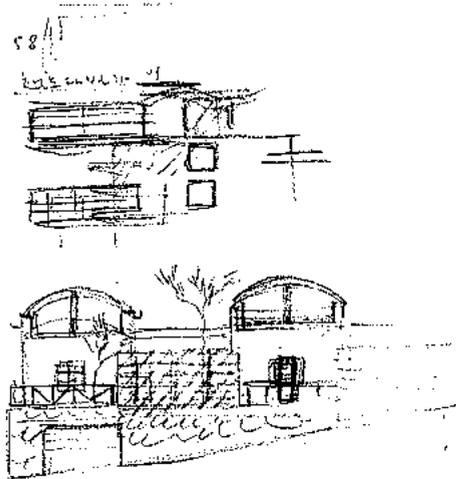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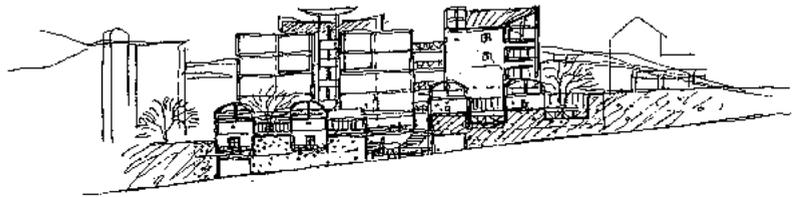
Pusan Haewoondae Village

PROJECT

趙成龍 / 종합건축사사무소 우원건축
Designed by Joh, Sung - Yong



B1 section



■
대지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대지면적 / A블록 1,336m² (18세대)
 B블록 1,918m² (18세대)
연면적 / A블록 3,202m²
 B블록 3,485m²
용적률 / 221.7%
규모 / 지하 1층, 지상 2~5층
외부 마감 / 스테코, 외장타일, 플라스틱 창틀

■
부산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북쪽에 바다쪽으로 튀어나온 언덕에 세워지는 3블록의 공동주택, 각 블록마다 18세대의 50평형 세대가 건설된다. A, B블록의 설계가 끝나고 이어서 C블록이 계획 중이다.
「달맞이 고개」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수년전부터 이른바 「빌라」라고 하는 공동주택이 갑자기 들어차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발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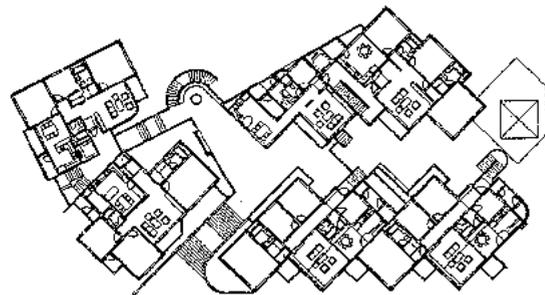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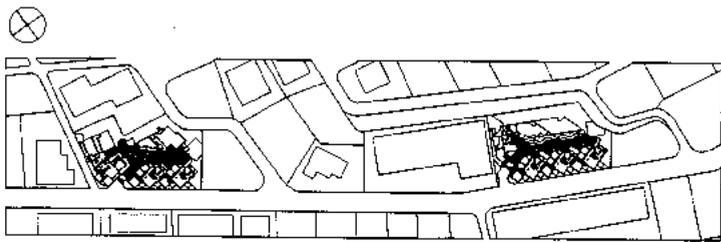
부산의 해안에서도 보기 드물게 수려한 경관을 지니고 있는 명승지로서 대지에서 내려다 보이는 백사장과 동백섬, 오륙도의 조망은 일품이다. 그럼에도 최근의 개발상황은 환경면에서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데다가 종합적인 전체 계획없이 단순 건축의 나열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리조트 단지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지역적 장소성을 크게 살리지 못하여 안타깝다.

마치 양파껍질처럼 언덕을 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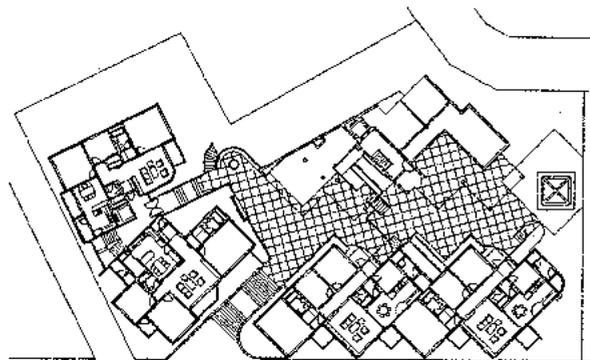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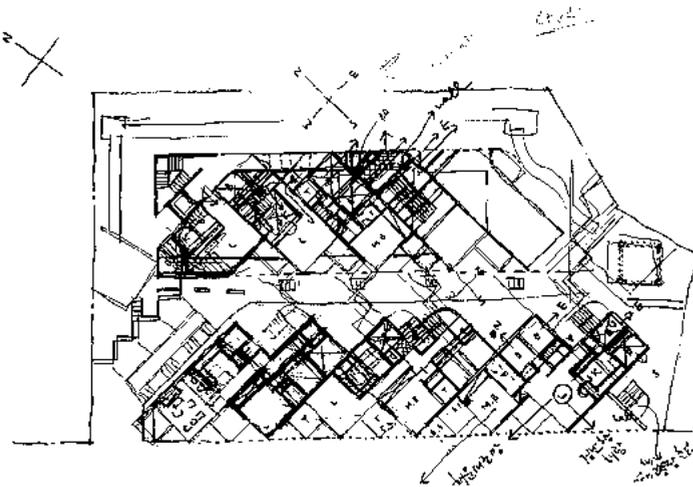
돌아가는 10미터 도로(A에서 C블록으로 올라가면서 약 9%의 경사를 갖고 있는 언덕길이다)에 3블록이 약 200미터 간격으로 면하여 있는데 A, B블록의 남서쪽의 낮은 지역에는, 만사드형 지붕까지 포함하면 거의 4층이 넘는 높은 주택이 이미 늘어서 있어서 바로 해안을 바라 보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다. 집을 지을 때 앞과 뒤, 그리고 옆을 살펴보지 않은 채 사기의 영역 찾기만을 생각하고, 생활의 질보다는 개발층의 잇속만을 지나

치게 추구한 처사에서 비롯된 환경의 열화(劣化)라고 하겠다. 대상이 되는 2개의 블록은 대지의 폭과 깊이를 보아서 하나의 동으로 해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인동거리 같은 것을 따져보면) 복수가 되기도 힘든 매우 애매한 규모에다가 앞서 설명하였듯이 남쪽(해안쪽)이 무지막지한 호화빌라로 막혀있는 셈이되어 해변의 리조트 성격을 충분히 살리기 어렵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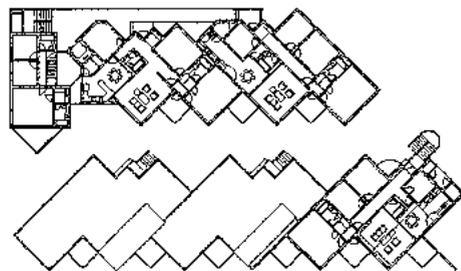
두개의 동으로 나누고 그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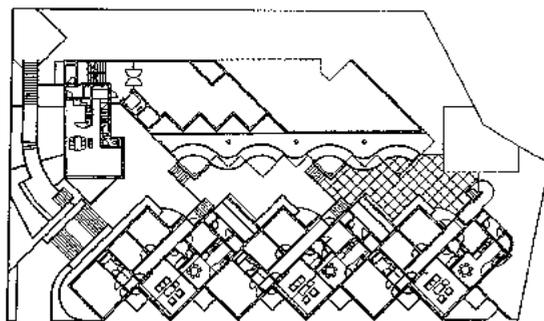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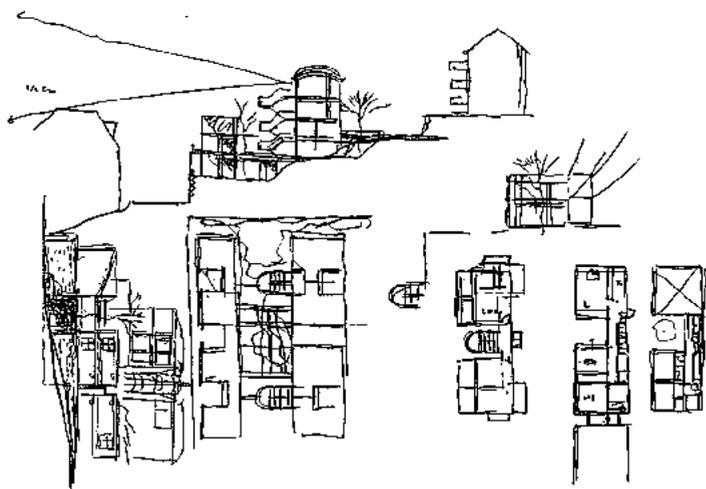
블록 A 상층부 평면도



블록 A 하층부 평면도



블록 B 상층부 평면도



블록 B 하층부 평면도

의 좁은 골목을 공간화하여 양측 건물의 균형을 이루는 최종안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서 발상하게 된 것이고, 경사진 지형의 높이에 따라 저층과 고층이 가지는 장점을 각각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해변의 조망이 불가능한 저층의 주택들은 10미터 가로변에 45도 각도로 엮거리면서 협소한 도로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광동주택이라기 보다는 단복주택의 느낌이 더 강하도록 설정되었고, 뒷쪽의 고층동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상

하를 연결하면서 해운대의 경관이 내부공간 깊숙이까지 들어오도록 각도가 틀어져 있다. 경사진 언덕 길을 걸기에 알맞은 크기의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일상(日常)이 경제하게 느껴질 중정(court) 공간은 이 단지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햇빛, 바람, 비가 조우하는 장소, 확장하는 공간, 기복과 상승을 내포하는 이곳의 반공공성(semipublic) 이야말로 이 계획을 지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복잡한 외곽선과

는 다르게 주택의 내부공간은 의외로 단순하다. 생활행위를 담은 주거공간으로서 최소의 기능만을 담당하도록 하고 가능한 단조롭지만 유기적인 공간으로 구성한다.

해변 리조트의 성격과는 맞지 않아 보이는 주변의 빌라들은 거의 모두가 붉은 벽돌과 화강석, 그리고 짙은 흙갈색의 아스팔트 성글로 마감되어 있어서 서울의 부자촌 언덕기슭에 꼭 들어찬 그것들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 푸

른 바다색, 투명한 하늘과 만나는 접점(接點)으로서의 건축 - 밝은 파스텔 톤의 스티코를 외벽재료로 선택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길에 면한 담은 부근에 있는 어촌의 돌담을 연상하게 하는 자연스러운 재료를 사용하려고 한다.

맑고 소박하고 건강하고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경관 - 일상적이면서 비일상(非日常)으로 느껴지는 공간의 자유와 주변환경과의 연계감 같은 것이 소중하게 생각되었다.

건축가인가, 건축사인가

Who do you think we are?

李光萬 / (주) 간삼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Kwang - Man

ESSAY

나는 건축계에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이제까지의 작업이 정리된 감각과 생각이 반영된 작품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건축사이지만, 이 시대의 건축계가 안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앞에서 잠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본다.

요즘은 일주일에 한번이지만 바쁜 실무중에도 학교 강단에서 설계강의를 통해 젊은 건축학도를 만날 기회가 있다. 하루는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 “건축가와 건축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갑자기 내 자신이 직업을 지칭하는 두단어에 대해 정의를 내리라 하니 그 질문이 선문답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보통 ‘Architect’를 ‘건축가’로 이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는 ‘Architect’는 ‘Architect’인데 ‘Registered’라는 수식어를 갖는 건축가입니다”라고 서두를 시작하여 건축예술, 행정, 실무, 이상 운운하며 그 뉘앙스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래도 건축을 직업으로 택할 학생들이어서인지 수긍하는 눈치였지만 똑같은 설명을 일반 사람들 혹은 다른 분야 사람들에게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의 폭을 갖게 될지는 미지수였다. 건축사, 건축가라 불리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는 사회에 대한 역할의 범위와 다른분야 사람이 생각하는 범위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감지하는 것은 스스로 자성의 기회도 되지만, 이와는 반대로 건축활동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도 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실무를 시작하면서 갖은 야근과 철야, 적은 봉급, 시간만 있으면 건축이야기, 게다가 술자리라도 마련되면 마치 건축가가 된듯 건축을 논하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일어 별을보며 집에 들어가는 것이 자랑스러웠던 기억이 나기도 한다. 지금의 나는 공인된 건축가(건축사)이지만 ‘건축가’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학교강의도 기웃거리게 하고 그래서 건축을 학문적으로 정리하고픈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분야에 관심을 갖게 한다. 건축사면허 취득과 설계사무소 개설후 대외적으로 건축사라는 자부심에서만 출발한 생활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전문인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스스로 평가가 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한동안은 계속해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존재 위기에 놓일 정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수행해야 했는데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는 성격이 다른 분야의 사람이 참가하게 되어 서로의 협동체계를 갖추고 팀워크를 이루어 작품을 수행하는 과정이 그 나름의 유익한 시간을 보내게 하였지만 이러한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한편으로 나에게 큰 불만을 가져다 준 면도 있었다.

목적과 수단이 왜곡된 결정을 내리는 행정관료들에 의한 건축가로서의 좌절이 그 단면이다. 예를 들면 ○○은행 본점 설계시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의 발표는 무르익은 설계과정을 벼랑끝에 서게하기도 하고, ○○제철 경영정보 센터의 경우는 갑작스런 ‘규모변경’에 따라 건축가의 많은 결정들을 일순간에 무용지불화 함으로서 건축가의 역할을 다시 뒤돌아 보게했다.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매스컴에서는 산행주 대교 붕괴사고를 보도하면서 사고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고 있다. 부실시공인가, 감독관청의 감독소홀인가, 기술수준의 전문성 부족인가, 대규모 프로젝트의 설계 경험으로 비추어 보아 사고의 원인은 참여자 모두에게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그것이 우리시대의 건설 수준임을 인정하게 되고 부실행정의 표본으로 보도되는 내용을 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 건축 분야에 생겼다면, 이 모두 부실시공, 건축사의 설계관리 소홀, 감독관청의 부실행정의 표본인 것처럼 보도될 것이고, 건축사를 죄인처럼 취급할 것이며, 그것도 ‘건축사’가 아닌 ‘건축설계사’라고 부르면서 모든 건축사가 공무원과 뇌물 수수 관련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보도할 것이다. 이런식의 여론은 건축사가 행정비리의 주체자로 인식되게 하여 급기야는 92년도 건축사 보수 교육시 정화대회, 결의문 채택 등을 하게 되고 앞으로는 그런 행위 등을 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사실에 이르러서는 건축사라는 직업에 회의나 환멸같은 것을 느끼게 되어 뛰쳐나오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러한 정신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은 어쩔 수 없이 순수한 자신의 영향력만으로 사회현상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한 개인자적의 건축가로서의 버릴 수 없는 욕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건축계의 통합된 구조적인 노력의 배경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 욕심에 충실하여 건전해 질 수 없다. 3단체(학회, 가협회, 시험회)로 구분되어 있는 우리 건축계는 각자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여 좋은 건축을 만들기 위해 서로 토론하고 협력하는 구조적



건축가인가, 건축사인가. 이것은 바로 이상과 실제 그것과 같다. 건축사가 해야 할 업무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예술가 편에 선 건축가가 되어, 마치 사회모순과 비리를 남의 일로만 느끼며 순수하게 자신의 영향력만으로 사회현상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건축가' 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면서, 적어도 우리 모두는 건축이라는 한 배를 함께 저어가는 같은 선원임을 새삼스레 생각해본다.

내가 아닌 우리의 개념에서, 건물을 설계하는 좁은 의미의 건축가가 아닌, 건축적 이상이 추구되어진 건물(건축)에 관심을 갖는 '건축가'로서의 사고의 연장에서 조성되는 전반적인 우리 건축문화의 분위기가 되길 바란다.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건축사, 건축가, 건축학자의 상호 신뢰가 성립되고 한 울타리 속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협력할때, 비로소 서로의 비판이 의미를 가질 수 있고 훌륭한 건축유산을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에서 오래 하게되는 각종 심의, 자문위원회 등의 메카니즘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건축사의 역할이 건축가로서 인정되어야 할 절대적인 부분이 대규모 체제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신당하고, 건축이외의 문제 - 인간관계, 사회적 관례, 행정적 절차 - 때문에 야기되는 사무적인 협동이라는 행정업무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 극도로 싫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외국팀과의 협동작업을 하던중에 법규해석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여 허가당국에 제시할 수 있었던 사실은 나에게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면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 또는 법규 모순에 도전한다는 것은 결코 불가항력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면, 최근 법규의 설비분야에서 규정하는 배연창의 설치는 고층 건물에서 배연창을 설치하면 화재 발생시 외부의 신선한 공기유입이 화재를 촉진시킨다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화재학회와 방재 전문가로 구성되어 작성된 계획서가 건설부 질의 회신을 통과하여 천장 매연설비, 아트리움의 층간 방화구획에 대한 대안제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쁜 여건 속에서도 진정한 건축사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본다.

여기서 나는 거듭해서 건축사들의 업무를 저해하는 각종 심의 제도가 건축문화에 얼마만큼 발전을 가져오는가 하는 것에 의심을 갖게된다. 건축 계획 심의는 어떠한가? 이는 건축사들의 고유업무에 대해 행정가들의 편의적 책임전가에 의해 생겨난 제도이며, 이에 편승하여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은 많은 시간의 가능성 검토와 노력의 결과를 단 몇분의 시간을 통하여 "조형적 처리가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입면 비례가 나쁘다", "동선 처리가 나쁘다"는 등의 평가에 머무르게 되는 명확하지 않은 기준과 행정지침이 주관적 평가라는 인상을 갖게한다.

또한 현실의 교통영향평가는 무엇을 의미하나? 법적 주차대수이외에 추가 주차대수를 25%까지 심하게는 50%까지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하는 기준 등의 심의 위원 편의에 따라 정하는 규정을 우리의 건축사들은 어떻게 수용하여야 하는가? 이렇듯 건축이 갖고있는 주관성과 독창성을 무시하는 제도의 운영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법적 테두리 속에서 긍정적 사고를 갖고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건축문화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 요구되는 때에 부정적 측면만 도출하는 심의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일까? 아직도 심의 제도는 법적 권익을 앞세워 건축의 창의성 보다 행정편의적 지도를 일관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주위에는 건축사의 면허자체를 부정하고 예술적 행위만을 중요시하는 건축가와 교수들도 있다. 또한 건축계 주변에 교통, 설비, 조경 관련 학과 교수들도 있는데, 이들은 각종 심의, 현상설계 심사시 건축가들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며 마치 건축가의 위에 서서 활동하며 건축사를 업자 정도로 취급하는 분들도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나는 건축가(건축사)가 해야 할 업무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예술가 편에선 건축가가 되어 마치 사회 모순과 비리를 남의 일로만 느끼며 순수하게 자신의 영향력만으로 사회 현상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건축가' 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면서도 적어도 우리 모두는 건축이라는 한 배를 저어가는 같은 선원임을 새삼스레 생각해 본다.

이상은 나의 생활 속에서 느끼게 되고 부딪히는 문제들이었다. 건축분야의 출발은 건물을 실제화하여 이야기 거리를 만드는 '건축가'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출발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정의되는 직업인가? 나는 '건축가'인가 '건축사'인가. '건축가'와 '건축사'의 차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이것은 '건물은 무엇이고 건축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에서와 같은 구조가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실제와 이상이 그것이다. 건물을 설계하는 좁은 의미의 건축가(Registered Architect)에서 건축적 이상이 추구되어진 건물(건축)에 관심을 갖는 '건축가'로서의 사고의 연장에서 조성되는 전반적인 우리 건축문화의 분위기가 되길 바란다. 건축은 어느 한 개인의 노력으로만 이루어 지지 않는다. 내가 아닌 우리라는 개념에서 풀어야 할 지속적인 숙제 일 것이다.

귀순 건축인 金永成 초청 간담회

Clatch : KIRA Invited a Submission Architect of Kim, Young - Sung

본협회에서는 지난 7월 13일(화)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본협회 대회의실에서 북한 정무원 산하 국가건설위원회 소속 건축 설계사로 있다가 독일 파견근무 중, 지난 6월 7일 귀순한 김영성(58)씨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본협회 오운동회장을 비롯하여 역대 회장 및 임원과 건설부 관계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탄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오운동회장의 협회 전반 소개에 이은 간담회에서 북한 건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의와 김영성 씨의 성실한 답변이 이어졌다.

이번 건축인으로서 최초로 귀순한 김영성씨와의 만남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북한 건축문화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참석자 명단

- 김영성 : 1934년 평양 출생, 체코에서 건축학 수 학, 전 북한 정무원산하 국가건설 위원회 소속 건축 설계사
- 오운동 : 본 협회 회장
- 김지태 : 본 협회 자문위원
- 장기인 : 본 협회 자문위원
- 한창진 : 본 협회 자문위원
- 구운희 : 본 협회 자문위원
- 조상호 : 본 협회 이사
- 안영준 : 본 협회 이사
- 김무언 : 본 협회 이사
- 강태석 : 본 협회 이사
- 김영수 : 본 협회 이사
- 한규봉 : 본 협회 이사
- 이문우 : 서울건축사회장
- 김형걸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이필원 : 건설부 건축기획관
- 홍재기 : 건설부 건축계획과장
- 정재열 : 건설부 건축행정과장

오운동 : 안녕하세요 ?

오늘 우리는 수십년 만에 남과 북의 건축 전문인이 자리를 함께 하는 뜻깊은 날을 맞이 했습니다. 그간 많은 분들이 귀순하였지만 건축 전문인으로서 김영성 선생이 처음이라 생각 됩니다. 4천여 회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 하며,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건축문화는 질적·양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는 반면, 급속한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술개발 등 여러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건축실상에 따라, 본협회에서는 남북의 건축교류를 통한 한국적인 건축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협력과 개발의 측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북한의 「조선 건축가 동맹」과의 접촉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자리를 빌어 북한 건축의 실상을 접하면서 서로의 건축문화를 비교·연구해 봄으로써 같은 한민족으로 상호 이해와 협력의

발판을 구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한 건축의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준 : 우선 자유대 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북한에서의 건축에 대한 교육, 연간 교육원의 배출, 교육후 시험 및 자격취득 과정 등에 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성 : 북한에서의 건축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는 우선 제일 큰 평양건설건재 대학이 있고, 그다음으로 함흥수계대학과 평양철도대학 등이 있습니다.

평양건설건재대학에는 도시계획학부, 건축학부, 건축공학부로서 역학을 위주로 하고, 구조설계를 하는 학부, 원리학부, 내부디자인학부, 난방학부, 상하수도학부로 되어 있어 건재 일꾼까지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책공업

대학에서는 건설을 뒷받침하는 열난방, 전기설계 등 전문학부가 있어 건설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철도대학에서는 수리시설물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설계원 5급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북한에서는 자격이 15년전부터 유일자격형식으로 되어 있어 연구사 1급이나 건축사 1급이나 의사 1급이나 모두 대우조건에서 같습니다. 이러한 1급과 2급은 국가 과학 기술위원회에서 취급하고 3급에 대한 것은 해당 부위원회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자격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자격시험은 4년에 한 번 실시되고 있습니다.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5급설계원으로 일하면서 4년후에 시험을 자격을 받게 됩니다. 자격을 받게 된다는 것은 곧 추천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이때 추천서의 내용은 정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시험을 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건축은 건축문제지 200제 중에서 이것을 통달하고 전체내용이 정확해야 4급을 받고, 4년후 다시 시험을 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급부터는 후비(後備) 양성 문제가 있어 좀 힘들습니다. 즉 제도공 등 설계원 자신보다 낮은 수준의 설계공을 한 급 올려놓는 후비(後備)양성을 하는 조건에서 또는 일정하게 설계를 하는 조건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급도 마찬가지인데, 3급부터는 외국어를 통달해야 합니다. 즉 3급은 외국어 1개, 2급은 외국어 2개, 1급은 외국어 3개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1급설계원이 될려면 대략 15~20년이 걸리게 됩니다.

현재 이러한 1급 설계원은 약 15명 정도 있습니다.

2급 설계원은 공훈(功勳)설계원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도행정위원회의 부위원장급 대우를 받고 있으며, 3급 설계원은 도적인 범위에서 일정하게 기념비적인 건물의 대상 책임자 또는 그것의 설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 분류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유일한 문제집이 있어 치뤄지는데 부정행위가 너무 심해서 완전히 봉인해서 마치 국가고시처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험을 봐서 진급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설계를 망라해서 표창을 받는 式으로 즉 김일성 수령이 봐서 "이것 참 잘 됐다"는 말만 들어도 한 급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설계원들이 노리는 바가 시험보다는 이러한 현상모집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설계원들의 생활에서는 자기가 어느 설계사업소에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 중앙당 설계실에 있다고 하면 중앙당 지도원급의 대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려고 노력하지만 성분이 좋아야 하는 등 기타 다른 문제가 따릅니다. 또한 인민 무력부 설계원이나 사회안전부, 보위부 등 건설 계층에서는 별달고 행세하면서 약간은 설계를 하지만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계원들이 현재 그런 쪽에 갈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시 설계 사업소에 있는 설계원들의 생활은 곤란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설계원들은 연간 졸업생 중 약 10%에 해당하는 50 내지 60명 정도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지태 : 현재 남한에서 다루고 있는 건축 설계 업무에 있어서 일반건축, 고건축, 그리고 재건축의 의미와 북한에서 사용하는 그것들의

북한의 건축은 건축교육 내용 중에서 실무적인 내용, 예를 들어 동선계획, 공간계획 등은 체계가 되어 있지만 건축사(建築史)를 논하는 한다면 그것을 예술로 취급할 때부터는 아직까지 건축학박사가 한명도 없을 정도로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따라서 북한 건축에는 이렇다할 이론들이 하나도 발표된 것이 없고, 건축잡지에서 보더라도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일색(一色)되어 있고 출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논문을 발표하고 싶어도 묵살되어 논문 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의미가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건축, 고건축, 재건축의 語義는 무엇이며, 또한 그것의 취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 : 재가 건축전공이 아니라 제 답변에 만족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건축은 건축교육 내용 중에서 실무적인 내용, 예를 들어 동선계획, 공간계획 등은 체계가 되어 있지만 건축사(建築史)를 논하는 한다면 그것을 예술로 취급할 때부터는 아직까지 건축학박사가 한명도 없을 정도로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북한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교수와 당정책화 문제가 우선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건축에는 이렇다할 이론들이 하나도 발표된 것이 없고, 건축잡지에서 보더라도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일색(一色) 되어있고, 출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논문을 발표하고 싶어도 묵살되어 논문 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다음은 고건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정무원 산하 유물보존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유물보존위원회에서 고건축에 대해 약간 논의하고 있을 정도이며, 이것을 체계화 시킨 이가 없어 이 부분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러나 평양과 관련된 고건축은 평양이 고구려의 성도로서 돈을 들여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재건축에 대해서는 물론 북한에서도 존재하며 각 지방 도시설계사업소, 도시경영 설계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양시는 50년대까지 지은 건물을 다 헐어 버리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재건축을 한다고 하게되면 현존하는 가치있는 건물들을 어

떻게 투자해서 새롭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각 지방의 도시경영설계 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신축에 대한 것은 도시설계 사업소가 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평양만 도시계획설계사업소가 따로 있고, 지방에는 도시설계 사업소 내에 도시계획설계실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김지태 : 그동안 저희나라에서 이루어진 재건축에 대해 견학을 하셨는지요. 하셨으면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성 : 북한에서의 재건축은 계획에 의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일반 건축을 배우는데 있어서도 회람건축의 개념을

약간 주입하지만 현재 건축 개념에 대한 강의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건축 그자체가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세계 건축 추세가 어떠한지, 건축의 현안 문제가 어떤 것인지 전혀 식견이 없습니다.

여기 제신 분들은 북한의 건축이 그래도 소련의 건축과 동일선상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건축가들의 작품에는 건축의 문화권이 보더라도 철자법이 맞지 않음은 물론, 로마에서 하나 따오고 회람신전에서 하나 따오는 식의 복합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건축가들이 건축의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농후하게 생깁니다.

김지태 :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체제하에서 개인이 집을 지을 경우 일반 건축이 가능합니까.

김영성 :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간부들이 현재 직위에서 얼마 못하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들이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부들도 그 자리에서 얼마나 헤쳐갔느냐해서 자기 집부터 짓습니다. 그래서 단층주택을 짓기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건축양식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김지태 : 알겠습니다. 현 북한의 실상을 어렵듯이나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상호 : 저희 남한에서는 설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민간인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나 공공기관은 기술적 측면이라든가 경제적 측면에서 입찰 내지는 현상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북한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김영성 :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민 대 학습당은 평양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대한 부지 자체를 중심을 해마다 현상 모집을 해 왔는데, 한 번은 노동공장이 되었다가 한 번은 회관이 되었다가 마지막으로 결론 내려진 것이 인민 대 학습당이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것을 현상모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를 국가건설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어디까지나 행정이 하지 않고 행정이 그 가운데 추려서 그것을 당기관에 가자고 가서 최종 심의를 받습니다. 말하자면 인민 대 학습당이던 어디까지나 김일성, 김정일한테 가지고 가는 시안이 대여섯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김일성이 보고 괜찮다고 하는 안이 입선되며 그 안의 작성자들은 한 급수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여기에서 채택된 안은 그 도면에 나와 있는 그대로 부조건 건설이 되어야 합니다. 수정이라는 것은 곤란하며 설계자가 소개되는 법도 없습니다. 입찰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아울러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대상에 따라서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도시 건설 국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은 명목상 존재하는 것이고 실권도 없으며 당기관에 올리는 몇개의 시안을 선정하는 권리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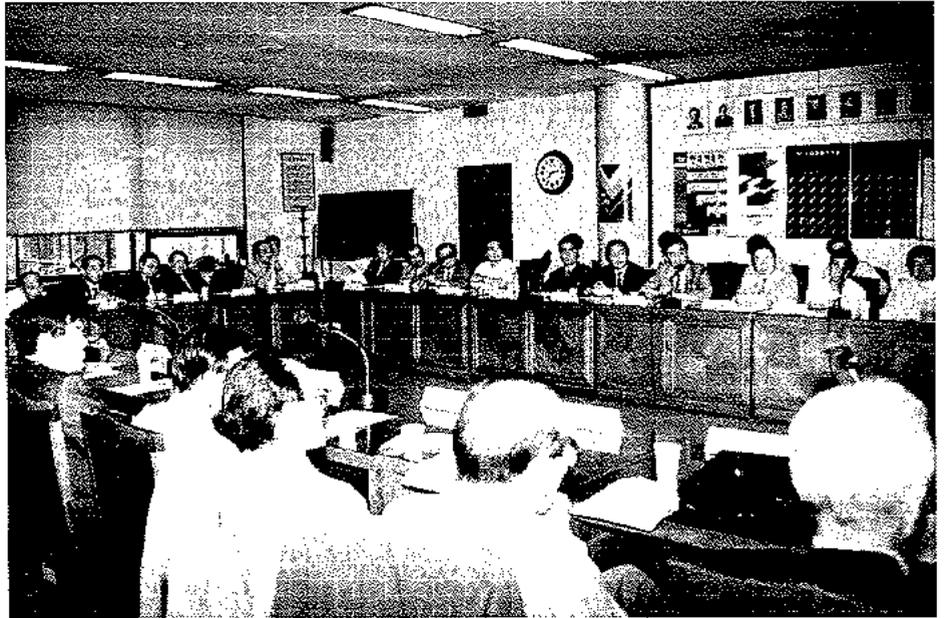
김무연 : 저희들이 북한 실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나까 의문이 되는 질문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창작성을 결정하는 사람이 건축가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건축물이라는 것이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북한에서는 어떠한지, 또 북한에도 각종 건축과 관련된 법규가 있어서 그것을 준용해서 이행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 또 북한에서의 주거형태가 개인 주거형태가 많은지, 아파트 형태가 많은지,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 끝으로 남한에서의 주거형태는 개인 생활 위주의 가정 부부 중심인데 북한은 어떠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 : 우선 도시계획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양시의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설계사업소

가 있지만 그곳은 하등의 권한도 없고 연구도 안하고 있습니다. 오직 당의 결정에 따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광복거리를 만들어 보자"하면 세상없어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 설계 계획건은 도시 전망이나 사회적 조건을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설계원은 주어진 조건에서 건물을 배치하고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기술적인 건물 배치에 관한 일을 할 뿐, 비교하고 연구하는 등 창작성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주택



형은 물론 사람이 사는 곳이기에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느정도 짓고 누구에게 배당하는가가 문제입니다. 물론 권력이 있고 돈만 있으면 고급 주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아파트 즉 당중앙위원회 지도원 아파트, 부부장 아파트, 부장급 아파트 등도 있습니다. 주택문제에 있어서 지방은 매우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김책제철소에 3천명 수용의 기숙사가 있는데, 그 기숙사 제일 위층은 부부방으로 거기서 아이를 낳고 10년이 지나도록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간 있는 유형은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해서 짓고 누가 사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북한은 철저한 관료신분제가 강하기도 하거니와 집을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급자들이 달려서 집을 바꾸기도 하며 심지어는 변색텔레비와 냉동기와 쓰고 있던 방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매라고 하지 않고 달려에 의해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김무연 :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임의대로 다룬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죠. 잠시 언급하셨지만 전기문제, 상하수도 문제가 파급될텐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김영성 : 단적인 실례를 들면, 평양은 제외합니다. 평양은 상하수도 등 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으며, 아연 도관 등 재료를 봐서도 정확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은 그러한 하수도체계 등 외부망 체계도 없는데 집만 건설하는 세 기본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투자할 돈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기인 : 요즘 남한에서는 북한의 건축에 대한 책자를 펴낸 적이 있습니다. 전통건축이란 우리 건축이 100년전 또는 200년전부터 그 건축적 맥이 흘러 내려온 것을 말합니다. 북한의 큰 기념비적 건물에 비교적 한국적 냄새가 나는 것 즉 전통, 정자모양 등을 볼 때 그것이 소위 전통건축문화라고 할 때, 그것을 어느정도 수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종교와 관련된 훌륭한 옛 건물들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평양 근교에 교회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 기획했는지요. 또 전통문화 측면에서 일제 시대까지 잇고 있었던 전통적인 놀이, 가락 등을 찾아내어 예술제 등을 통해 북한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가정에서 옛날처럼 김치 담그고, 장 담그는 등의 생활 문화가 지금은 어느정도 현대화 되었는지요.

김영성 : 전통 건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물론 북의 유물들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당의 유일적인 것으로 유물보존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그것을 되살리거나 또는 강조하는 경우는 전통을 이어받은 현대적 건축을 어느 정도 하는가 측면에서 많이 시도하고 있

습니다. 제가 설계에 참가했던 김일성의 특각부도 조선식입니다. 이렇게 조선식이면서 조금 현대화된 건물들이 있기도 합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이런 건설 재료로 현대 보다 나은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현재 북한의 건축 표현은 완전히 폐쇄된 조건에서 일본의 해방 이후 건축과 유사한 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의 전후 건축 조류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리건축과 금속건축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는 꿈도 못꾸는 현실입니다.

65년 이후 졸업생은 아무리 무슨 기사라고 해도, 기사로 보지 않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인민학교때부터 산수라든가, 중학교에서 가장 기초적인 지리, 역사 등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상식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일반지식이 빈약하고 기술지식이 낮기 때문에 전문분야의 기초지식을 가르쳐도 대단히 힘들어하므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놓고 키우기도 사실 힘든 실정입니다.

들이 대단히 복잡하고 특히 단층지역이 비좁은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을 포함한 동구권내의 모든 것이 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단층화했는데 평양만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양만이 복잡해진 이유는 그것을 다 철어버리는 것은 곤란하여 얼마남지 않은 비좁은 공지에 건물을 구축해서 더 높은 것을 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김명성

다. 시장생활은 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강냉이나 신발을 가지고 나오는 등 아주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렇듯 일반 인민들의 생활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전혀 현대화되지 못했습니다.

이문우 : 저는 학문적 견지에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대학과 동구권 국가 대학의 순수한 학문적 차원에서 건축교육 내용의 차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북한과 동구권과 우리의 건축기법과 시공성의 차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성 : 저는 체코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에 가서 동독인으로부터 컴퓨터에 의한 자동설계를 1년간 강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학술적 견지에서 교육방법은 없습니다.

건축을 해도 공간을 설계하고 도면상으로 나타내고 채색을 하는 문제이지 어떤 개성 발휘 등의 창작성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건축에 대한 교육 내용 자체가 상당히 폭이 좁고 응용과 실용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제가 평양과 체코에 있으면서 본 것은, 모든 도면자체가 직각 좌표로 되었는데 여기에서는(남한) 기술

다음은 동구권과 우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독의 경우, 프랑크푸르트에 갔을때 고층건물이 있었지만 대개 새로운 짐을 짓는다고 해도 그 양식에 어울리지 않게 하기도 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순화될 수 있는 양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높지 않게 그러면서 나타나지 않게 오히려 기존 건물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 느꼈는데, 서울에 와서 보니 모든 신건축물들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우 :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독일이 통일된 후 건축설계 및 시공의 방법에 있어서 동독과 서독 간에 차이가 많아 서로 화합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즉, 심각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다고 들었는데, 김선생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만약 통일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 물론 제도적 차이가 있겠지만 인간적인 차원에서 또는 힘조가 가능한 차원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것인지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성 :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독일에 있을 때 제가 속해 있던 설계 사업소가 튀우링겐주 설계사업소였는데 그 사업소 직원 800여명이 통일 후 1년 동안에 저쯤처럼 사라

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통일된 후 서독의 화폐를 사용하면서 그 직원들을 유지할 재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설계원들이 내일이 사업소에 있는 것보다는 전망이 있는 서독의 설계 사업소로 가는 것이 좋다고 하여 핵심적인 설계원들이 다 서독으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시공에 있어서는, 해외 건설을 하는 건설사업소들만 유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돈벌이가 일정하게 있어서 컴퓨터에 의한 건축설계와 그것을 사 온 설계 사업소만 살아남게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물론 정치적 차원에서 합동(통일)이 된다고 해도 그와 유사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창진 : 북한 대학의 건축과 학생의 선발과정과 학제와 교과목 그리고 졸업 후 진로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성 :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북한에서의 건축사 양성은 실용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건축사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건축과에 들어가지만, 지방 학생들은 거기에 들어가기도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북한 대학의 학제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진 : 대학을 나와서 일단 취업이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되어야 할텐데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성 : 65년 이후 졸업생은 아무리 무슨 기사라고 해도, 기사로 보지 않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인민학교때부터 산수라든가, 중학교에서 가장 기초적인 지리, 역사 등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상식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일반지식이 빈약하고 기술지식이 낮기 때문에 전문분야의 기초지식을 가르쳐도 대단히 힘들어하므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놓고 키우기도 사실 힘든 실정입니다.

한창진 : 김선생께서는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했다가 어느시기에 채코로 유학을 갔다고 하셨는데 상당한 실력을 인정받아서 가시게 된 건지 아니면 특별히 외국어를 잘해서 그런 혜택을 받게 되신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성 : 저의 성분관계를 놓고 보면, 저는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만해도 제가 가게되라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잘 할 뿐만 아니라 외국어도 잘해야 하는데, 북한에는 그걸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30, 40대의 사람들을 보냈어야 하는데 30, 40대 사람으로 설계를 잘하고 그래도 외국에서 배워와서 국내에 있는 사람을 교육시킬 만한 위치에 있

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해가 안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체가 그랬습니다. 대학교원들조차도 개인적인 노력의 결실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욕이 상실되고 학문에 대한 대중적인 기반이 없어서 그것을 바로잡기가 대단히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50세 이상 분들이 지금 모든 설계기관과 군 설계기관에서 일일이 코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들의 수준이 형편없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북에서는 크게 탓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장려하는 나라도 아니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라 입력(入力)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창진 : 북한에서는 선생같이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쯤 됩니까?

김영성 : 우리 표준설계사업소에만 해도 제가 60년도에 돌아오니까 12명정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2, 3년간 중국이나 소련 등 외국에서 유학한 사람들이죠. 그때의 수준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74년에 유학생으로서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는 설계사업소에 유학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 나갔죠. 성분이 좋은 사람은 중앙당의 관리로 바뀌고, 나머지 대다수는 성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모두 지방으로 쫓겨 나갔습니다.

그래서 평양 도시설계사업소에도 수십명이 있었지만 지금은 두 서너사람 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56년이후 소련공산당 내에 수정주의가 비판되면서부터는 일체 동구랍과권에 유학생을 보내지 않았습니니다. 그결과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외교관으로 하나 둘 양성하는 것은 국제관계 대학이라든가 상류층 귀족출신의 자제들을 파견해서 양성했습니다. 과학과 기술분야에는 없었습니다.

김형길 : 건축구조 특히 P, C구조에 관해 묻겠습니다. 조립식 구조라 그럴까 북한에서의 지금 조립식 구조의 효능이라든가 그 역사의 발달과정 또 초창기 외국의 어떤 기술을 도입했는지, 또는 무슨 기술제휴가 됐는지 등등 지금의 현황은 어떠하며, 어떤 종류의 건물이 적용되며 또 어떤 기술이 적용되는지, 또는 총수와의 관계 등등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 : 전후의 평양시 건설을 비롯해서 각 도시에서 건설을 많이 했는데, 전쟁직후에는 벽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벽돌 건축과 약간의 철근 콘크리트를 배합하면서 한 4, 5층 미만을 건설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6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조립식 건물을 이행했는데, 조립식 건설을 하기 위해서 바로 중앙표준설계

사업소도 나오고 거기서 조립부재의 일종인 규격화, 표준화 사업 개요를 만들고 거기에 입각해서 표준설계도를 만들고 또 해당 지방 설계사업소라든가 해당 건설사업소의 부재직장들에서는 그러한 조립부재들에 의해서 산업건물을 비롯해서 일반 부재 공공건물들을 다 지었습니다. 그렇게 60년대 말까지 짓고 나니까 건물의 생김새가 다 똑같고 이것을 경멸시 하게 되는 경향이 나오는 등 여러문제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중심부 일경

이것과 관련해서 건물의 다양성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다음 80년대에 와서는 “건축에서의 반복은 죽음이다”하는 식의 구호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립식을 하다가 다양성으로 개방됨과 관련해서 60년도까지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조립식 공장이 다 빈털털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기초평판 하나에 콘크리트 혼합장만 남았지 운곽들이라든가 그러한 모든 것들은 남아있거나 투자를 안해서 빈털털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서도 부재공공건물에 대한 투자는 한푼도 안하면서 위에서는 다양한 설계만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부터 설계원들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부재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다양성을 이행했습니다. 이행했지만 그런식으로 건설해서는 능률이 안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지방건설은 싹 죽이고 평양시만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양시만을 한 20년동안 집중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한 8층까지는 벽돌을 이용해서 축조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조립식 축막을 놓고 있습니다. 단지 부재공장에 위탁하는 것은 축막만 하나죠. 이런식으로 하고 있고 8층이상 20층까지의 건물은 완전 조립식입니다. 그래서 외벽, 내벽, 축막까지도 부재공장에서 생산되는 조립부재에 입각합니다. 그런데 조립부재의 종류가 60년대보다 2배나 많아졌습니

다. 평균적으로 11층에서 20층까지의 표준설계에서 예견되고 있는 도시계획부재의 수량이 한 600여종 됩니다. 여기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 6년 전에 덴마크로부터 완전히 주택종합기업소 하나를 수입했습니다. 이것이 연간 만 5천세대 내지 2만세대대라고 하는데 그것 역시 표준설계의 일정한 것을 전제로 하는 형태이지 임의의 주택설계를 대상으로 하는 설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에서는 많은 경우에 그저 축

막판만을 쓰고 나머지는 일체식 철근콘크리트나 벽돌로 축조하고, 20층이상 건물에 대한 것에는 조립식 축막과 조립식 벽체를 쓰지만 고층의 안정성과 관련해서 내진대책 등을 철저히 세우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부재들은 실제 다 쫓힐 수 있어도 다 띄어 놓고, 이 사이에 철근콘크리트 골조를 삽입해서 하던가 혹은 축막의 테두리를 일체식으로 둘러면서 묶어주던가 하는 이런 기법들을 쓰고 있고, 20층이상 보통 40층까지의 건물은 모두가 슬라이딩식 공법 즉, 미끄럼식 공법이라고 하는데, 그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한다고 생각하는데 벽체가 올라가고 미끄럼시트를 그 상부로 끌어 올리고 거기에 의존해서 패달아서 축막을 치고 이렇게 해서 보통 층고가 2.7~2.8m인데 한층을 여름날 조건에서 이를 내지 사흘 동안에 완성합니다. 그래서 30층이면 보통 석달, 석달이면 30층이 올라갈 수 있는 공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길 : 최근 조립식으로 몇층까지 된 것이 있습니까?

김영성 : 20층까지 완전 조립식으로 했습니다. 20층에서 30층까지를 반조립식으로 30층부터 40층까지는 슬라이딩 공법으로 한 것이

또 있습니다.

김형걸 : 앞서 말씀하신 중에 내진성을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일반 고층 건물에서도 지금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영성 : 3, 4층 미만은 내진설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5층 이상에서 8층까지에 대한 것은 계산은 안하지만 내진에 구조적인 대책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또한 9층 이상의 건물은 철저히 내진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진 계산방법은 소련의 기준에 입각해서 하는데 말하자면 수평하중의 최고층에서 7~10% 자기중량의 하중을 직용시켜서 계산합니다.

김형걸 : 건축코드라 그러나요. 거기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김영성 : 말하자면 내진설계지도서가 있고 내진계산기준이 또 있습니다.

김형걸 : 북한에는 건축가동맹이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건축 등 다른 것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저희 건축사협회에서는 협회지가 나오고 있고, 건축 학술단체가 있어서 논문집이 나오고 있습니다.

볼론,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연구를 하겠지만 북한에서의 그런 학술단체 활동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김영성 : 그게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북한에는 유일하게 있는 것이 건축가들의 건축가동맹이 있고, 건축부분에 종사하는 구조기사나 난방기사 등은 공업기술연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가동맹이라고 해서 동맹활동을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관지가 나오는 것도 없습니다. 북한이 UIA에 소속되어 있는데 단지 그곳에서 나오는 회의라든가 그곳과의 교류라든가 그런 것을 매개하기 위한 건축가동맹이 있을 뿐입니다. 단지 천리마 거리에 조그마한 방 하나를 빌려 서기관 하나, 서기장 둘 해서 3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모두 건축사가 아닙니다. 건축가들에게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은 단지 일년에 한번씩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방마다 설계사업소에 사람들을 모아 놓고 홍콩이 지금 어떻게 건설되고 있다던가, 도쿄가 어떻다던가, 싱가포르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던가 등등 이런 것들을 그저 사진으로 보여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김태석 : 건축물을 설계 시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각종 법규내지 기준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 우리 남한은 건축법규의 적용이 있습니다. 이것

은 전국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고 또 설계기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근콘크리트 구조 기준이라던가 또는 설비, 전기, 소방 등 각종 규정이 있는데, 이런 규정을 북한에서도 적용하고 있는지 우선 여쭙보구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 정부 주관하에 있는 건설시험연구소도 있고 민간주도 또는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건축재료의 품질검사나 성능 검사를 하는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북한에는 유일하게 있는 것이 건축가들의 건축가동맹이 있고, 건축부분에 종사하는 구조기사나 난방기사 등은 공업기술연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가동맹이라고 해서 동맹활동을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관지가 나오는 것도 없습니다. 북한이 UIA에 소속되어 있는데 단지 그곳에서 나오는 회의라든가 그곳과의 교류라든가 그런 것을 매개하기 위한 건축가동맹이 있을 뿐입니다. 건축가들에게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은 단지 일년에 한번씩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방마다 설계사업소에 사람들을 모아 놓고 홍콩이 지금 어떻게 건설되고 있다던가, 도쿄가 어떻다던가, 싱가포르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던가 등등 이런 것들을 그저 사진으로 보여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P. C로 조립식 구조를 적용하고 한다면 시공이 되고난 이후에 건축물의 품질에 대한 검사기관이 별도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 : 북한에도 이런 것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학위원회 산하의 연구소도 있고, 철근콘크리트 연구소, 무승음양연구소 등 많습니. 그런데 전후에 건설사업이 방대해지면서 이걸 다 자체적으로 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년대 말까지 당시의 모든 소련의 기준들을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번역한 것이 그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5~6년간 쓰이면서 소련의 것들이 북한하고 많은 것들이 차이가 난다는 것도 알게 되고, 불합리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자적으로 다시 재검토하여 70년대에 우리의 기준들이 다시 나왔지만, 시행한 결과 많은 사고도 나고 질도 나빴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소련의 기술들을 번역해다가 다시 기본적으로 그것을 쓰고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개별적이고 독자적으로 만들어 온 기준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는 제가 보진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소련에서 만든 모든 기준과 규정, 소비기준에 이르기까지 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기준이란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전 완전히 기준은 기준대로 뭐 비교할 만한 것이 못되고 있습니다. 단지, 구조기준에 관한 것 하나는 서키지 않으면 사고가 나니까 불가피하게 구조기준만은 철저히 지키고 있고 보조구축물에 대한 시공기준 그 자체가 감독기관에서 시비할 때를입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설계에 대한 감독은 국가건설위원회 설계심사국이 있습니다. 심사에서는 주로 구조 안전성 문제를 보고, 나머지는 다 당에서 하라는 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에 이견이 있어봐야 필요도 없습니다.

김태석 : 요즘 세계적인 건물 추세가 경량화, 고층화, 또 기능화 되어가고, 특히 인간이 활용하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기술에 있어서

전부 기계화 시공 또는 기능화 시공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의 시공기술의 개발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성 : 북한에는 일체 수입자재와 수입기구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청사라든가 고려호텔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고위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건물들은 다 외국에서 지어줍니다. 중앙당위원회에는 수입자재를 쓰는 곳이 있는데 주로 일본자재를 많이 씁니다. 거기에 가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겨울철에 30층짜리 건물을 돌격대 인공 500명을 데리고 한 적이 있는데 겨울철에 꽂꽂 얼어 붙을 피운다고 해도 방수포도 제대로 없습니다. 언부분이 녹으면 녹아 떨어지죠, 또 천체가 두너지죠, 그다음에 콘크리트 칠때는 한부분이 막 붙어서 내리죠, 그런 것을 다때꾸 나가려면 미장을 모름지기 한 15번 해야 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시멘트와 노력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능률이 없습니다. 시공기술을 장려하려면 우선 사람을 상려해야 하는데 북한에는 무슨 미장공이다, 목공이다 하는 쟁이가 없습니다. 그저 아무나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명을 데리고 있어도 보면 보는 사람은 저하나 밖에는 없습니다. 하여간 기술발전을 위해 우선 전문 기술인을 대우해 주어야 하는데, 대우를 안해주시니까 사람들은 일이 쉬운 데로 가려고만 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북한 사람들은 노예상태에 있기 때문에 생산력이 양양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광복거리 때문에 폴란드에서 유

리를 수백만평 수입을 해도 운반대책이 없습니
다. 목재로 적당히 틀을 만들고 자기가 덮던 모
포로 하나하나 깨지지 않게 포장하고 많은 사
람이 매달려 울퉁불퉁한 건설도로를 지나오다
보면 깨지는 것도 있고 또 깨져봐야 또 달라고
하면 그만이고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
니까 북에서의 기술발전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
다.

강태석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이라는 게 설계·시공 이런 과정을 통해
서 그 질이 향상되고 구조적으로 튼튼해지는데,
간혹 사람이 하는 일이나 시공이 좀 부실
하다든지, 붕괴된다든지, 어떤 사고가 일어나
게 되거든요. 저희도 한동안 그런 일이 있긴 했
었지만, 지금 김선생이 말씀하신대로 진척 기
능이 속달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거 지휘해 가
면서 20층 이상의 초립식 건물들을 짓는다는
것이 대단히 힘든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일어
난 사고는 없었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김영성 : 북한에서는 진후에 갑자기 건설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5층
짜리가 허물어지는 것도 술하게 목격했고, 8층
에서 10층, 특히, 초립식 초기인 60년대 초에
많은 것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더 강하게 하고, 시공규정은
더 요구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그 문제를 많이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말에 10층건
물에서 벌써 평방당 철재 소비수치가 10kg 정
도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많이
쓰게 되고 철근을 많이 쓰게 되는 문제가 제기
되어 다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
로써 경험도 생기고 구조기준도 다듬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양시 건설은 계속 고층
화 되지, 사람들은 무기능공이 되지, 인민군대
사람들이 동원되서 하지, 이런 조건에서 설계
자들은 안심을 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사는 실세사대로 시공자는 시공자대로 말
할 수 없는 고층이 워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계속 퇴짜를 주기도 곤란한 형편이거든
요. 그래서 그럭저럭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능
률이라는 것도 없고, 기술발전이라는 것도 기
대할 수 없습니다. 평양시 하나만 건설한다는
것이 분당 주택지구 만한건데 온 공화국이 달
라붙어도 안된단 말이죠.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오운동 : 다음은 건축철학적인 문제에 일가
견을 갖고 계신 구윤회 회장께서 질문을 해주
시겠습니다.

구윤회 : 독일에서의 생활상과 한국에서의
순수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

시던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성 :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한달도 안되
서 독일의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독일연방공
화국에 3년동안 있으면서 평화적 통일의 이행
과정에서 특별히 느낀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
면 프랑스 혁명 이후에 구랍과에서 인권, 민주
화 문제가 벌써 통속화된 개념들이기에 공산권
내에서도 학생들 사이에 사유나 관념이 아주
개방적이었고 자유적인 측면이 아주 많았습니

오운동 : 다음은 저희 건축계 출신으로 건설
부 건축기획관으로 계신 이필원 국장님께서 질
문해 주시겠습니다.

이필원 : 우선 김선생이 자유대한의 품에
귀순하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두시간이 넘는 장시간에 걸
쳐서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이 계셨고, 또 성
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남한과 북한의 건축
문화, 기술, 설계나 제도의 동질성과 이질성



광복거리에 건설된 아파트 군락

다. 그 영향으로 저도 평양에 갔지만 74년도에
불가피하게 평양으로부터 축출되지 않았나 생
각됩니다. 저도 그런 자유적인 경향이 있었
길래 거기서 통일과정을 낚날이 목격하면서도
제가 느낀 바는 그저 상당히 부럽다는 느낌 뿐
이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통일될 수
없는가, 이렇게 평화적으로 통일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부러움, 말하자면 조선이 구랍
과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한없는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건
축가협회나 건축사협회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던가 또는 신
홍 건축유포에 대해서 개념이 있는가 하는 것
을 물어보았을 때 솔직히 몰랐습니다. 저로서
는 창피한 얘기지만 어찌겠습니까. 북한사람들
은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
축계에서도 남북간의 수준 차이에 있어서 상당
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구윤회 :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남북한 교류
의 가능성이 엮이고 있기 때문에 김선생께서
는 우리가 남북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나 자료같은 것이 있으시면 오운동회장
께 주셨으면 좋겠고, 또 서로 좋은 의견이 교환
되기를 바랍니다.

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이런
모임을 갖게 해주신 건축사협회에 감사드리
고 또 이번에 관계기관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
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김선생께서 북한에 계실 때 정무원 산하
국가건설위원회에 소속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건설위원회의 기능과 업무를 소개바랍니
다. 저희는 건설부에 소속되어 있어서 도시계
획, 주택, 댐, 도로 등 여러 국(局)이 있어서
담당하는데, 이 건설위원회에서는 과연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또 제가 알고로는 북한
정무원 산하에도 부(部)가 있고 위원회가 있
다는데 그 차이는 어떤지? 그리고 북한에서
의 초립식 공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시도해
서 분야에 따라선 상당한 발전이 되었다고 하
였는데 그런분야 말고 지하공간에 대해서도
지난 30년동안 국방과 안보에 투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이 자동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하공간이 어떻
게 개발되어 있고 또 그 지하공간을 개발하는
기술이 어느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40년간 남과 북이 다른 체제
다른 사상을 가지고 나뉘어 살다보니 동질적
인 것들이 상당히 이질적인 것으로 변하지 않
았나 생각됩니다. 저희 자유대한의 품에 오셔

서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북한에서 건축물의 어떤 형태나 색채를 보셨을 때의 느낌과 제한된 경험이지겠지만 자유대한에서 보고 느끼신 점이 어떻게 다르신지? 참고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도시건축물을 볼 때 상당히 자유롭고 다양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너무 무질서하고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또 외래의 모방이 많지 않느냐 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김선생이 보신 시각에서 남북한의 동질성과 이질적인 것을 비교하신 소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김선생이 말씀하시는 중에 유심히 들은 것이 있습니다.

쓰시는 용어를 가지고 볼 때, 저는 특수한 용어를 많이 쓰시지 않겠는가, 저희가 이해하기 힘든 용어를 쓰시지 않겠는가 했었는데, 북한에서는 주체사상 때문에 각종용어를 많이 한국화 시켰다고 그럴까요, 우리말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용어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전문분야인 건축이나 기술분야에 있어서 북한 나름대로 고유한 주체적인 용어들을 많이 쓰게 되어 있는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용어가 많이 바뀐 것은 아닌지 참고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 : 국가건설위원회는 정부원 산하 그러니까 내각의 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국가건설위원회는 건설부나 경제공업부와는 다릅니다. 실질적인 생산과 관련된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회라 부르지 부(部)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국가건설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우선 설계를 심사합니다. 설계자체를 심사해서 비준하고 등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실제 시공이 그대로 되는지를 간별합니다. 그 다음은 각종 규정과 기준, 표준 조약 지도서를 제정, 공포, 갱신해 나갑니다.

그 다음, 최근에 와서는 국가건설위원회가 자기가 필요한 외화벌이를 독자적으로 해서 건축가 대화도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화벌이를 반드시 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과는 달리 건설부는 시공기업소 말하자면 여기의 각종합 기업소들과 산업기업소들을 통솔합니다. 경제공업부는 건설에 소요되는 요업제품, 유리제품, 기타 시멘트라든가, 실리카 제품, 목제품 생산과 기업소들을 통솔하고 기획합니다.

이렇게 건설위원회와 건설부, 경제공업부 이 세 부서가 건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것은 북한이 전쟁시기부터 많은 지하공간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전시관으로 전략된 모란봉 지하극장이라든가 아무튼 전쟁시기부터 많은 지하건설을 했는데 이 지하건설의 속도, 장비, 기술수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

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는 지하건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하건설이라기 보다는 전쟁시기에 대처하는 방위건설로서 몰자비축, 전시통로 이러한 것으로 지금 11호 공사를 하고 있으며, 10여년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밀로 되어 있고 동원되었던 사람은 무 기능공으로 가서 3년 일해주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하건설의 기술문제, 장비문제는 제쳐 놓고라도 여기에 있어서는 중국보다는 앞섰다고 생각합니다.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것은 북한이 전쟁시기부터 많은 지하공간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전시관으로 전략된 모란봉 지하극장이라든가 아무튼 전쟁시기부터 많은 지하건설을 했는데 이 지하건설의 속도, 장비, 기술수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는 지하건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하건설이라기 보다는 전쟁시기에 대처하는 방위건설로서 몰자비축, 전시통로 이러한 것으로 지금 11호 공사를 하고 있으며, 10여년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밀로 되어 있고 동원되었던 사람은 무 기능공으로 가서 3년 일해주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하건설의 기술문제, 장비문제는 제쳐 놓고라도 여기에 있어서는 중국보다는 앞섰다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만해도 중국 사람들이 평양시 지하철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전수받고 설계도면까지 따가는 것을 보았을 때, 중국보다는 앞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한이 대형 터널 굴착기를 40대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북한의 장비상태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을 비교한다면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 북한에서의 도시중심과 여기 도시중심이 다르고, 또 많이 보이는 광장의 건물과 또 여기에서 실제 도시중심의 광장에 놓여있는 건물들이 그 기능 자체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북한은 모든 도시의 중심에 김일성의 동상과 김일성 명의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 주변으로 도당이 있거나 도행정위원회가 있거나 혹은 큰 사적 건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흥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적관이라 하여 큰 건물이 있습니다.

도시중심이라 하면 북한에서는 사람들을 김일성 주의로 교화하는 마당, 그 자체가 사명입니다. 기기에서는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즐기고 업무활동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 와보니까 도시 중심들은 다 일반업무, 상업, 문화, 오락 그런걸로 되어 있는 도시 같습니다. 서로 건물 자체가 다릅니다. 중심에 있는 건물이 북한에서는 대단층이 요란하게 되어 있는데, 사적관이나 도당을 예로들면 20~30계단 올라가야 건물이 있는데 여기의 큰 건물들은 차에서 내리면 그냥 텅없이도 건물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기능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할 때, 그 건물들이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서 건축주의 지시에 만족시키는 것이니까 북한에서의 건축물들은 그 기능을 만족시키는데 있어서는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 이번에 귀순하게 된다는 어떤 건축적인 동기가 있었는지? 만일 그러한 동기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제 자유대한의 품에 와서 앞으로 건축전문인으로서, 건축주조를 전공한 분으로서 앞으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 : 저는 북한을 탈출할 용기도 없었고 또 그렇게 생각해온 적도 없었는데 그저 볼가

피하게 탈출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또 거기에 특별히 자기의 전공직업과 관련해서 생각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육감적으로 탈출하지 않으면 끝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용기보다는 그저 피해서 탈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남한에 와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남한에 현재 보급되고 있는 컴퓨터가 개인용만해도 이백만대이고 모든 사무기관에서 컴퓨터를 쓴다고 하는데, 제가 동구랍과에서 보니까 맨처음 동독이 무너지기 전에 동독도 그렇게 컴퓨터를 쓰고 있지 못했습니다. 겨우 표준설계정도 컴퓨터로 하는 정도였는데 서독과 합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컴퓨터화 되고 말았습니다. 제 생각도 역시 여기의 많은 설계기관들이 다 컴퓨터에 의한 자동 계산과 자동설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놓고 볼 때 과연 제가 상당히 뒤쳐져 있구나 하는 위축감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정도 기여하겠는가 하는 것은 가능하기 힘들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실제밖에는 없습니다. 실제 북한에서 한 것이 설계고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이 부문 밖에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사심없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수 : 지금까지의 우리의 대화는 정치적인 것은 배제하고 단순히 전문기술자로서 건축계에 관해 궁금한 것을 묻고 답변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북한 국민들의 공통된 관심사 중의 하나가 겨례의 숙원인 남북통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귀순한 분이 오시면 누구든지 통일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치 전문가가 아니지만 향후 남한의 소득이 향상되고 또 북한에 있는 국민들도 이에 감화되어 통일의 소망이 어느시기에 이루어

이질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이질적인 이념 때문에 영원히 통일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인지, 김선생의 소견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성 :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좋은 사람들이 다 생각하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 실태에서는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남한의 자유롭고 일정하게 생활수준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현실을 여기에서 제가 아무리 애기해도 잘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북한 사람들에게는 남의 현실을 볼 수 있는 창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정도는 이상태로 계속 유지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한규봉 : 이미 말씀하신 사항인데 확인하는 의미에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지태회장이 질문하신 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건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높고자 하였던 것은 일제때 건축된 건축물들이 아직도 남아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김부연 이사님이 질문하신 것을 답변하면서 달려만 있으면 자기집을 크게도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통해 알기로는 당에서 계급 서열대로 주택을 배정받습니다. 이것이 김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차이가 있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셋째는 강태석 이사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구조 기준만은 철저히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건축에서 240전후의 강도를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것보다 2배 내지 3배 정도의 강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을 졸업하면 설계원 5급이 되고 그 다음부터 한 급수 올라갈 때마다 외국어를 해야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외국어를 해야된다는 것이 설계원의 실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급수를 올려주는 것을 상당히 제한하는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성 : 평양시에는 일제때의 건축물이 없고, 신의주, 청진 등에 약간 있을 뿐입니다.

한규봉 : 남한 같으면 옛날의 중앙청으로 쓰던 그런 특수한 건물들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김영성 : 그런것은 거의 없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유물보존위원회에 등록되어 영화 촬영 등에 이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달려로 집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북한은 철저한 관료 신분제에 의해서 주택을 배정받습니다만, 달려를 가리킨 흑백텔레비나 냉동기를

사주면서 그것을 바꿔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기준문제는, 물론 명목상 조영기준이나 채광기준이니 하는 따위의 허용좋은 기준은 있습니다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조 기준만은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설계사부터 문책을 받고 재심사를 해야하는 고충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교 북에서 본 인민군 교예극장

한규봉 : 그 책임은 어떤 책임을 말씀하십시오.

김영성 : 물론 성분이 좋은 사람한테는 아주 관대합니다. 그러나 성분이 나쁘거나 전과(前科)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합니다. 반드시 정치적 문제와 결부시키기 때문에 대단히 엄격 합니다.

한규봉 :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알고 싶었던 것은 콘크리트 강도 기준이 구조기준에 어느정도 규정되어 있는나 하는 것입니다.

김영성 : 예, 콘크리트 강도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느 기준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독에 가서 보니까 북한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산방법만은 허용 능력 방법이 아니라 극한 상태에 있는 소련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외국어에 대한 말씀은 선생님이 옮겨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떨어 뜨리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홍재기 : 우리나라에서는 대지의 구조나 설비 또는 대지의 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건축이 가능하고 또 법을 지켜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따르면 사유재산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적권이 있어서 그 대지의 경계를 정한 법이 있고 도시계획법에서 각 주거지역이나 상업지

역 같이 용도 지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꼭 들어 가야 할 건물을 건축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북한 사회에서도 이러한 법 체계가 따라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영성 : 북한에는 건축법이 사회주의적인 기초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토지가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화 되어 있지요. 따라서 개인적이라든가 회사들의 분쟁이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학교 마당을 침범해서 무슨 외화면이 공장이 들어선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도당 책임비서나 해당 구역 책임비서나 시장 책임비서의 결정만으로 단순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등의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용도별 지역들이 전망계획에 따라 차례지고¹⁾ 순증됩니다.

북한에서는 이 지역은 공해 지역이니까 주민을 못 둔다든가, 산업부지에 어떠한 것을 한다는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법체계가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우선이고, 김일성 유일사상이 북한 사회를 삭막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나 가치가 부여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운동 : 고맙습니다.

오늘 김선생님께서 장시간동안 북한 실정에 대한 저희들의 질문에 대해 진솔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자리는 앞으로 새로운 기술협력과 개발을 위한 측면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협회를 자주 방문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품안에서 같은 전문인으로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김선생님의 건강과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다시한번, 우리 대한민국 품안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아울러 저희 협회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는 의미에서 우리모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註)

1) 後備(障) : 앞으로 일정한 조직의 대열을 보충하거나 사업을 계승하고 활동하게 될 후미로 되는 대오 또는 그에 속한 사람. (북한 인민들은 공산주의 건설의 후미대가 되기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다.)

2) 공훈칭호 :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일정한 부문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해당 부문에서 뛰어난 공훈을 세운 노동자, 농민, 사무원들에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수여하는 명예칭호.

3) 특가 : 별개로 된 특별급의 숙소나 휴양장 같은 것.

4) 차례지다 : (일정한 차례나 기준에 따라) 뵙으로 차지하다.

제1회 한국건축문화大賞 시행 안내

서울경제신문사와 건설부는 대한건축사협회·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사업협회·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등 유관 4개 단체의 후원 아래 『한국건축문화大賞』을 제정,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건축문화大賞』은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과 쾌적한 생활공간조성을 목표로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인간이 중시된 건축물」을 빛어낸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등을 발굴·격려하기 위하여 제정된 건축문화분야에 초점을 맞춘 시상제도입니다.

『한국건축문화大賞』은 건축물의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부분도 똑같이 중시, 국내최초로 현장심사제를 도입하고, 설계자·시공자·건축주 모두가 응모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으며, 응모절차도 간편하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건축문화大賞』은 이제 「건축은 문화여야한다」는 대전제 아래, 우리 건축문화의 전통성과 현대성이 잘 조화된 역작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금번 처음 시행하게된 이 시상제도에 평소 좋은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에 앞장 서 오신 귀하(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성원 있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 상의종류 :

- 大賞 1점(전건축물 대상)
- 本賞 4점(주기용, 비주거용 각 2점)
- 공로상(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입선 다수

◆ 시상시기 : 10월 9일 (연 1회)

◆ 시상대상 : 시행연도 및 전년도에 준공 또는 준공예정인 건축물

◆ 응모기간 : 6월 10일 ~ 8월 30일

◆ 응모자격 : 설계, 시공자 또는 건축주

◆ 제출서류 :

- 작품설명서와 기본설계도면이 포함된 B4 규격(25.6 × 36 cm)의 작품사진첩(8 × 10인치 사진 10장 내외)
- 작품의 설계자·시공자·건축주 간이소개서 2부
- 패널리 입선 이상 작품에 한해 추후재출 통보 (제작비 일부지원)

- ◆ 접수처 : 우편번호 110 - 792, 서울 종로구 중학동 19
서울경제신문 편집국사회부 (전화) 724 - 2457 ~ 8
※ 후원단체에 접수도 가능

◆ 제출방법 : 접수처에 직접 또는 우송 제출

- ◆ 심사 : 관계전문가 및 사회 각분야의 지명인사들로 심사위원회 구성, 1차 서류심사후 현장방문 심사

◆ 시상내용 :

- 本賞이상 설계자·시공자 및 공로상 수상자 = 상패수여 및 해외시찰(중국 예정)
- 입선작품의 설계자·시공자 = 상패
- 건축주 = 상패 및 동판(건축물 부착용)수여

- ◆ 시상 : 건설부장관·서울경제신문사장 및 후원 4개 단체장

- ◆ 특 전 : 전 응모작 보도·홍보 및 상설전시

건 설 부 장 관	徐 榮 擇
서 울 경 제 신 문 사 장	權 赫 昇
대 한 건 축 사 협 회 장	吳 雲 東
대 한 건 설 협 회 장	趙 南 煜
한 국 주 택 사 업 협 회 장	柳 根 昌
한 국 중 소 주 택 사 업 자 협 회 장	許 眞 碩

「톨레도, 세비아, 바르셀로나」 - ①

Travelogue of The Spain

崔英集 / 종합건축사사무소 탐
by Choi, Young - Jip

一見到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낄 수 있겠나마는 그래도 막연히 상식 수준으로 생각하던 것을 그나마 거꾸로 확인하며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흥미롭고 즐거운 일임에 틀림없다. 올해는 온통 스페인에 관심을 갖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스페인 뉴스가 지면을 많이 장식하고 있다. 그 푸르고 높던 가을하늘 짐실벌에서 울려 퍼진 88서울 올림픽의 광파르가 어제 일같이 귀에 쟁쟁한데 어느덧 벌써 4년이 지나 바르셀로나에서는 서울 기록을 갱신한 사상최대의 올림픽이 다시 열리고, 세비아에서는 EXPO '92가 세계 각국의 文物을 펼쳐놓고 있으니 아무리 스페인과 인연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호기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홍보편찬위원회에서 이러한 국제적 이벤트를 走馬看山이라도 해야하지 않을까하는 당연한 발의는 그렇지 않아도 답답한 심정으로 울화를 삭히고 있던

위원들의 기분전환용 동의를 얻어내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밖에 ... 이의구 위원장님 특유의 결속력과 추진력이 결코 말로만 끝날 것 같지는 않더니 Fax 한두번 왔다갔다하고는 7월 5일에 떠난다 한다. 유럽에 몇번 갔어도 스페인을 들리 볼 기회가 없어 아쉬웠는데 이런 찬스가 오는구나. 억지로 경비를 마련 on-line으로 보내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세계를 간다' 스페인편을 한권 샀다.

스페인, 에스파냐, 무언가 신비스런 매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나 별로 알려진 것이 없는 나라, 유럽인데 유럽같지 않으며, 백인인데 백인같지 않은 나라. 스페인을 간다. 투우와 플라멩고, 화려한 울동 속에 감추어진 우수, 해양국가로 무적함대를 거느렸고 콜럼부스에게 신대륙을 발견하게 한지 500년이 되는 나라, 고혹적인 검은 눈에 풀이해친 검은 머리, 아련한 미소의 시노리따, 스페인을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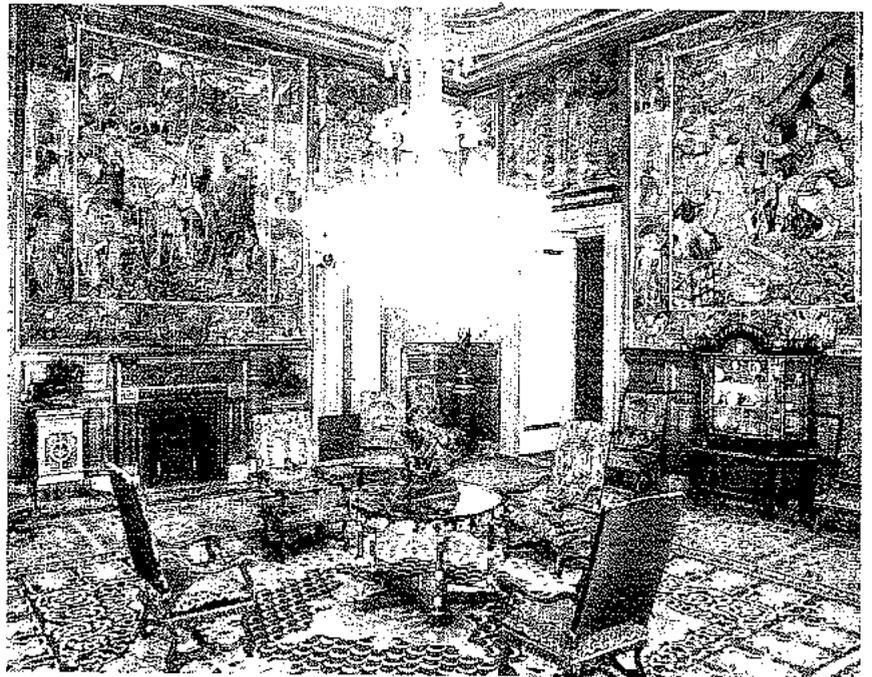
■ 톨레도

특별히 홍보편찬위원회에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오운동 회장님의 배움을 받으며 AF 287 비행기에 오르니, 7월 5일 일요일의 밤 9시를 지난다. 급히 만들어진 여행이 무사하기를 빌며 기대에 찬 마음과 함께 이륙한다. 파리에서 비행기를 바꾸어 타고 마드리드에 도착, 짐을 찾아 비스에 오르니 한국시간으로 7월 6일 오후 5시, 현지시간은 오전 10시가 넘어 간다. 마드리드까지 그럭저럭 20시간이나 달려 온 것이다. 부사시한 얼굴 피곤한 몸을 추스릴 사이도 없이 바로 고도 톨레도로 향한다.

톨레도, 마드리드에서 72km 떨어져 있는 역사적인 고도 - 스페인을 지배했던 민족들의 문화가 공존하는 곳, 영화 엘시드의 무대, 설레는 마음으로 황갈색으로 펼쳐져 있는 해발 690m의 고원을 1시간쯤 달리니 역사의 시간을 거꾸로 달린 듯이 그림같은 고도가 눈앞에 펼쳐진다. 풀이고 벽돌이고 집이고 거리이고 온통 모노톤의 영화필름을 보는 것같이 시간의 때로 착색된 빛바랜 단색이다. 35℃가 넘는 직열하는 태양, 톨레도 성을 구비쳐 들어가는 타호 강의 깊고 푸른색, 바짝 마른 건조한 공기 속에 맑고 푸른 하늘 - 분명 성오가 가까워 오는데 내게 비친 고도의 모습은 오래된 흑백사진을 보는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진다. 톨레도를 보기 전에 스페인을 얘기하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달려온 톨레도는 함스부르그 왕가의 국왕 펠리페 2세 때인 1561년 수도를 마드리드로 옮길 때까지 실질적인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다. 5세기에 접어들어 이베리아 반도에 새 실력자로 등장한 고트족이 톨레도를 수도로하여 서고트 왕국을 세운 이래, 톨레도는 역사의 각광을 받으며 무침을 거듭했다. 711년 이슬람의 서방진출은 드디어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이베리아 반도에 상륙하게 되고, 서고트족을 몰라친 이슬람은 결국 톨레도의 새 지배자로 군림하게 되며 이로부터 15세기말까지 종교전쟁과 낫도회복 운동의 거점이 되고마는 운명을 맞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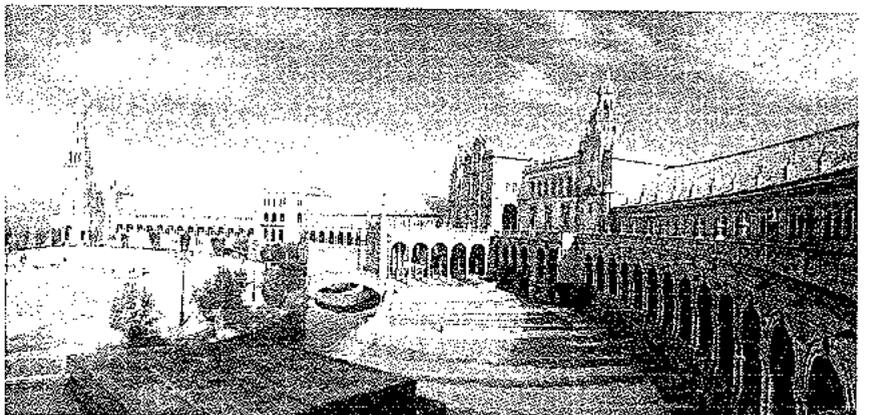
버스에서 내린 일행은 바로 가이드를 따라 Toledo 대성당에 들어선다. 카톨릭 교리정립 및 수호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다는 이 주교와 성당은 1085년 알프소 6세가 톨레도를 다시 정복한 이후 회교사원이었던 자리에 1227년부터 1493년까지 266년간에 걸쳐 고딕양식으로 다시 건설한 역작이다. 유럽의 많은 성당건축을 보며 하늘의 영광과 인간의 승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보는 Toledo Cathedral은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온다. 스페인 카톨릭의 총본산이며, 강력한 교황후보를 내고 있다는 스페인 카톨릭의 궁지 그자체인 것으로서 이교도의 공존 속에서 이룩한 건축은 고딕은 고딕이되 특이한 이국적 정취를 띠고 있는 것 같았다.

섬세한 조각으로 현란하게 장식된 장엄제대와 누솔리니가 성지 순례시 바쳤다는 황금촉대, 스페인 시민전쟁후 56만명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며 프랑코는 회한의 칼을 제단에 바치기도 하였다 한다. 수많은 모석으로 장식된 성채는 해마다 성체대축일이 오면 사제와 신자들이 위해 꽃가마를 타고 골목을 누비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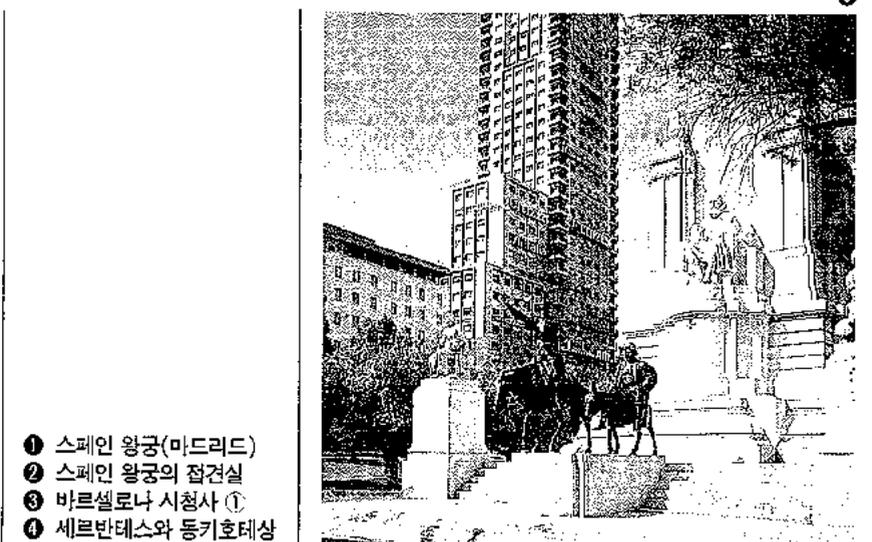


2

거리와 온가정을 신앙으로 가득 채우는 의식을 갖는다. 142명의 성가대원은 오동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정교섬세한 조각은 1492년 아랍 최후의 보투 그라나다를 탈취하는 전투장면을 재현하고 있다. 대성당 회의실은 추기경 주재하에 각 교구 주교들이 모여 종교회의를 하는 곳인데, 역대 추기경의 초상화가 벽 둘레 걸려져 있으며, 천정은 이슬람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어 톨레도의 독특한 혼혈 문화를 느끼게 해



3



- ① 스페인 왕궁(마드리드)
- ② 스페인 왕궁의 접견실
- ③ 바르셀로나 시청사 ①
- ④ 세프르반테스와 동키호테상

4

준다. 미처 음미할 사이도 없이 가이드 문선생의 설명을 들으며 돌아보는데, 그지 신앙의 힘과 인간의 능력에 감탄할 뿐이다. 성의 보관실에서는 금실과 천연진주로 만든 성의들과 보석실에서는 13세기 프랑스 루이 왕조에서 보내온 금박 성경, 이사벨라 여왕의 왕관과 교황 요한 23세의 보물십자가, 프랑코의 칼 등을 둘러 본다. 성당 미술관의 천정화는 380년전 이태리 화가 루카스, 조르단이 그린 그대로의 상태로 잘 보존되어 있었다. 성당의 중앙문은 국가 원수와 신임 추기경에게만 연다고 한다. 성당을 나와 비로소 전체의 모습을 올려다 본다. 유럽의 고딕건축 성당보다 결코 크지는 않으나 장중한 맛과 더불어 어딘지 모르게 이슬람의 냄새가 풍기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유대인 이람인과 더불어 살며 지배당하고 점령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한 톨레도 - 신앙의 힘으로 외부세력을 수용하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한 톨레도인에게 경의를 표한다.

톨레도 시가 전체가 박물관이다. 좁은 골목 창가에는 원색의 꽃을 피운 화분들이 장식되어 있고, 벽돌과 돌로 쌓은 벽과 길에는 역사의 때가 묻어 있다. 좁은 길은 몇층 벽에 그늘져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 있었고,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은 톨레도 특산품을 펼쳐놓고 있었다. 막힌 듯 이어지며 좁았다 넓었다하는 길을 걸어 산토 도메교회에 도착한다. 그리스 사람으로 톨레도에 살며 수많은 역작을 남겼던 화가 엘·그레코의 명작 '오르가스 백작의 장례식'이라는 그림을 본다. 독특한 인물묘사와 다른 양식의 혼합, 투명기법 등이 이 그림을 유럽 회화사의 걸작으로 올려 놓았다고 한다.

점심은 민속식당에서 '빠헤야'라는 잡탕밥(노란 물감을 들인 밥과 해물과 닭고기를 섞은 잡탕밥)을 짠맛에도 불구하고 고유음식이라는 바람에 억지로 먹어둔다.

마드리드로 돌아오는 길 버스 속에서 창밖을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긴다. 이슬람 세력과 서구 세력의 숙명적 관계 - 오늘날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 보여 주는 것이 비단 20세기만의 이야기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 우리는 너무 서양사 위주로 세계사를 배웠기 때문에 동양의 시각에서 세계를 보거나 중동의 입장에서 세계를 생각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사실 이번 여행에서 느끼고 싶었던 것은 이슬람 세력이 유럽과 만나는 문화의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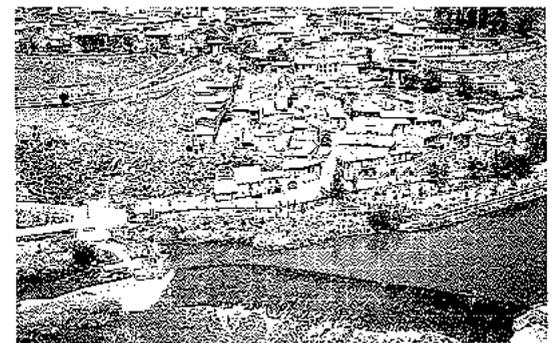
8세기 후반부터 크게 발달한 이슬람문화는 어둠속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서구에게 충격적으로 자극을 주는데, 고도의 과학과 기술이 십자군 전쟁과 이베리아반도에서의 전쟁을 통하여 서구에 전달된다. 특히, 톨레도는 이슬람의 학술도시로서 대도서관에 수많은 학술도서가 보존되어 있었고 톨레도를 탈환한 서구는 정열적으로 이슬람의 학술을 받아들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조선술, 항해술 등을 익히며 천문학, 지리학 등 현저하게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서구문명을 발달시킨 최대의 원동력인 르네상스의 인본주의 사상도 이슬람의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톨레도는 그렇게 세계사를 바꾼 중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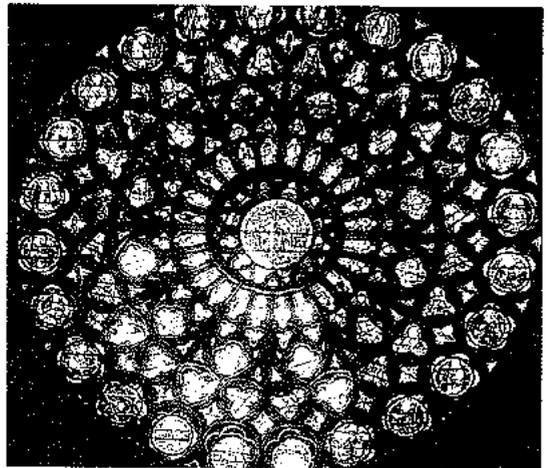
도시였던 것이다. 다만, 며칠간이라도 톨레도의 역사에 푹 잠겨보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을 아쉬워하며 황량한 라만차 지방의 경치를 광막으로 감상한다.

마드리드에서는 왕궁을 돌아본다. 다행히 행사가 없어 궁내의 방 2890개 중 공개되는 17개 정도의 방을 볼 수가 있었다. 1736년 필립 5세가 시작하여 28년간 건축하였다 하는데, 겉으로는 그다지 화려하지 않은 우아한 모습이었으나 실내는 역대 왕의 기호에 따라 호화롭게 장식되어 있었다. 1931년까지는 왕이 살았다 하는데 그후에는 공식행사 때만 사용하고 있다 한다. 왕실 성당을 보는 것을 끝으로, 왕궁을 나서 스페인





7



8

광장에 있는 돈키호테상과 세르반테스 동상을 돌아 본다. 상이용시로 세무공무원을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동안 돈키호테를 써서 세계문학사의 이정표를 세운 그의 무덤에는 그의 작품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비명이 새겨있다 한다. “인생은 미쳐서 살다가 깨어서 죽는게 아닌가”

스페인 공원에 면해 있는 Hotel Plaza에 드디어 여장을 풀니 피곤이 엄습한다. 저녁식사후에는 레티로 공원에 있는 Florida Park라는 극장식당에서 플라밍고쇼를 관람하는데 눈이 자꾸만 감겨 그 열정적인 춤을 깊이 제대로 감상하지도 못한다.

프라도 미술관, 피카소의 게르니카 등 꼭 볼 것을 볼 염두도 붓내고 스페인에서의 하루를 마친다.

■ 세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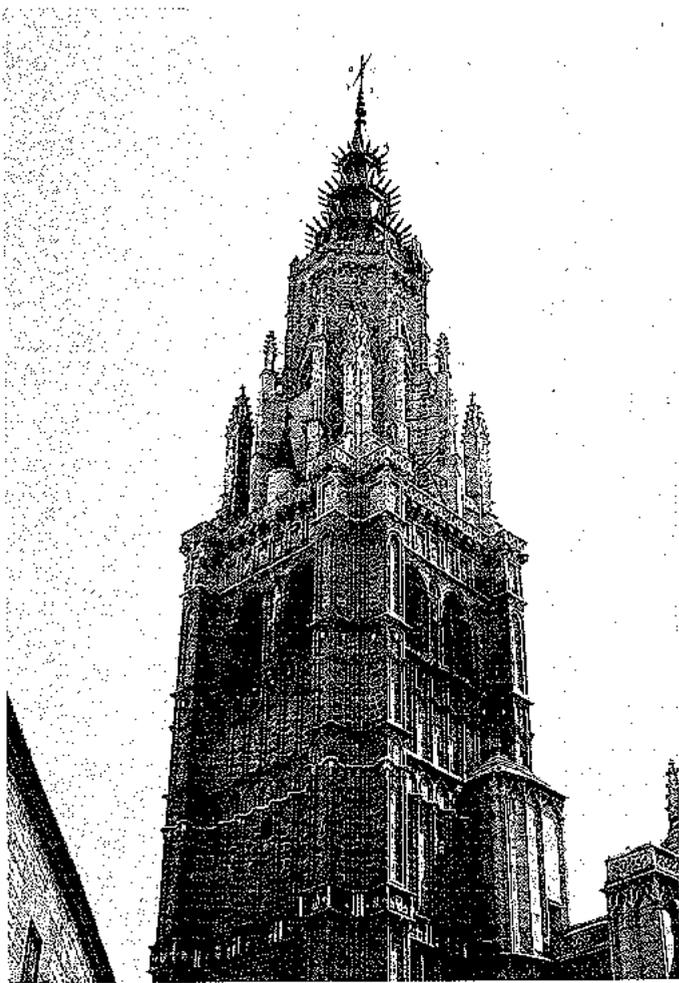
안달루시아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의 공방전이 치열했던 지역, 비제의 카르멘 무대, 콜럼부스의 항해기지로써 알려져 있는 세비아 - 1992. 4. 20부터 EXPO '92를 '발견의 시대'라는 주제로 개최하고 있다.

- 6 바르셀로나 시청사 ②
- 6 툴레도 대성당 하로강
- 7 툴레도 대성당 정문
- 8 툴레도 대성당 현관 원형 투명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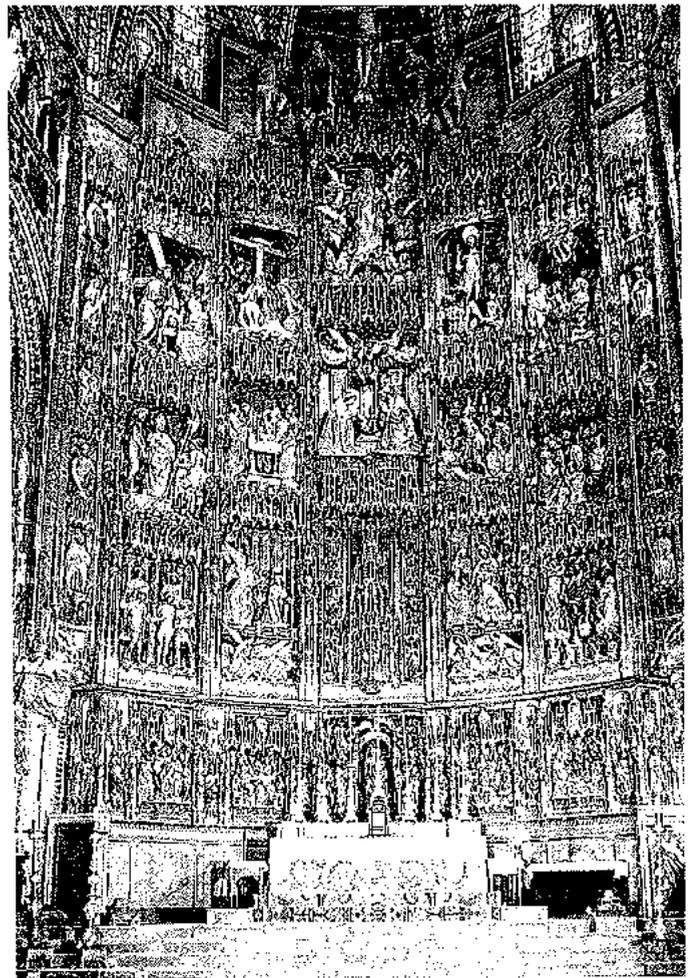
7월 7일 화요일 - 아침부터 서둘러 버스에서 빵으로 요기를 하고 광장에 도착하니 7시였다. Iberia항공으로 1시간쯤 날으니 9시반에는 세비아에 도착해 있었다. 박람회 때문에 새로 지었는지 감청색 기와지붕의 공항청사가 태양을 받아 남국의 정취를 느끼게 해준다. 시간이 좀 어정쩡해 일단 호텔로 가서 쉬고 오후에 시내를 보기로 한다. 아직 마무리 안된 신시가쪽에 좀 영성한 새 호텔에서 짐을 푼다.

시내 중국집에서 짐식을 들고 City Bank가 있길래 100\$을 환전하니 9000Peseta정도와 동전 몇개를 준다.

과달까비르 강과 면해 있는 이름다운 마리아 루이사 공원의 비둘기들과 마차를 본다. 어느시에서나 중앙에 넓은 공원이 있고 스페인 광장이라 칭하는 시민들의 광장이 있다. 1992년이 아니라 1929년에 이미 세비아에서는 만국박람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스페인관으로 지은 건축가 아니발 곤잘레스의 건물이 스페인 광장을 압도하고 있었다. 4개의 탑을 세우며 반원형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운하를 파 보트가 다니도록 하며 아취교를 건너 긴 주랑에 연결되는 등 꿈같이 아름답게 연출한 건축이다. 벽돌과 타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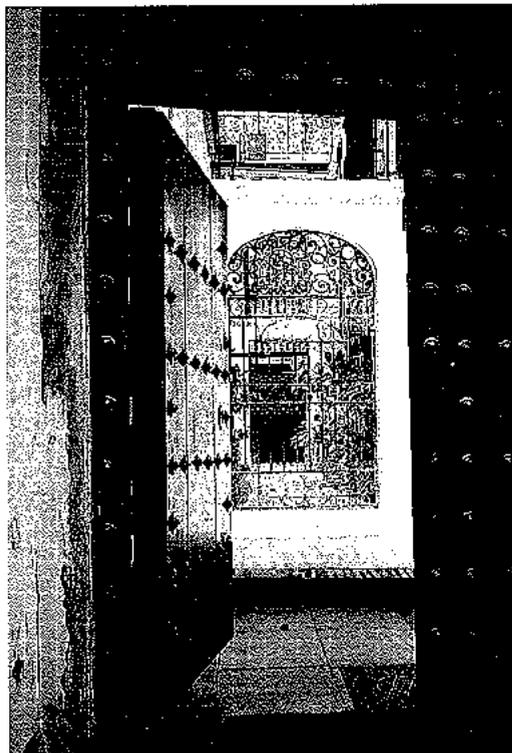


9



10

이슬람 건축의 영향을 받아 섬세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건축이 어떠한가한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임에 손색이 없었다. 현재는 시청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아름다운 시청에서는 무성한 마음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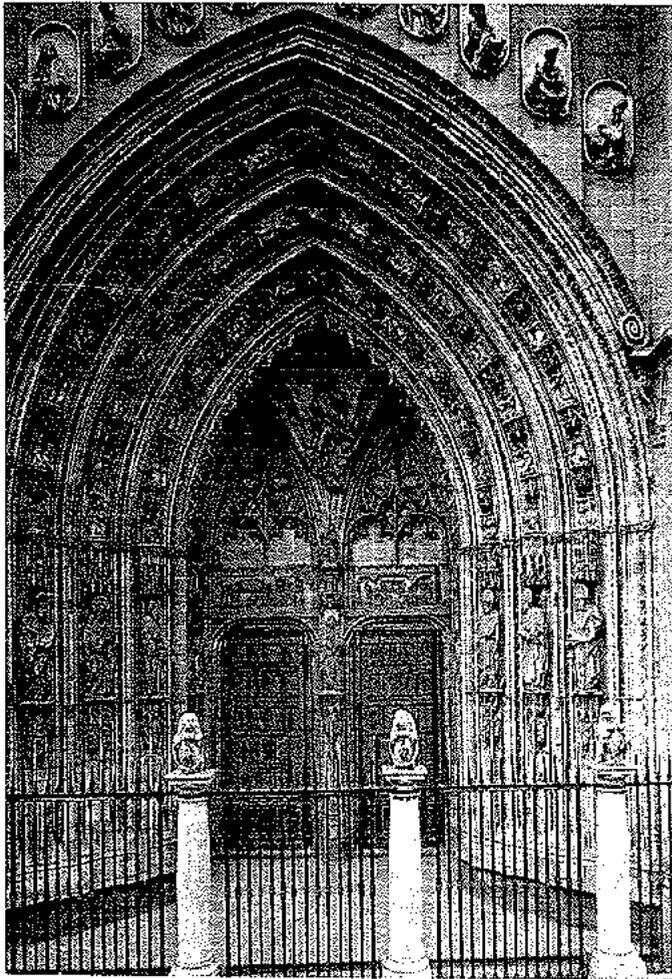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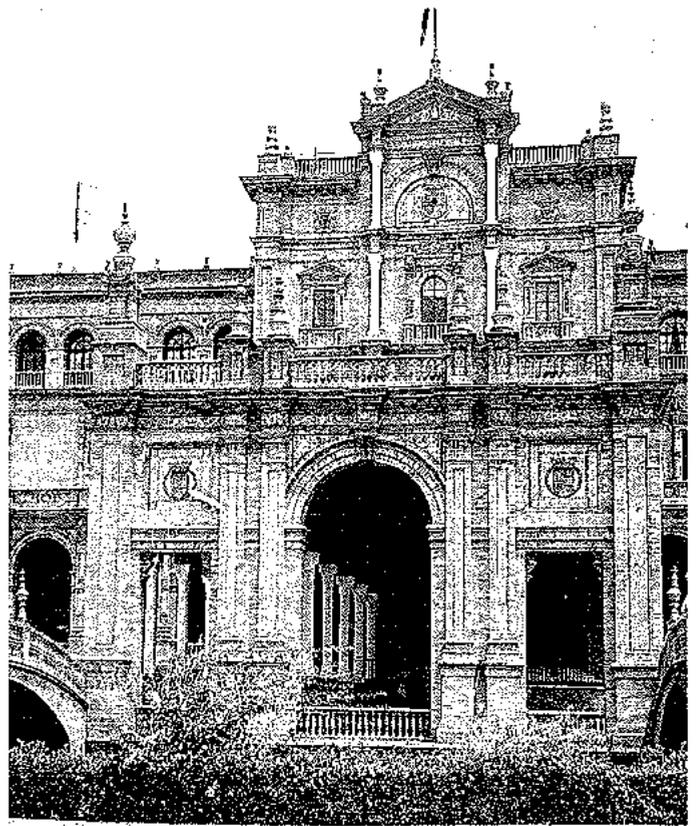
- 9 톨레도 성당 첨탑
- 10 톨레도 성당 주제단의 성경조각
- 11 종정주택

일일이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구시가 곳곳에는 1929년 박람회 당시의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어 당시 건축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관, 칠레관, 페루관, 포르투갈관, 아르헨티나관, 과테말라관 등 주로 스페인어권의 나라들이 많은 것 같다. 지나가다 카르멘이 다녔다는 18세기 담배공장도 본다. 공장이 아니라 박물관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당시 건축의 기품을 다 갖추고 있다. 공장이라고 해서 건축 그 자체의 의미를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것이 당시 사회의 풍토였고, 장인의 기분이었음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었다.

유럽의 어느도시나 우선 시의 중심에 대성당을 건설하고 발전하게 되는데 세비야도 마찬가지다. 오랜 세월 무어인들의 지배를 받다가 찾은 것이니 만큼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회교사원 타에 고딕양식의 대성당을 1402년부터 1세기에 걸쳐 건설했는데, 그 규모가 스페인 최대일 뿐 아니라 로마의 베드로성당, 런던의 바울성당 다음가는 대성당이라 한다. 어느 성당이나 들어가면 그 웅대한 스케일과 섬세한 조각, 호화로운 장식에 주눅이 들고 또 시간의 단위들이 보통 몇백년인데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서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돌아보게 된다. 성가대, 왕실에배당, 스테인드글라스 등 인간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신에게 바친 건축의 극치를 다시한번 본다. 특히 1506년 세비야에서 죽은 콜럼부스의 석관은 당시 스페인을 이루고 있던 레온, 까스티야, 나바라, 아르곤 지방의 4왕이 메고 있는 조각으로 되어 있어 놀라게 한다.



7



8

성당을 나와 높이 97.5m라는 유명한 히랄다 탑을 본다. 12세기말 회교도인 아르모아드 족에 의해 건립되었다는데 그후 지진으로 파괴된 부분이다 16세기에 종루를 덧붙인 짜깁기 건축인데 그 조화가 신기한 정도로 아름답다. 어떠한 양식이건 상관없이 유능한 건축가에게 맡겨지면 그 상황에서 최선의 완성도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감동적인 건축이었다. 첨탑의 청농조각상은 바람이 불면 바람개비(히랄다) 처럼 돌아간다는데, 현대 모빌조각의 원조가 아닌가싶다. 종루의 28개 종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으니 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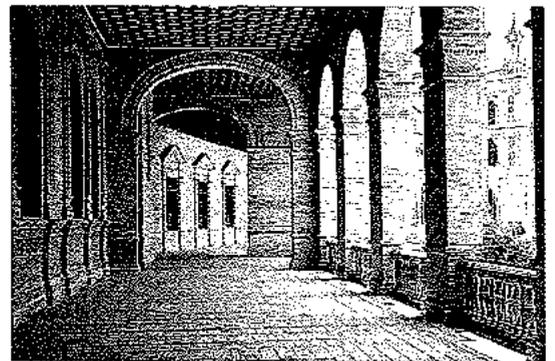
옛날 유대인 거리였다는 산따 그루스거리로 산책한다. 좁은 골목에 대문이 나 있고 대문을 열면 중정과 계단이 보인다. 현관과 중정은 꽃으로 예쁘고 정성스럽게 장식되어 있는데, 더운지방 중정건축의 매력을 볼 수 있었다. 하얀 회벽과 덧문, 구워진 붉은색의 스페니쉬기와, 주철공예의 낮은 등, 발코니의 남칠듯 장식된 빨간 꽃들이 안달루시아 지방의 만중건축을 대변해 주고 있다.

저녁을 호텔에서 들고나서 몇사람만 시내야경을 보러가기로 한다. 택시운전사에게 중심가를 데려다 달랬더니 히랄다 탑에 내려준다. 밤에 다시보는 탑은 조명을 받아 은은히 빛나고 있었으며, 정적 속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부끄러운 듯 보여준다. 시간을 초월하는 건축, 공간을 초월하는 건축의 감동이 진하게 와 닿는다. 밤거리는 어둡고 쓸쓸할 정도로 한적하다. 강변의 작은 카페에서 맥주 한잔을 들며 세비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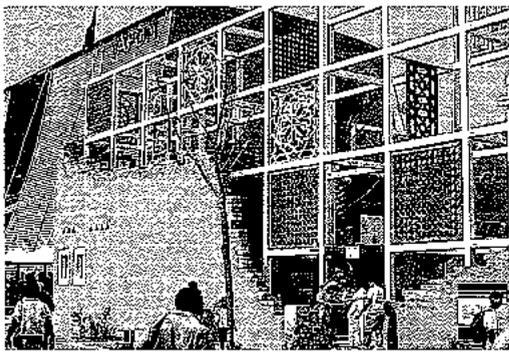
- ⑩ 틀레도 성당 정문상세
- ⑪ 세비아 시청
- ⑫ 세비아 시청 주랑

밤바람을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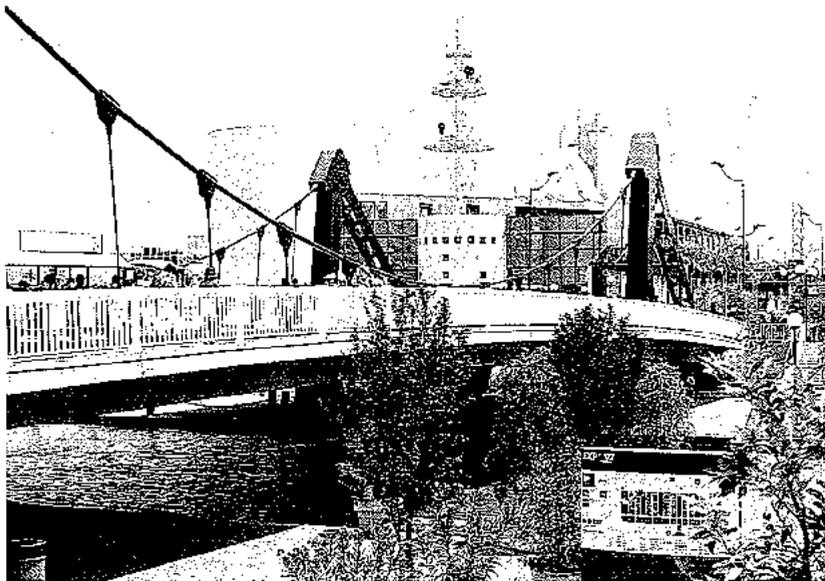
7월 8일 수요일 아침에 바로 박람회장으로 간다. 햇살은 따갑고 공기는 상쾌하다. 우선 한국관에 가서 기념촬영을 하고는 5시에 모이기로 하고 흩어진다. 하루에 다 본다는 것이 애초에 말도 안되지만 그래도 부지런히 돌아보는 수밖에 ... 우선 케이블카로 장내를 돌아본다. 강쪽 입구에는 '발견의 시대'라는 주제를 나타내듯 콜럼부스의 산타 마리아호 범선이 정박되어 있었고, 우주왕복선이 인간의 의지를 상징하며 서 있었다. 인류가 성취한 발견과 발명, 또 미래를 향해 어떻게 나갈 것이며, 지금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주제를 박람회조직위에서는 환경관, 에너지관, 통신관, 우주관 등 4개의 주제관에 표현하고 있다. 환경관에서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되새기며 인간활동이 환경에 끼친 악영향을 반성하게 한다. 에너지관은 에너지의 생산과 효율적 이용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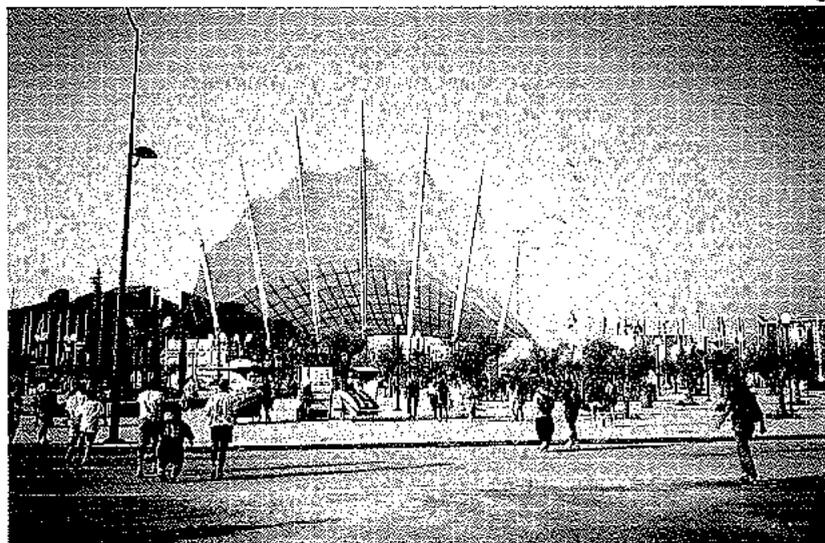
13



⑫



⑬



⑭



⑮

- ⑫ EXPO '92(사우디아라비아관)
- ⑬ EXPO '92 전경
- ⑭ EXPO '92 이베리카 정문
- ⑮ EXPO '92 한국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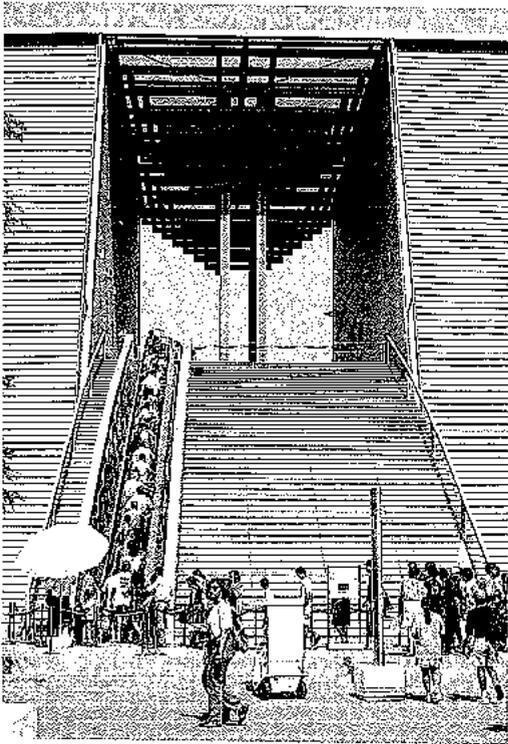
생각하게 하고, 통신관에서는 컴퓨터 기술, 광역통신기술의 놀라운 세계를 보여준다. 우주관에서는 생명과 물질의 신비를 탐구하며 우주의 베일을 벗겨보려는 인간의 염원을 흥미있게 보여주고 있다.

화가 나는 것은 창의력과 기술력을 총동원하여 기획한 EXPO를 하루에 보겠다고 달려든 철부지같은 우리의 모습이다. 1주일을 EXPO만 보아도 모자랄 것 같다. 하여튼 부지런히 돌아보며 순간적인 잔상이라도 남겨두자.

한국관은 어떠한 과정으로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건축계에 별로 알려져 있지 않더니 과연 실망이다.

한국의 건축이란 것이 단정한 복구조에 중후한 지붕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인데, 전혀 비례가 맞지 않는 기둥에 막구조의 지붕이 얹혀있어 아이디어도 빈약하고 초라한 모습에 얼굴이 붉혀졌다. 첨단 건축기법 전시장은 박람회장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설픈 모습이 1992년의 한국을 보여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반면, 안도·다다오가 설계한 일본관은 목조로 후지산의 선을 만들고 절제된 형태의 상징과 공간의 구성으로 일본적인 냄새를 강하게 풍기고 있었다. 이 작품으로 안도·다다오는 다시 한번 가장 일본적인 건축가로 불리는데 주저함이 없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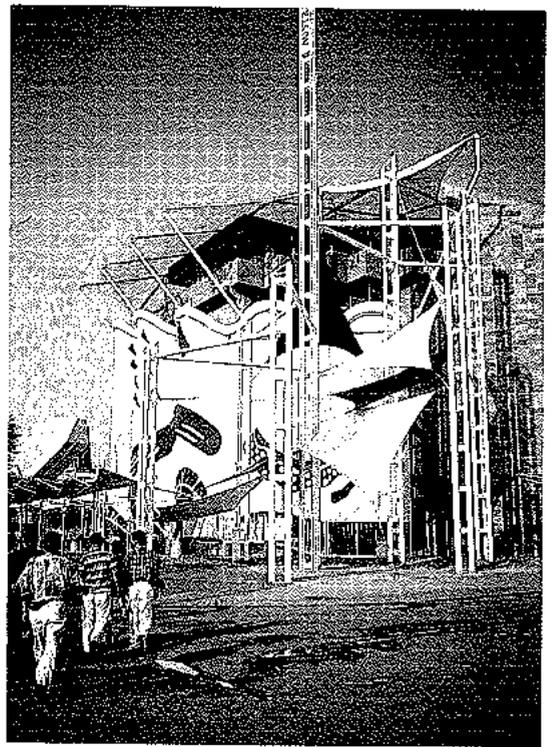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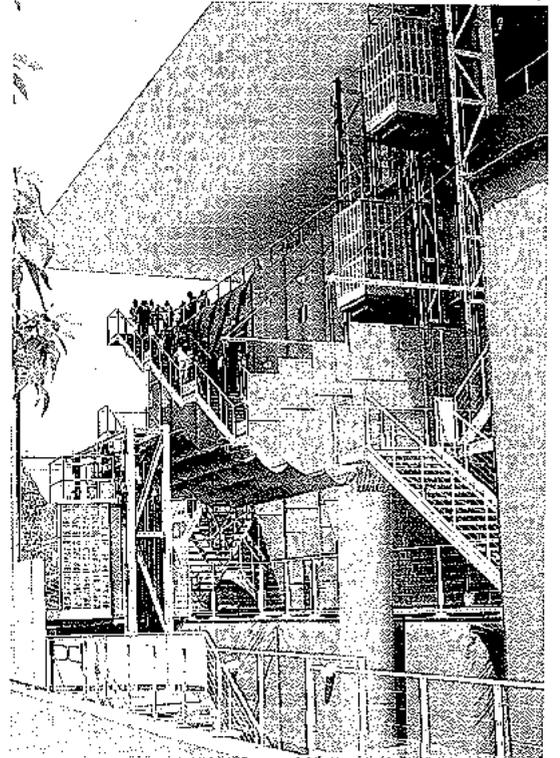
2

95개 전시관중 본 것이 몇개나 될까, 인기가 있다는 곳은 캐나다관, 영국관, 프랑스관, 이탈리아관, 스페인관, 독일관 등인데 너무 많은 관람객이 줄을 서 있어 들어갈 엄두를 못내고 그저 특색있는 제3 세계들의 전시관을 주로 보게 된다. 동구의 건축들이 의외로 신선한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있었고 중동, 중앙미, 아프리카 등의 전시관들도 개성이 있었다. 오히려 미국, 소련 등의 강대국관이 높고 쇠잔한 듯한 모습으로 비추어지며 별로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우연히 마주친 인도의 기념품점에서 진짜인지 모르는 칠기시대 조각 두점을 사들고 다리 아픈 것을 얻는다.

- 1 EXPO '92 일본관 ①
- 2 EXPO '92 일본관 ②
- 3 EXPO '92 호주관
- 4 EXPO '92 프랑스관



3



4

슈퍼마켓에 들렀을 때, 정육점마다 걸어놓고 있는 돼지 넓적다리 - 소금에 절여 말린다는데 곁에는 곰팡이가 슬어있다 - 가 신기했었는데, 마침 매점에서 맥주와 함께 설어 팔기에 한 점시 청해 본다. 이 지역 특미인가 본데 항해서 주식이었음 것이다. Cruzcampo 생맥주와 얇게 썰은 Jamon(그 고기 이름)의 맛이 써 잘 어울리며 입맛에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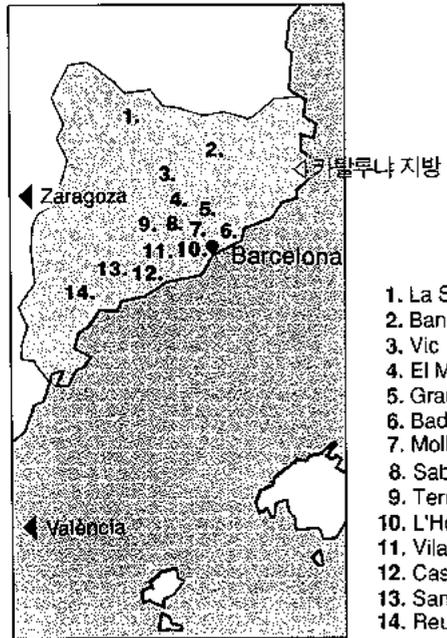
자! 아침지만 또 다음 일정을 계속하자. 하루종일 더위 속에 걸느라 지친 몸을 저녁 비행기에 실어 바르셀로나에 도착하니 9시가 된다. 새로 지은 공항이 신뜻하다. 10시나 되어 저녁을 먹고 피곤한 몸을 푼다.

92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고장을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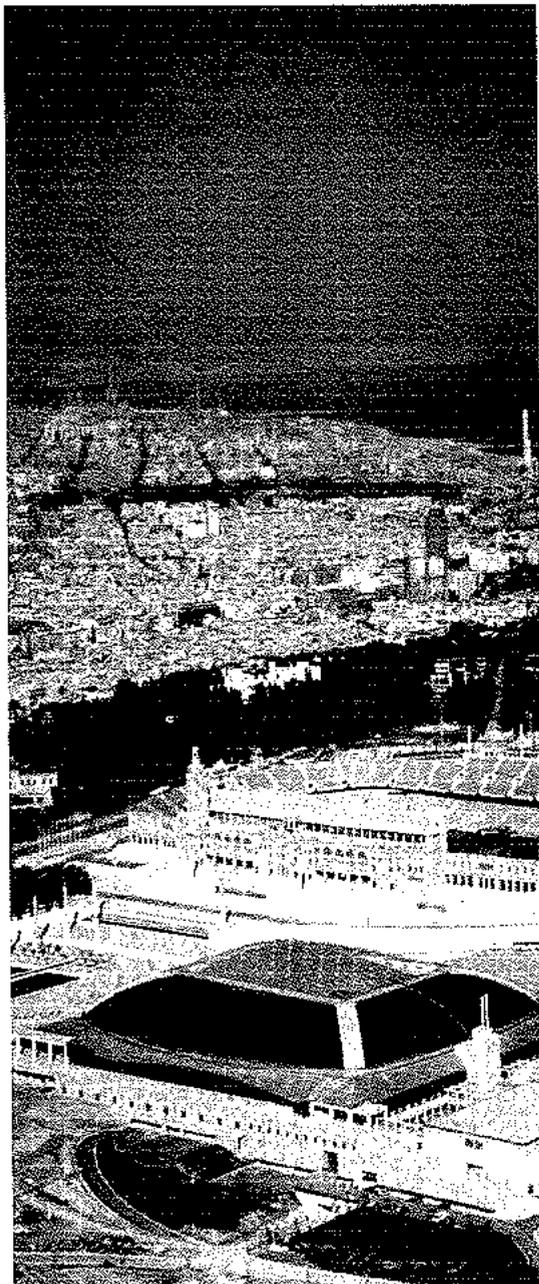
On the Spot Coverage of the Barcelona
- '92 The Olympic Locality

REPORTAGE

본 협회 출판사업부



1. La Seu d'Urgell
2. Banyoles
3. Vic
4. El Muntanya
5. Granollers
6. Badalona
7. Mollet del Vallès
8. Sabadell
9. Terrassa
10. L'Hospitalet
11. Viladecans
12. Castelldefels
13. Sant Sadurní
14. Reus



1 Montjuïc산에서 내려다본
올림픽 주경기장

역사

바르셀로나는 스페인의 제 2대 도시로 카탈루냐 지방의 중심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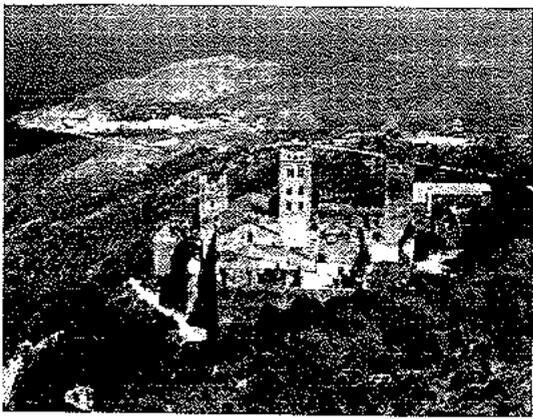
카탈루냐는 이베리아 반도의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도시로서 유럽세계와의 역사적, 문화적 교류 속에서 번성해 왔다. 면적은 3만2천m²이며, 약 6백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지중해와 580Km나 맞닿아 있으며, 큰 산맥과 내륙의 평야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방의 기원은, Charlemagne (샤르마뉴 대제)가 이슬람족의 침공을 방어하기 위해 서기 785년 이후에 그의 제국의 남쪽 접경에 여러 나라들을 만들면서 부터이다. 200년뒤, 바르셀로나를 포함한 Catalan 연합체는 Borrell II세가 프랑스의 국왕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프랑스와의 연대체제에서 벗어났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천년전인 서기 988년에 발생했다.

1137년에 아라곤제국과 카탈루냐가 합친 왕국이 탄생하였고, 12세기 중반까지 이 지역에 대한 정복이 완성되었다. 그 다음세기에 들어서는, 카탈루냐는 제임스 I세의 통치하의 1229년에 Mallorca를, 1283년에는 Valencia 지역에까지 세력을 확장시켰다. 1283년에 의회정치가 강화되었고, 이는 1359년에 완전한 대표권자로서 Generalitat에 길을 터주게 되었다. 카탈루냐의 세력확장은 지중해쪽으로 계속되어 Sicily (1289), Athens (1311), Sardinia (1324), 그리고 Naples (1443)까지 차지했다. 중세말기는 이 나라의 최고 번성기를 구가했다. 나날이 발전해가는 경제와 더불어 지중해의 전 지역에 Caltan의 총독부가 세워졌으며, 여러 도시국가들은 법률, 과학, 예술과 문화에서 황금기를 구가했다.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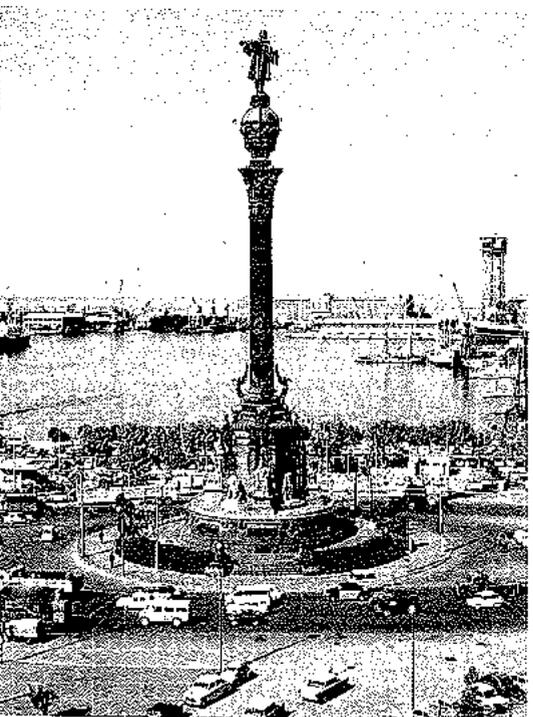
Catalan의 언어는 유럽의 Romance 계통으로 구분되어진다. 라틴계에서 파생되어 나온 이 언어는



2



3



4

8세기와 9세기 사이에 하나의 언어로서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11세기와 12세기 들어 처음으로 문자로서 그 발자취를 남겼다. 계속된 영토확장을 통해서 이는 Mallorca와 Valencia로 확산되었으며, 법률, 종교, 역사, 철학, 과학에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력이 넓혀져서 Catalan언어를 문화적으로 성숙하고 응집력있는 언어로 만들었고, 14세기와 15세기에 들어 Catalan의 문학을 황금기로 만들어 놓았다. 카탈란(catalan)은 그 다음세기로 접어들면서, 비록 정치적으로는 쇠퇴했지만, 공적인 사회생활에서는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지금까지 살아있는 언어가 되어있다. 1716년에 Nova Planta 포고령이 선포되면서 catalan이 공적인 생활에서 추방되었지만, 그 언어는 살아남아 19세기 중반부터는 문화적 르네상스를 구가하여 완전한 회복을 가져왔고 이는 수 많은 유능한 작가들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이는 Catalan의 현대문학을 이끈 Jacint Verdaguer의 공로이기도 하고, 또한 언어학자인 Pompeu Fabra의 공로와 활약이 지대했기 때문이다.



5



6

- 2 Sant Pere de Rodès 수도원
- 3 카탈루냐 광장 ①
- 4 콜럼버스 동상
- 6 카탈루냐 광장 ②
- 6 Ramblas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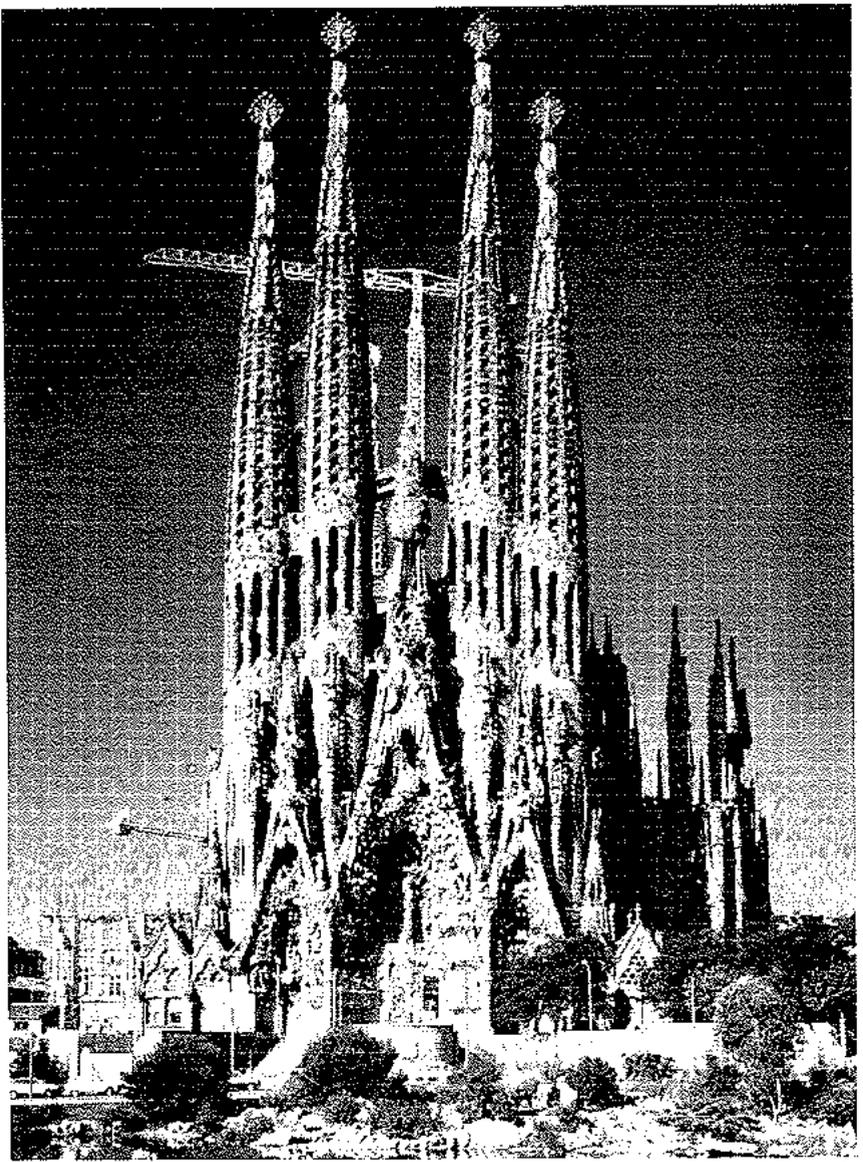
7



8



9



10

금세기로 접어들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Catalan은 그 지역의 공식 언어로 카탈루냐 사람들에 의해 되살아나고 있다. 대략 7백만명의 Valencia와 Baleance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1989년에는 유럽공동체 회의의 문화위원회에서 이 catalan 언어를 유럽공동체의 공식언어 중의 하나로 선포하기도 했다.

오래된 유럽 도시문명의 중심지로서 카탈루냐와 아라곤제국의 연맹체는 1479년에 각자의 정치적 기구분 유지하면서 카스탈리안(Castilian) 왕조로 합쳐졌으나, 인구통계학상의 약점으로 인해 castilian은 점차 쇠퇴해 갔고, 권력마저 잃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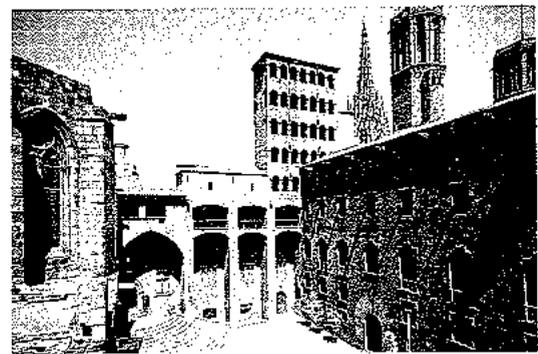
스페인의 왕위계승전쟁 (1702 - 14) 으로 카탈루냐는 시련을 겪게 되고, 필립 4세의 Nova Planta(1716) 포고령은 마침내 카탈루냐의 법률과 기관들을 넘어뜨리는 전제정치를 꾀면서 castilian화 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동세기에 소유림지역에서 일어났던 국가적 부흥운동에 발맞춰 카탈루냐에서도 19세기의 catalan 르네상스로 불릴만한 문화적, 언어상의 중흥이 경제발전과 더불어 일어났다. 문화적 중흥과 함께 곧 카탈루냐의 정치적 움직임이 모아져서, 이런 catalan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1931년 스페인 제 2 공화국 시대에 이들은 Generalitat을 회복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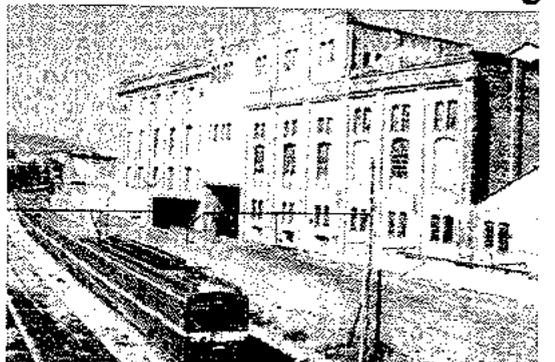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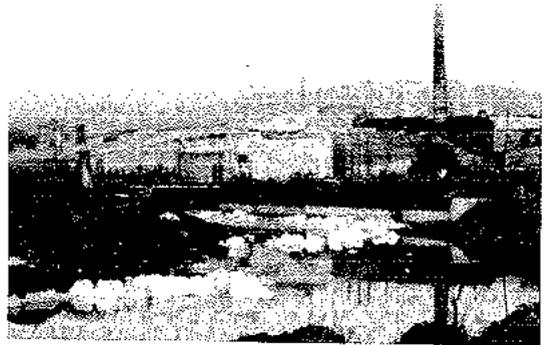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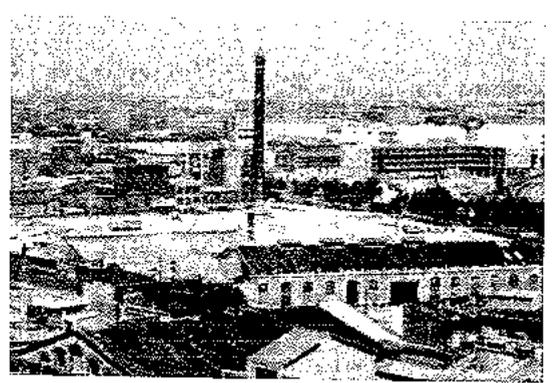


11

- 7 Ramblas 광장
- 8 Ramblas 주변의 예술극장
- 9 몬세랏 수도원 전경
- 10 Antonio Gaudi의 Sagrada Familia
- 11 Saint Eulalia 대성당
- 12 Barrio Gótico 왕의 거리



12



성공했다. 하지만 1936 - 39년의 스페인 내전 (civil war) 은 카탈루냐인들의 이런 공적을 빼앗아갔고, 마침내 스페인은 40년간의 독재에 잠기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1978년에 스페인 헌정이 수립되고 이어서 Estatut d'Autonomia (자치법)가 1979년 통과된후, Generalitat들은 카탈루냐 자치구를 다시 만들수 있게 되었다. Catalan언어는 다시 이지역의 공식언어가 되었고, 4개의 붉은색 줄무늬 타입의 국기가 다시 사용되게 되었다.

문화 · 예술

그리스 로마 visigoths와 같은 이미 11세기에 주체성을 가진 도시들의 주위에 살면서 이들 나라의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이 카탈루냐에 전수되어 지금의 로마네스크 양식을 꽃 피우게 되었다. 이는 유럽에서도 가장 오래된 예술양식으로서, Sant Pere de Rodas와 같은 아주 귀중한 유적과 Bio 계곡의 큰 교회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13세기에 들면서는 경제적, 문화적 번영을 반영해주듯, 고딕 양식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Girona's 대성당의 광대한 자태, 바르셀로나에 있는 Santa Maria del Mar의 조각상식, Poblet, Jaume Hugnet

14 Saint Eulalia 대성당 내부
15 16 17 재개발 이전의 Parc de Mar 지역의 공업지역 및 철도

그리고 Ferrer Bassa의 유명한 그림들, 그리고 James Cascalls의 조각상 등이 이 양식의 대표적인 예이다.

르네상스와 바로크 양식은 더욱 흥미롭다. 예를들어, 바르셀로나에 있는 Palau de la Generalitat 건물, Cadaques와 Arenys에 있는 벽화가 대표적이다. 네오클래시즘 (Neoclassicism) 양식의 하나로 Cervera 대학교 건물 또한 감동적이다. 19세기의 대표적인 화가인 Mania Fortuny는 모더니즘에 가까운 그림을 그렸다. 모더니즘은 그 당시에는 아주 놀랄만한 용기와 시대 적합성을 갖춘 예술이었으며, 이 범주에는 Gaudi, Domenechi, Montaner가 속하며, 당대의 뛰어난 조각가, 화가 그리고 공예가들과 잘 협력되어 있었다.

복고풍을 갖춘 네오센티즘 (Noucentisme) 으로부터 다시 전위예술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전위예술가로는 Salvador Dali, Joan Miro 그리고 Antoni Tapies를 들 수 있으며, 이들을 통하여 카탈루냐는 세계를 향해 그들의 예술을 전파시킬 수 있었다.

여러 catalan 도시들의 역사적, 예술적, 문화적 중요성은 그 국가들의 바탕에 흐르는 정신과 국민성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이런집에서 Tarragona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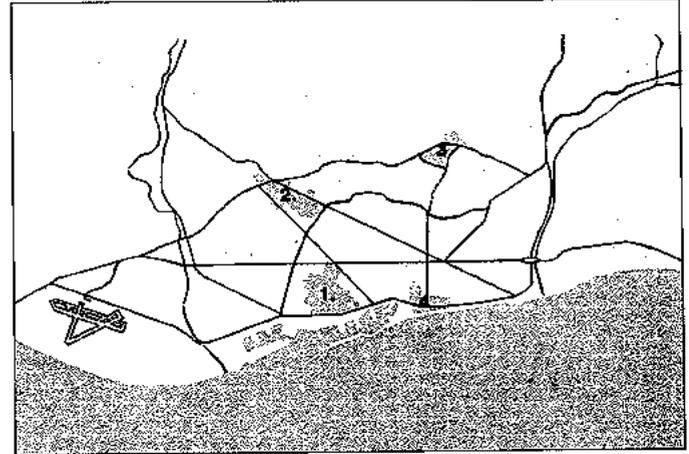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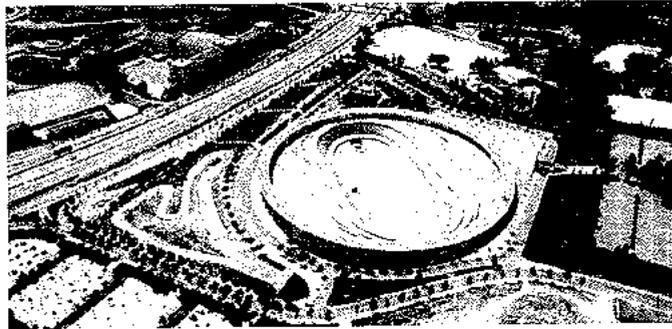
2



3



4



4

1. Montjuïc
 2. Diagonal
 3. Vall d'Hebron
 4. Parc de Mar
- 1 Montjuïc
 - 2 Diagonal
 - 3 Vall d'Hebron
 - 4 Parc de Mar
 - 5 올림픽 관련시설 위치도
 - 6 Palacio Saint Jordi 스포츠 홀 전경 ①
 - 7 Palacio Saint Jordi 스포츠 홀 전경 ②

로마의 도시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인상적인 유적들을 보전하고 있고, Girona는 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중세풍의 장식들을 갖고 있다. 그리고 Lleida는 여전히 아랍문화권의 유적과 여러가지 경이적인 중세풍의 예술품들을 소장하고 있다. 한편, 감라교파의 도시들에 세워진 Vic, la Seu d'Urgell, Tortosa 그리고 Solsona와 같은 여러 대성당들은 마치 박물관처럼 중대한 예술적 귀중품들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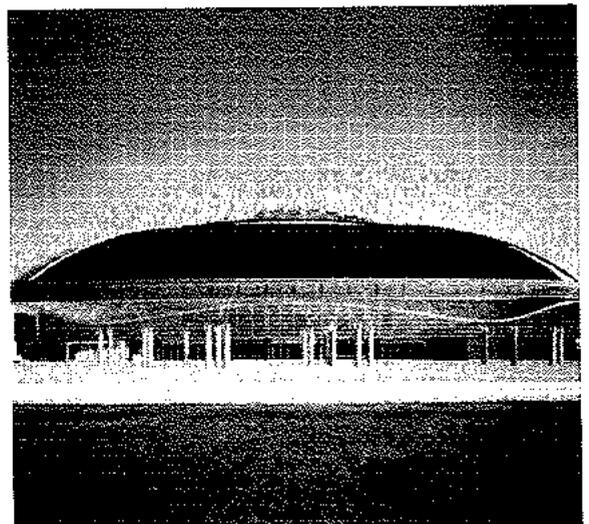
경제적, 문화적으로 뛰어난 다른 많은 도시들이 많이 있으며, 이런 예로는 Reus, Figueres, Manresa,

Igualada, Olot, Ganesa, Berga, Banyoles 등의 지역의 수도들이 있다. 또한, Ripoll에 있는 수도원, Cardona와 Saint Viency라는 거대한 교회와 같은 훌륭한 유적들을 가진 다른 많은 도시들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Montserrat의 섬세한 수도원과 카탈루냐의 정신적 지주인 Montserrat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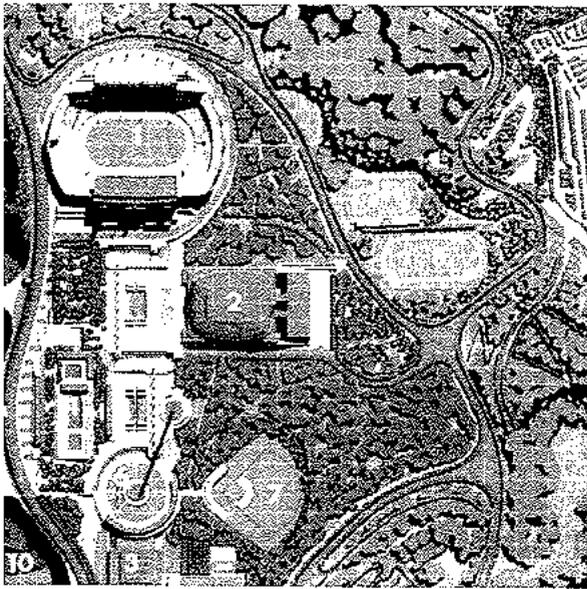
마르셀로나는 이 지역의 명백한 중심지로서, 유럽에서도 거대도시의 하나로 손꼽힌다. 여기는 대성당 건물과 정부청사건물과 같은 정교한 고딕체 예술품들로 어우러진 이 옛 도시의 아름다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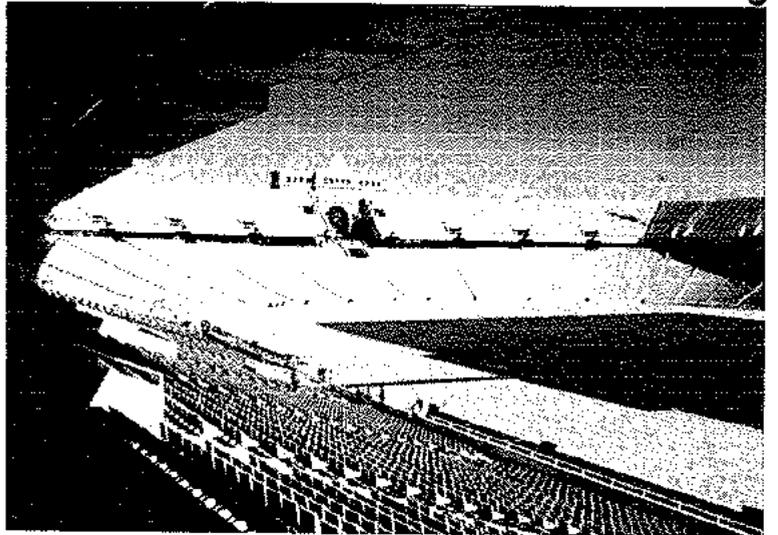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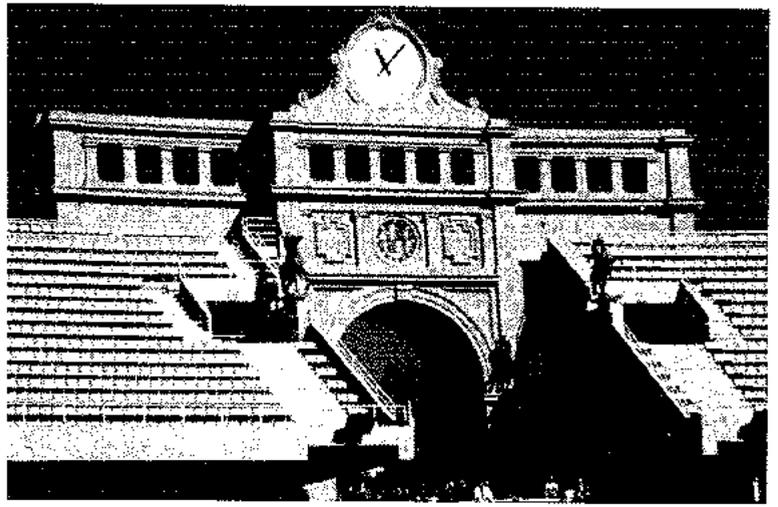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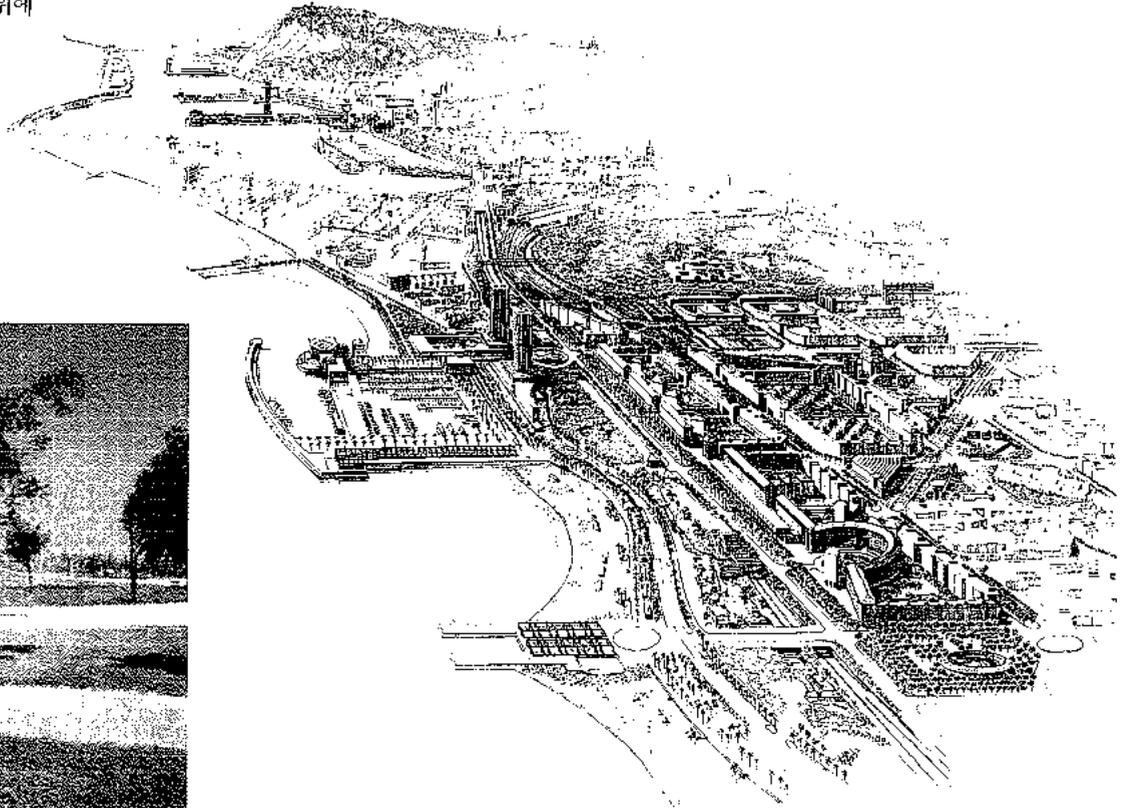
- 1. 주경기장
- 2. Palácio Saint Jordi 스포츠 홀
- 3. 카탈루냐 국립체육대학 경기장
- 4. Picornell 수영장
- 5. "Parc Del Migdia" 공원
- 6. "Plaza De Europa"
- 7. 야구장
- 8. 보조경기장
- 9. 모형 비행기장
- 10. 럭비구장
- 11. 하키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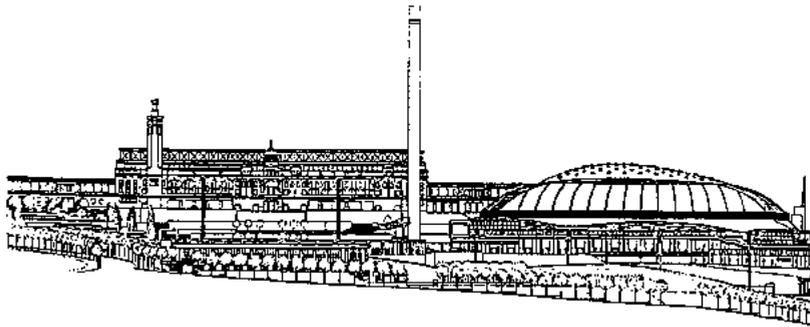


- ④ Montjuïc 지역의 올림픽 경기장
- ⑤ Montjuïc Main Stadium 시계탑
- ⑥ Montjuïc Main Stadium 관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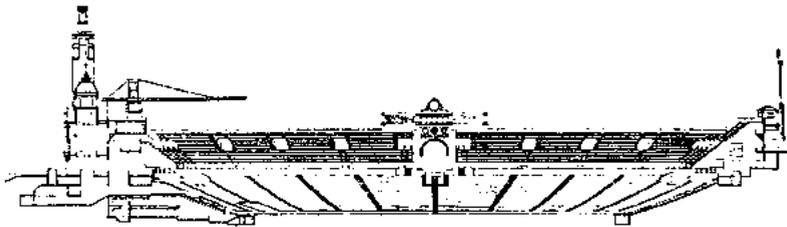
- ⑦ "Parc del Migdia" 문주악산 중턱의 공원으로서 52ha의 면적
- ⑧ Park de Mar 바르셀로나 해변의 올림픽 관련 서비스 관련시설, 항구시설, 교통체계 종합계획도

감동하게 된다. 또한 형형색색으로 이루어진 Rambla와 부서진 벽위에 지어진 Eixample은 세기가 바뀐 뒤에도 현대예술의 증거로 남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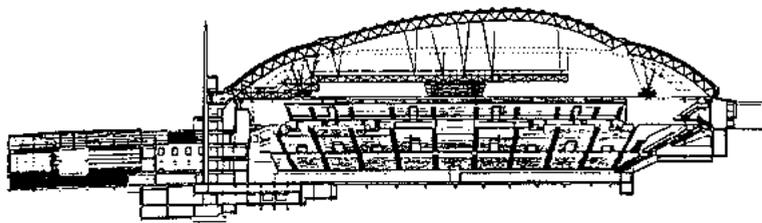




L'ESTADI OLÍMPIC



PALAU D'ESPORTS SANT JORDI



도시개발과 올림픽 시설물

'92하계올림픽을 유치한 바르셀로나는 기본적으로 세가지 형태의 도시개선사업을 벌였다. 첫번째는, 이 도시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la villa Olimpica (올림픽촌), el Poble Nou 그리고 4Km 이상의 길이에 달하는 해안에 집한 지역의 도시화 복구사업이다. 두번째는, 이 도시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일반도로망의 개선작업이다. 이것은 Cinturon del Litoral과 el Segundo Cinturon 공사의 완성과 바르셀로나 내에서 중추신경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점의 개선작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세번째는, 스포츠 문화시설뿐 아니라 녹지대 조성을 목적으로 이 도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네 지역 Montjuic, Valle de Hebron, Diagonal 그리고

- ② Mantjuik Main Stadium 입면도
- ③ Mantjuik Main Stadium 단면도
- ④ Saint Jordi 스포츠 센터 단면도

Estacion de Norte-Glorias 의 개선 작업을 시작하였다.

대규모의 도시화 사업 : 올림픽촌 해안지 역의 새로운 모습

올림픽촌은 선수들을 위한 거주지로서뿐 아니라 이전의 낡고 퇴조하던 공업단지들이 바르셀로나에서 해안지역으로의 진입을 방해하며 차지하고 있던 지역을 회복하는 목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충분히 도시망속에 자리잡은 새로운 해안구역이 만들어져 해안의 주위를 꾸미며 아름답게 조성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바르셀로나 전지역의 철도망과 하수시설의 상당한 변화가 뒤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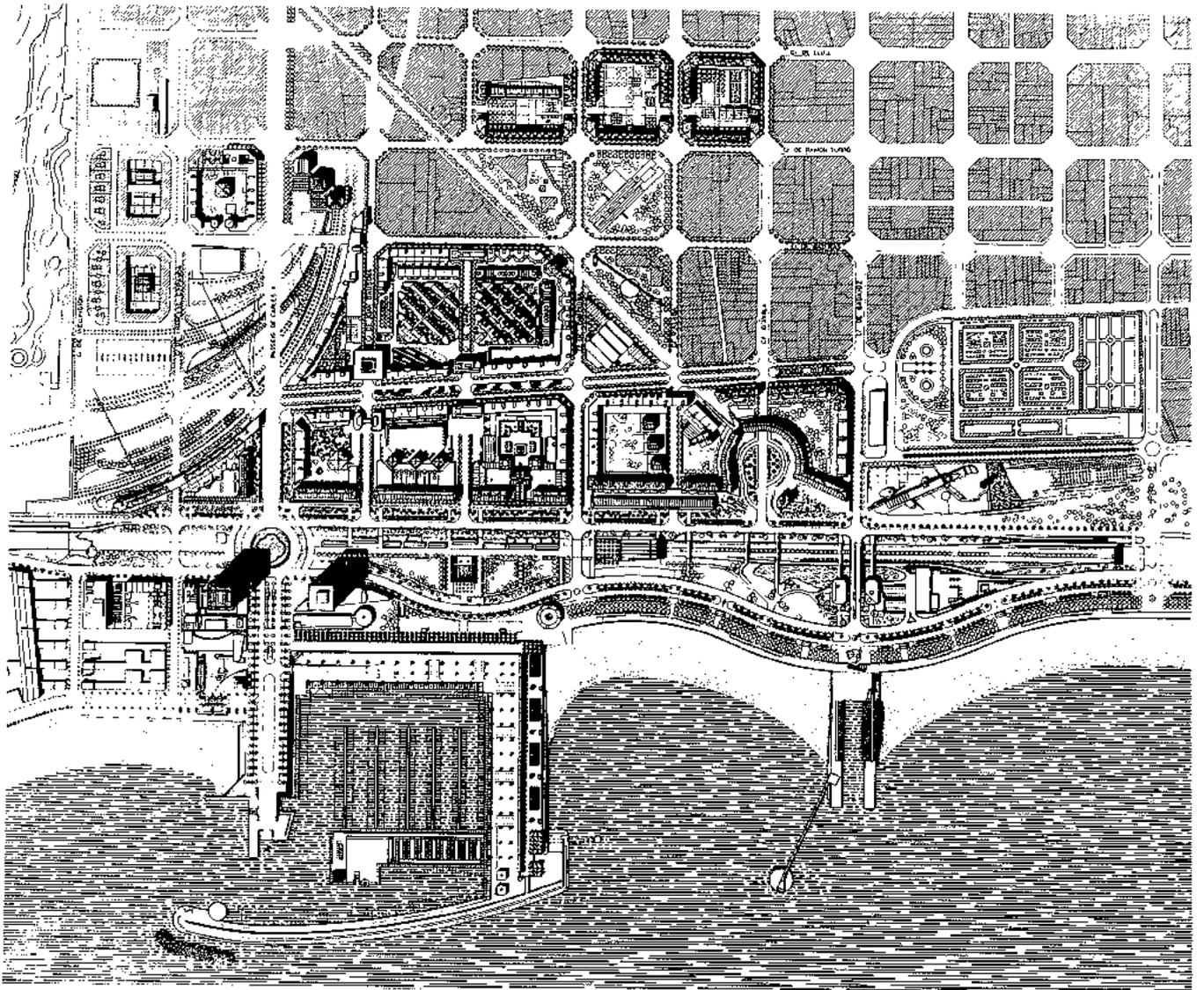
50헥타르에 달하는 이 지역에서의 도시화 작업은 2천여 거주지뿐 아니라 각 44층의 두건물 - 하나는 사무실용 또 다른 하나는 호텔용, 새 의사당 (Palacio de Congresos), 의 Puerto Deportivo (스포츠항) - 수용력 700척, 사무용 건물들, Hospital del Mar에 이어지는 대단위 해안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4Km 이상의 이 해안에 접해있는 이 지역의 재개발사업은 해안공원 (Parques de Mar) 조성과 바르셀로나 시민들의 여가를 위한 해변복원사업도 포함하여 새로운 해안경관을 창조하여 바르셀로나를 지중해의 연안도시로 정착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입체교차로와 연결도로

도로망의 재편성과 재구성은 현재 이 도시가 당면하고 있는 큰 과제 중 하나이다. 이 프로젝트의 열쇠가 되는 요소는 네 올림픽지역 (Olimpic Area)을 서로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입체교차로 Cinturon del Litoral과 Segundo Cinturon 이다. 이 두 입체교차로는 바르셀로나 주위에 반지형태와 같은 도로를 형성하면서 해안 앞쪽, Collserola 열 그리고 Besos, llobregat 두 강변을 지나는 중요한 도로 역할을 한다. El cinturón del litoral (Ronda de Mar라고도 불리운다)은 시민들의 교통수송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이곳에서는 각 방향이 2차선이며 1일 최대 90,000대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고안되었다. Ronda de Montana 라고도 불리우는 el Segundo Cinturon (제2교차로)는 대도시를 횡단하는 도로이다. 이곳은 각 방향마다 3차선이고 1일 최대 130,000대의 차량 수송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입체교차로들은 바르셀로나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와 연결되어 있어서 도시의 다른 길로 가는 중간단계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은 현재 590,000대의 차량진입을 최고 900,000대 까지 증가시키며 Ensanche(확장지역) 길로의 통행을 15% 내지 20% 감소시킨다. 이 입체교차로와 함께 현재 공공사업을 포함하는 31Km의 서비스 갤러리를 설치하였다.

Montjuic 지역: 대규모 스포츠 시설

Montjuic 지역에는 1929년 바르셀로나 국제박람회를 동기로 시작된 도시화가 대규모 스포츠 시설로 연결 단계에 이르렀다. Montjuic 스타디움은



1929년에 스페인 건축가 Gregotti, Correa, Mala Margarit and Buxade에 의해 설계되어 세계박람회를 위해 지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수용능력 7만의 본경기장은 ~92올림픽 개, 폐회 장소로 쓰여졌으며 바르셀로나 스포츠 최고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바르셀로나 의사당으로 지어진 Palacio Saint Jordi 일본의 Arata Isozaki에 의해 설계된 새로운 모습의 상징적 건물중의 하나로서 수용능력 1만 7천명의 실내체육관이다. 형태가 매우 장관인 지붕은 Montjuic산의 부드러운 곡선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 아래쪽으로 위치한 카탈루냐 국립체육학교 (el Instituto Nacional de Educacion Fisica de Cataluna)는 Cataluna의 재정지원을 받아, 새로운 체육단과대학으로 설립되었다. 세계의 크고 새로운 공원, 새로운 형태의 수영장 Picornell 그리고 하나의 통신위성탑이 그 지역의 도시화를 완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도시화의 완결은 공원내에 다양한 체육, 문화시설을 갖춘 50헥타르 크기의 Parque de Migdia를 완성하는 것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Montjuic 산으로의 접근은 케이블카와 여러도로의 재구성을 통해 이루었으며, 산중턱에는 6천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다.

② Parc de Mar 종합계획도 ②

도시의 새로운 형상 El Valle de Hebron지역

Callserola 산맥 옆에 위치하며 el Segundo Cinturon과 el tunel de la Rovira(로비라 터널)과의 연결은 도시 발전에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다. 이 지역은 82헥타르의 면적으로 스포츠 시설에는 34헥타르가 차지하며 Horta 자전거 경기장, 18개의 테니스 코트, 2개의 양궁장, 축구장, 럭비구장 등이 있으며, 기차촌으로 사용되고 있는 50여 주거지, 250객실의 호텔과 다양한 문화 시설이 건립되었다.

El Area de Diagonal

이 지역은 바르셀로나, Hospitalet 그리고 Esplugues 등의 도시들이 합류하고 있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많은 스포츠 시설이 있다.

El Nou Camp, el Palacio Blaugrana, el Miniestadio (소경기장)의 R, C de Polo (폴로경기장), las pistas universitarias (대학트랙) 그리고 전시관 Pubilla Cases 등은 Diagonal, Collblanc 그리고 제 1, 제 2 교차로 사이의 이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설물이다.

현상설계 2제

한국토지개발공사 본사사옥

한국토지개발공사는 21세기를 대비한 진취적이고, 현대적인 이미지 창출과 미래 첨단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사옥을 건립하기 위해 현상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4개 응모작품 중 희림종합건축(대표:이영희)안을 당선작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분당 신도시에 세워질 이번 사옥의 현상공모에는 당선작외에 건원종합건축(대표:곽홍길)안과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대표:이상수)안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부천시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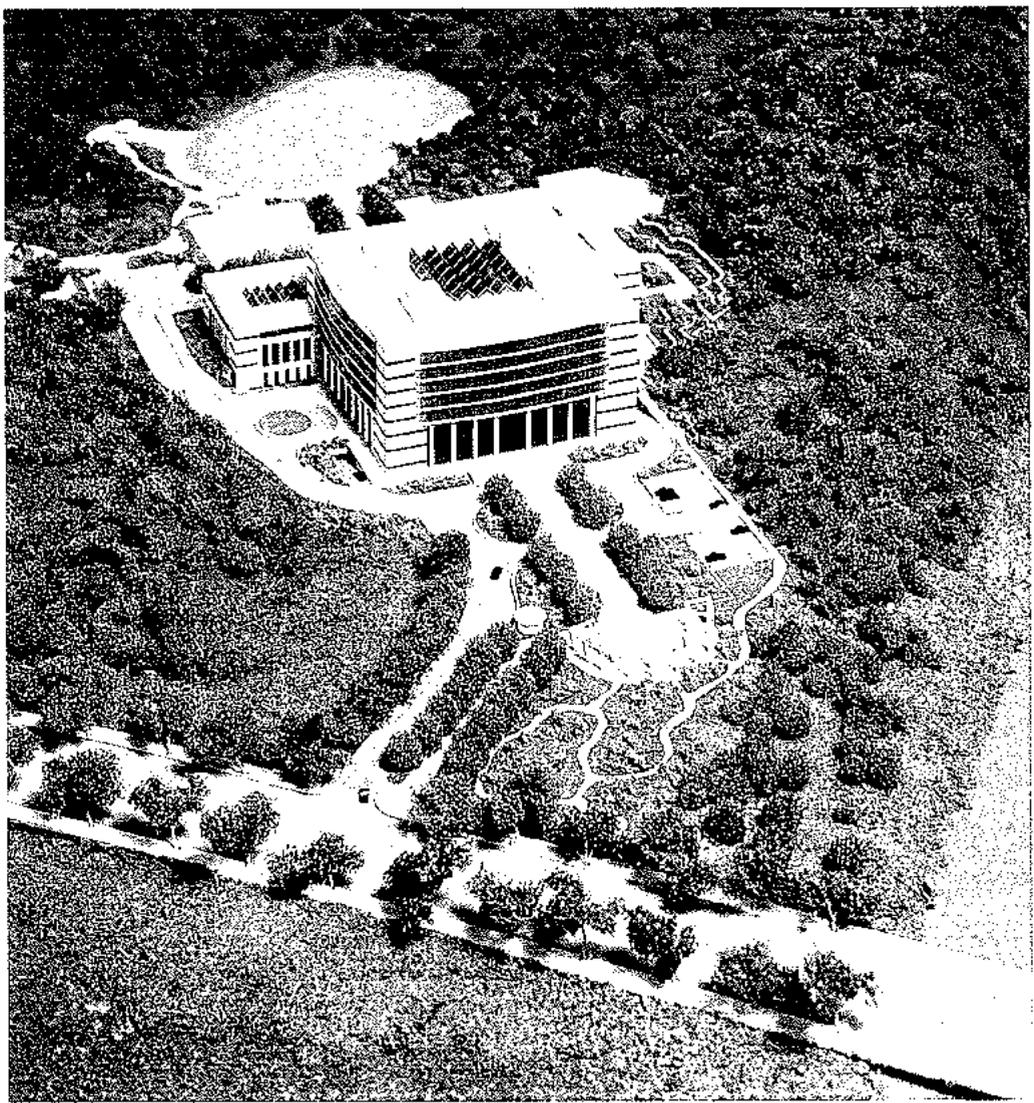
부천시청은 날로 팽창하고 있는 도시구조와 업무증대에 대비하여 원활한 시행정업무, 자치적인 시의회 활동, 집회·대민업무의 기능을 보다 유기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청사의 건립을 위해 실시한 이번 현상공모에서 부림건축(대표:김호)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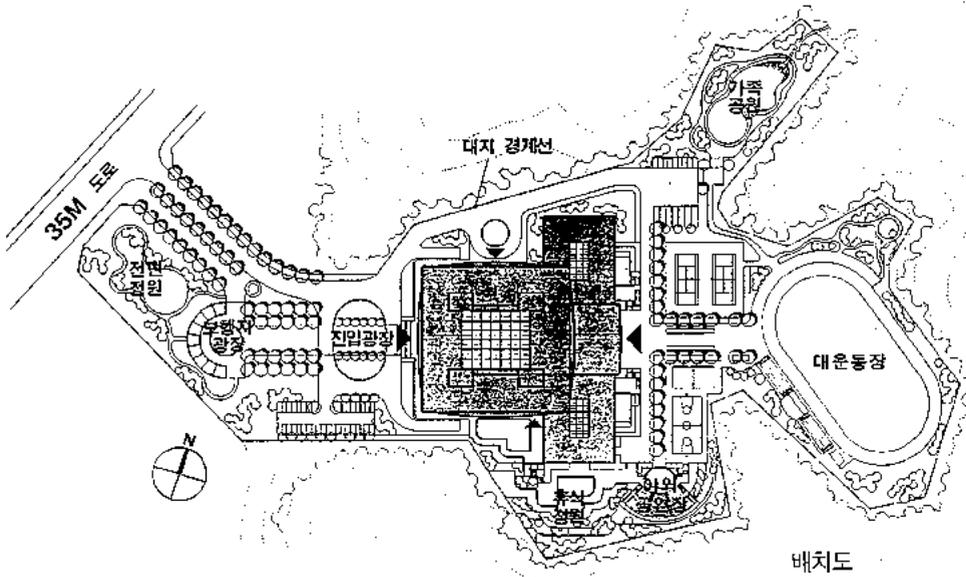
부천시 중동지구 신도시개발지구에 들어설 이번 현상공모에는 총 22개 작품이 응모되었으며, 그 중 당선작외에 일신건축(대표:이용흠)안이 우수작으로 선정하였다.

한·국·토·지·개·발·공·사·본·사

당선작 희림건축(이영희)案

- 대지위치 / 분당 신도시 4단계 구역
D-15-43-1, 2, 3블럭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업무지구,
고도제한지구(8층)
- 건축면적 / 8,188.56㎡
- 연면적 / 62,512.8㎡
- 규모 / 지하 3층, 지상 8층
- 건폐율 / 17.9%
- 용적률 / 85.2%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배치도

배치계획

1) 토지이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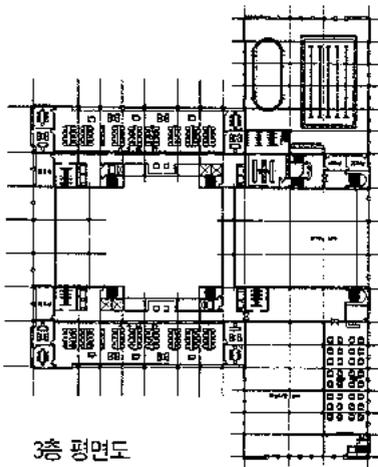
- 주진입부 본관 정면으로 설정 정면성 강조
- 사무실 남북축에 연계 배치함으로써 일조량 증폭 유도
- 업무, 후생, 체육시설 기능별로 배치한 후 유기적 연결
- 옥외 체육시설 집중배치하여 이용성 제고
- 건물 진입부에 진입광장 설치하여 위계성 강조
- 직원 및 직원가족 휴식시설로서 수자원 이용한 연못설치
- 서측 진입공간 조경공원화하여 전면부조망 극대화 도모
- 건물 남측소규모 개인정원 조성 후생시설과 연결
- 경사지형 적극 이용 공간 다양성 도모
- 최소 주차공간 이외의 주차는 지하층에 유치 토지 이용 극대화

2) 동선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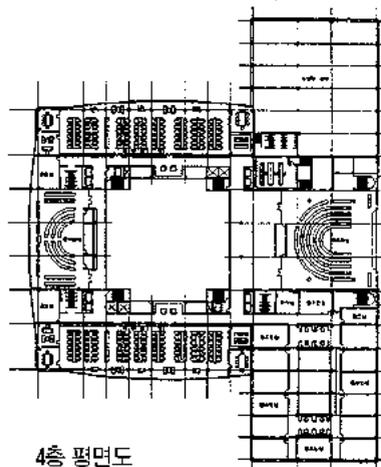
- 보행자 진입도로와 차량도로 분리 동선 교차 방지
- 보행자 축 형성 건물 정면성 확보
- 차량 일방통행으로 원활한 차량 제어
- 업무용 차량 동선과 체육후생시설 이용자 동선 명확한 구분
- 부지 고저차 적극 이용한 동선 계획
- 버스 이용자 동선과 일반 차량 이용자 동선의 명확한 구분
- 기능별 이용동선에 따른 진입로 구분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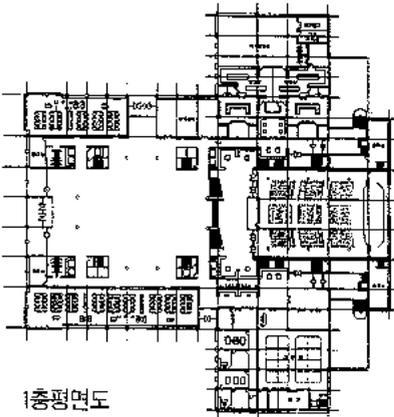
- 주업무 공간 남향으로 배치 에너지절약 및 일조권 확보
- 대규모 아트리움 채용으로 자연 채광 최대 이용 및 외부공간 내부 관입으로 쾌적한 업무공간 구성
- 업무, 후생, 체육 기능의 명확한 구분으로 관리 효율성 제고
- 1층에 대민 업무 시설 배치로 이용성 제고
- 대강당 지하층에 배치하여 주업무 동선과 혼재 방지
- 코어 분산 배치로 이용자 편리성 도모 및 비상시 적극대비
- 자연 지형 고저차 이용한 평면 구성으로 공간의 다양성 부여
- 첨단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을 위한 평면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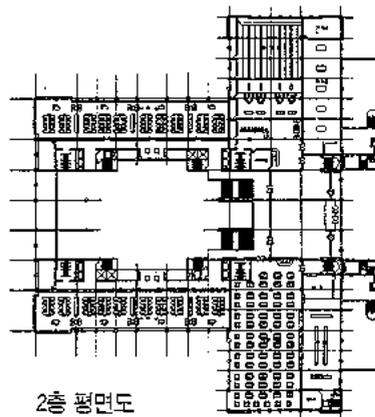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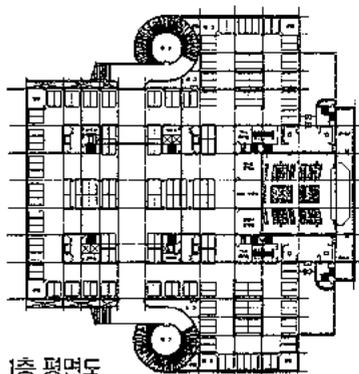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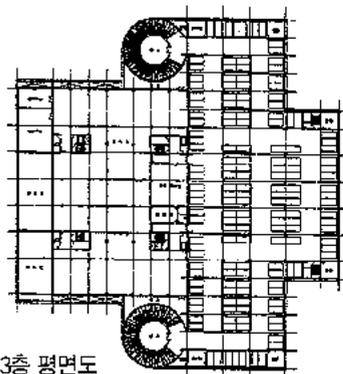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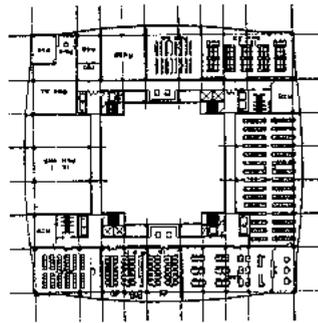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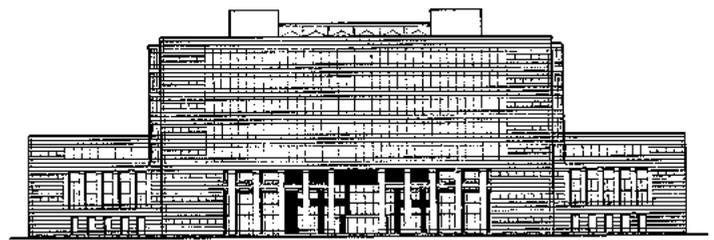
지하 3층 평면도

매스(Mass)계획

- 전면성과 남향배치에 의한 건물 형태 결정
- 당시의 안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정방형 건물 형태추구
- 대규모 아트리움 설치로 공간 통합 및 에너지 효율 제고
- 체육 후생 시설의 기능적 분리 및 업무시설과의 유기적 연결에 의한 형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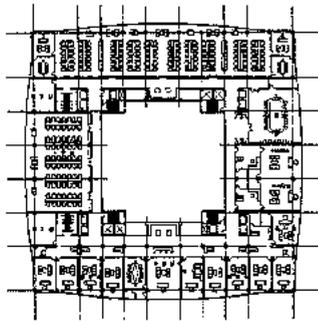
8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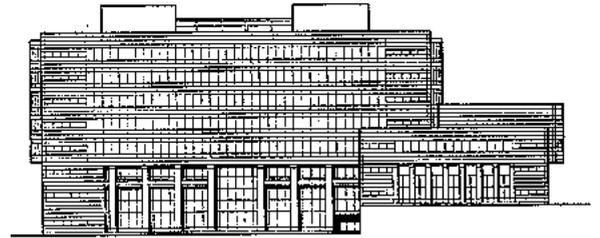
정면도

입면계획

- 수평적인 이미지 강조로 당시의 안정성 표현 및 주변 환경에 순응하는 입면처리
- 정면 입구 부분 3층 높이의 기둥 처리로 정면성 강조
- 4면 모두 완만한 곡면 처리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 도모
- 곡면창과 기둥의 강조로 현대미와 고전미 조화
- 건물 모서리 등글게 처리 부드러운 이미지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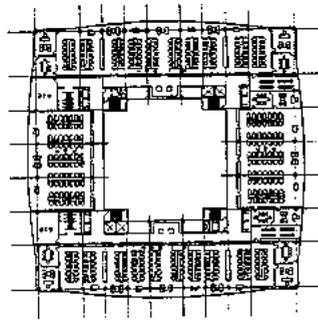
7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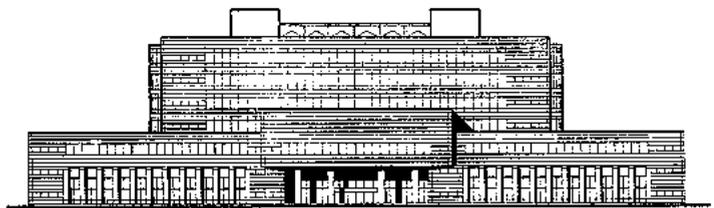
우측면도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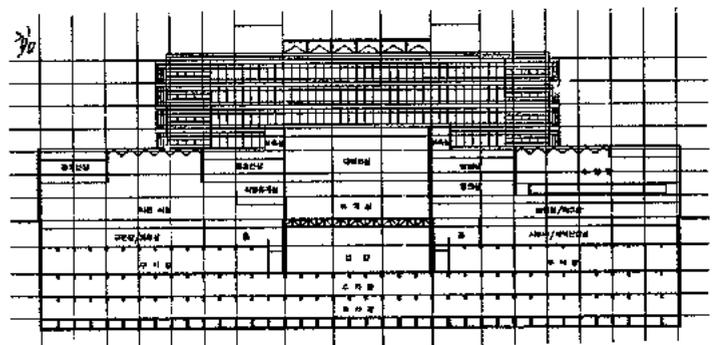
- 자연지형에 의한 고저차 적극이 용 주출입구에서 아트리움을 통해 후면까지 직접적인 연결
- 실내에서도 외부공간을 느낄수 있는 아트리움 채택
-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여름에 아트리움 상부에 선 스크린(Sun Screen) 채용으로 간접채광 및 태양열 차단
- 겨울에는 선 스크린 제거로 태양열 적극 이용
- 지하에 위치한 대강당 일조 유입을 위한 후면 썬큰(Sunken) 처리
- 사우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알맞는 층고처리
-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채용을 위한 층고(4.2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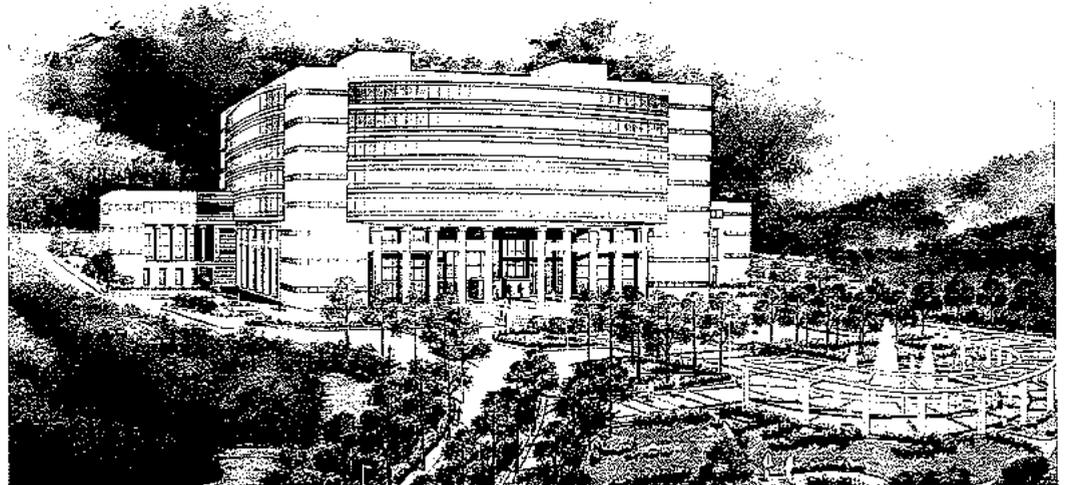
기준층(5-6층) 평면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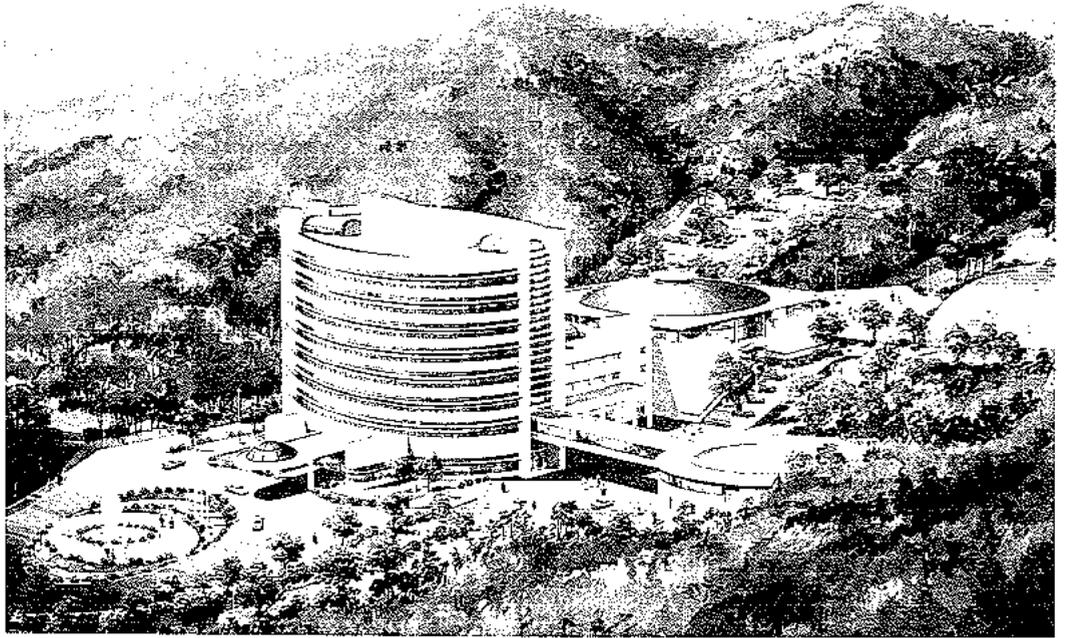
횡단면도



우수작

선진엔지니어링 건축 (이상수)案

■ 대지위치 / 분당 신도시 4단계 구역
 D-15-43-1, 2, 3
 대지면적 / 45,828m²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업무지구, 고도제한지구(8층)
 건축면적 / 7,167.6m²
 연면적 / 55,413.3m²
 건폐율 / 15.6%
 용적률 / 63.2%
 규모 / 본관동 - 지하 3층, 지상 8층
 대강당 -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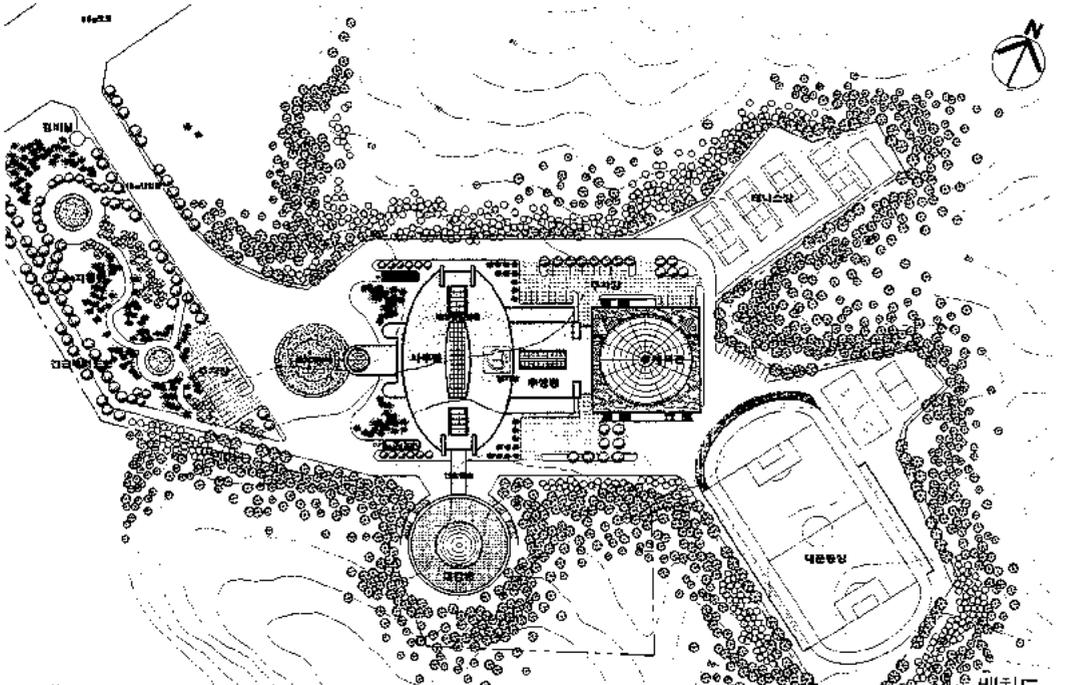
동선계획

차량 동선

- 차량동선과 보행동선 분리
- 주차수요에 대비한 충분한 주차 공간
- 야외체육시설 및 통근차량을 위한 주차장 설치

보행 동선

- 보행동선의 위계성도입 / 연결 관계 고려
- 각 시설의 기능에 따른 동선체계 확립
- 주요시설의 주축선 배열로 동선체계 단순화
- 우천시를 대비한 연결동선체계



배치계획

본관동(사무시설)

- 진입도로 축에서 정면성 배치 고려

본관동(후생시설)

- 사부와 체육의 연계적인 역할로 배치
- 동선축에 의한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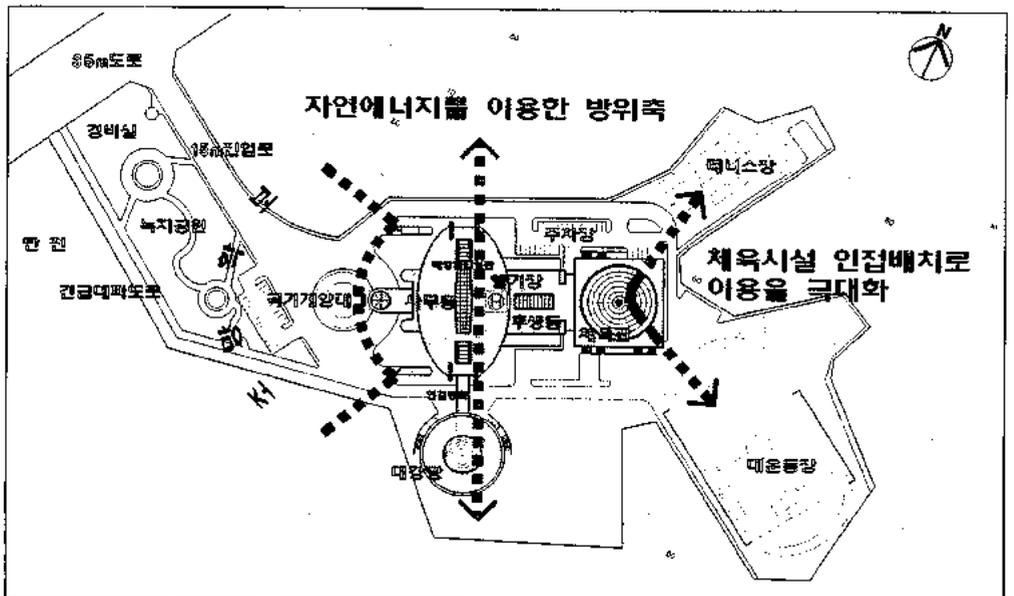
본관동(체육시설)

- 종합체육시설을 하나의 Zone으로 구성

대강당(사무시설)

- 본관동과 분리
- 강당의 기능 및 성격을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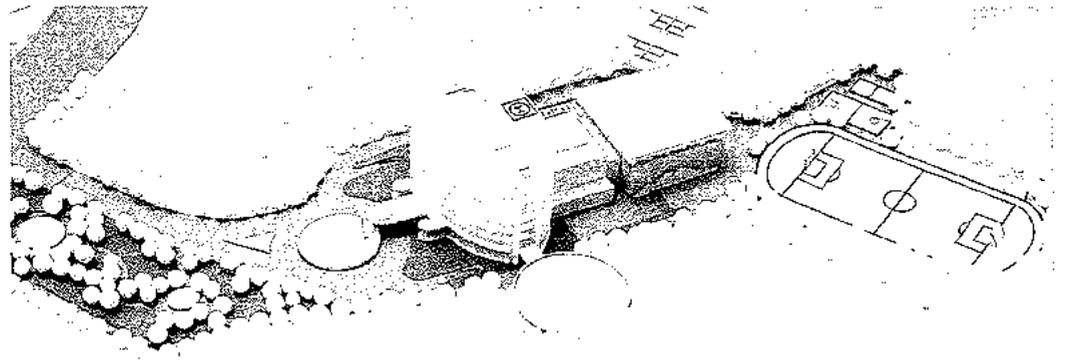
배치개념도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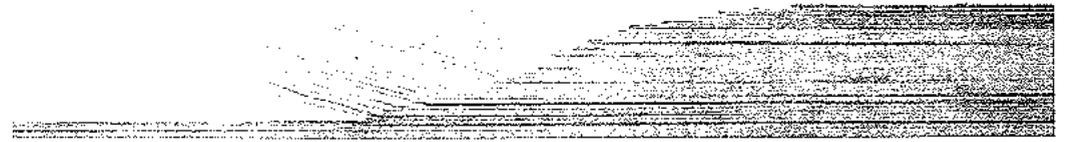
기능에 따른 평면 분리

- 공간의 기능성과 쾌적성을 위한 평면 계획
- 각 시설의 독립성과 통합성 유지
- 아트리움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력적 공간 형성
- 기능에 따른 연결 통로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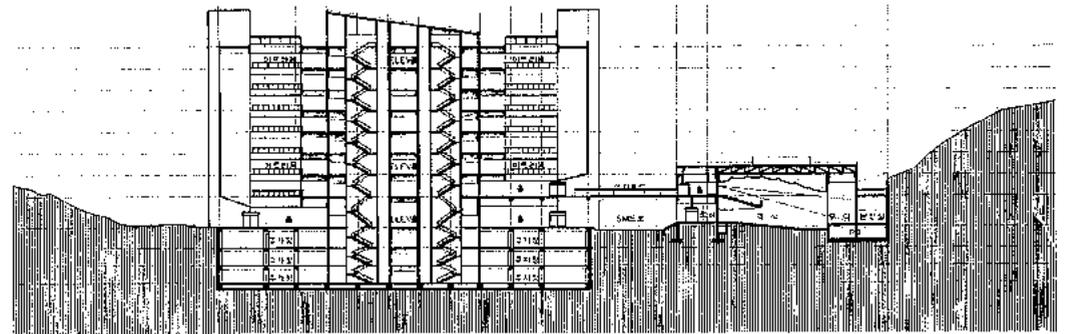
입면계획

- 수평·수직 분절을 통한 다양한 공간감 연출
- 진입 부분에 따라 드라마틱한 입면연출
- 곡선을 적극적으로 도입 자연과의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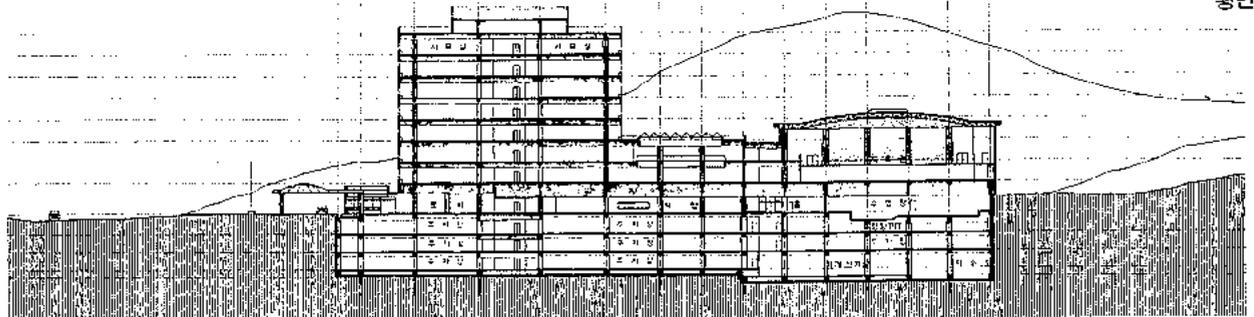


단면계획

- 정면성 / 상징성 부각
- 조망 욕구에 적합한 건축 Zone 설정
- Zoning에 의한 자연속의 분사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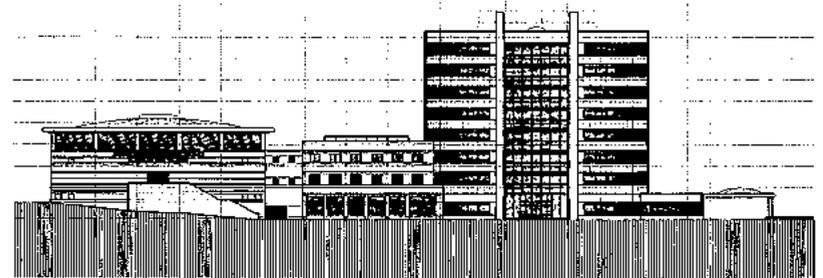
횡단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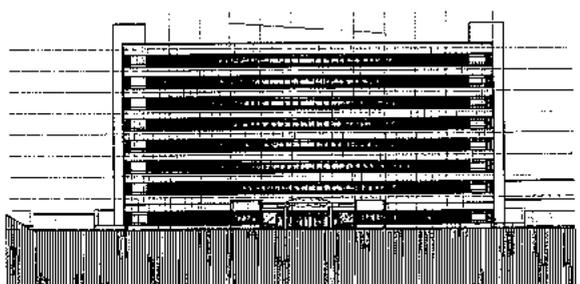
동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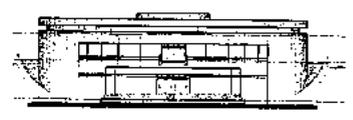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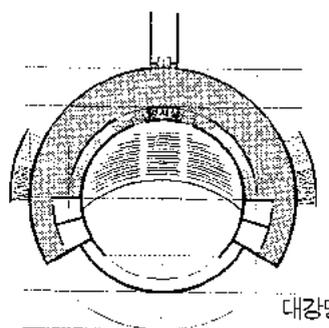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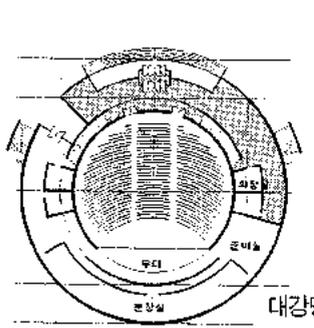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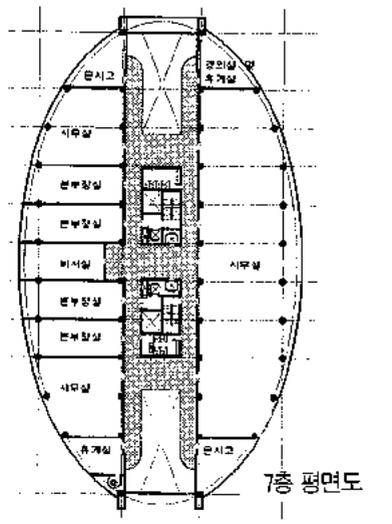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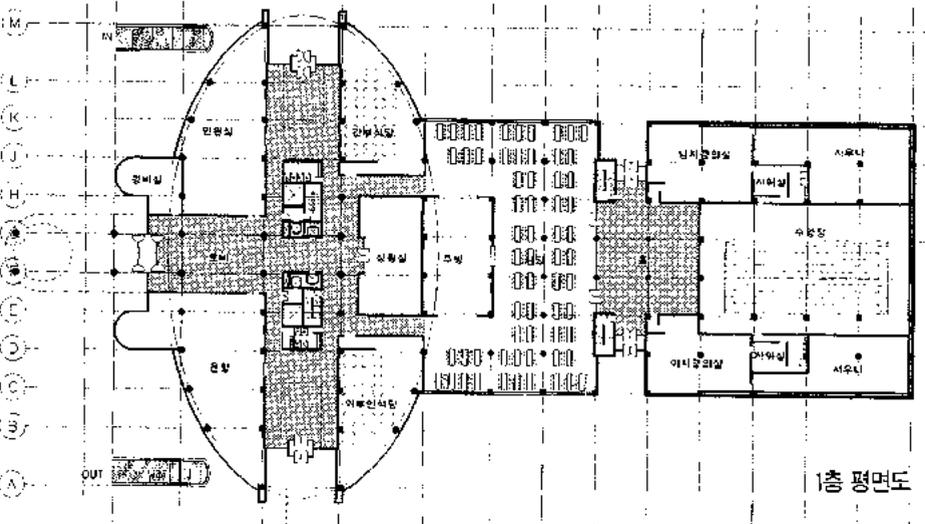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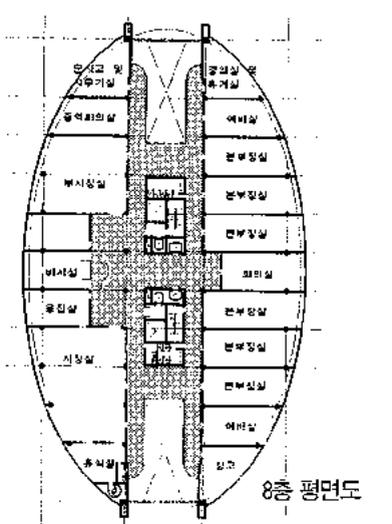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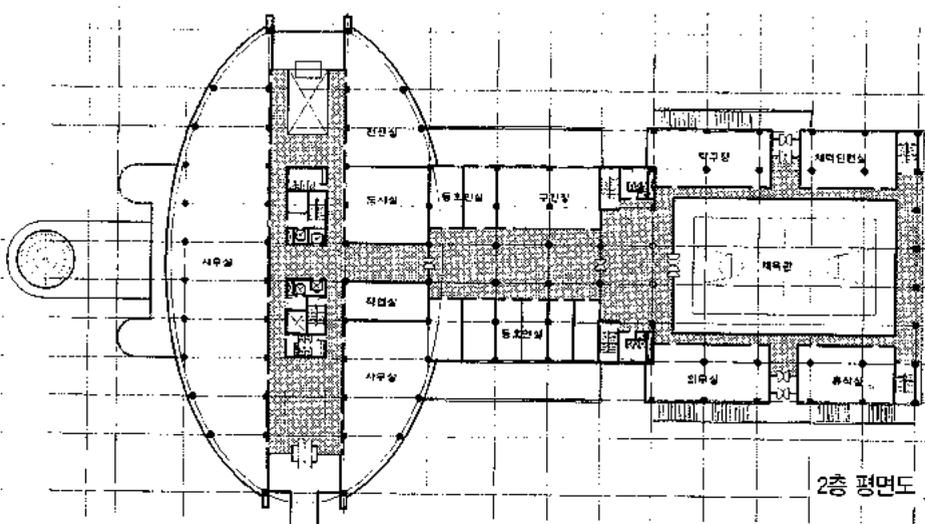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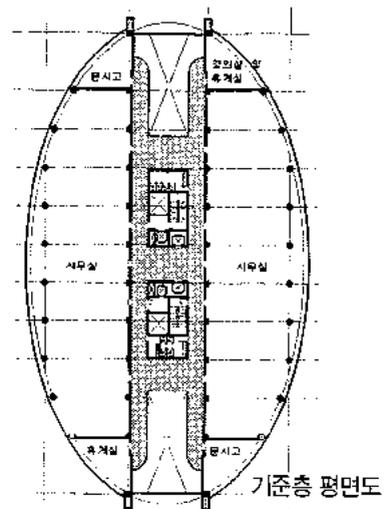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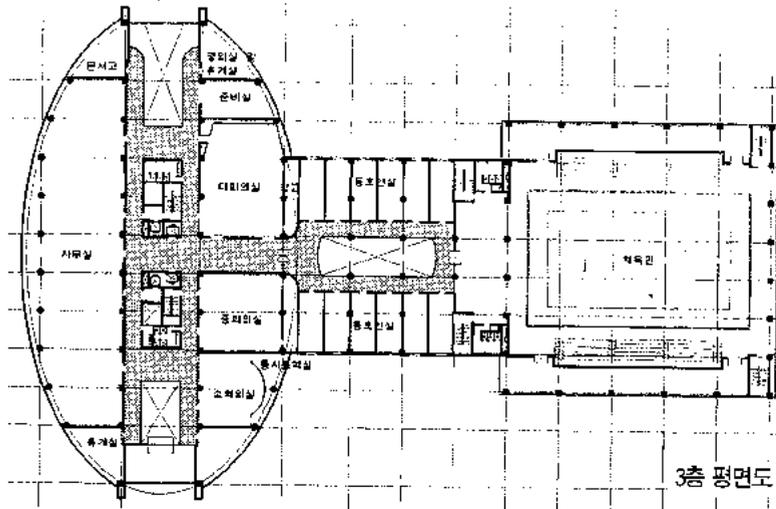
서측 입면도



남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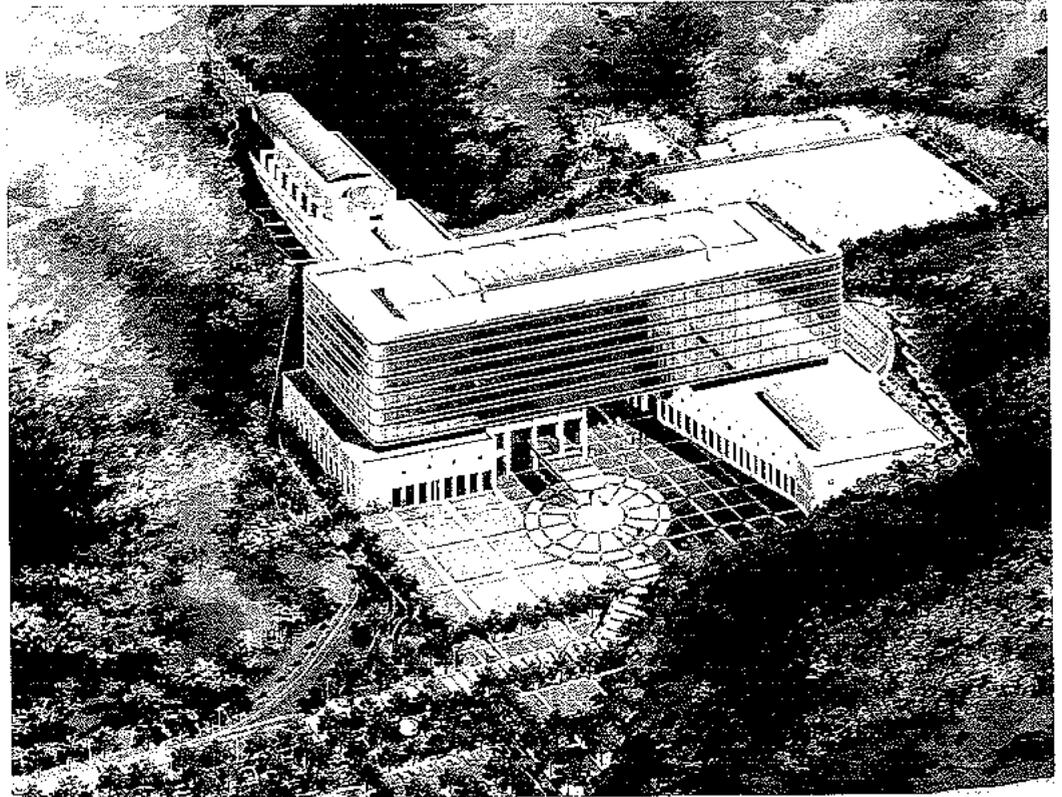


북측 입면도



우수작

건원건축(곽홍길)案



■ 대지위치 / 분당 신도시 4단계 구역
 D-15-43-1, 2, 3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업무지구, 고도제한지구)
 대지면적 / 45,828.3m²
 건축면적 / 10,928.9m²
 연면적 / 61,167.2m²
 규모 / 지하 2층, 지상 8층
 건폐율 / 23.8%
 용적률 / 89.4%
 용도별면적 / 업무시설 - 50,988.0m²
 후생시설 - 4,694.2m²
 체육시설 - 5,485.0m²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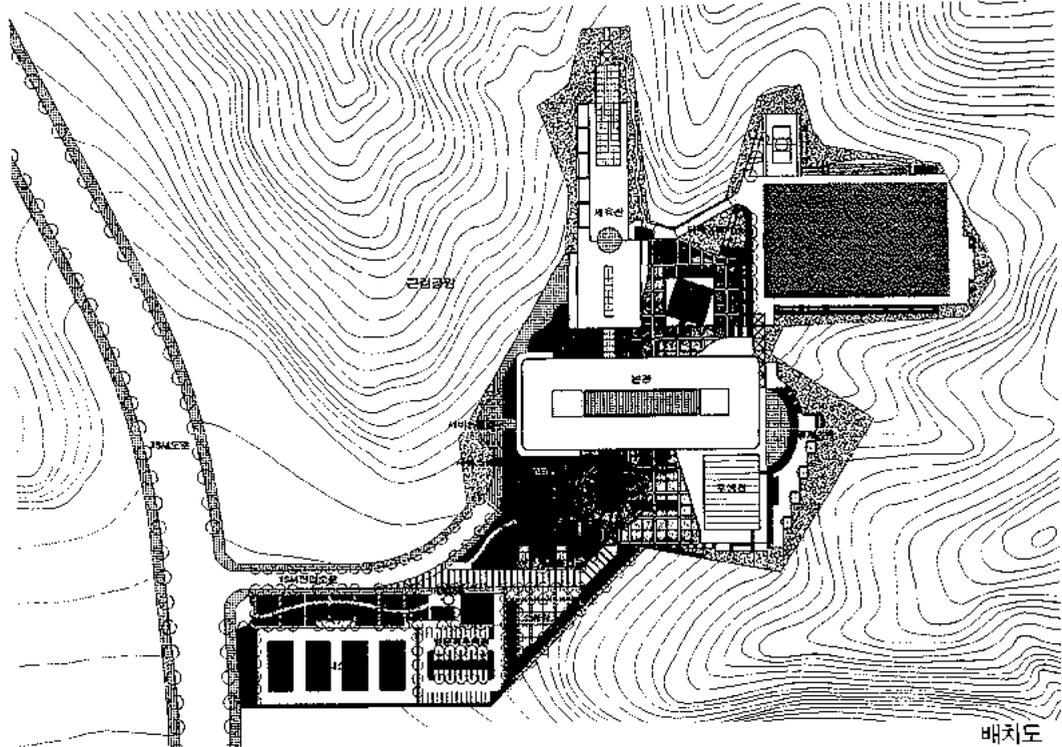
- 축성에 따른 배치형태
- 누하진입에 의한 공간의 긴장감 고조
- 몸과 칸 개념의 공간구성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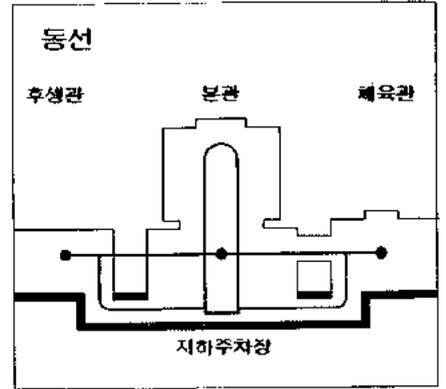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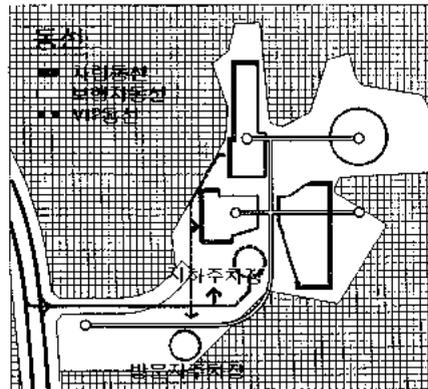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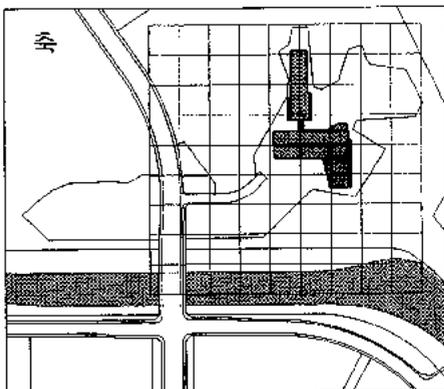
- 상층부와 저층부의 분리로 기능의 상층 부분해소
- 저층부 : 체육시설, 후생복지, 강당(12M × 12M)
- 상층부 : 업무시설(12M × 12.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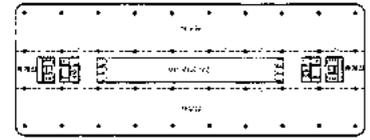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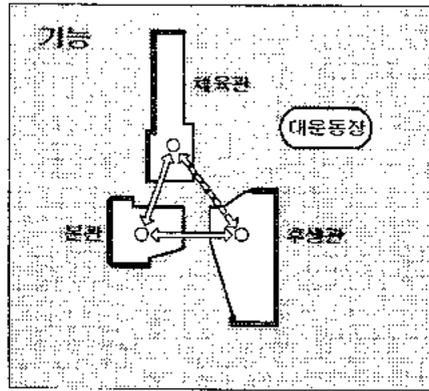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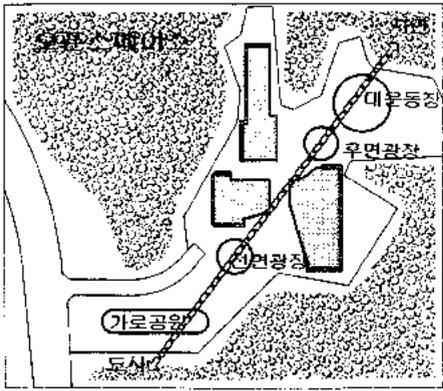
입·단면계획

- 상층부 : 커튼월을 적용, 칼라복층유리(업무시설)
- 저층부 : 화강석, 기단형성(후생시설, 체육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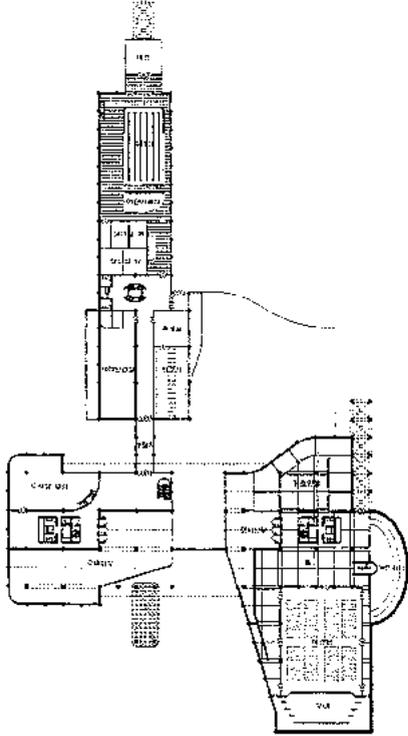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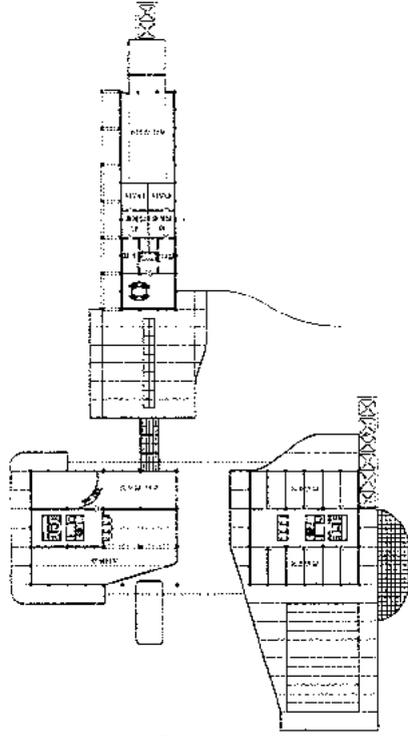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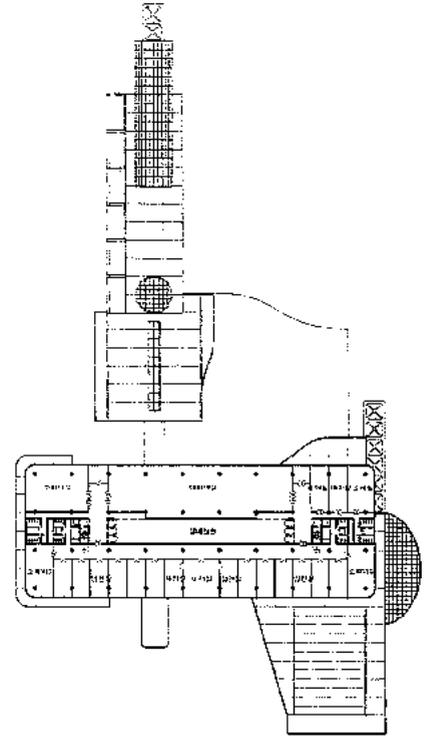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5-8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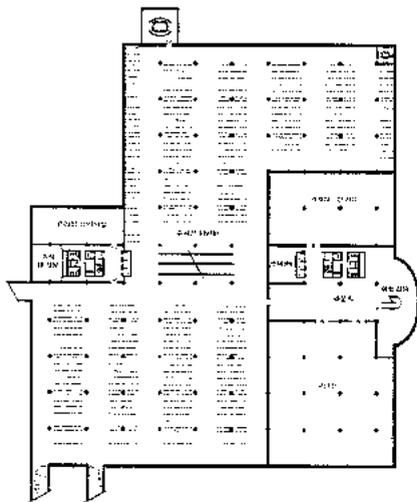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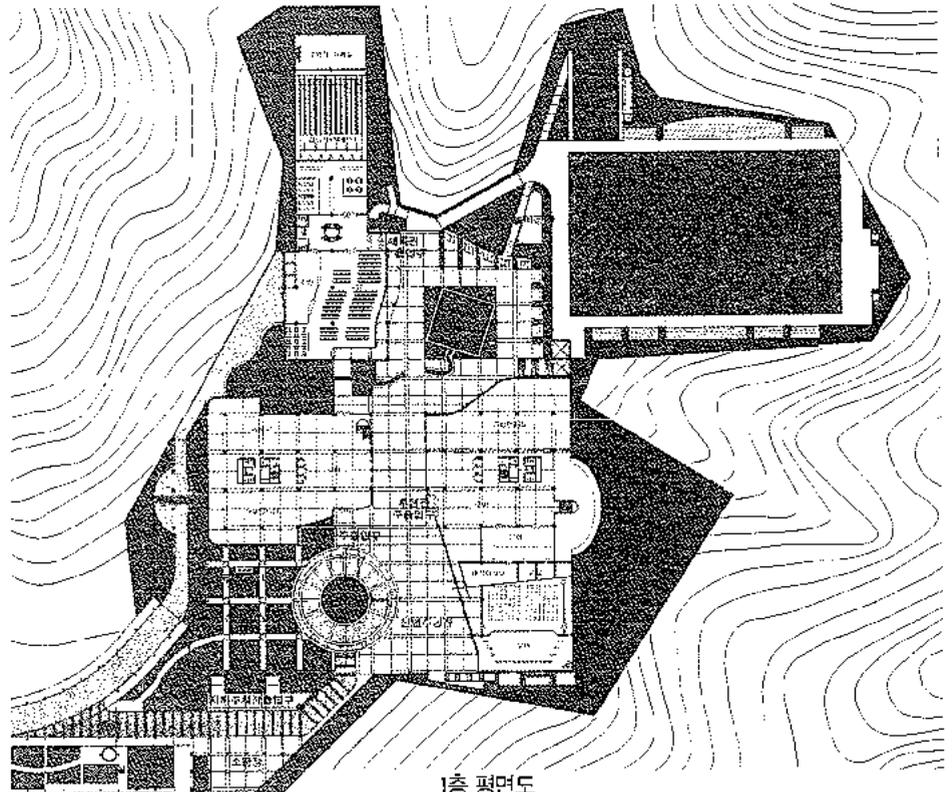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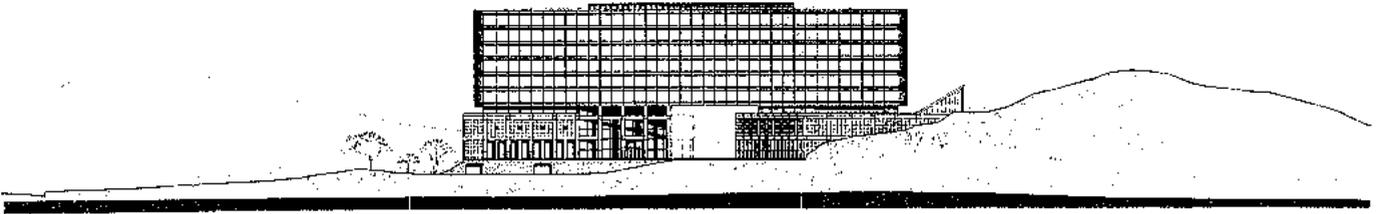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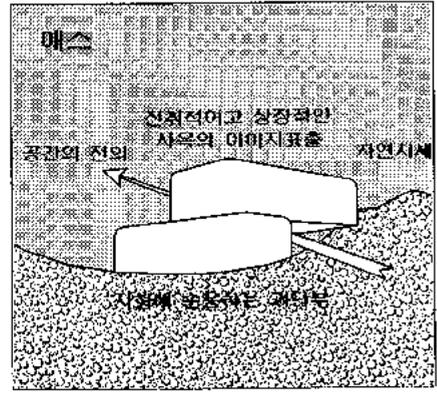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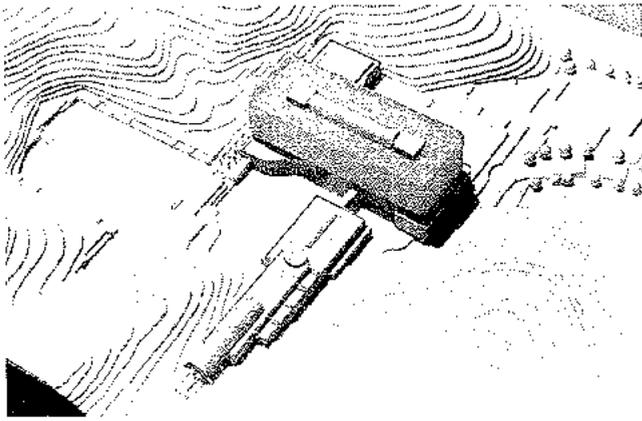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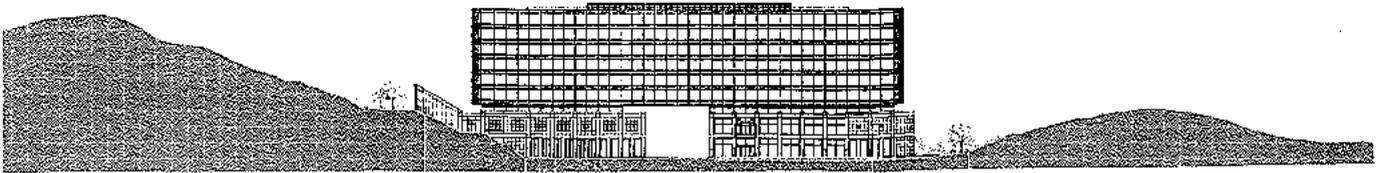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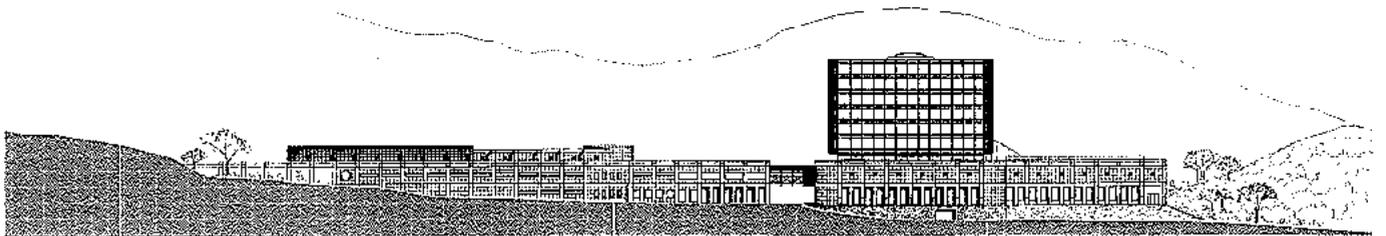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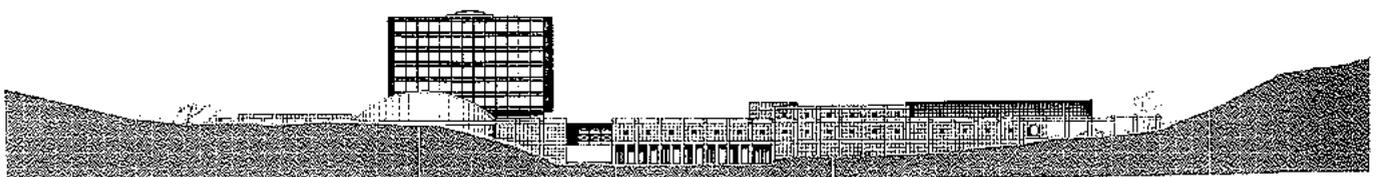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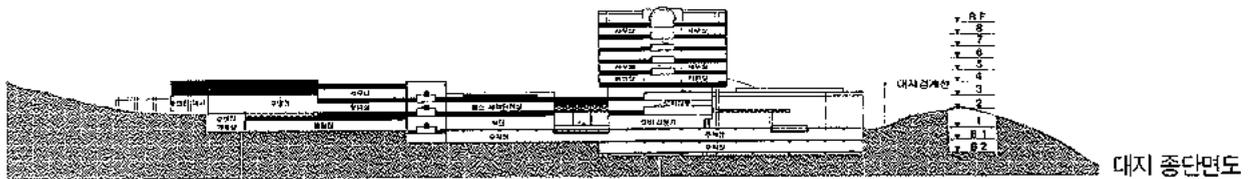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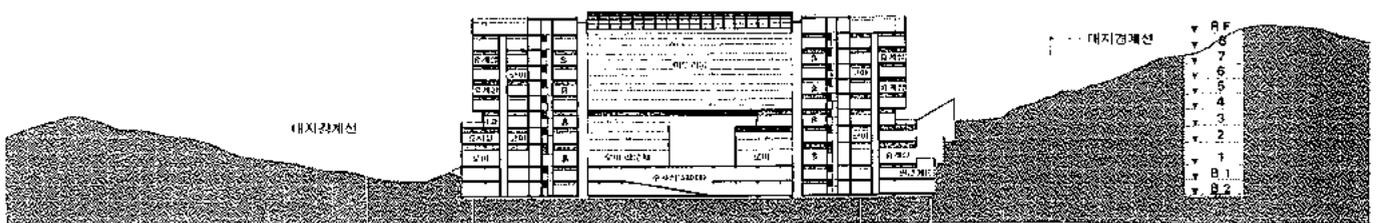
좌측면도



우측면도



대지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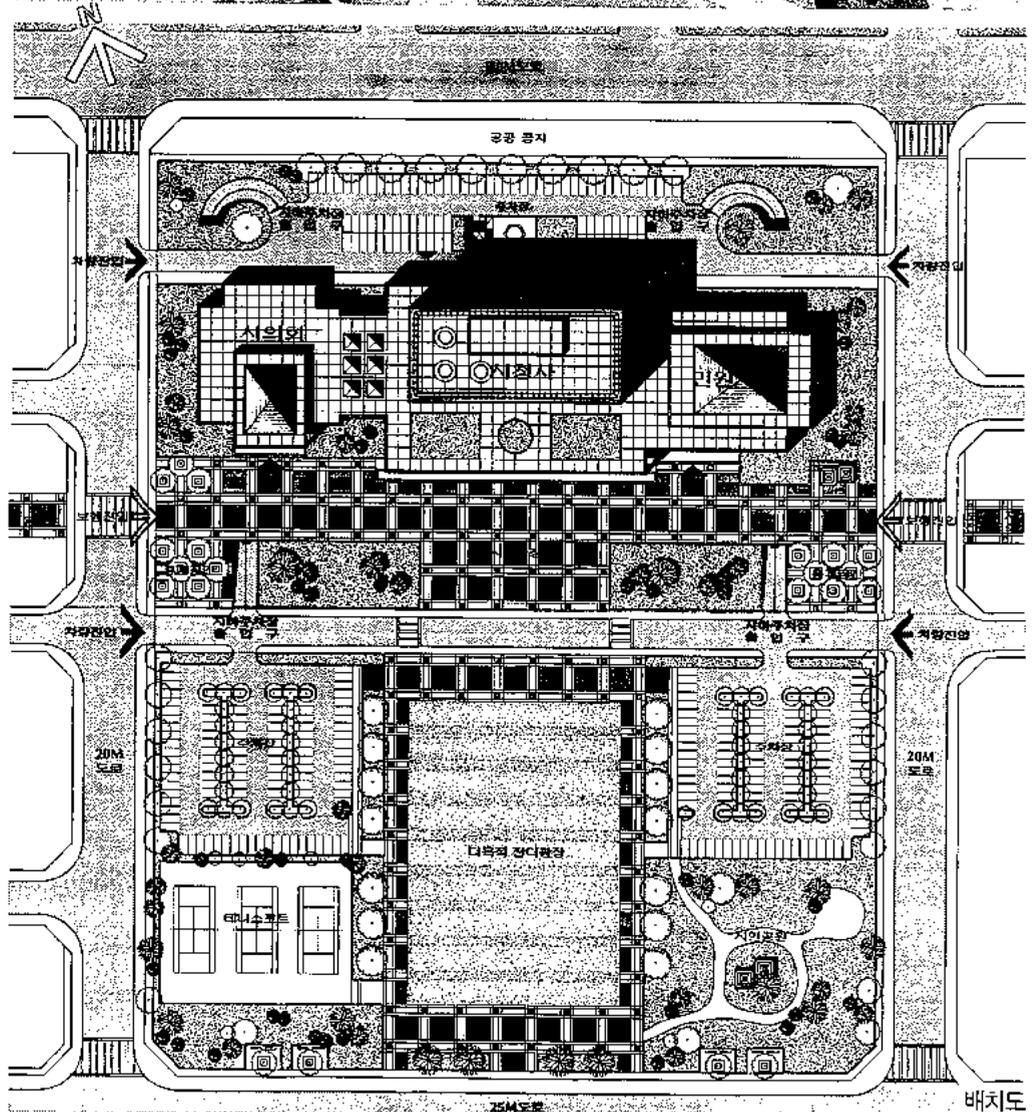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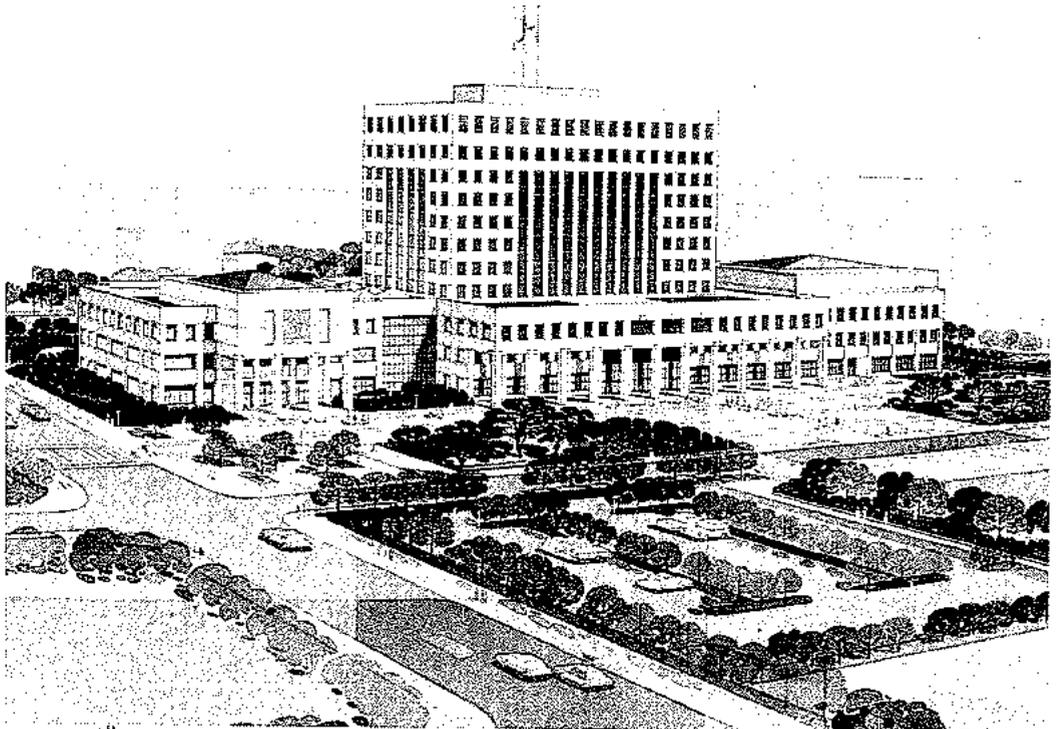


대지 횡단면도

당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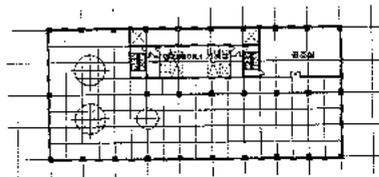
부림건축(김 호)案

■
 대지위치 / 경기도 부천시
 중동택지개발지구내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대지면적 / 50,450m²
 건축면적 / 6,062.08m²
 연면적 / 49,873.12m²
 건폐율 / 12%
 용적률 / 53%
 규모 / 시청사 - 지하 2층, 지상 10층
 의회청사 - 지하 2층,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일부철골조
 마감 / 기둥 및 벽 - 국산화강석
 (혹두기, 버너구이 및 불갈기)
 창호 - 알미늄사시, 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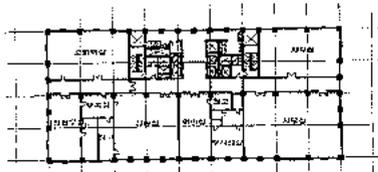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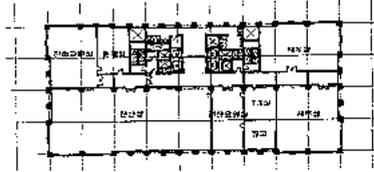
- 부자내로의 도시계획적 보행동선(Pedestrian)의 연결을 고려한 배치로서 청사전면에 주차및 휴게·운동공간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진입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 자칫 경직되기 쉬운 관청사 건물의 고정개념을 해소하기 위한 개방성을 강조하였으며, Dynamic한 진입축을 형성하였다.
- 지방문화의 공동체적 장을 제시한 행정업무와 일반시민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소로서의 토지이용을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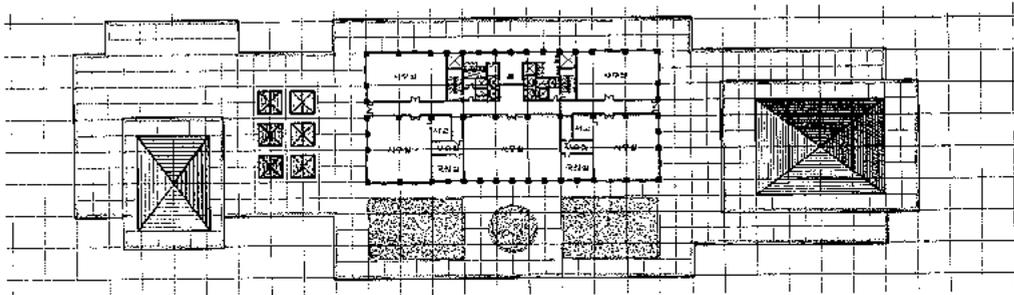
옥탑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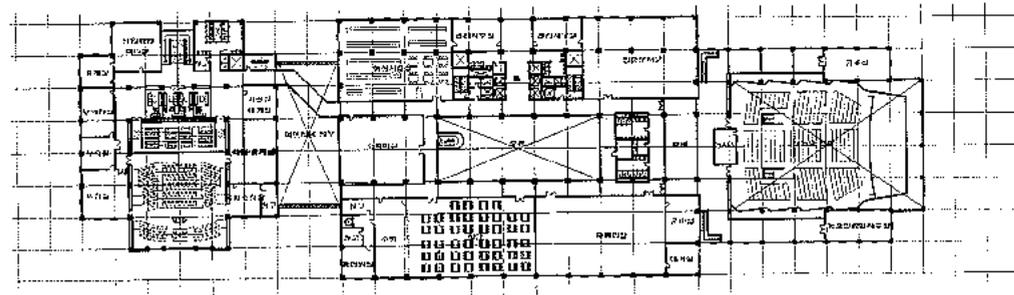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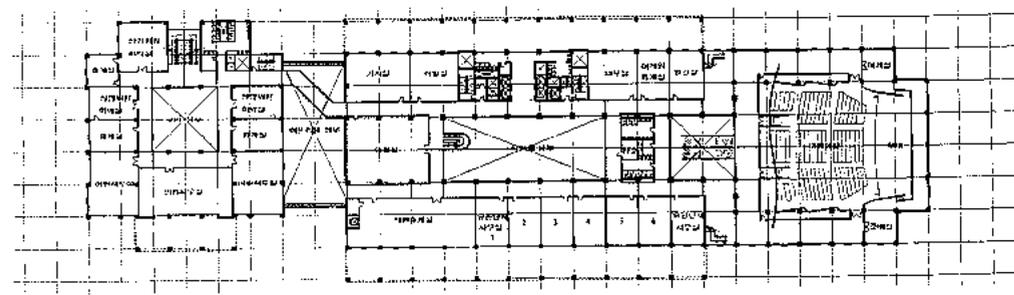
10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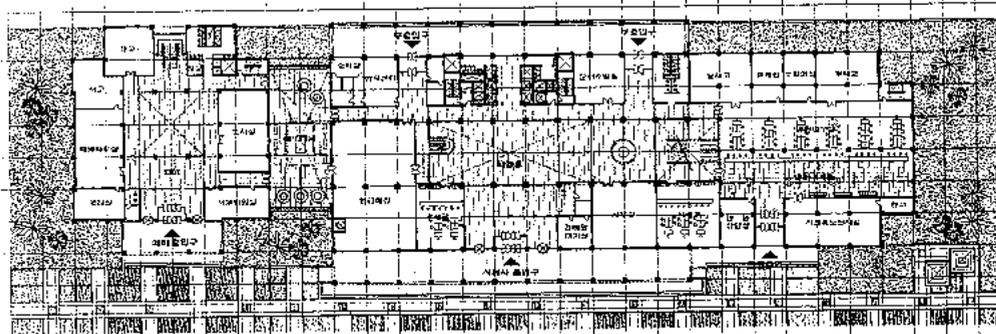
4층(기준층)평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평면계획

- 단일 건물내에서 기능에 따라 행정 공간, 시의회 공간, 민원공간으로 대별하여 상호보완적인 연계성을 증대시키며, 업무의 효율화를 극대화한다.
- 각 기능별로 독립된 출입동선을 분리하여 동선의 혼잡함을 피하고, 각 공간간에 완충영역을 두어 자연요소를 도입, 단조로움을 해소하였다.
- 주출입 중앙홀에 3층까지 연속되는 좌정공간을 형성하여 공간인식의 폐쇄감을 감소시켜 시민홍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 합리적인 3.2M × 3.2M 기본모듈을 도입하여 공간이용의 효율화를 증대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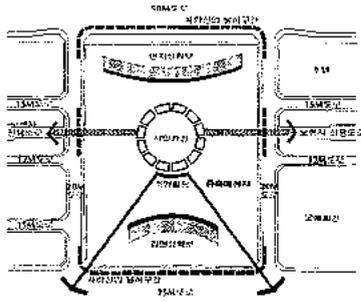
입면계획

- 저층부 -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적극적인 부분으로서 친근성을 표현, 수평성을 강조하였다.
- 고층부 - 시민적 가치(Commune Value)를 표현하는 도시 Land Mark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한다.
- 통일성 - 입면의 간결성과 성돈된 느낌을 강조하는 반복패턴을 적용하였다.
- Sky Line - 대지 전면도로에 대한 고층부의 볼륨과 주변의 5층 이상의 건축물과 연계된 역동적인 스카이라인(Sky Line)을 형성한다.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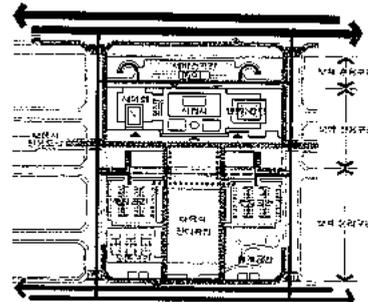
- 업무의 효율화를 극대화 하기 위한 기능의 층별분리를 하여 저층부에는 시민에 개방된 공용업무공간으로, 고층부는 행정사무공간으로 계획하였다.
- 에너지 절감 및 O.A화에 따른 적정 층고를 설정하였으며, 각 기능별로 층고에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인텔리전트 빌딩(I. B. S)화에 따른 대비를 고려하였다.

■ 계획의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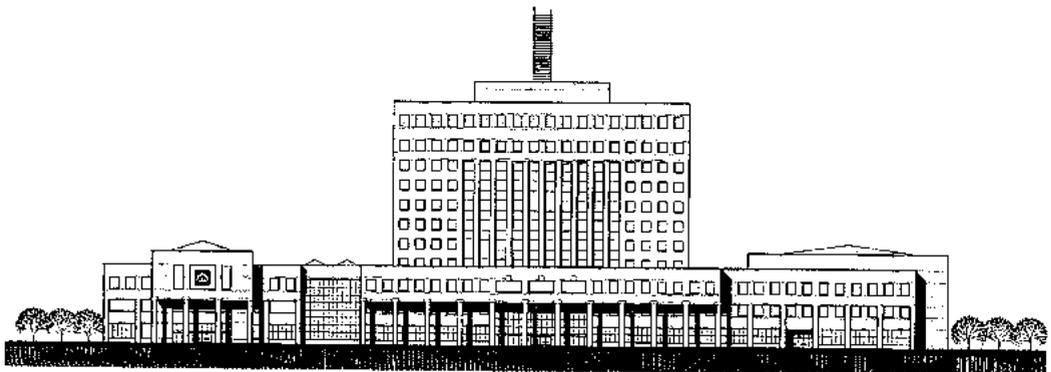


- 주변 여건의 파악의 필요
- 대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 시민들이 용이한 접근을 할 수
- 차량의 유입 및 유출에 수월하게
- 주차장이 편리하게 배치될 수
- 정액 건축과 고가의 건축 계획
- 용사 지역의 조성에 심도있게
- 설계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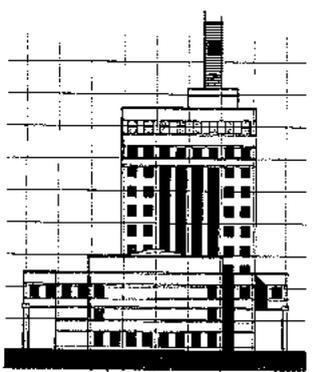
■ 동선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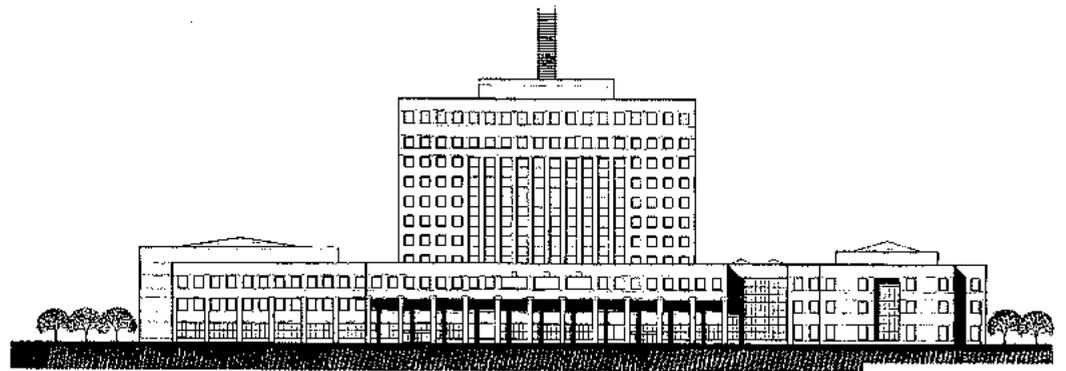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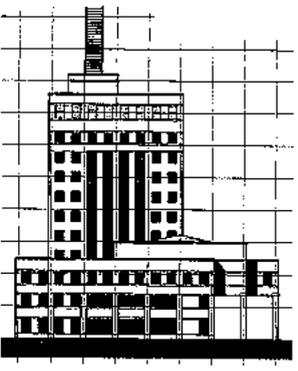
- 차량용선
- 일반차량용선
 - VIP차량용선
- 보행자 동선
- 내부보행자 동선
 - 외부보행자 동선
 - 승객차 이용차량 동선
- 간담 유입구 ▲
내도 진입로 ▲
대시 진입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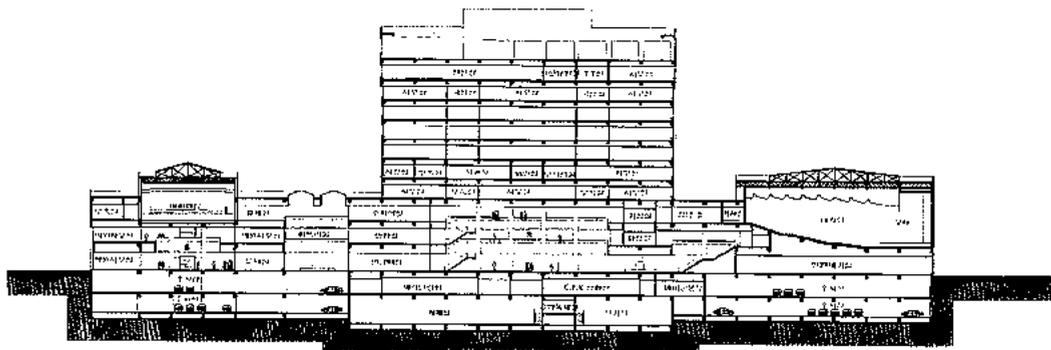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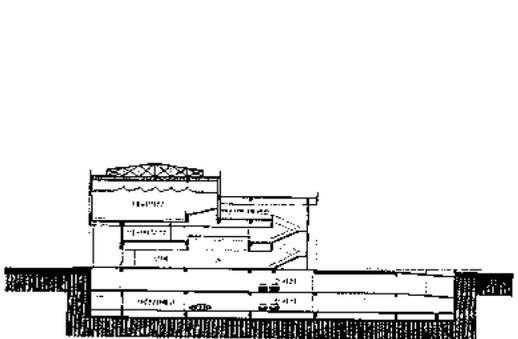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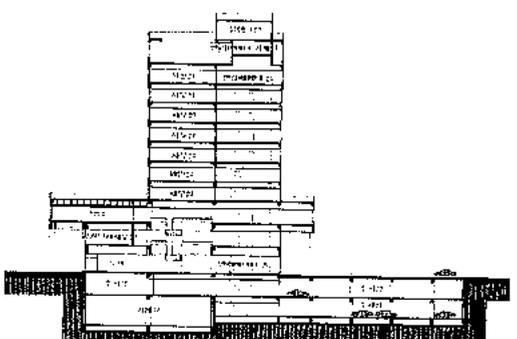
배면도



횡단면도



시의회 중단면도



시청사 중단면도

우수작 일신건축(이용흥)案

■ 대지위치 / 부천시 중구 맥자개발지구내
 대지면적 / 30,450m²
 건축면적 / 10,338.3m²
 연면적 / 51,134.2m²
 건폐율 / 20.5%
 용적률 / 64.2%
 규모 / 시본청 - 지상 2층, 지상 9층
 시의회 - 지상 3층
 대회의장 -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및 일부철골조
 외부미감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화강석물감기 및 잔다듬,
 알미늄창호, 단열복층유리,
 열반사복층유리천장

배치계획

• 건물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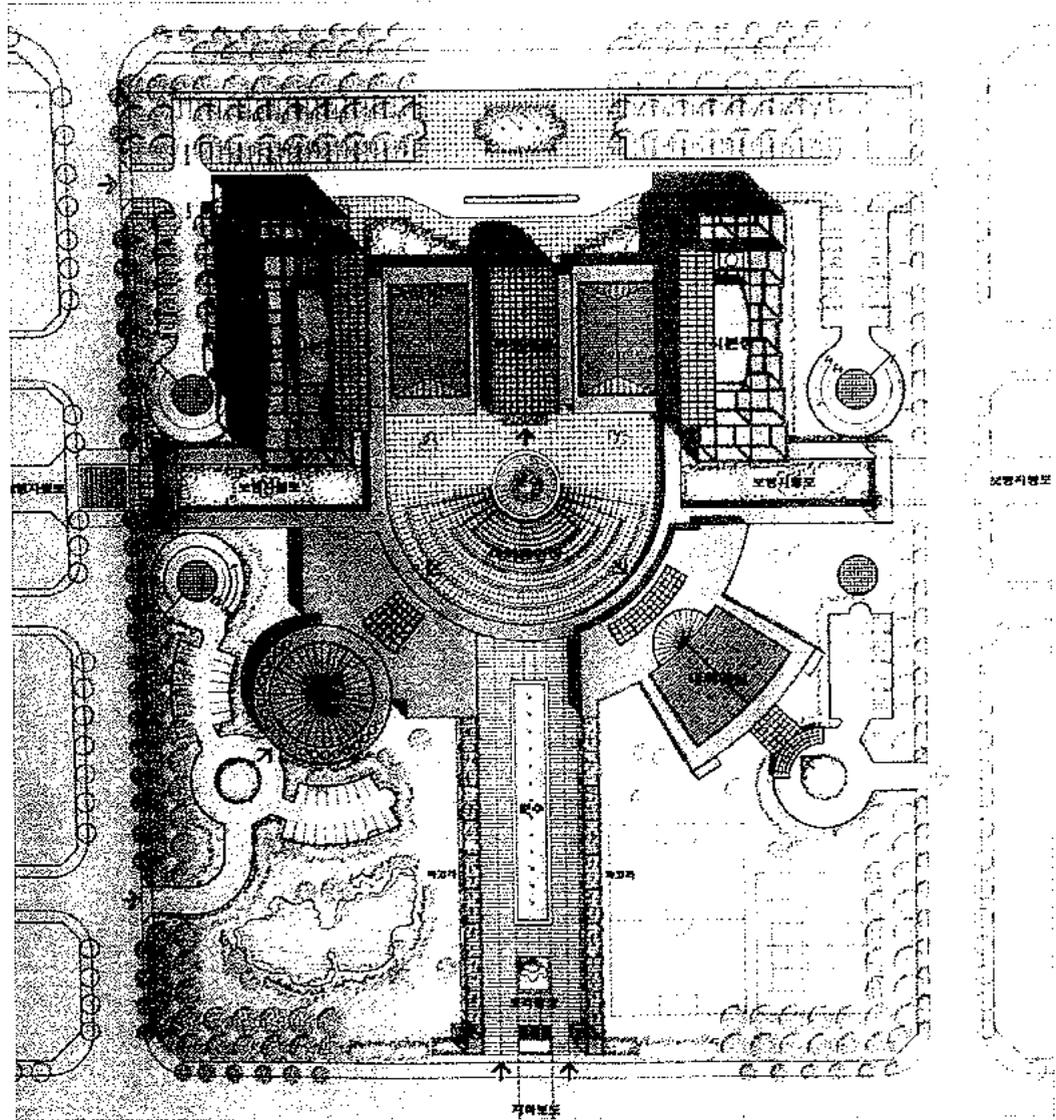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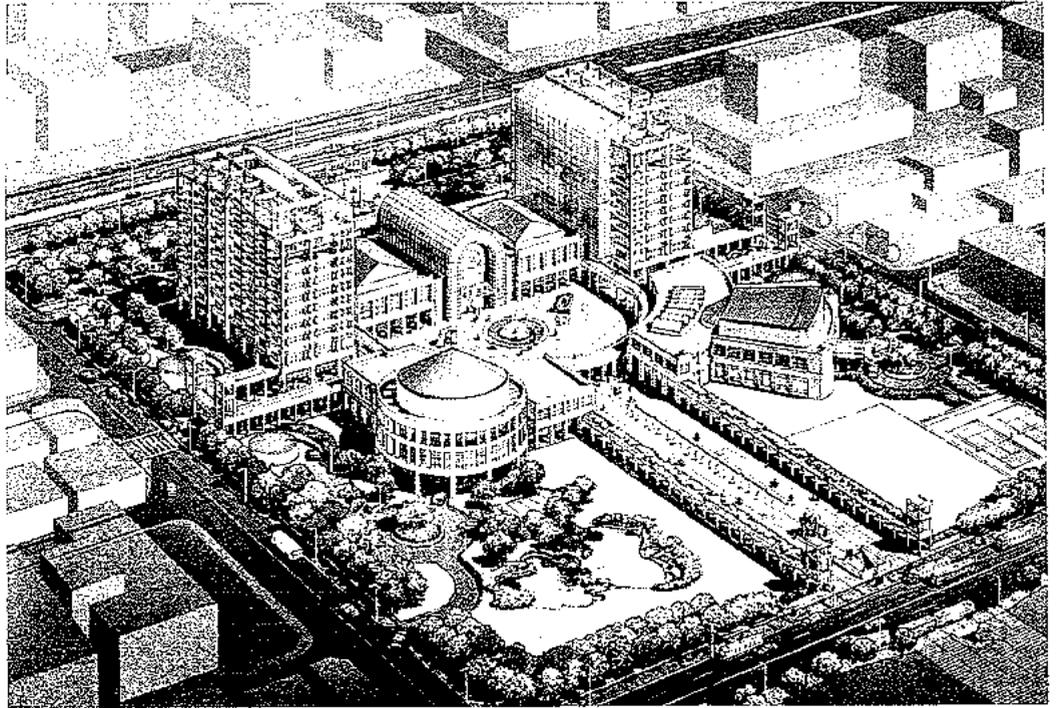
- 대지의 남측으로 주 정면성, 북측으로 부 정면성을 부여하며, 각 진입 광장을 설치하여 대지내에서 시 본청의 상징성 추구.
- 시 의회의 별도 배치로 독립성 및 영역성 부여.
- 대 회의실의 본청과의 분리로 대규모 집중 동선으로 인한 업무 부분의 피해방지 및 시민 대상 집회, 행사시 별도 동선 확보.
- 시 본청 및 시 의회동, 대회의실의 아케이드 및 2층 복도 연결로 기능의 연계성 부여.

• 진입동선

- 시 본청, 본 의회동, 대회의실로의 차량 및 보행자 동선의 별도 구성으로 대지내 동선 혼잡의 방지 및 이용자 편의성 부여.
- 철저한 보, 차분리 계획으로 대지 외부공간의 위계 부여.
- 도시축을 고려한 보행자 몰의 연계성 부여로 주변 맥락과의 조화 도모.

평면계획

- 시본청 및 시의회의 별도배치로 고유기능의 분리를 통한 상호 견제와 조화 도모.
- 향후 사무자동화(O. A System)에 대비한 효율적 사무공간 레이아웃(Lay - Out) 고려와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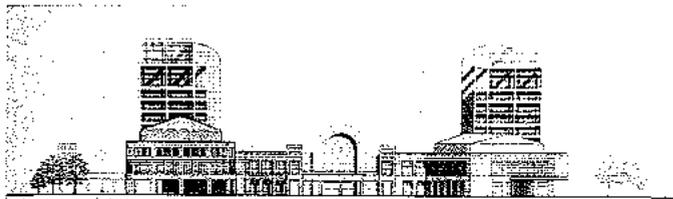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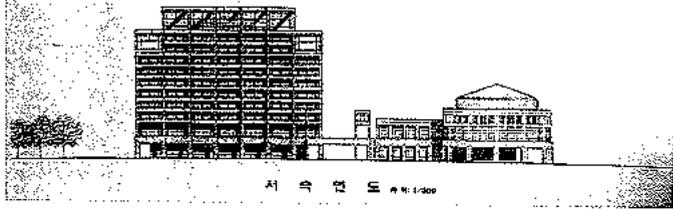
- 래 시설설비를 충분히 고려한 기능적 평면계획.
- 정보처리 기능 및 시민 이용편

- 의에 입각한 계획 수립.
- 대회의실, 시민홀 등 시민 문화 시설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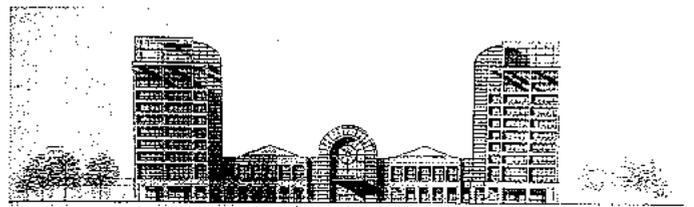
- 장래 증, 개축시 원활한 계획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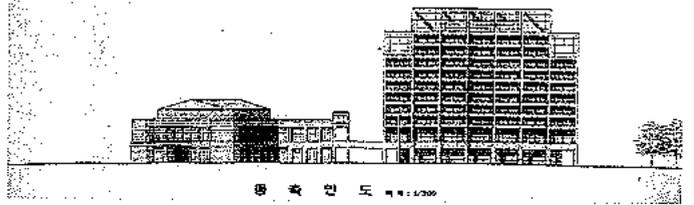
전면 외관도 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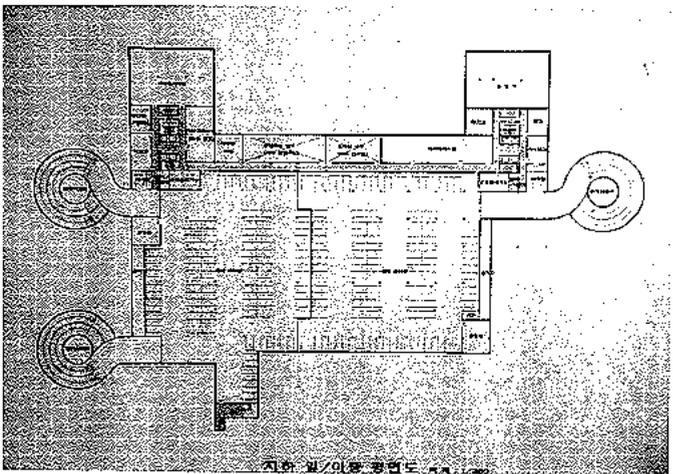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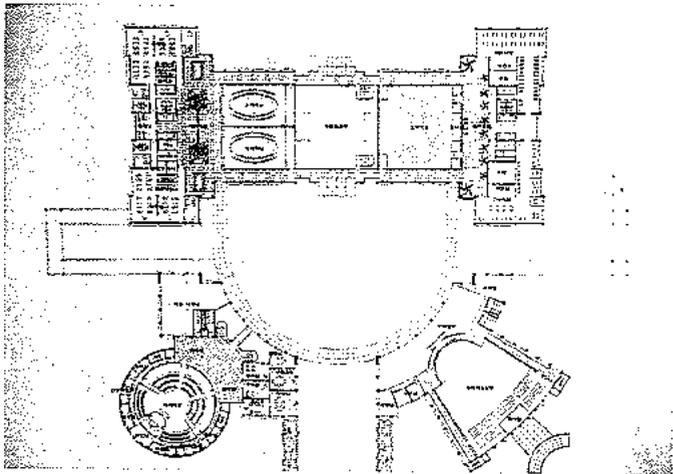
측면 외관도 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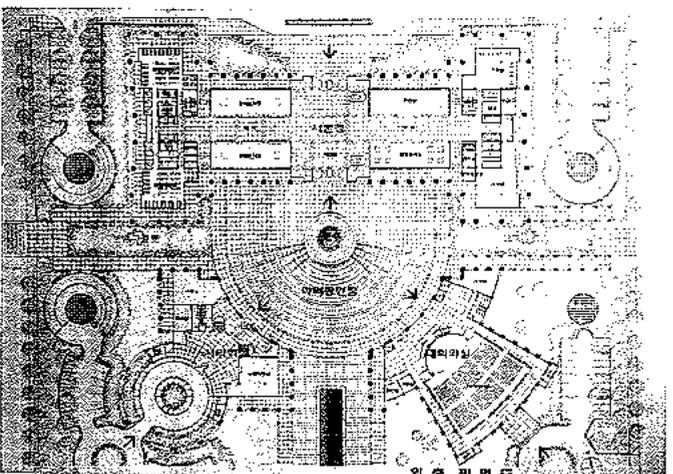
후면 외관도 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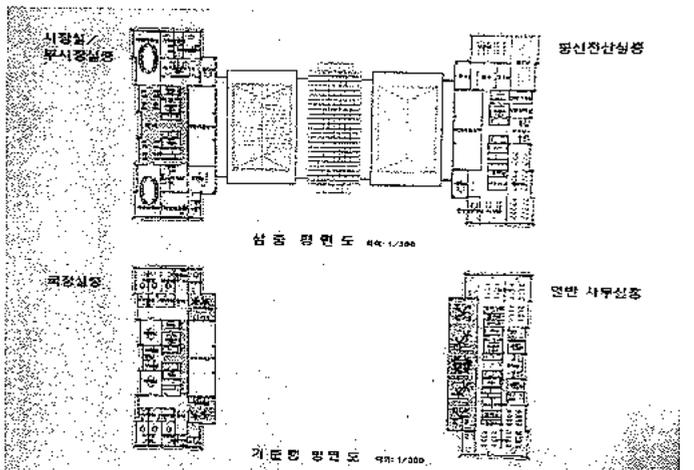
동면 외관도 1/300



지하 및/이층 평면도 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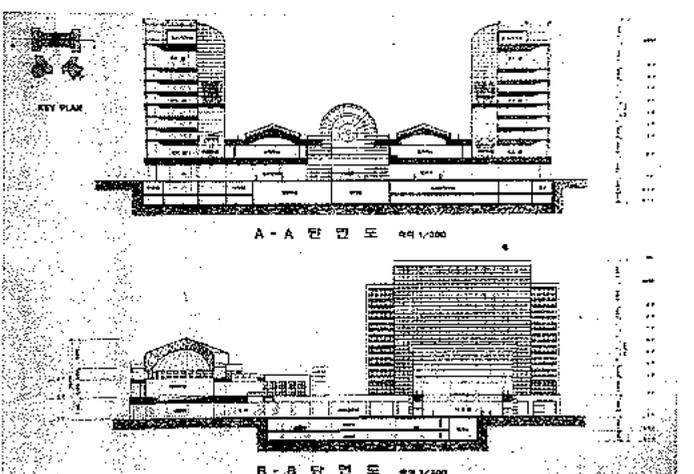


일층 평면도 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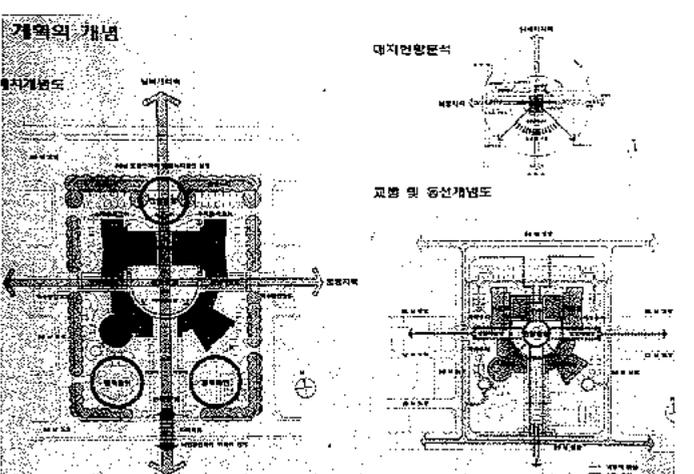
사무실층 444 1/300

사무실층 444 1/300



A-A 단면도 444 1/300

B-B 단면도 444 1/300



1992년 6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6월분 1천2백19만6천7백33m²보다 36.58%(4백46만1천7백m²) 감소한 7백73만5천33m²의 실적을 보였다.
- 나. 전년동기비 전년 6월누계 7천3백36만7천6백82m²보다 22.56%(1천6백55만1천2백91m²) 감소한 5천6백81만6천3백91m²의 실적을 보였다.
- 다. 전월비 전월 5월분 1천1백81만5천9백99m²보다 34.54%(4백8만9백66m²) 감소한 7백73만5천33m²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增減狀態)

(연면적 기준-전년동월비) (단위 / m²)

구분	1991년도	1992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부산	598,611	709,235	110,624	18.48%
	인천	306,693	838,002	531,309	173.24%
	광주	110,978	196,878	85,900	77.40%
	강원	169,873	248,263	78,390	46.15%
	충남	293,994	395,732	101,738	34.61%
감소지역	경북	469,166	578,018	108,852	23.20%
	서울	2,115,106	1,276,201	(838,905)	-39.66%
	대구	391,154	361,397	(29,757)	-7.61%
	대전	635,840	177,292	(458,548)	-72.12%
	경기	3,794,428	1,425,868	(2,368,560)	-62.42%
	충북	573,374	418,086	(155,288)	-27.08%
	전북	349,005	178,434	(170,571)	-48.87%
	전남	339,485	244,531	(94,954)	-27.97%
	경남	1,961,140	625,219	(1,335,921)	-68.12%
	제주	87,886	61,877	(26,009)	-29.59%
합계	12,196,733	7,735,033	(4,461,700)	-36.58%	

全國圖書申告 概況(用途別 增減狀態)

(연면적기준) (단위 / m²)

종별	5월분	6월분	증·감	비율(%)
단독주택	1,108,436	565,808	(542,628)	-48.95%
다세대주택	269,430	177,981	(91,449)	-33.94%
연립주택	147,497	72,455	(75,042)	-50.88%
아파트	5,409,672	2,717,471	(2,692,201)	-49.77%
근린생활시설	1,567,509	1,151,332	(416,177)	-26.55%
종교시설	121,350	68,451	(52,899)	-43.59%
의료시설	30,895	63,911	33,016	106.87%
교육연구시설	332,683	642,104	309,421	93.01%
업무시설	685,447	455,436	(230,011)	-33.56%
숙박시설	81,625	56,007	(25,618)	-31.38%
공장	857,229	891,187	33,958	3.96%
기타	1,204,226	872,890	(331,336)	-27.51%
계	11,815,999	7,735,033	(4,080,966)	-34.54%

市道別 全國圖書申告 概況(6月分)

시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	1,556	1,634	972,011	86	98	304,190	0	0	0	1,642	1,732	1,276,201
부산	944	1,110	653,353	146	173	22,594	41	50	33,288	1,131	1,333	709,235
대구	447	487	290,935	360	395	50,692	35	38	19,770	842	920	361,397
인천	246	468	821,834	28	28	11,708	17	17	4,460	291	513	838,002
광주	212	231	158,254	66	82	34,487	12	12	4,137	290	325	196,878
대전	281	293	147,569	49	51	18,311	78	84	11,412	408	428	177,292
경기	1,186	1,469	1,279,598	184	206	88,069	94	94	58,201	1,464	1,769	1,425,868
강원	494	560	213,931	112	123	32,712	12	12	1,620	618	695	248,263
충북	537	702	331,413	96	125	52,026	72	80	34,647	705	907	418,086
충남	327	346	361,223	105	106	27,109	24	24	7,400	456	476	395,732
전북	352	386	145,810	77	85	20,407	18	18	12,217	447	489	178,434
전남	362	435	210,366	87	97	24,052	28	33	10,113	477	565	244,531
경북	428	572	456,332	131	170	89,029	23	23	32,657	582	765	578,018
경남	784	938	504,959	185	257	102,490	46	46	17,770	1,015	1,241	625,219
제주	158	168	57,597	72	74	4,280	0	0	0	230	242	61,877
합계	8,314	9,799	6,605,185	1,784	2,070	882,156	500	531	247,692	10,598	12,400	7,735,033

市道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1~6月 合計分)

구분 시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12,107	12,576	6,758,544	581	631	600,653	1	1	0	12,689	13,208	7,359,197
부산	6,781	8,323	5,249,696	871	1,098	277,970	290	327	183,369	7,942	9,748	5,711,035
대구	2,727	3,006	1,913,512	1,531	1,676	188,606	240	252	127,996	4,498	4,934	2,230,114
인천	2,093	3,041	2,950,754	176	181	124,305	136	139	55,790	2,405	3,361	3,130,849
광주	1,524	1,767	1,273,866	375	439	137,993	75	75	22,296	1,974	2,281	1,434,155
대전	1,702	2,030	2,346,764	255	272	134,911	433	458	161,530	2,390	2,760	2,643,205
경기	9,073	12,555	13,610,472	1,071	1,236	479,509	556	556	377,083	10,700	14,347	14,467,064
강원	3,132	3,708	2,125,247	577	679	238,258	114	117	25,327	3,823	4,504	2,388,832
충북	3,271	3,986	1,570,302	672	865	249,381	412	433	73,508	4,355	5,284	1,893,191
충남	2,589	2,773	2,011,327	677	691	218,261	132	151	88,662	3,398	3,615	2,318,250
전북	2,326	2,676	1,811,521	466	536	151,813	138	138	59,916	2,930	3,350	2,023,250
전남	2,889	3,510	1,547,363	679	885	253,423	135	148	35,846	3,703	4,543	1,836,532
경북	4,111	4,985	3,135,018	969	1,169	506,514	175	170	197,651	5,255	6,324	3,839,183
경남	5,912	7,271	4,363,355	1,047	1,501	467,677	246	251	131,752	7,205	9,023	4,962,784
제주	1,134	1,331	546,292	446	448	32,358	0	0	0	1,580	1,779	578,650
합계	61,371	73,538	51,214,033	10,393	12,307	4,061,632	3,083	3,216	1,540,726	74,847	89,061	56,816,391

用途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6月分)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독주택	3,178	3,287	516,862	492	526	45,026	45	45	3,920	3,715	3,858	565,808
다세대주택	338	468	173,323	25	26	3,449	8	11	1,209	371	505	177,981
연립주택	48	60	72,327	1	1	111	1	1	17	50	62	72,455
아파트	124	519	2,656,961	13	22	14,414	3	8	46,096	140	549	2,717,471
근린생활시설	2,863	2,989	976,973	542	570	86,861	243	252	87,498	3,648	3,811	1,151,332
종교시설	88	115	50,178	47	57	16,984	8	8	1,289	143	180	68,451
의료시설	8	8	52,327	8	10	7,246	3	3	4,338	19	21	63,911
교육연구시설	93	115	257,857	92	117	367,902	29	31	16,345	214	263	642,104
업무시설	123	146	412,042	43	48	29,253	25	26	14,141	191	220	455,436
숙박시설	21	22	51,989	9	10	1,364	8	8	2,654	38	40	56,007
공장	429	716	665,495	228	325	189,526	52	58	36,166	709	1,099	891,187
기타	1,001	1,354	718,851	284	358	120,020	75	80	34,019	1,360	1,792	872,890
합계	8,314	9,799	6,605,185	1,784	2,070	882,156	500	531	247,692	10,598	12,400	7,735,033

用途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1~6月 合計分)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독주택	28,128	29,615	4,737,892	3,486	3,727	279,849	302	305	27,524	31,916	33,647	5,045,265
다세대주택	2,198	2,819	1,128,391	136	139	15,313	24	28	3,876	2,358	2,986	1,147,580
연립주택	295	426	595,607	18	18	4,348	4	4	386	317	448	600,341
아파트	966	5,600	25,400,696	66	119	95,849	22	33	79,570	1,054	5,752	25,576,115
근린생활시설	19,568	20,496	7,034,510	2,747	2,909	512,081	1,555	1,581	527,125	23,870	24,986	8,073,716
종교시설	429	524	311,663	268	305	112,865	40	40	14,641	737	869	439,169
의료시설	37	39	144,545	46	57	91,638	15	15	13,895	98	111	250,078
교육연구시설	346	454	999,254	302	380	739,211	169	185	135,851	817	1,019	1,874,316
업무시설	642	714	2,671,694	262	292	221,654	134	138	142,501	1,038	1,144	3,035,849
숙박시설	121	128	244,320	62	69	38,184	55	57	92,104	238	254	374,608
공장	2,586	4,417	3,907,230	1,281	2,098	1,144,413	320	365	247,726	4,187	6,880	5,299,369
기타	6,055	8,306	4,038,231	1,719	2,194	806,227	443	465	255,527	8,217	10,965	5,099,985
합계	61,371	73,538	51,214,033	10,393	12,307	4,061,632	3,083	3,216	1,540,726	74,847	89,061	56,816,391



제 7 회 이사회 개최

'92년도 제 7 회 이사회가 지난 5월 오운동회장의 주제로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건설기

술관리법 개정(안)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키로 하되 위원장에는 장기웅이사를 부위원장에는 강태석이사를 선임키로 하였으며, 나머지 위원의 선임은 회장이게 위임키로 협의하였다.



이사회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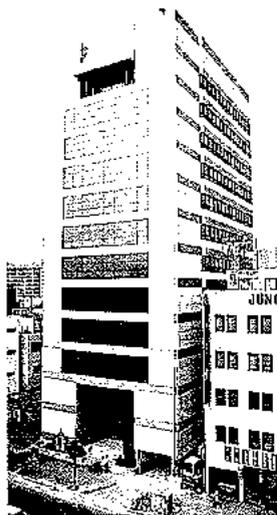
특별직장교육 실시

본 협회에서는 지난달 14일 대회의실에서 박경환 상근부회장의 주제로 경제와 물자절약에 관한 특별직장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협회를 비롯한 서울건축사회, 서울건축사 신용협동조합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날 교육에서 박경환 부회장은 날로 어

려워지고 있는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재도약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과, 특히 요즘 과다 전력소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에너지 절약에 대한 필요성과 에너지 고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활인의 자세를 역설하였다.

부산건축사회관 준공



부산건축사회관 전경

부산건축사회(회장 성훈섭)는 지난달 30일 부산건축사회관 2층 전시실에서 부산건축사회관 준공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본협회 오운동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 및 각 시·도건축사회장,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단체장 등 많은 건축관련 인사들이 참석하여 부산건축사회관 준공을 축하해 주었다.

부산건축사회관은 지하 2층, 지상 12층, 연면적 5,922.77㎡의 건물로서 부산건축사 회원이 오랜동안 정성을 다하여 모은 기

금으로 이룩한 거대한 결실로서 앞으로 향도 부산의 건축문화 발전에 굳건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회관 준공식과 때를 맞

추어 「부산건축사회 25년사」가 발간되어 부산건축의 역사는 물론, 우리나라 건축역사에 있어서 귀중한 사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건축사회관 준공 및 25년사 발간 기념회에서 축사를 하는 오운동 회장



대전건축사회 건축디자인 캠프교실 광경

건축디자인 캠프 교실 개최

대전건축사회(회장 송승호)에서는 지난 6월 30일(화)부터 7월 7일(화) 까지 8일간 대전대학교에서 시내 5개 대학에서 각 5명씩 총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92 제 4 차 건축디자인 캠프 교실을 개최하였다.

『'93EXPO를 위한 도심 관광 안내소』라는 실례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대전직할시건축사회와 대전지역에 있는 건축학과 교수들의 공동 노력으로 각 대학 건축학과 3, 4학년 학생중 건축

설계분야로 진출할 뜻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실제 상황하에서 공동으로 설계하는 연수의 기회를 갖게 함으로서, 건축실무와 교육을 긴밀하게 연계시켜 건축분야에서의 산학협동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 대학간의 설계 프로그램의 교환과 발전의 기회를 갖고자 실시되었으며, 이는 대전지역의 건축활동을 활성화 하는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전건축사회 회원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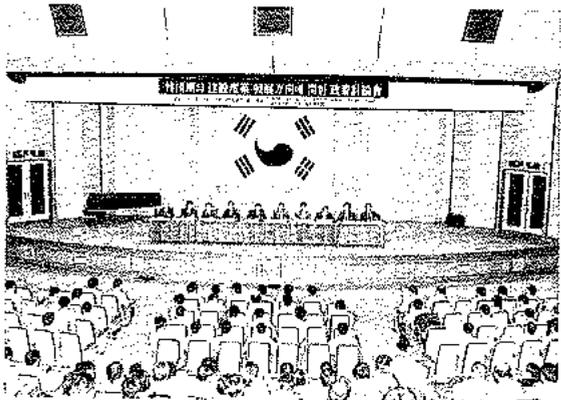
대전건축사회(회장 송승호)는 지난달 27일부터 6일간 대전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제3회 대전건축사 회원 작품전을 개최하였다.

본 협회 오운동회장을 비롯한 많은 건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원전에는 대전건축사회 소속회원 29명의 건축설계 작품 37점이 전시되어 건축관련인은 물론, 많은 건축전공 학생 및 일반 시민들이 관람하는 등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대전건축사회 회원작품전 테이블절단식 풍경



건설정책 토론회 전경

건설 정책 토론회 개최

국토개발연구원이 주최하고 건설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공사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이 후원한 「전환기의 건설산업 발전 방향에 관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7월 22일(수) 건설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모두 3분과로 나누어 열린 토론회가 벌어졌는데, 제1분과는 강·단기 건설 경기전망과 대응방안, 제2분과는 건설시장 개방 전망과 향후전략, 제3분과는 기술시대의 건설산업정책의 주제로 진행되어, 우무과 이라우드 협상에 의한 서비스 분

야의 국제 개방화에 따른 건설업의 국제 경쟁력 배양에 초점이 모아졌다.

한편, 이날 제3분과 토론회자로 참석한 본 협회 강대석 이사는 「종합건설업 면허제도는 건축과 건설을 혼동했다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으며, 시공, 감리체계는 각 전문분야로서 전산화되는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법적계상 있을 수 없다」고 명백한 반대 의견을 개진했으며, 「현행 법하에서도 전소시업 형태의 조인트 벤처 등 종합 건설업 면허제도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개정 건축법령 교육 실시

강원도건축사회(회장 홍영배)는 지난 7월 11일 춘천 YMCA 4층 강당에서 개정 건축법 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였다.

도내 22개 시·군 허가담당부서 공무원 및 각 회원사 건축사 보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

은 건축허가 절차의 간소화, 건축공사의 품질향상, 토지의 이용도 제고 등 현행 건축법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한 개정 건축법령에 따라 일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제주건축” 제2집 발간



“제주건축” 제2집 발간 기념회 풍경

제주도건축사회(회장 김창우)는 지난달 20일 제주도 주거건축의 향토성에 관한 연구성과물인 “제주건축” 제2집을 발간하였다.

제주건축의 독특한 지역성 내부의 요구와 외부의 영향으로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고 새로운 지역성을 모색하여 제주도의 현대주거 건축에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발간된 “제주건축” 제2집은 향후 제주 주거건축의 전반적인 위상을 정립하고 미래를 향한 이정표를 세우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23일에는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제주건축” 제2집 출간기념회를 가졌다.

본협회 오운동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각 시·도건축사회 회장 과 제주도 의회 장정연의장, 안길현 제주도 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각급기관장, 학계, 언론계, 건설업계 등 2백여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출간기념회에서 오운동회장

濟州建築



濟州建築 土書

“제주건축” 제2집은 이번 연구사업에 공헌한 제주도건축사회 김창우회장을 비롯한 임원에게 공로패와 기념패를 수여하는 등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한편, 제주건축사회는 본 책자의 보급을 위해 원하는 사람들로 부터 신청을 받아 제작, 실비로 제공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구입문의 : 제주건축사회 사무국이나 본 협회 출판사업부로 연락 ☎ 064 52 - 3284, 581 - 5711 ~ 4)



제1회 아카시아 건축상 제정

아시아 건축사협의회(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가 아시아 건축사들의 우수한 설계작품들을 선정, 공식 인정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건축문화 발전과 그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제정한 제1회 아카시아 건축상의 작품접수가 지난 7월 10일 마감되었다.

1992년 6월 30일 이전에 준공 검사를 필한 작품을 대상으로 한 이번 건축상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3개부문 총 9작품이 응모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아카시아 건축상은 8월중 예비심사를 거쳐 1차 선별하고 통과된 작품들의 자료를 보완, 최종심사 후 오는 10월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열린 제5회 아시아 건축사대회에서 각 부문별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출품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 주택부문

- 연남동 주택 - 김영섭(건축문화)
- 삼하리 주택 - 류춘수(이공)

▷ 공공부문

- 남천성당 - 강석원(그림가)
- 삼성체육관 - 김창수(삼우)
- 예술의 전당 - 김석철(아기반)
- 서귀포 파라다이스 호텔 - 김호(부림)
- 전주시청사 - 김기용(삼정)
- 강촌 휴게소 - 류춘수(이공)

▷ 산업부문

- 용인 보광물류 센터 - 한경호(예창)

건축 강좌 개설

민족 미학 연구소 문예 아카데미에서는 건축설계 사무소 등의 실무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론을 갖추고 방향 감각을 갖춘 작품을 창작하려는 본질적 고민속에 배움의 욕구가 크지만 충족시키지 못하고, 또한 기존 학교 교육에서는 상황인식이 부족하고, 실무에서는 기능 연마에 치우쳐 있어 산학 통합이 요구됨은 물론, 우수과이라운드 협상에 의한 개방 시대에 대비하여 서구의 복사논리에서 탈피하여 체계적인 자기 논리를 개발하고자, 건축역사와 이론을 통해 실천하고 죽은 역사나 현학적 이론이 아니라 현재 창작에 맞추어 한국건축의 현재 위치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 모색을 위해 이번 강좌를 다

음과 같이 개설한다.

- 강좌명 : 역사, 이론과 건축 실천
- 강사 : 김홍식(명지대), 이상해(성균관대), 감동욱(경기대), 김성균(서울시립대), 조건영(기산건축), 정기용(기용건축), 이상현(대우건축), 이희봉(중앙대, 강사대표)
- 수강대상 : 건축실무 관계자 및 대학원생
- 기간 : 92. 9. 19 ~ 92. 12. 5(매주 토요일 5시 ~ 7시, 12회)
- 접수마감 : 9월 15일
- 강좌장소 : 종로 낙원상가 뒤 문예아카데미
- 문의전화 : 325 - 6039, 743 - 5872 ~ 3

제 11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개최요강 안내

한국건축가협회(회장 장석웅)가 주최하는 "92 대한민국 건축대전"의 공모요강이 발표되었다.

일반 공모전과 회원공모전으로 나뉘어 개최되는 이 행사는 오는 12월 4일부터 20일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작품내용

응모작품은 건축 및 도시설계에 관한 창작품(구조, 실내디자인, 조경, 가구 등 건축도시설계에 관계되는 작품을 포함)이어야 함

▷ 작품규격

- 패널 - 가로 120cm × 세로 180cm 이내
- 모형 - 가로 120cm × 세로

120cm 이내
※도면에서는 주제와 개념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유리, 아크릴, 플라스틱, 바닐 등 반사재료의 사용은 절대 규함

▷ 심사결과 및 시상

- 심사결과 - 12월 4일(금)에 발표
- 대상 1점 - 상금 1백만원 및 해외연수비 3백만원 보조
- 우수상 3점(한국건축가협회 회장상,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대한건축학회 회장상 각 1점) - 상금 각 1백만원
- 특선(약간명) - 상금 각 50만원
- 입선 - 다수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축가협회 ☎ 744 - 8050, 3725로 문의 바람

제 29회 세계조경가협회 한국총회

- 8. 30 ~ 9. 4일 서울 · 경주서 개최 -

인구의 증가와 함께 물질문명의 발달로 파괴되어 가는 현세에 있어서 자연과 생태계의 보호는 어느 일개인, 일개국 몇몇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사람들의 이해와 협력이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조경가협회(IFLA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andscape Architects)에서는 이러한 전지에서 각국간의 학문적, 기술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세계의 조경·환경 관련 단체의 역할을 증시여겨 범 세계적으로 회원 상호간의 조경·환경 분야의 학문적, 기술적 정보의 교류를 원활히 하고자 1948년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설립되었다. 제 29차 IFLA 한국총회는 (총회준비위

원장 오휘영 : 한양대 환경대학원 교수)총회가 1992년 8월 31일(월)에서 9월 4일(금)에 걸쳐 우리나라의 서울(롯데월드호텔)과 경주(힐튼호텔)에서 개최된다.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대회는 「전통과 창조」라는 주제로 세계 35개국에서 조경전문가 1000여명이 모여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며 총회행사의 일환으로 세계각국 학생들의 학생작품전, 국내·외 조경관련 업체들의 조경소재 및 장비전, 기타, 민속예술제, 국제학생 챔버리 등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 문의 : '92 IFLA 한국총회 조직위원회 (Tel : 961 - 2760 ~ 2)

■ 정정합니다.

지난 6월호 게재되었던 건축설계 저작권 제고(44p)의 필자가尹泰燮으로 잘못게게 되었기에尹泰燮으로 정정함

니다. 욕구를 주신 필자에게 사과드립니다.

좋은 천장재의 조건은?



- 첫째, 소리를 잘 흡수하고,
- 둘째, 열을 차단시켜 주고,
- 셋째, 가벼워야 하며,
- 넷째, 불에 타지 않고,
- 다섯째, 미관에 좋고,
- 여섯째, 시공과 사후관리가 편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는 최선의 천장재는 유리섬유로 만든 한글라스 "하니스톤"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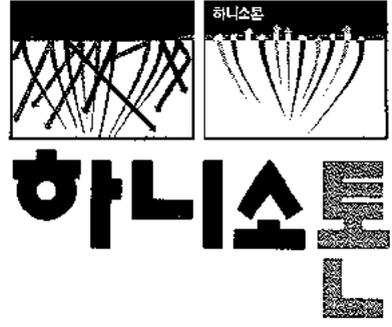
이렇게 좋습니다.

- 실내소음의 거의 2/3를 흡수하는 하니스톤은 흡음력이 뛰어나, 안락한 공간을 유지시켜 줍니다.
- 최신의 TEL 공법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를 응용한 하니스톤은 열전도율이 낮아 단열효과가 높습니다.
- 다른 천장재보다 훨씬 가벼워 대형건물 시공에 적합하며 색상이 다양한 기호에 따라 선택교체 할 수 있고 시공후 파손될 염려가 없어 반영구적입니다.
- T-Bar공법으로 시공되는 하니스톤은 시공 및 보수기 간편하며 인장력이 뛰어나 시공후 뒤틀리거나 처지지 않고 수축분리 현상이 없습니다.
- 천연규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드는 하니스톤은 인체에 해가 없으며 물 분해에 타지않아 화재사에도 질식의 위험이 없습니다.
- 조명반사율이 70%가 되어 밝은 실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쓰여지면 좋습니다.

- 시공이 간편하며 보수가 편리한 하니스톤은 사무실이나 교실, 복도, 식당 같은 소음 발생이 심한 곳과 회의실, 교회, 강당, 체육관 같은 방음이나 음향이 중요시 되는 곳에 쓰여지면 좋습니다.

일단 저희 본사나 영업소에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거나 손으로 만져 보십시오.
본사(서울) / 785-0311 (하니스톤 영업부)
대전영업소 / 621-4538 • 광주영업소 525-9711
대구영업소 / 425-1241 • 부산영업소 462-0311



우리아면 "한국우려" 한국우려하면 "한국우려" 한국우려하면 "한국우려" 한국우려하면 "한국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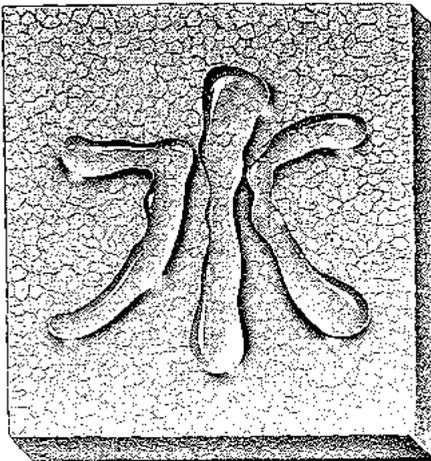




건축용 단열재—

청색스치로폴이 좋은 3가지 이유!

단열재의 생명인 내수성이 가장 뛰어난 스킨로폴—
건축용 단열재를 선택하실 때에는 청색을 확인하십시오!



물에 강하다!

단열재가 물을 흡수하면 단열효과가 없어집니다. 좋은 단열재는 물을 흡수하지 않고 오래두어도 벽체나 시공부위가 아래로 처지는 현상이 생기지 않으므로 건물을 헐고 재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킨로폴은 물을 흡수하지 않는 내수성이 뛰어난 반영구적 단열재입니다. 한남화학 청색스치로폴은 습기나 물의 차단성이 특히 우수한 건축용 단열재입니다.

2 압축강도가 뛰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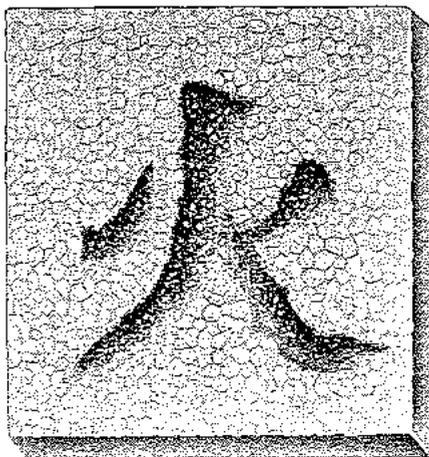
한남화학의 청색스치로폴은 만져보면 단단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강도가 우수하며 압축강도는 설계 적재하중보다 60배 정도 높은 단열재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의 바닥이나 옥상 등 높은 적재하중이 요구되는 부분의 단열시공에 안심하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절단도 용이하여 가공 및 시공도 아주 편리합니다.



불이 스스로 꺼진다!

국내 최초로 UL 난연시험에 합격하여 UL94HF-1 등급으로 그 성능을 인증받은 한남화학 청색스치로폴— 불이 붙었다가도 화원만 제거해 주면 3초 이내에 자기 스스로 불이 꺼지는 자기소화성 단열재입니다. (KSM3808 규격)

'89
품질관리대상 수상



청색 스킨로폴 원료제조원

한남화학주식회사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43 ☎ 7676-114